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552-01

한중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제 출 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한중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도 채 부연구위원



## 요 약

---

### 제1장 서 론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6차산업 정책의 지속적인 성과 확산을 위하여, 현장의 6차산업화 실태와 연계하여 새롭게 추진 중인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 구축의 추진 방향에 대한 고찰 필요
  - 기존 6차산업 지원 정책은 개별 경영체의 다각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 6차산업화 정책 성과를 농촌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단위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규모의 경영체 집적과 경영체 간 가치사슬의 형성, 민간 주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각 요소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접근이 그동안 6차산업화 정책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적합한 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역 범위에서 특화 품목의 6차산업화를 통해 농가 및 관련 경제활동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 중국 정부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농촌 활성화의 중요 수단으로 채택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만큼, 지역단위 6차

**산업화 정책 추진방향 모색을 위해 양국의 사례를 살펴봄.**

- 양국의 우수 사례들을 검토하고 정책 과정에서의 성공요인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중국의 농업산업화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분석의 바탕에서 6차산업화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도구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 6차산업화 정책 및 관련 현황·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의 추진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양국의 정책 및 사례에 대한 단순 비교에 머물지 않고,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 고려해야 과제를 제시하고, 6차산업을 매개로 한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둠.
  - 구체적으로 연구를 통해 다음 과제들을 논의함.
    - 첫째,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과 농가 경영체의 6차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발전 모델 정립
    - 둘째, 한국과 중국의 6차산업화 정책 및 사례를 검토하여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에 필요한 시사점 및 과제를 도출
-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6차산업화 정책 추진 동향과 경영체 여건 등의 지역단위 6차산업 관련 여건을 진단하고,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시**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 추진 현황 분석
    - 농가의 6차산업 참여 실태 등 지역 단위 6차산업화 추진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한 내용 정리

-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특화 품목 중심으로 지역 내 6차산업화의 확산과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이 나타나는 사례 지역 조사를 통해 6차산업의 지역 내 확산 요인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 도출
- 중국의 지역단위 6차산업 관련 정책 및 주요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다양한 공간 범위에서 나타나는 6차산업 가치사슬 확산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지역단위 6차산업 정책 방향 및 세부 과제 제시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 정책의 추진 방향 제시
  - 기존 지역단위 6차산업 정책 및 주요 사업의 개선 과제 제시

#### □ 연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중국 연구진과의 공동연구 수행

- 중국 6차산업화 추진 현황에 대한 연구 수행
  - 중국 연구자들이 직접 중국 농업 산업화 정책 및 농촌 관광 활성화 정책과 주요 사례에 대한 연구를 수행
- 한중 연구자 간 공동세미나 개최
  - 연구 결과 도출에 앞서 양국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과제 도출 등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연구 내용에 반영

## 제2장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 배경 및 내용

### 1. 6차산업화 정책 추진 경과

#### □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6차산업화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4.6)되어 체계적인 6차산업화 정책 수립·추진의 근거가 됨.
  -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법률에서는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2015년도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 6차산업화를 통해 농촌지역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두고 6차산업화 정책 추진기반의 개선, 6차산업화 우수 경영체 육성, 지역단위 6차산업화 지원체계의 구축,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함.

#### □ 6차산업정책은 기존 농외소득 정책과의 차별성을 지님

- 농가 계층을 고려한 소득 기반 확충을 추진
  - 6차산업화 정책에서는 규모화·전문화된 농업 경영체 육성과 병행하여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의 소득기반 확충을 추진
- 농촌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인력 유입을 지향
  - 6차산업화 정책은 귀농·귀촌, 청년 창농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로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적극 유도하는 등 농업·농촌의 선순환 생태계를 견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 변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구분됨.

- 지역 농업에 기초한 혁신체계 구축으로 자생적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향
  - 지역혁신체계 개념을 적용하여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 자생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향
  - 농업·농촌 자원 및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하며,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 창출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 □ 기존 6차산업화 관련 지원 사업 추진 실태 통해 살펴본 과제

- 사업의 취지나 목표 설정 수단의 채택 등에 있어서는 지역혁신체계 및 클러스터 관련 논의의 구성요소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정책·사업 실행 단계에서 문제점들이 노정됨.
-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에 기반하여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유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특정 제품·품목 육성에 한정
- 농가, 경영체 등 개별 주체의 다각화 활동에 초점 (집합적 활동 부재)
  - 현재의 6차산업화 육성 정책은 개별 경영체의 융복합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주체들의 집합적 활동에 기반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만들어 내는데 한계
- 6차산업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추진체계 부재

## 2. 지역 단위 6차산업화 개념 및 내용

#### □ 6차산업화 정책의 성과 확산을 통한 농촌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존 개별 경영체 지원에서 지역 품목 중심의 6차산업화 지원으로 정책 기조 전환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 개념 정의
  -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관광·수출 등에 종사하는 경영체들이 네트워크 구성, 가치사슬 효율화 등을 통해 집합적 활동에 기반한 새

### 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단위 시스템'

- 6차산업 가치사슬 확산을 통해 지역농업 생산력 확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농업 및 지역산업 전반의 가치 창출 능력 확대 등 지역농업의 산업화 추진
- 기존 6차산업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6차산업화 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음.

표 1. 개별 경영체 중심의 6차산업화 정책 및 지역 단위 6차산업화 정책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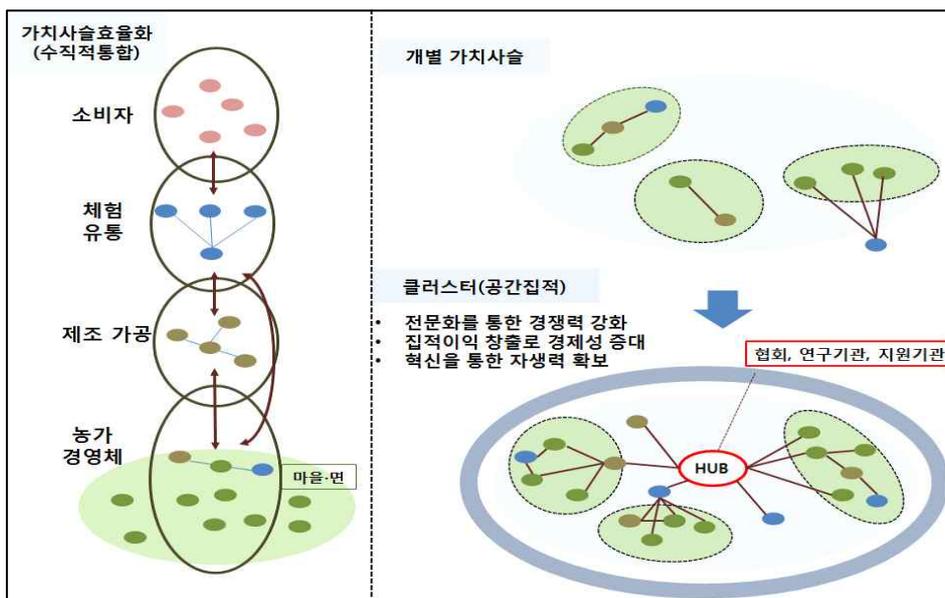
	개별 주체의 6차산업화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
주요주체	개별 경영체	(개별 경영체) + 지원기관, 지자체
핵심 생산활동	농업·농촌 자원의 융복합화	(융복합활동) + 주체 간 집합적 생산 활동
지원 대상	개별 경영체의 생산활동	(개별경영체) + 가치사슬 연계· 지역농산업 네트워크
생산주체 집적	무관	집적 이익 추구
공간범위	무관	다층적 공간범위 (마을 - 읍·면 - 시·군)
목표	6차산업화 가치사슬 확산	6차산업 중심의 자생적 농촌산업 생태계 구축

####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 지향 -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

-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융복합 활동을 조직하여 시너지 창출 - **Unifying Theme**
  - 무분별한 제품·프로그램 난립을 지양하고, (마을 혹은 시·군) 지역의 특화자원이나 전략 품목 등을 활용하여 시장 경쟁력 있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융복합 생산활동 연계

- 경영체, 관련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네트워킹 활성화(민간 컨소시엄 활성화)
  - 개별 가치사슬이나 거래관계에서 발전하여, 6차산업화 관련 농가·경영체와 가공·유통 업체 등이 협력하고 공동 학습이나 제품개발등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지역 단위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의 농업을 기반으로 품목별 특징에 따른 다양한 지역 단위 시스템 구축으로 집적 이익 창출
  - 시·군 단위에서 주요 품목의 6차산업화 지원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기존 농촌산업 인프라·자원과 연계한 정책 추진
  - 농촌산업 육성 정책 및 사업을 통해 지역에 기 구축된 지자체연구소, 클러스터 사업단 등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6차산업화의 지역 단위 확산 및 성과 창출 경로로 활용

그림 1. 지역단위 6차산업 정책의 추진 방향



## 제3장 지역단위 6차산업화 여건 진단

### 1. 6차산업화 정책의 추진 성과

#### □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 경제 활력 제고

- 6차산업화는 농가의 소득이나 고용 창출 등에 있어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정도채 외 2016).
  - 6차산업 참여 주체는 기존 농업 생산을 넘는 수익율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2).

표 2. 6차산업 참여 농가의 매출, 소득, 수익률

(단위: 십억)

구분	매출	경영비	소득						수익률 (소득/ 매출)
			전체 (b+c+d)	농업 생산 (b+c)	출하(b)	직거래/ 직판장(c)	6차산업화 농업 생산 외 6차산업화(d)		
							(c+d)		
전체	4,332	1,745	2,093	1,582	749	833	512	1,344	54.5
농산물 가공	3,471	1,461	1,941	1,731	788	943	210	1,153	57.1
직판장/ 직매장	88	1,852	1,987	1,856	405	1,450	131	1,582	51.8
농가식당	28	3,430	2,992	615	236	379	2,377	2,756	46.6
농가민박	75	1,560	1,965	822	360	462	1,142	1,604	55.7
체험/관광	131	2,995	3,876	2,222	823	1,399	1,654	3,053	56.4

자료: 심재현·정도채, (2016), 농업전망 2016 : 농촌발전, 융복합산업으로 도약하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대부분의 농업법인에서 6차산업화 활동을 통해서 상당한 비중의 매출액 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
  - 6차산업화에 참여하는 농업법인의 매출액에서 6차산업화 관련 매출액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농림업이 정체되는 것과는 달리, 농업 경영체가 창출하는 6차산업의 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6차산업화의 부가가치는 2011년 대비 2013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법인수의 증가와 함께 각 분야(가공, 유통, 음식·관광)별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는 증가

#### □ 창업, 귀농·귀촌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 창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
- 귀농·귀촌 인구의 6차산업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농촌에 새롭게 정착하는 인구의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 있어 6차산업화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표 3. 6차산업 참여 경영주 귀농/귀촌 여부 및 귀농/귀촌 시기

단위 : %, 명

구 분			귀농/귀촌합	귀농/귀촌 시기								
				평균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년 이상
사업 분야	농식품 가공	4,768	25.8	11.9년	8.2	11.2	27.1	19.5	16.0	8.8	5.1	4.1
	로컬푸드 직매장	941	39.3	12.4년	6.7	8.4	29.3	20.4	14.2	11.5	5.9	3.6
	체험관광	1,656	44.7	12.8년	5.5	9.6	24.2	21.7	16.9	12.4	5.9	3.7
	농가식당	492	46.5	14.0년	5.4	8.5	20.2	21.5	17.9	13.5	6.3	6.7

자료: 농촌진흥청(2015). 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 □ 과소화, 공동화 위기에 직면한 농촌 공동체 유지에 기여

- 인구 고령화, 과소화에 따른 공동화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 마을에서, 6차산업화와 관련한 경제 다각화 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가 높은 마을일수록

인구 감소 추세가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됨(성주인 외 2016)

- 6차산업화 관련 경제 다각화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마을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다각화 활동 참여 비율이 낮은 마을에 비해 인구 감소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남.
- 농촌 마을의 농업 외 소득 기회 확보 여부가 지역 공동체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

#### □ 농촌관광의 활성화에 기여

##### ○ 농촌관광 공급 및 수요 확대

- 휴양단지 23개소, 관광농원 545개소, 농어촌민박 24,246개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848개소 등 전국에 농촌관광 공급기반을 마련
- 2014년 국내관광 총 비용이 14,420,159백만 원으로 추정되는바, 동 비중(8.4%)을 단순 적용하면 우리 국민들이 농촌관광에 지출하는 총 비용 규모는 연간 약 1조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2. 6차산업화 현황 진단

#### □ 6차산업 참여 농가의 경우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만, 농가 전반의 소득 개선 효과는 낮은 수준

- 농가 소득 중 경제 다각화 활동과 관련 있는 겸업소득의 경우 최근 3년간 성장세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의 전반적인 상승추세에도 불구하고 6차산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가의 겸업소득의 경우 증가세가 전체 농가소득 증가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 농가소득에서 겸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0.1%에서 2015년 9.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6차산업화 정책 추진 결과 농가의 2015년 농산물 제조가공 소득은 2013년 대비 18.7% 증가함.

표 4. 농가 겸업 소득 변화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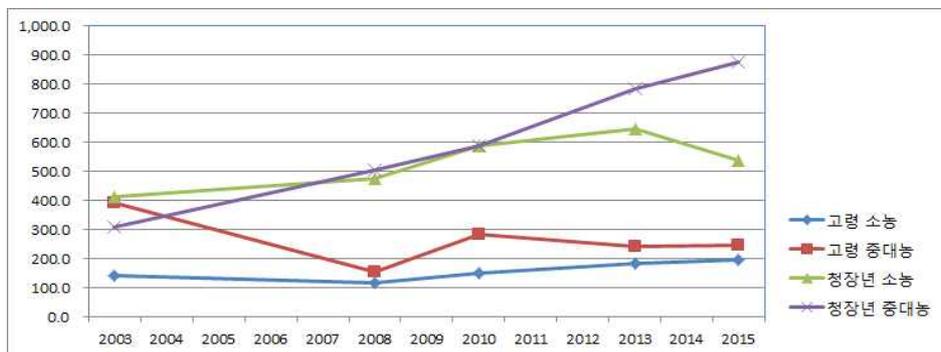
	2013	2014	2015
농가소득	34,618,612	36,493,912	38,321,392
농업소득	12,704,006	13,005,703	14,016,979
겸업소득	3,510,494	3,547,173	3,529,360
농산물 제조가공 소득	786,786	962,032	967,985
겸업소득비율	10.14%	9.72%	9.21%

자료 : 통계청, 각년도 농가경제조사

□ 농가소득 분석 결과, 6차산업화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는 일부 경영체, 농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 경영주 연령 및 표준 영농규모(2ha)<sup>1</sup>를 적용하여 농가 유형을 청장년 중대농, 청장년 소농, 고령 중대농, 고령 소농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소득 변화를 살펴봄.
- 청장년 중대농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양호한 집단의 경우 6차산업 정책의 추진에 따른 겸업소득 상승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영 여건이 양호한 경영체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6차산업화에 참여하기 어려운 농가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중요함.

그림 2. 농가유형별 연평균 겸업소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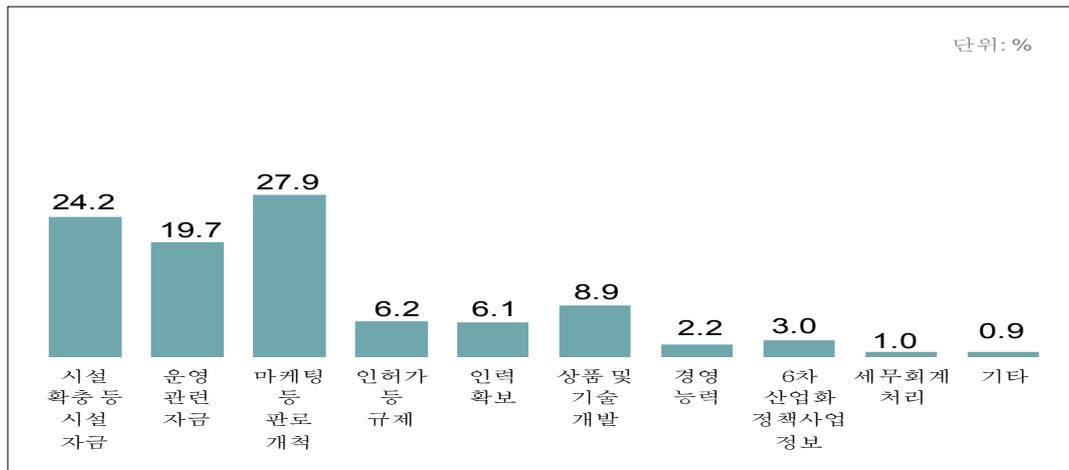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농가경제조사 재구성

1 김미복 외 2016,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의 농가 유형 구분 참고

□ 6차산업화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별 경영체들의 경우 성장의 한계에 직면

- 6차산업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체들의 경우 경영체 유형에 따라 성장에 정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 업체들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일부 선도 업체를 제외한 여러 업체들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거나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임.
- 6차산업 참여 경영체의 영세한 경영구조에 기인하여, 일반적인 경영활동과 관련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6차산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자료: 농촌진흥청(2015),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보고서

□ 6차산업 제품이 특정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는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침.

- 기존 6차산업 지원 정책의 경우 참여 법인 및 농가 확대를 통해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였지만, 관련 제품 구매 의향이 높지 않고, 6차산업화 관련 세분화된 시장도 발달되지 않은 상황

- 6차산업화는 대부분 식용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 내 전통문화, 생태 환경, 지질, 경관 등 다양한 무형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 개발이 미흡
- 6차산업화 관련 제품이 소비자에게 차별성 있는 제품으로 인식되지 못하여 독자적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제품 품질 관리, 명성 유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하여 다양한 틈새시장 공략에 한계를 지님.

### 3. 지역단위 6차산업화 관련 현황 진단

#### 지역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6차산업화 지원체계 구축 미흡

- 도별 6차산업화 지원센터가 활동 중이지만, 현장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광역 단위로 설치된 6차산업화 지원센터의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시·군 단위 이하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등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 또한 6차산업 가치사슬이 지역에 뿌리내림으로써 지역 내 주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만큼, 지역별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현재 지역 지원기관은 농식품부의 업무 매뉴얼에 따라 정책 및 사업의 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의 6차산업 전략 수립과 같은 기획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지자체)별로 6차산업 관련 역량이나 관심도 상이한 까닭에 지역 간 정책 추진의 편차가 큼

□ 지역단위 6차산업 정책 관련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6차산업화 지구 사업 또한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선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음.

-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내 농가의 6차산업 참여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일부 시·군의 경우 6차산업 참여 농가의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차산업 참여 농가의 집적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단위의 지원체계 부재로 인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나타남.
- 6차산업화 지구 간에도 성장 경로 및 발전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지역의 차이를 고려한 6차산업화 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은 부재
  - 지역 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시도는 있지만, 유형별 지원 사업 추진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사업 설계는 이루어지지 못함.

#### 4. 소결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 과제

□ 농가, 경영체 등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모색

- 개별 주체들의 다각화에 더해 6차산업 가치사슬 상의 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농가, 경영체의 6차산업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
- 농촌 인구 고령화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6차산업을 매개로 다양한 계층의 농촌 산업 가치사슬 편입을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

□ 지역 전략산업으로서 6차산업의 위상을 강화하고 산업적 관점에서 지역 6차산업 고도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

- 새로운 혁신 추구 및 타 분야와의 적극적인 융복합을 추진
  - 타 분야와의 융복합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역 내 주체 간의 집합적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 소비 트렌드를 고려한 다양한 상품의 개발 및 인증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이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의 중요한 과제

- 기존 6차산업의 경우 대부분 식품 중심의 상품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존 품목과 관련하여 새롭게 6차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것이 지역 공통의 현실임.
- 비식용자원의 6차산업화 및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기초한 농촌 관광 활성화의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함.

□ 지역 내 새로운 상품·서비스 가치사슬 확산 등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지역 단위 지원체계의 개선

- 중앙정부-지자체-지원기관 간 체계적·효율적인 지역단위 6차산업 정책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됨.
- 지역 단위 추진체계 하에서 지역별로 상이한 발전경로와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의 수립 필요

표 5. 지역단위 6차산업 추진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문제점 및 원인	개선방향
지역 내 네트워크 활성화(농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거래관계에 고착(lock-i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li> <li>• 인증자 협의회 등 경영체 조직의 내실 있는 운영</li> </ul>
이종 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집합적 활동,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부문별 분절 된 거래관계</li> <li>• 경제활동 주체 외 지원기관과의 상시적 협력에 어려움</li> </ul>	
다양한 제품·서비스 가치사슬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부존 자원의 부족</li> <li>•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개별 경영체들의 역량 한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의 실제 흐름에 기초한 가치사슬 분석 실시 및 결과의 활용</li> <li>• 역사, 문화, 생물, 경관 등 타 정책 영역에서 조사된 자원 가치 재평가 및 활용 방안 모색</li> </ul>
지역단위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시·군) 단위의 열악한 지원 체계</li> <li>• 지역 지원기관의 역할 및 기능 한계</li> <li>• 지역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의 기획 기능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 지자체 - 지역 지원기관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체계 구축 필요(ex 산업부-KIAT- 테크노파크)</li> </ul>

자료 : 6차산업화 지원센터 및 6차산업화 지구 인터뷰 내용 정리

## 제4장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 및 시사점

### 1. 자원 융복합화를 통한 농촌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사례

#### 1.1 농촌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

##### □ 덴마크 North Jutland - 공예산업 육성(The Taste of Craft)

- 덴마크 북부지역으로 Jutland의 북쪽 지역과 Kattegat, Skagerrak, 북해를 끼고 있으며, 덴마크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임
- 지역 내 농민과 수공예 장인 그리고 예술가 등의 협력에 기반하여 공예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가공산업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킨 사례
  - ‘Visit North Jutland’라는 지역 내 관광 진흥 기관에서 2000~2006년 Leader+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기존 사업 지역을 확대시켜 덴마크 북쪽 전 지역에 있는 5개의 LAG(LAG Vendsyssel, LAG Brønderslev, LAG Thy-Mors, LAG Jammerbugt/Vesthimmerland, LAG Himmerland)가 공동으로 협력한 사례
- 주요 사업 내용
  - 사업은 5개 LAG지역의 발전전략의 목적과 내용을 반영하여 관광업 강화, 식품산업 발전,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진행
  - 지역 내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의 관광 매력 지수를 높이며 여름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기획
  - 지역 내 주체들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하고 기존 관광상품의 고도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추진
- 농민과 장인 및 기능보유자 간 다양한 협력(거래관계) 네트워크 형성
  - 5개의 LAG가 속하는 지역에 농민과 장인 및 기능보유자 네트워크가 40여 개 구성되었으며, 사업 지역 내에 2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일 관광객의 수도 200명 정도 증가함.

## □ 중국 계림 - 문화·경관 자원을 활용한 공연(인상유삼저)

- 지역의 전통, 문화적 자산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집합적 활동에 기반하여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한 사례
  - 지역의 설화와 지역 내 경관을 바탕으로 공연상품의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 ‘인상유삼저(印象劉三姐)’ 주요 내용
  - 중국 유명 영화감독인 장예모 감독이 기획하고 연출한 실경수상 뮤지컬
  - 중국 계림지역에 오랫동안 구전되던 유삼저(유씨 집안의 셋째 딸)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로, 계림의 수려한 이강(漓江)과 주변 12개 산봉우리를 무대와 배경으로 공연
-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뮤지컬 공연에 동원되는 인원이 700명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족과 묘족 등의 소수민족 주민

## 1.2. 생태, 지질, 경관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

### □ 일본 아카자와(赤澤) - 산림관광·의료 융복합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 주요 사업 내용
  - ‘산림욕’에 대한 건강증진의 과학적인 검증과 체류형 관광 촉진
  - 산림테라피 프로젝트 추진(2004)
  - 방문객 창구역할은 관광협회에서 현지가이드는 NPO 기소편백나무숲회원이 그리고 의료는 현립기소병원이 각각 담당하여 지역 산림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 일본 내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위해 효과가 높은 편백 기반으로 아름다운 산림과 더불어 목공제품, 다양한 천연 편백 제품 등을 개발·판매를 실시
  - 특히 중장년층 타깃 외국인 관광객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기존 방문 체류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수립

○ 지역 단위의 주체 간 협력 노력

- 산림 관련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사슬의 창출
- 나가노 현립 기소병원의 경우 산림테라피 관련 R&D를 수행함으로써 산림테라피의 의료적 가치에 대해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꾀함
- 나가노 현립 기소병원의 단기종합건강진단을 연계한 ‘산림테라피종합검진’에서는 의사가 건강상태에 최적의 산림산책을 처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산림테라피 가이드가 관광객들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

2. 지역단위 6차산업화 관련 정책 사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 추진 배경

- 주민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체 창업 및 육성을 통한 공동체 의식 제고 및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
- 관광두레 육성조직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관광두레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광객 만족, 관광산업 수익, 관광자원 보호, 지역 주민의 4개 요소를 고려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구

○ 주요 사업 내용

- 관광두레PD가 지역 현장에서 주민수요의 발굴과 조직화, 주민상담 창구, 정보 제공, 정부지원사업의 연계와 같은 주민주도 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해 현장밀착 지원 역할을 수행
- 행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에서 중개, 조정 등의 중간지원 역할 수행
- 지역 내 다양한 체험, 식음, 기념품, 여행지 안내 등의 관광사업체를 육성, 사업체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 소득 및 일자리 창출

## □ 환경부 지역단위 생태관광 지원협력체계 구축 사업

### ○ 주요 사업 내용

- 지자체·마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 협의체가 생태관광 인력 양성에  
에서부터 기획·운영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지역주민 중심의 생태  
관광개발 사업으로 2012년부터 진행
- 해설사, 생태관광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생태관광을 위한 인적 기반을  
구성하고, 사회적기업 등의 자문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홍보 등의  
생태관광을 추진
- 지역민인 해설사의 해설을 통해 탐방객에게 자연에 대한 이해 및 자연보  
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수준 높은 생태관광 서비스를 제공
- 지역에 직접 연결되는 생태관광 소득구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  
조하여 침체된 지역의 활성화 기대
- 안성, 인제, 남해 지역 간 교류를 통하여 각 지역에서 개발한 체험프로그  
램을 다른 시군에서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지역 간 교류 네트워크 구축

## 3. 요약 및 시사점

### □ 지역 주체 간 집합적 활동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개별 경영체의 역량만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제품·서  
비스의 생산을 위하여 지역 내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집합적 활동을 수행하  
는 것이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제품·서비스의 지향점
- 개별 경영체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지역 산업 전반의 역량 및 협력적인 분  
위기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

### □ 민간 주체와 공공 부문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창출

-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는 민간주체로 지역단위에서 새로운 제

- 품·서비스의 개발·판매 과정에서 민간 주체가 핵심 주체로 부각
- 주요 사례에서 공공부문과 민간 주체들 간의 효과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농촌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과정이 나타남.

□ 혁신을 통한 핵심 콘텐츠의 고도화

- 농촌관광의 경우 기존의 획일화된 콘텐츠 대신 농촌의 문화적 지역성을 뜻하는 농촌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와, 그리고 IT나 디지털과 같은 신기술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가 개발되는 사례가 증가.
- 농업 뿐만 아니라 타 부문 주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지역 단위의 개방형 혁신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책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한 중요한 과제임.

□ 사업 간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 강조

- 6차산업화의 경우 농업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른 산업 부문과의 융복합이 강조되는 까닭에 필연적으로 여러 정책 영역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다양한 정책 부문 간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 지역의 한정된 자원과 다양한 외부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제5장 중국의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 현황

### 1. 중국의 6차산업 정책 동향

#### □ 노동 간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중국의 농업산업화 정책 추진

- 영세한 농업구조와 시장개방의 압력에 따른 소득 격차 문제를 극복하고자 중국에서는 ‘농업의 산업화경영’을 추진
  -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마케팅 능력이 높은 기업의 주도하에 영세농가를 조직화하여 생산·가공·판매를 일체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하고 시장 교섭력을 증진하여 농공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최이석 2013).

#### □ ‘농업 산업화’ 정책은 농업·농촌의 1, 2, 3차 산업 융합 발전 정책으로 발전

- 2015년 12월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농업·농촌의 산업 간 융합 발전 추진을 천명
  - 농촌에서 6차산업화를 추진하여 휴한농업, 농촌 전자 상거래 등 새로운 경영방식을 발전시키고 농업 구조조정과 농가의 소득 증대를 꾀함.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입지여건 및 산업구조에 따라 다양한 융합 방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펼침.
  - 농업과 관광, 노후 생활 등과 연계 발전하고 농촌 전자 상거래, 농산물 맞춤형 제작 등 ‘네트워크+’ 새로운 영업 방식을 개발

#### □ 중국 6차산업 관련 정책 및 지원 사업 추진 특징

- 농촌 자원의 융복합 활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 하에 다양한 시범 사업을 추진
  - 농촌관광, 가공산업, 농업산업화 시범기지 등 주요 시범사례들은 시장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

- 생산활동의 규모화를 통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 창출에 역점을 둠
  - 대규모 생산기능과 지역 농가와의 공존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농가 참여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의미가 있음.

## 2. 중국 6차산업화 정책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전략

### □ 지역 농업과 연계한 농산물 가공업 발전 관련 주요 과제

- 농촌의 1차산업 정비를 통해 산업융합의 기반 마련
  - 먼저 친환경 순환 농업의 발전을 추진함. 농업과 목축업을 결합하고, 재배와 양식, 가공을 일체화하며, 1~3차 산업을 융합하는 현대 농업의 체계를 확립함.
  - 둘째, 농산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농산품 가공업을 선두로 하여 농업 생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함. 우수 농산품 산지에서는 과학연구부처를 조직해 농산품 가공의 특성을 연구하고, 농산품 가공업체와 새로운 농업경영업체가 직접투자, 주식투자 경영, 장기계약 체결 등 방식을 통해 표준과 전문성, 규모를 갖춘 원료 생산기지를 건설
  - 셋째, 농업 발전 시설을 개선함. 수준 높은 농지를 마련하고, 농산품 가공 전용의 원료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함. 농촌의 2·3차 산업을 현성(縣城), 주요 소도시 및 산업단지 등에 집중시켜, 해당 소도시를 농산품 가공과 무역, 물류 등 전문 특색을 가진 집적지로 육성
- 농산품 가공업 발전을 통해 산업융합의 파급효과 제고
  - 주식 가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영양, 안전, 맛, 건강, 편리성, 실용성을 겸비한 전통 면과 쌀, 감자 및 고구마류, 잡곡, 반조리 식품 등 다양한 주식제품을 연구개발, 생산하며, 건강과 보양, 양로, 관광 등 산업과 복용합하고, 기능성 제품이나 특정 집단이 소비하는 관련 제품을 개발함.

- 농촌 3차 산업과 연계 발전을 통한 지역 산업의 구조 고도화 추진
  - 다양한 전문 유통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발함. 농산지의 마케팅 체계를 정비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사(農社), 농업기업, 농업학교, 농군 등 형식으로 직거래를 확대하며, 새로운 형태의 농업 기업이 도시 혹은 교외에 신선한 농산품을 직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장려
  - 전자상거래 등 신경영/ 신모델을 적극 도입함.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와이브로 등 신세대 정보기술을 농산물 생산/경영/가공/유통/서비스 영역에 도입하고 응용해, 농업과 인터넷이 심도 깊게 융합되도록 함.
  - 다양한 형식의 수익 연결 메커니즘을 구축함. 계약농업을 혁신하고, 호혜평등한 기초 위에서 기업이 농민/ 농가 농장/ 농민조합과 계약을 맺고 대출을 제공하며, 농가가 농업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함.

### 3. 중국 농촌관광의 개념 및 발전단계

#### □ 중국 농촌관광산업의 시장 동향 및 농촌 관광의 성장

-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수준 제고에 힘입어 중국은 현재 점차적으로 ‘레저시대’로 진입
  - 휴양관광, 특히 향촌관광, 도시 교외관광, 로드 트립 등의 방식이 도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관광방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지의 교외지역엔 수많은 농업생태원이 설립됨. 이러한 관광농업생태원의 대부분이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쾌적한 여건을 제공하여 관광, 여행뿐 아니라 농사일 체험, 휴양이 동시에 가능하고, 여기에 민속적인 색채를 가미함으로써 중국 특색의 관광형 농업 모델이 형성됨.
- 농촌관광에 참여하는 농가 주체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객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15년 전국 레저농업 및 농촌관광 관광객 수는 22억 명을 돌파하였으

며 매출액은 4,440억 위안 이상, 관련 종사자 790만 명, 이 중 농민이 630만 명으로 550만 농가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2016년 ‘중국 농촌관광 발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농촌관광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농촌관광은 도시에 대응되는 또 다른 공간 개념으로 새로운 대형 산업으로 발전 중이며 농촌여행관광, 농촌레저휴양을 통한 조 단위의 기업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농촌관광의 주요 모델은 크게 농업관광원, 테마농업원, 농업과학기술 시범원, 생태농업리조트, 민속문화박람회로 나눌 수 있음(표 6).

표 6. 중국 농촌관광의 주요 모델

명칭	특징	대표 사례
농업 관광원	관광과 농업을 결합, 농업관광, 이색채소밭, 꽃밭, 삼림공원 등을 포함. 농업 재배는 물론 관광객들에게 전원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 줌.	우시타이후화훼원 (无錫太湖花卉園)
테마 농업원	테마파크의 운영 컨셉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농산물 생산장소, 농산물 소비장소, 레저 놀이공원을 결합하여 전원의 풍경감상, 생산 활동 참여, 녹색 식품 시식 및 구매, 휴식과 엔터테인먼트, 체험농업이 가능함.	칭다오라오산다원생태원 (青島嶗山茶苑生態園)
농업테크 시범원	농업, 테크놀로지, 관광을 결합, 연구, 생산, 거래, 교육, 여행을 망라하는 농업단지로 교육과 관광의 기능을 두루 갖춘.	서우광채소하이테크시범원 (壽光蔬菜高科技示范園)
생태농업 리조트	자연의 아름다움을 갖춘 시골의 풍경과 깨끗한 환경의 녹색 공간을 활용하여 만든 종합휴식농업원. 관광, 과일 따기, 농업체험 뿐 아니라 농민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음. 숙박, 휴양 가능	베이징시에다오녹색생태리조트 (北京蟹島綠色生態度假村)엔타이핑라이싱루이정원 (烟台蓬萊興瑞莊園)
민속문화 박람회	농경문화, 민족문화, 민속문화를 기반으로 농경 전시, 절기별 민속·축제행사 등	웨이팡양가부민간예술대관원 (濰坊楊家埠民間藝術大觀園)

## □ 중국 농촌관광의 최신동향 및 정책지원

- 2016년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는 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관광레저, 교육문화, 의료 등과 결합하여 관광농업, 체험농업, 창업농업 등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추진함.
  - ‘전국 농업 현대화 계획(2016-2020)’에서는 보조금을 활용하여 시장 원칙에 따라 산업투자기금을 설립하여 농촌관광에 투자를 진행하여 레저농업 개발 사업을 통해 농업 취업률 제고 필요성을 강조함.
  - 2016년 중국 농업부의 ‘레저농업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에서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향촌을 만드는 것을 취지로 소비 활력 자극, 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농민 빈곤 탈피를 위해 농경문화, 아름다운 전원, 친환경 농업, 전통 촌락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관리 강화, 업무 시스템 혁신, 발전 정책 최적화, 공공 서비스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
  - 레저농업의 ‘인터넷+2’를 대폭 지원하여 각 지역에서 추진한 인터넷+ 농산물가공업과 레저농업의 우수 방식과 사례를 연구하여 우수 모델을 보급하고,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여 인터넷+를 접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함.

## □ 중국 농촌관광 발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안

- 정부의 노력과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으로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전반적인 수준이 낮음. 운영 규모가 영세하고, 프로그램도 단조로움. 차별화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경제효과를 창출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많음.
  - 현재 관광농업의 전체 규모가 크지 않아 독립적이고 온전한 산업 체계를

2 2015년 7월 중국 국무원은 ‘인터넷 플러스 적극 추진에 관한 행동 지도 의견’을 발표하였음. 네트워크, 스마트, 서비스화를 촉진하고 융합 인터넷 플러스 산업 생태계 완비를 목표로 함. 11개의 중점분야(창업 혁신, 제조, 농업, 에너지, 금융, 민생, 물류, 전자 상거래, 교통, 생태 환경, 인공 지능)를 선정하여 분야별 발전 목표와 구체적 행동 계획을 수립함. 농업 부문의 경우 전자 상거래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음(LG CNS 홈페이지, <http://blog.lgcns.com/974>).

구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함. 현재 중국 대부분 지역의 관광농업은 단순 관광 단계에 머물러 있음. 농업 경관과 농산품 모두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수기와 비수기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 중국 농촌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안

- 레저관광농업은 신중한 논의, 체계적인 기획, 과학적 발전 계획 제정 하에서 발전을 도모해야 함.
  -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고, 지리적인 요소도 다르며, 산업의 특색 또한 다름. 따라서 계획 수립 시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대책 수립
  - 모방, 맹목적인 고급화, 무조건 크고 세련되게 짓거나 농촌을 훼손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며, 상대적인 집중, 규모있는 개발을 지향해야 함.
- 레저관광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을 기초로, 농민을 주체로, 농촌을 특징으로 해야 하며, 농업의 발전, 농민 수익의 증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
- 레저관광농업 발전에 있어 서비스는 핵심이고 안전은 필수임. 따라서 내부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며, 관광객의 신체 건강 및 생명 안전을 보장해야 함.
  - 업계 관리 표준 및 서비스 관리 방법을 수립하여 완벽한 품질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레저관광농업은 과학발전관에 입각하고,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동반되어야 하는 현대농업이며, 지속적인 혁신과 연구개발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과 산업 고도화를 꾀하여야 함.
- 홍보를 강화하여 레저관광농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함. 각종 매체를 통해 대표적 사례를 적시에 보도하여 레저관광농업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 브랜드 전략을 통해 레저관광농업의 질서 있고, 신속하며,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에 부합되어야만 관광농업의 자연, 전통, 레저, 녹색의 특징을 제대로 살려 농업, 관광, 교육, 생태, 종합의 ‘다섯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관광농업 발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제6장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 방향 및 정책과제

### 1.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의의 및 추진 방향

- 지역단위 6차산업화는 농촌경제 및 지역 활성화라는 6차산업화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존 6차산업화 정책을 개선·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 개별 경영체의 다각화에 초점을 둔 초기 6차산업화 정책 추진만으로는 농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고령농의 참여 확대 및 소득 제고를 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농가들은 독자적인 6차산업화 추진보다는 선도 경영체와의 거래관계를 통해 6차산업화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단위 6차산업화 관련 중국 및 다수의 성공 사례에서 지역 농가들의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6차산업화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 경제 전반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출현하는 것을 확인함.
    - 보다 많은 농가·경영체의 참여와, 생산활동 성장에 따른 부가가치가 지역 내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지역 단위 6차산업화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지역 컨소시엄사업, 6차산업화 지구 등의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역단위 6차산업화는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6차산업화의 고도화를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원을 발굴·육성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 해야 함.
  - 6차산업화의 외연 확장이라는 정책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6차산업 관련 생산활동은 여전히 영세한 구조를 띠며, 기존 주체들이 진출하기 용이한 제한된 상품·서비스 영역으로 한정됨.
    - 6차산업 제품의 경우 장류, 음료 등 전통적인 농식품 가공의 비중이 높

게 나타나며, 농촌 관광 또한 마을 중심의 사업추진에 따라 다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임.

- 사례를 통해, 농업·농촌이 보유한 유·무형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기존 제품·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상품과 부가가치가 창출됨을 확인했으며, 이는 개별 경영체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며, 지역 단위의 집합적 활동을 통해 가능함.
  - 문화, 생태, 경관 등 농업·농촌이 가진 다양한 자원을 6차산업화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됨.

#### □ 지역 단위 6차산업화 정책은 농촌산업 육성 관련 지역 농정 추진체계의 개선을 도모

- 6차산업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단위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나, 효과적인 지원 수단 및 사업의 부족으로 인해 지원기관의 역할이나 기능이 제한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농업 및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주체들의 6차산업화 생산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 단위 추진체계의 정비와 기존 지역단위 사업의 개선이 필요함.

## 2.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 방향에 따른 정책 과제

### 2.1. 6차산업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 □ 지역 내 협업과 분업 체계 구축을 통해 6차산업화의 외연 확장 및 보다 많은 농가·경영체의 참여를 유도

- 지역 내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각자의 역량과 특성에 맞는 형태로 6차산업 참여 기회를 보장
  - 가공센터 등을 확대하여 영세 농가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역량 있는 귀농·귀촌인 및 청년 인력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6차산업 활동

XXX

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강화

- 주체 간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의 확대 필요

□ 지역 내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사슬의 발현을 유도

- 기존 고착된 거래관계에서는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주체 간 협력에 기반한 집합적 활동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지금까지 대부분의 네트워킹 지원 사업은 거래관계 형성을 전제로 추진되었으나, 보다 넓은 범위에서 지역 내 주체들 간 자유로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농가·경영체 네트워크 활동을 6차산업 중심으로 재편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을 통해 추진해오고 있는 품목이나 지역별 농가·경영체들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6차산업과 연계
  -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존 품목, 농산물 가공 관련 농업인 협의체에 대하여 6차산업 관련 교육 및 주체 간 연계·협력의 기회로 활용
- 역량이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경영체 협의체에 대하여 기존 지역단위 6차산업화 지원사업(지역 컨소시엄 사업)을 통한 지원 검토

\* 경남 우리농산물가공연구회 (경남도 농업기술원)

- 농업인의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의 일환으로 2009년 설립
- 정기적인 역량 강화 교육 및 자발적인 분기별 교육을 통해 농산물 가공·제조 관련 기술 교육, 정보 교류 및 품질 제고를 위한 학습 등의 활동을 수행
- 회원 사업장 간 순회교육을 통해 주체 간 사업 유형을 파악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의 발굴 기회로 활용

## 2.2. 지역의 6차산업 성장단계 및 경로를 고려한 지원 사업의 차별화

□ 지역, 품목마다 6차산업 성장 경로는 상이하며, 이를 고려한 차별적인 지원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6차산업화의 성장 경로는 특화 품목 관련 다각화 활동의 확산, 선도 경영체의 가치사슬 확산, 혁신활동을 통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등장 등으로 구분가능하며, 각각의 경로에 맞는 단계별 육성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지역별 상정 경로와 발전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

표 7. 지역 6차산업 성장 경로에 따른 단계별 지원 방향

	특화품목의 6차산업화	선도 경영체의 가치사슬 확산	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화 품목(1차) 중심</li> <li>• 초기 단계에서는 2·3차 경쟁력이 낮으며 6차산업 선도 경영체 부족</li> <li>• 2·3차 제품의 유통, 판매 역량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 경영체가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확산</li> <li>• 초기 지역 주체 연계 수준 낮음, 특화품목 형에 비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마케팅을 통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 브랜드 중심의 6차산업화</li> <li>• 특화도 및 주요 경영체의 시장 경쟁력 낮음</li> </ul>	
지원 방향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차산업 우수 경영체 발굴·육성((예비)인증경영체)</li> <li>• 마을단위 경영체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체의 지역 농가와 연계 강화(농협 지원 등)</li> <li>• 인프라 구축(가공, 판매시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화된 제품·서비스(킬러 콘텐츠)개발</li> <li>• 연구개발, 마케팅 지원</li> </ul>
	성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6차산업 제품 판매망 구축 지원 등 유통·판매 확대</li> <li>• 선도 경영체 육성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단위 마케팅, 홍보 강화</li> <li>•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다각화를 통한 지역 내 농가, 경영체들의 가치사슬 참여 확대</li> </ul>
성숙기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차산업화 지구 등을 통해 성장 거점 확보</li> <li>• 지역 내 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주체 간 자발적 거래 관계 형성 및 신제품 개발 등의 혁신 활동 활성화</li> <li>• 특화 품목과 연계한 새로운 가치사슬 개발 ex) 순창 장류 + 건강·장수(힐링) 식품·관광</li> </ul>			

□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전략산업 육성 사업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효율적인 지원 정책의 추진 필요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식품클러스터사업 등 과거 유사 사업을 통해 지역에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된 경우, 집적된 생산주체 및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꾀하는 가운데 6차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에 기 구축된 6차산업 관련 인프라의 변용·재활용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
  - 기존 사업에 의해 구축된 사업단, 협의체 등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6차산업 추진체계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
- 특히 기존 사업에 의해 형성된 지역의 민간 주체들이 주도하는 네트워크에 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지향해야 함.
  - 농가 및 사업체 역량, 자본 등이 미비한 농촌 여건상 초창기에 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지역 내 민간 주체들이 6차산업화 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때,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2.3.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혁신 역량 강화

□ 지역단위 6차산업 정책은 개별 농가, 사업체 단위 경쟁력만이 아니라,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

- 개별 품목이나 특정 부문에 대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지역 전반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육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형성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신제품 개발, 기능성 검증 등 기존 방식의 R&D와 더불어 홍보, 마케팅 등 6차산업 추진 체계의 혁신을 위한 서비스 R&D를 지속적으로 추진

## □ 지역 내·외 주체 간 협력을 통한 6차산업관련 전·후방 지원 체계 구축

- 농촌 지역의 열악한 역량을 감안하여 지역 내·외부 혁신주체에 대하여 6차산업에 대한 환기가 필요
  - 농촌 지역 내 다양한 혁신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6차산업화 지구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 6차산업 관련 혁신활동 수행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지자체 연구소 등 지역 내 혁신기관 중심으로 R&D를 추진하고, 6차산업 관련 지역 혁신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
- 농촌 지역 내 문화·예술, 생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와 연계를 통해 6차산업의 지원 방안을 모색
  - 농촌 지역의 문화·예술·경관 자원을 활용한 농촌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 지역의 문화·예술 주체들을 활용한 지역 6차산업 브랜드·제품 디자인
- 식량 품목 중심의 6차산업 추진 방식에서 발전하여,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에 기반한 산업 육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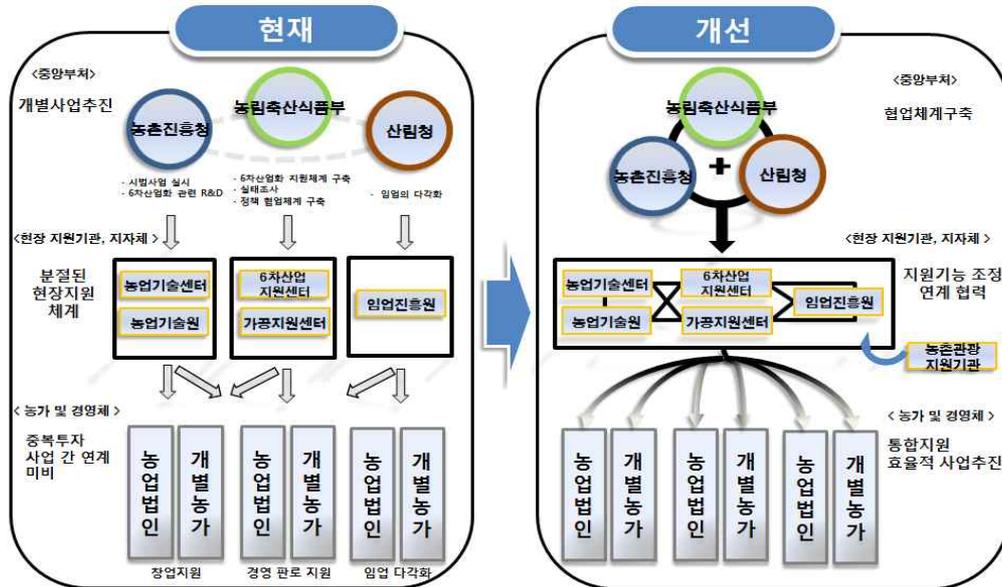
### ※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의 장수(長壽)산업 육성

- 순창군은 장류 가공을 중심으로 6차산업화 지구로 선정되어, 관련 생산활동이 집적하고 있으며, 최근 장류와 더불어 지역 연구소를 중심으로 장수 관련 융복합 활동이 성장하고 있음.
  - 건강장수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장류 및 지역 특화품목의 기능성 규명 및 건강 식단, 식품 꾸러미 개발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후 준비 교육, 건강관리 관련 바른 먹거리 교육, 식문화 체험, 주변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명상·치유 체험 등 ‘건강·장수’를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들을 개발·운영

## 2.4. 지역 수요 맞춤형 6차산업 지원 체계 구축

- 6차산업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에서 6차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현재 지원체계 하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움.
  - 광역지자체별로 운영 중에 있는 6차산업화 지원센터의 경우 현재 중앙부처의 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에 치중하고 있음.
    - 제한된 인력·자원으로 인해 지역 경영체 지원이나 지역의 6차산업화 전략 수립 등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6차산업화 지원센터의 지역단위 6차산업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 보강 등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의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검토
  
- 중장기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농촌산업 및 6차산업 관련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관리하는 추진 주체를 설립하고, 중앙 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에 따라 추진체계가 달라지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산업 관련 지역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어려움.
  -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농촌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농촌산업의 지역별 전략 기획 및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
    - 가칭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사업단’을 두고,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분절화되어 있는 지역 6차산업화 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이 요구됨.

그림 4. 6차산업 지역 추진체계 개선 방안





## 차 례

---

###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6
3. 연구 방법 ..... 8

### 제2장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 추진 배경 및 내용

1. 6차산업화 정책 추진 경과 ..... 11
2. 지역단위 6차산업화 개념 및 내용 ..... 39

### 제3장 지역단위 6차산업화 관련 여건 진단

1. 6차산업화 정책의 추진 성과 ..... 43
2. 6차산업화 현황 진단 ..... 51
3. 지역단위 6차산업화 관련 현황 진단 ..... 64
4. 소결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 과제 ..... 71

### 제4장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 및 시사점

1. 자원 융복합화를 통한 농촌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사례 ..... 77
2. 지역단위 6차산업화 관련 정책 사례 ..... 96
3. 요약 및 시사점 ..... 102

### 제5장 중국의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 현황

1. 중국의 6차산업 정책 동향 ..... 105
2. 중국 6차산업화 정책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전략 ..... 117
3. 중국 농촌관광의 개념 및 발전단계 ..... 151

**제6장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 방향 및 정책 과제**

1.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의의 및 추진 방향 .....	209
2.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 방향에 따른 정책 과제 .....	211
부록1. 지역단위 6차산업 관련 신규 사업 제안 .....	225
부록2. 농가경제조사 시도별 겸업소득 현황 .....	230
참고 문헌 .....	233

## 표 차례

---

### 제1장

표 1- 1. 6차산업 관계자 인터뷰 .....	9
표 1- 2. 중국연구진과의 공동연구 수행 .....	9

### 제2장

표 2- 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품목별 선정 현황 .....	12
표 2- 2.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 현황 .....	15
표 2- 3.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	24
표 2- 4. 정책사업을 통한 농촌관광마을 조성 현황(2011년 기준) .....	26
표 2- 5. 농촌관광 관련 현행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요 내용 .....	27
표 2- 6. 개별 경영체 중심의 6차산업화 정책 및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의 구분 .....	40

### 제3장

표 3- 1. 6차산업 참여 농가의 매출, 소득, 수익률 .....	44
표 3- 2. 사업유형별 농업법인 매출액 비중 변화 .....	44
표 3- 3. 농업법인의 농업 생산 외 활동 부가가치 증가 .....	45
표 3- 4. 6차산업화 관련 연간 고용자 수 - 사업분야별 분석 .....	46
표 3- 5. 6차산업화 연도별 투자분야 비중 차이 .....	46
표 3- 6.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2015년 창업 경영체 수 .....	48
표 3- 7. 6차산업 참여 경영주 귀농/귀촌 여부 및 귀농/귀촌 시기 .....	48
표 3- 8. 귀농·귀촌 가구와 원주민의 경제 다각화 활동 현황 비교 .....	49

표 3- 9. 농업 의존도에 따른 마을 인구 변화 .....	49
표 3-10. 농가 겸업 소득 변화 .....	52
표 3-11. 농가유형 구조 및 농가 소득 변화 .....	53
표 3-12. 고령 소농 유형의 소득구조 변화 .....	54
표 3-13. 고령 중대농 유형의 소득구조 변화 .....	54
표 3-14. 청장년 소농 유형의 소득구조 변화 .....	55
표 3-15. 청장년 중대농 유형의 소득구조 변화 .....	55
표 3-16.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따른 업체 구분 .....	57
표 3-17. 6차산업화 지구 조성 현황 .....	68
표 3-18. 2014년도 조성 6차산업화 지구의 매출 성과 .....	68
표 3-19.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 대상 지역의 유형 .....	71
표 3-20. 농가들의 6차산업 참여 방식 선호 .....	72
표 3-21. 지역단위 6차산업 추진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76

## 제5장

표 5- 1. 중국 농촌 1·2·3차 산업 융합 발전의 주요지표 별 목표 .....	123
표 5- 2. 농산물가공업 발전현황 및 2020년 목표치 예상 .....	140
표 5- 3. 전국 359개 농촌관광 시범단지 분포 지역 .....	156
표 5- 4. 중국 농촌관광의 주요 모델 .....	161
표 5- 5. 베이징 시의 농촌관광 유형 .....	165
표 5- 7. 상하이 시의 농촌관광 유형 및 내용 .....	167

## 제6장

표 6- 1. 지역 6차산업 성장 경로에 따른 단계별 지원 방향 .....	217
---	-----

## 그림 차례

---

### 제1장

그림 1-	1-	1.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의 형성, 성장 과정 .....	2
그림 1-	2-	2. 연구 흐름도 .....	10

### 제2장

그림 2-	1-	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변천과정 .....	12
그림 2-	2-	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개념도 .....	13
그림 2-	3-	3. 농촌관광 등급판정과 홍보 .....	30
그림 2-	4-	4.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의 지역 내 가치사슬 형성 및 확산 ..	40
그림 2-	5-	5. 지역단위 6차산업 정책의 추진 방향 .....	42

### 제3장

그림 3-	1-	1. 6차산업화 관련 매출액 추이 .....	47
그림 3-	2-	2. 농촌관광 총량 변화 .....	51
그림 3-	3-	3. 농가유형별 연평균 겸업소득의 변화 .....	56
그림 3-	4-	4. 6차산업 법인당 평균 매출액 변화 추이 .....	57
그림 3-	5-	5. 6차산업 참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주 연령 분포 .....	58
그림 3-	6-	6. 6차산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	58
그림 3-	7-	7. 식품별 연평균 소비 증감률(1982~2015) .....	60
그림 3-	8-	8. 6차산업화 경영체의 농식품 가공매출액 상위 품목 .....	61
그림 3-	9-	9. 식품소비트렌드 텍스트 분석(좌: 출현빈도, 우: 텍스트 경향) ..	61
그림 3-	10-	10. 농식품 소비 세부정책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	62
그림 3-	11-	11. 6차산업화 추진 시 가장 어려움 점 .....	63

그림 3-12. 6차산업화 지구 조성 사업 구상도 .....	67
그림 3-13. 6차산업화 지구 시·군 및 비지정 시·군의 6차산업 참여 농가 증감 비교 .....	69

#### 제4장

그림 4- 1. Leonidio 지역‘Melitzazz’축제 .....	79
그림 4- 2. 덴마크 North Jutland 지역의 공예중심 관광 프로그램 .....	80
그림 4- 3. 중국 계림 실경수상 뮤지컬 인상유삼저 .....	82
그림 4- 4. Geoline 프로그램 .....	84
그림 4- 5. 아카자와 산림 테라피 자연휴양림 및 체험시설 .....	87
그림 4- 6. 나가노현 기소병원의 건강 상담 및 테라피 체험 방문객 .....	88
그림 4- 7. 기타카타시 한자(미스터리) 거리 .....	91
그림 4- 8. 마니와시 바이오매스 관광 참여자 수 변화 .....	92
그림 4- 9 바이오매스 투어 홈페이지 .....	93
그림 4-10. 우마자촌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 .....	94
그림 4-11. 우마지촌 관광 프로그램 및 방문객 증가 추이 .....	95
그림 4-12. 관광두레 사업 추진 체계 .....	97
그림 4-13. 남해 생태 관광협의회 운영(좌:홈페이지, 우: 네트워크 포럼 운영) ...	101

#### 제5장

그림 5- 1. 중국의 산업화경영의 발전방향과 유형 .....	106
그림 5- 2. 중국 관광농업 경영체 유형별 비중 및 지역별 분포(2014년) ·	113
그림 5- 3. 레저농업 및 향촌관광 관광객 수 추이 .....	158
그림 5- 4. 레저농업 및 향촌관광 매출액 추이 .....	158
그림 5- 5. 중국 농촌관광 유형별 비율 .....	162

**제6장**

그림 6- 1. 네트워크를 통한 세라고원의 6차산업 활성화 .....	212
그림 6- 2. 산업단지 미니클러스터 프로세스 .....	214
그림 6- 3. 영광 찰보리 6차산업화 지구 사업추진단 .....	219
그림 6- 4.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좌), 체험 프로그램(우) .....	222
그림 6- 5. 6차산업 지역 추진체계 개선 방안 .....	223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 6차산업화 정책 추진 결과 농촌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성과가 나타남.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개방, 고령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영세한 농업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6차산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6차산업화 정책 추진 결과 농산물 가공, 직판, 농촌관광과 같은 융복합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와 법인이 늘어나는 등 6차산업의 외연 성장을 이루었음.

\* 농업 생산 외 경제활동 참여 농업법인 :

(’10) 5,249개(전체 농업법인의 62.8%) → (’14) 10,582(전체 농업법인의 70.3%)

- 또한 농업 생산 외(농산물 가공, 유통, 음식·관광 서비스업 등) 영역에서 농업 경영체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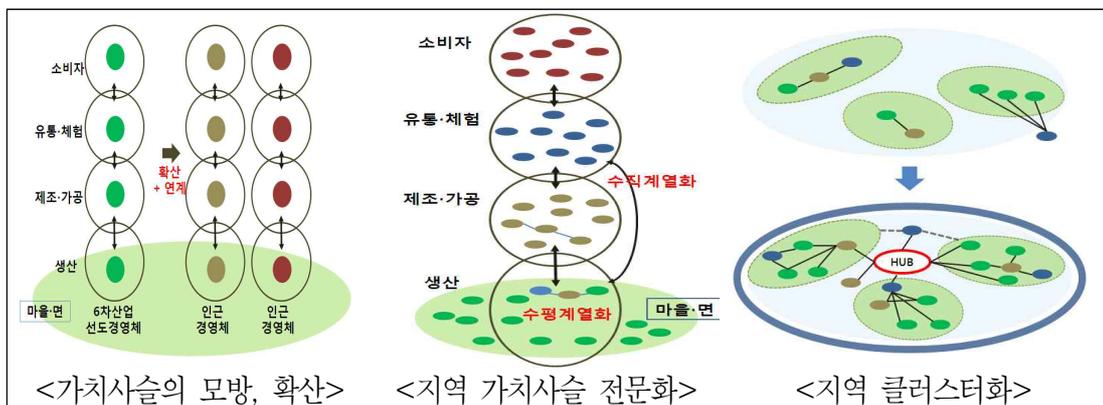
\* 농업 법인의 농업 생산 외 부가가치 : (’11) 약 1조 2,689억원 → (’13) 1조 7,559억

\* 농업 생산 외 부가가치 증가율(’11~’13) 38.4% (농림업 부가가치 증가율 2.5%)

□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하여, 6차산업화 지원 정책의 방향이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으로 전환

- 기존 6차산업 지원 정책은 개별 경영체의 생산 다각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 6차산업화 정책 성과를 농촌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관광·수출 등에 종사하는 경영체들이 네트워크 구성, 가치사슬 효율화 등을 통해 집합적 활동에 기반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단위 시스템’으로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정의
  -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가진 지역 특화 품목 중심의 6차산업 활성화를 지향
  - 지역단위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규모의 경영체 집적과 경영체 간 가치사슬의 형성, 민간 주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각 요소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

그림 1-1.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의 형성, 성장 과정



□ **현장의 6차산업화 실태와 연계하여 새롭게 추진 중인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 구축의 추진 방향에 대한 고찰 필요**

○ 6차산업화 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여러 개선 과제들도 제기됨 (성주인 외 2015).

- 6차산업화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은 높으나 구체적인 참여 방법이나 지역 내 관련 경제활동 주체들과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한 실정임.
- 6차산업화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판매망 확보, 차별화된 제품 생산,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의 시장·기술 정보 부족 등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함.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이 6차산업화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적합한 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 과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역 범위에서 특화 품목의 6차산업화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의 농가 및 생산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 **중국 정부의 경우 일찍이 농업산업화를 농정의 핵심 기치로 내걸고, 농업 중심의 연계산업 가치사슬 확산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농업산업화가 중국 농정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리우 징 2016)

- 영세소농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에서 농촌 산업의 규모화를 추진
- 농업산업화 정책은 농산물 재배에서 가공, 유통, 소비 등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 단계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통합되는 생산 계열화를 꾀하고, 동시에 생산요소의 집적을 통한 규모화와 각 부문의 전문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최근 중국 정부는 공식 문건 및 계획을 통해 농업 관련 융복합산업 육성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전형진 2016).
  - 2015년 중국 정부의 중앙1호문건에서 ‘1차·2차·3차 산업의 융합’ 발전 추진 및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원 개발 촉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농업 부문의 서비스 산업 발전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인프라 건설을 촉구하였음.
  - 2016년 중앙1호문건에서도 농촌지역에서 ‘1차·2차·3차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농업 가치사슬의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의 향상을 촉구하는 내용이 제시됨.
  
- 중국의 농업 산업화 정책은 우리나라 6차산업화 정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특히 지역 차원의 성공적인 6차산업화 시범 모델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 중국 정부가 6차산업화를 정책 용어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농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있는 ‘1차·2차·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의 6차산업화와 유사한 개념임(전형진 2016).
    -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 산업화는 농업과 관광·교육·문화·건강·복지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과 ‘생산·가공·판매 과정의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농산업 가치사슬의 확대,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대, 다양한 농업 경영체의 참여 촉진, 통합을 위한 지역단위 지원서비스와 추진체계 구축 등을 포함.
    - 중국 정부는 ‘1차·2차·3차 산업의 융합 발전’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동시에 중국 정부는 6차산업화 추진 과정에서 농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의 도입을 꾀하고 있음.
    - 계약 재배의 촉진, 재산권 행사를 통한 농민의 지분 참여 장려, 농업 의

자본의 농민에 대한 책임 강화, 농민의 리스크 예방체계 완비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별 세부 추진 내용을 정책에 포함하고 있음.

□ **한중 양국 모두 6차산업화를 농정의 핵심 의제로 채택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만큼,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 추진방향 모색을 위해 양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음.**

- 한중 양국 모두 6차산업화를 농정의 중요한 의제로 채택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과 성공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음.
- 양국의 우수 사례들을 검토하고 정책 과정에서의 성공요인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중국의 농업산업화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분석의 바탕에서 6차산업화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도구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음.

□ **6차산업과 관련하여 국내 경영체들의 가치사슬 확장 관점에서 중국의 사례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유용함.**

- 정부는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6차산업화 제품의 수출이나 외국인 농촌관광객의 유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중국 시장은 6차산업화 수출의 주요 시장이며, 중국 관광객들은 농촌관광의 새로운 수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중국 정부 또한 농업 관련 융복합산업의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장의 확대 등 정책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중국 6차산업화 관련 시장이나 소비자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그와 연계하여 국내 6차산업 경영체들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중국 6차산업화 관련 현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1)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 6차산업화 정책 및 관련 현황·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의 추진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양국의 정책 및 사례에 대한 단순 비교에 머물지 않고,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 고려해야 과제를 제시하고, 6차산업을 매개로 한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둠.
- 구체적으로 연구를 통해 다음 과제들을 논의함.
  - 첫째,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과 농가 경영체의 6차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발전 모델 정립
  - 둘째, 한국과 중국의 6차산업화 정책 및 사례를 검토하여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에 필요한 시사점 및 과제를 도출

### (2) 주요 연구 내용

#### □ 6차산업 현황 진단 및 경영체 생산활동 특성 분석

- 6차산업화 정책 추진 동향 검토
  - 6차산업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정책 및 지원 사업 검토
  - 한국 및 중국의 6차산업화, 농촌산업 육성 정책 사례 검토
- 6차산업화 현황 진단
  - 개별 경영체 중심의 6차산업화 정책 개선과제

## □ 지역단위 6차산업 여건 진단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 추진 현황 분석
  - 농가의 6차산업 참여 실태 등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한 내용 정리
  - 6차산업화 지구 등 6차산업 정책 중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에 해당하는 사업 및 추진 체계 현황 및 과제 정리

## □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에 해당하는 사례 지역 조사
  - 특화 품목 중심으로 지역 내 6차산업화의 확산과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이 나타나는 사례 지역을 선정
  - 사례 조사를 통해 6차산업의 지역 내 확산 요인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 도출
- 중국의 성공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중국의 6차산업화 관련 정책 동향을 정리
  - 다양한 공간 범위에서 나타나는 6차산업 가치사슬 확산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

## □ 지역단위 6차산업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 제시

- 지역단위 6차산업 정책 방향 및 세부 과제 제시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 정책의 추진 방향 제시
  - 기존 지역단위 6차산업 정책 및 주요 사업의 개선 과제 제시

### 3. 연구 방법

#### □ 지역단위 6차산업화 현황 분석

##### ○ 문헌연구

- 6차산업화 및 농촌산업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지역단위 6차산업 관련 법제도 및 국내외 유관 정책 사례 정리

##### ○ 통계자료 분석

- 농가 소득 및 경영체의 경제활동 실태 등 농촌경제의 현황 분석
- 6차산업화와 관련한 기존의 통계자료를 재분석하여, 6차산업화 관련 생산활동의 변화를 파악하고 시사점 도출

####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사례 조사

##### ○ 국내 사례 조사

- 6차산업화 지구 등 지역단위 6차산업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현 정책 추진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 도출

##### ○ 해외 우수 사례 조사

- 6차산업화와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입각하여 자원의 융복합화를 통해 농촌 산업의 육성 및 농촌 개발 전략을 추진하였던, 일본 및 유럽의 주요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우수 사례로부터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 과제 도출을 위한 정책 수요 조사

##### ○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 인터뷰 조사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 추진과 관련한 정책 수요 발굴

- 지역별 6차산업화 지원센터, 6차산업화 지구 담당자, 6차산업 관련 전문가 대상의 심층 인터뷰 수행

표 1-1. 6차산업 관계자 인터뷰

대 상	시기 및 횟수	인터뷰 대상
6차산업화 지원센터	2016.9.19.~10.20.(4회)	6차산업화 지원센터장 및 팀장 (총 10인)
6차산업화 지구 담당자	2016.9.28.~11.30.(4회)	6차산업화 지구 지자체 담당자 (총 8인)
6차산업 관련 전문가	2016.9.27.~12.20.(5회)	학계, 중간지원조직 등 관련 전문가(총 8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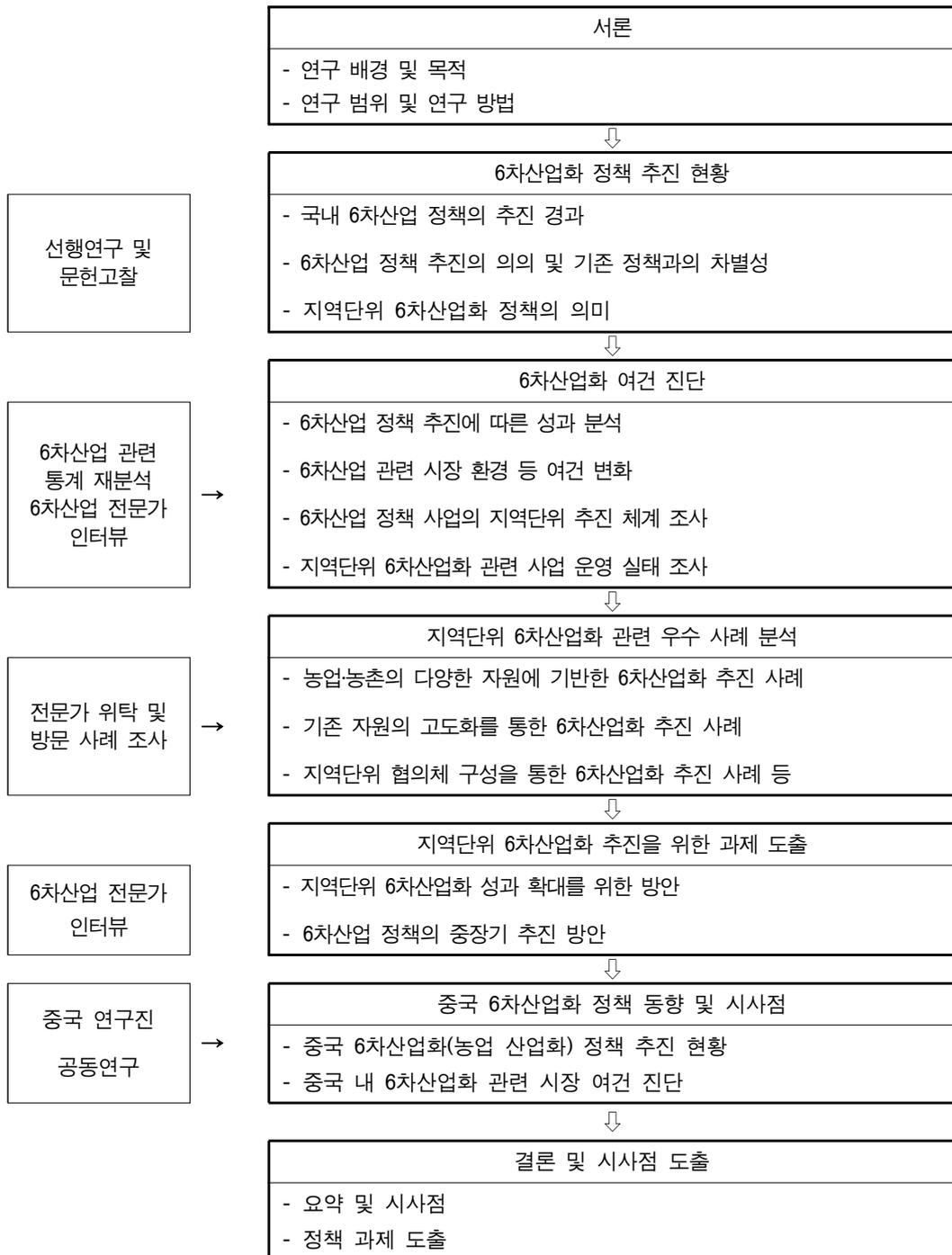
#### □ 중국 연구진과의 공동연구 수행

- 중국 6차산업화 추진 현황에 대한 연구 수행
  - 중국 연구자들이 직접 중국 농업 산업화 정책 및 농촌 관광 활성화 정책과 주요 사례에 대한 연구를 수행
- 한중 연구자 간 공동세미나 개최
  - 연구 결과 도출에 앞서 양국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과제 도출 등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표 1-2. 중국 연구진과의 공동연구 수행

구분	시기	내용
공동 현지조사	중국 2016.11.14.~11.15.	· 북경 주변 사례 조사 · 한중 공동세미나 개최 논의
	한국 2016.12.15.	· 한국 6차산업 우수경영체 사례 조사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한중 공동세미나	2016.12.16.	· 공동연구 결과 발표 및 정책 과제 공유

그림 1-2. 연구 흐름도



## 제 2 장

---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 추진 배경 및 내용

#### 1. 6차산업화<sup>3</sup> 정책 추진 경과

##### 1.1.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지원 사업

- 6차산업 정책에 앞서 추진되었던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살펴보고, 6차산업 정책의 의의 및 방향에 대해 정리
  - 6차산업 정책은 농촌산업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농외소득원 확보, 농촌경제 활력 제고라는 유사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
  - 6차산업 정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과거 추진되었던 농촌산업 및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유사 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6차산업 정책의 차별적 특성 및 의의에 대한 정리가 필요

---

<sup>3</sup> '6차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관점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6차산업 정책 관련 법률인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농촌융복합산업의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음.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경과 및 현황

- 2004년 농림부가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정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5년부터 지역농업클러스터 20개소 사업단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 2008년에는 22개소 사업단을 추가로 선정하고 본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아 2009년부터 사업정책영역을 향토산업육성사업은 기초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농업클러스터는 복수 시·군 및 도 단위로 구분하고 명칭을 광역클러스터로 변경하면서 12개소 사업단을 추가로 선정

그림 2-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변천과정



표 2-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품목별 선정 현황

	계	식량	원예	축산	가공	특작	수산	기타
합 계	81	7	14	20	18	9	6	7
시범사업(05년)	20	4	3	4	5	1	-	3
본 사업(08년)	22	1	6	7	5	3	-	-
광역클러스터(09년)	12	1	2	5	1	1	1	1
지역전략식품산업(11년)	13		2	1	4		3	3
지역전략식품산업(14년)	10		1	1	3	3	2	
지역전략식품산업(15년)	4	1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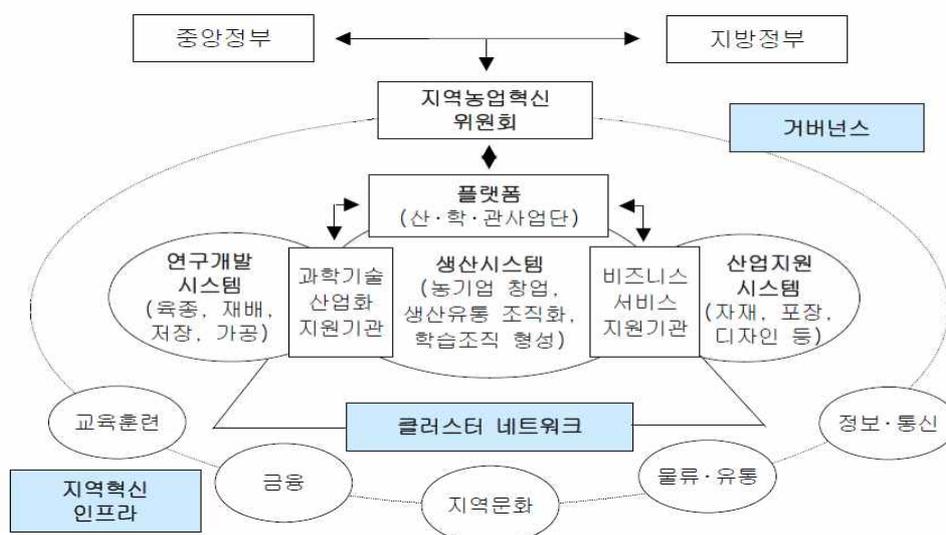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단 선정 및 사업비 편성 기준(안)

- 2011년부터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중심축으로 두고자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사업과 선정대상을 고부가가치 품목중심으로 변경하고, 사업 내용을 혁신체계 구축 중심, 시장 지향적 성장 등의 측면으로 개편함. 2011년 13개소, 2014년 10개소, 2015년에는 4개소의 사업단을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사업 개요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새롭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화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클러스터 구성요소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임.
- 클러스터가 혁신 구심점이 되어 지역농축산업(농·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존의 개별사업 중심의 투융자를 지역농업 조직의 관점에서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림 2-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개념도



자료: 김정호 외 (2004),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 ○ 사업 내용

- 농·산·학·연·관 협의체 육성 및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참여 농어가 교육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주체 간 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
- 자문단 및 사업단 컨설팅 용역(사업단 경영, R&D, 홍보·마케팅, 평가)과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사업단 전담인력 비용) 등을 지원
- 브랜드 개발과 관리, 현장애로사항 및 상품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홍보프로그램 운영, 유통전문 조직 구축을 위한 편당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체험관, 전문판매장 등 6차산업관련 시설, 제조가공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 구축 지원
- H/W 분야로의 예산 지원에 제한을 두기 위해, 시설 유형은 6차산업 관련 시설이어야 하며 시설 건립기간이 2년 이내,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을 전체사업비의 60% 미만으로 제한하고 시설비의 20%는 반드시 자부담을 하도록 함.

## ○ 성과 및 한계점

- 지역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S/W 부문에 초점을 두고 지역전략식품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실행 주체 네트워크와 R&D 풀을 구성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
- 선진 기술 도입과 신기술 개발로 지역농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농산업화를 통해 사업단 및 참여기업 매출액, 농가 소득 증대 등의 경제적 성과를 도출(장민기 외 2007)
-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거나 자금투입을 통한 지역 협력 사업을 추구하는 타 정책들이 비슷한 시기에 입안되어 정책 간에 중복, 위계 설정의 문제가 발생
- 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에 제한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사업들의 테마가 농축산업에 맞춰져 있어 농축산물을 단순 생산 가공하는 기반시설 구축에 투자된 사업예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이정희 외 2012).

- 특성화된 아이템에 집중된 생산기반 구축에 집중하다 보니 브랜드 개발이나 마케팅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를 실행하는 사업으로만 실행 범위가 축소되어 외연적으로 확장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 향토산업육성사업

##### ○ 경과 및 현황

- 산업화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향토자원이 사장화되는 과정에서 이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향토산업 관련 클러스터 구성요소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
- 2006년에 19개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2007년부터 시작하였고, 2008년에는 본격적으로 30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했으며, 2016년 사업까지 총 288개 사업을 시행 및 완료

표 2-2.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 현황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시	사업 현황	
계	236 <18>	9	25 <2>	11 <1>	29 <2>	33 <4>	52 <1>	30 <4>	29 <4>	12 <1>	4	-
2007	19 <1>	2	1 <1>	2	2	1	3	2	3	2	1	완료
2008	30 <2>	-	4	1	2	4	8	3 <1>	6 <1>	-	2	완료
2009	30 <2>	1	2 <1>	2	2 <1>	5	7	7	3	1	-	완료
2010	30 <2>	1	2	-	6 <1>	6	7	4	2	2 <1>	-	완료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	사업 현황	
2011	30 <1>	3	4	-	4	4	5	3 <1>	5	1	1	완료
2012	30 <4>	-	5	2	5	2	6 <1>	5 <1>	3 <2>	2	-	완료
2013	30 <5>	1	2	3 <1>	3	6 <2>	5	5 <1>	3 <1>	2	-	시행중
2014	21 <1>	1	3	1	2	4	6 <1>	1	3	-	-	시행중
2015	16	2	2	-	3	1	5	-	1	2	-	시행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6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 ○ 사업 내용

- 지역 내 산재한 각종 농특산물, 전통문화, 역사자원, 경관자원 등 전통성과 향토성, 차별성이 강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
- 분산되어 있는 농업 및 향토산업 육성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토자원을 소재로 산·학·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업화, 융복합화, 파급효과 극대화를 꾀함. 생산과 1차 가공 위주의 지역농산업을 주체 간 네트워크,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컨설팅 등을 결합시켜 2, 3차는 물론 6차산업화를 추구함.
- S/W와 H/W 부문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를 꾀하고, 전통농업자원, 토종 동·식물, 전통전래양식, 향토자원, 농·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 등을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함.
- 사업단(사업추진단,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계획·추진방향 컨설팅 및 평가를 통해 사업단의 역량을 증진시키며 워크숍·토론회를 통해 사업 주체 간 네트워킹을 강화
- 신제품과 브랜드의 개발 및 지적재산권화를 지원하고,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케팅과 박람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H/W 부문은 향토산업육성을 위해 불가피한 제품가공, 판매체험, 관광과 관련된 시설 구축에 한해서 지원하며, 예산 지원에 제한을 두기 위해

H/W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50%를 초과(최대 70% 미만)할 때에는 사전에 검토하여 시·도에서 별도 승인을 취득해야 함.

○ 성과 및 한계점

-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다 보니 지역 내 연관주체들의 다양한 실험과 노력이 진행되면서 사업에 관련된 산·학·연·관·민의 역량을 강화시켰으며, 지역단위의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조직화하는 사례가 늘어남.
-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문화와 자연자원이 총체적으로 결합할 때 산업화에 성공할 있다는 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음.
- 농특산물을 제외한 다양한 지역 내 향토자원(전통문화, 역사자원, 경관자원 등)을 활용하겠다는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선정된 대부분의 사업이 농특산물을 사업 아이템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성의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음.
- 시·군에서는 성공가능성, 주체의 의지와 준비정도, 관련 인프라, 파급효과,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향토자원을 선발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및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향토산업육성사업 아이템이 농특산물인 경우 생산조직화를 등한시하고 단순하게 농특산물을 2, 3차 산업으로 결합·확장시키기 위해 제품 가공·판매시설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음(황만길 2012).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경과 및 현황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 기회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속하는 세부사업들은 '05년 국가균형발

전특별법 제정 이후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 예산을 편성, 개별 세부사업으로 각각 시행하다 ‘10년부터 포괄보조 제도를 도입,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복합산업화 촉진을 위해 여러 개별 사업을 1개의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 중임.

#### ○ 사업 내용

- 농촌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체계(RIS)를 구축하고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을 구축하며, 농산업, 향토식품·특산물 가공 등 농촌형 제조업 육성 및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농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도모함.
- 포괄보조 제도의 취지와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자체의 예산편성, 집행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Negative 방식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법령상 금지, 핵심 농정 방향 배치 등의 경우 외에는 지자체 자율적인 사업추진을 허용하고 예산편성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사업성 여부 판단은 지자체 책임으로 함.
-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바탕으로 투자대상을 선정하며 농촌 자원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S/W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연계
- 시·군 범위를 넘어선 복수 시·도, 시·군 간 연계 협력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 시행하며 농산물 자원을 산업화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산물 외의 특산물, 전통문화, 역사, 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산업화하는 경우를 포함함.
-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등에서 각 시·군 지자체로 사업신청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시·군·구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에 기반 하여 신청한 사업을 검토하고 포괄보조금 사업자로서 선정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 신청함.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5개의 산업화 지원 방식으로 구분하고 7개의 사업유형을 제시, 각각의 유형별 사업 외에 여러 개의 유형이 혼합된 사업을 추진함.
-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등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 보관, 유통시설,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총사업비 규모 5억 원 미만) 체험 전시시설,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생산 또는 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구축을 지원함.
- 생산·유통 기반구축, 제조·가공, 체험전시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리더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함.
- 대학·연구, 상품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리적 표시,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농촌체험·관광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테마공원,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한 관광 관련 공동인프라, 지역별 농촌관광안내센터, 공동체험장, 공동예약시스템 구축을 지원함.
- 농공단지 부지조성(신규 또는 계속지구) 및 노후단지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

#### ○ 성과 및 한계점

- 기존의 여러 세부사업을 통합적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이라는 포괄보조금사업의 형태로 운영을 함으로써 세부 사업별 중복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중장기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음.
- 포괄보조금 사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들의 세부 내용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세밀한 지침사항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

## 1.2. 농촌관광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 (1)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배경

#### □ 공급 측면의 배경

##### ○ 농촌관광 추진의 외적 요인

-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 경제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자 수입제한에 관대했던 선진국들의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이 강화되기 시작함.
- 이후 1993년의 UR 협상의 타결, 2001년의 DDA 채택, 200년 한-칠레 FTA 타결 등 일련의 무역협상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농업시장 개방 압력은 날로 심화되어 왔음.

##### ○ 농촌관광 추진의 내적 요인

- 1990년대부터 농업·농촌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융자로 농업부분의 고정자산 수준과 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 선진국들의 앞선 경험처럼 성장과 소득의 괴리로 개별 농가의 소득은 정체하거나 감소
- 이로 인해 1980년대 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자 대비 후자의 비율이 2000년 80.5%에서 2015년 64.4%까지 떨어지고 농가의 부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 위와 같은 내외적인 압력에 의해 우리 농촌에는 농업 외의 추가소득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높아졌음.

- 농외소득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1980년대부터 농촌관광이 농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함.

## □ 주요 측면의 배경

- 주 5일제 근무 및 주 5일제 수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여가시간 증대
  - 2004년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고, 2010년 7월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이를 전면 확대 시행하면서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크게 증대됨.
  - 주 5일제 근무 전면 시행의 영향으로 2012년부터는 전국 초·중·고의 주 5일제 수업 시행에 따라 가족단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가시간 확대
  
- 시민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가치 추구
  - 1970년대와 80년대 ‘신사회운동’ 이후 서구 사회에서 불어 닥친 거대한 변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환경, 생태, 대안적 문화공동체, 문화적 다양성 등이 사회적 가치로서 시민사회로부터 폭넓게 인식되고 있음(송미령·김광선 2010).
  - 이러한 새로운 가치는 관광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면서 대안관광으로서 농촌관광의 주요 목적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촌이 지니는 농촌성은 관광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관광상품으로, 그리고 도시에서와는 다른 진정성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 밖에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대에 의한 관광수요 자체의 증대도 농촌 관광이 확대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2) 제1기 농촌관광: 농외소득 증대

### □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관광 추진

- 1980년대 개방농정으로의 전환에 따라 농업소득만으로는 농가소득 향상에 제약이 크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농외소득 증대정책이 추진됨(유정규 2003).
  - 1960년대 후반 부업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새마을공장, 농공지구 및 농공

단지, 특산단지, 전통식품육성, 산지가공 등 제조업 중심으로 농외소득 증대정책이 추진됨.

- 이때부터 농가 중심의 관광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른바 농촌관광휴양 자원 개발사업이 농외소득 증대정책에 포함되어 추진됨.
  - 1984년 관광농원개발사업, 1989년 휴양단지개발사업, 1991년 민박마을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농외소득 증대정책에 농촌관광이 도입·확대 되기 시작함.

#### □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주요 내용(2016년 현재 기준)
  - 사업목적: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대
  - 사업대상자(시행자): 제한 없음
  - 사업규모: 1만5천m<sup>2</sup>~100만m<sup>2</sup> 미만
  - 기본시설(필수 설치 시설): 농어업전시관(60m<sup>2</sup> 이상), 학습관(60m<sup>2</sup> 이상). 단,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으로 겸용될 수 있음.
  - 자율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
  - 사업비 지원: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 없음.
- 관광농원 사업의 주요 내용(2016년 현재 기준)
  - 사업목적: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도시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 사업대상자: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인 단체(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

- 사업규모: 2천m<sup>2</sup>~10만m<sup>2</sup> 미만
  - 기본시설(필수 설치 시설): 영농체험시설. 단 식량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 유실수, 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이나 저수지, 조류사육장, 초지, 축사, 양어장, 유리·비닐하우스, 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면적이 2천m<sup>2</sup> 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함.
  - 자율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지공시설, 기타시설(숙박시설 등)
  - 사업비 지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종합자금을 이용하여 운영자금(고정 2% 또는 변동, 2년 상환), 시설자금(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 개보수자금(연 2%, 2년 거치 5년 상환 등) 지원. 단, 용자 한도는 15억 원 이하, 총 사업비의 80% 내로 제한
- 농어촌민박 사업의 주요 내용(2016년 현재 기준)
- 사업목적: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 사업대상자: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 시설기준: 수동식소화기 1조 이상 구비,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오수처리시설 설치
  - 영업 범위: 숙박, 취사시설, 농산물 판매, 조식 제공
  - 사업비 지원: 농어촌 민박 사업자 중 농업인에 한함. 농업종합자금을 이용하여 운영자금(고정 2% 또는 변동, 2년 상환), 시설자금(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 개보수자금(연 2%, 2년 거치 3년 상환 등) 지원.

#### □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의 특성과 추진 현황

-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은 정책의 지원 대상이 주로 개인 혹은 농가 단위에 집중됨.

- 동 사업은 현재까지도 지속되면서 농촌관광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개별단위 중심의 하향식 지원이라는 특성을 지님.
  - 실제 사업이 시설위주, 자본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상향식 참여가 부족했음.
- 최근 10년(2005~2015년)의 추진 실적을 보면, 휴양단지의 수는 109.1% 증가하였으며, 관광농원의 수는 39.0%, 그리고 농어촌민박의 수는 108.0% 증가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농가의 경영역량이나 자금력 부족으로 중간에 많은 수의 참여 농가가 사업이 취소되거나 휴업이 지속되고 있음.

표 2-3.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구 분	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시작년도	1989년	1984년	1991년
사업주체	제한 없음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인 단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
주요내용	농림어업 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 또는 용역 제공	숙박, 취사시설, 농산물판매, 조식제공
정부지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 없음	융자금지원(운영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융자금지원(운영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2005년 말	11개소	392개소	11,659개소
2015년 말	23개소	545개소	24,246개소
증감(%)	109.1	39.0	108.0

주: 각 사업의 주요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자료: 농림부(2006), 농림업 주요통계; 농림축산식품부(2016),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3) 제2기 농촌관광: 농촌마을 활성화

#### □ 개별 단위 사업에 의한 마을개발과 농촌관광

- 2000년대 들어 농촌개발은 마을을 중심으로 추진
  - 1950년대 말과 1960년대의 커뮤니티개발(CD),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중심의 마을 단위 개발, 1980년대 시·군 단위의 농촌종합개발, 1990년대 읍·면 단위의 정주권개발 등에 이어 2000년대 들어서는 마을 또는 마을 권역 중심의 통합적 농촌개발을 지향
  - 2011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5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8개 마을 단위 농촌지역개발사업이 농촌관광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국에 약 2천 개의 농촌관광마을이 조성됨.
  - 이들 8개 마을 단위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의해 2011년 기준으로 전국에 1,918개의 농촌관광 마을이 조성되었음(박시현 외 2012).
  - 대부분의 마을은 기초생활편의시설, 생산기반, 소득기반, 문화·복지기반, 관광기반 등의 조성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복합된 형태로 추진됨(송미령 외 2008).

#### □ 농촌지역개발정책 재편 이후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농촌관광

- 기존에 개별 단위사업으로 시행되던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많은 부분이 제도개편에 의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포괄보조사업으로 재편됨.
  - 20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24개 개별 단위 사업들이 2010년부터 도입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사업으로 재편되었음.
  - 이에 따라 앞서 제시한 농촌관광과 관련된 마을사업 중 일부는 사업기간이 종료되고 또 다른 일부(정보화마을사업은 제외)는 포괄보조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포함(김광선 외 2009)

표 2-4. 정책사업을 통한 농촌관광마을 조성 현황(2011년 기준)

소관부처	관련사업	사업기간	조성마을수 (개소)	투입예산 (억원)	지원내용
농식품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04-10 (권역당 5년)	392	8,849	권역당 40-70억 (국비 80%, 지방비 20%)
	녹색농촌체험마을	2002-13 (마을당 1-2년)	571	1,042	마을당 2억 (국비 50%, 지방비 50%)
	어촌체험마을	2001-13 (마을당 1년)	107	702	마을당 5억 (국비 50%, 지방비 45%, 자부담 5%)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2001-14 (마을당 3년)	400	1,658	마을당 3억 (국비 50%, 지방비 50%)
	아름마을	2001-03 (마을당 3년)	23	435	마을당 국비 10억
문화관광부	문화역사마을	2004-09 (마을당 2년)	13	239	마을당 10-30억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지방비)
농촌진흥청	농촌진통테마마을	2002-09 (마을당 2년)	170	340	마을당 2억 (국비 50%, 지방비 50%)
산림청	산촌생태마을	1995-2017 (마을당 3년)	242	3,364	마을당 14-16억 (국비 70%, 지방비 30%)
합계	8개 사업	-	1,918	16,629	-

주: 투입 예산은 2010년 기준.  
자료: 박시현 외(2012), 농촌관광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과제.

- 2015년부터는 기존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재정비되면서 기존의 농촌마을개발사업이 다시 한 번 개편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 만들기(종합, 문화·복지, 경제, 환경 등), 기초생활 인프라, 시·군 역량강화의 4개 세부사업으로 개편됨.

- 이상과 같은 지역개발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후 농촌관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정리하면 아래 <표 2-5>와 같음.
  - 이들은 4개 부처 9개 사업으로, 주로 체험·숙박, 제조·가공·판매, 생활편익·환경개선 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음.

표 2-5. 농촌관광 관련 현행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요 내용

부처	마을 공동체 사업	시작년도	사업목적	사업유형 및 주요내용	
행정 자치부	마을기업	2010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입사업으로 소득, 일자리 창출	지역특산물·자연자원 활용	제조·가공·판매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공공부문위탁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자연생태관광 등 녹색에너지사업	체험·숙박			
	희망마을	2010	마을공동체 주민 주도로 생활편익, 문화·복지공간 조성, 수익창출, 시설 조성 등 개선	생활공간개선	환경개선 생활편익
				사회복지확충	
				수익사업추구	제조·가공·판매, 체험·숙박
	정보화마을	2001	농산어촌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과 삶의 질 향상	제조·가공·판매	
평화생태마을	2011	특화자원을 중심으로 관광 및 소득자원을 개발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	환경개선·생활편익, 체험·숙박		

부처	마을 공동체 사업	시작년도	사업목적	사업유형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휴양마을	2002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공간을 조성해 농촌관광 활성화	체험·숙박	
	농촌공동체회사	2001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영활동을 통해 농촌지역에 사회서비스 제공	농식품산업	제조·가공·판매
				도농교류	체험·숙박
				사회복지서비스	환경개선·생활편익
				지역개발	
복합형	환경개선·생활편익, 체험·숙박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2010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중심지활성화	환경개선·생활편익
				창조적 마을 만들기	*경제: 제조·가공·판매, 체험·숙박 *종합/문화·복지/환경 : 환경개선·생활편익
				시·군 역량강화	환경개선·생활편익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2010	지역주민의 자연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고 자연자산을 자율적으로 보전·관리	제조·가공·판매, 환경개선·생활편익, 체험·숙박	
산림청	산촌생태마을	1995	산촌자원 활용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제조·가공·판매, 환경개선·생활편익, 체험·숙박	

주: 본 표의 자료는 행정자치부의 의뢰로 한국정책학회에서 2015년 상반기 4개월 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서면조사와 46개 마을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정리한 자료를 수정한 것임.  
 자료: 행정자치부의 2105년 9월 16일자 보도자료 “마을공동체 사업의 유사·중복 요인 견어내야” 및 관련 내용의 한국조경신문 2015년 10월 5일 기사 참고.

- 행정자치부는 <표 2- 5>의 사업을 포함한 6개 부처 14개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마을을 전체 3,517개 마을로 추정

- <표 2- 5>의 사업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마을조성(전원마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마을 대상 마을이 포함됨.
- 이들 14개 사업 대상 마을은 총 3,517개로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5.5년간의 방문자 수가 총 67,849,734명으로 추정됨(행정자치부 2015).

#### □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 제고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도의 도입과 법적 근거 마련
  - 농식품부에서는 2002년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7년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동 지정제도에 의해,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자치단체장에게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신청하여 지정받도록 함(동 법률 제5조).
  - 동 법률 조항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여 기 추진된 녹색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등의 농촌관광마을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되려면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법률이 정하는 지원철차를 따라야 함(백선정·정요한 2015).
  - 현재 전국에 농촌체험·휴양마을 873개 분포(2016년 10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기준)
- 2006년부터 농촌체험마을 체험안전보험 가입 지원 사업 추진
  - 농촌체험마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보상책으로 마련

- 2016년 7월 기준으로 816개 마을이 체험안전보험에, 그리고 540개 마을이 화재보험에 가입함.

○ 농촌관광 등급제 실시

- 2013년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에 대해 등급제 도입
-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이 70여개 항목을 평가한 후 등급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한국농촌공사가 부분별로 1~3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제도
- 농촌관광을 실시하는 마을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농촌관광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관광소비자들에게 농촌관광 선택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기능
- 등급평가 결과를 농촌관광 포털 사이트인 웰촌(www.welchon.com)에 게시하고 관련 홍보책자도 배포

그림 2-3. 농촌관광 등급판정과 홍보

2014년 농촌체험휴양마을		2015년 농촌체험휴양마을								
2015년 농촌체험휴양마을 등급 결정결과(전 부문 2등급이상)										
순번	시도	시군	마을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등급 결정 결과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1	경기	이천	도나물마을	경기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667번길 359	왕순선	070-4239-5284	2등급	1등급		2등급
2	경기	이천	서경물마을	이천시 모기면 전성마로 1178번길 25	김종섭	010-6496-1089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	경기	이천	자재방아마을	경기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359번길 169-24	최영환	031-634-4283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4	경기	안성	선비마을	안성시 양성면 석봉길 55-6	오세필	010-5340-6045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5	경기	안성	인차굴마을	안성시 서문면 인차동길 38-12	김광석	010-5225-1985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6	경기	포천	송골마을	경기도 포천시 문안면 송골길 108	강학춘	031-532-7796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7	경기	여주	풍실재마을	경기도 여주시 삼북면 백제1길 16	이권화	010-8784-3132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8	경기	양평	별내체험마을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상성리 654-1	김종세	011-630-4431	2등급	2등급		1등급
9	경기	양평	산수유꽃마을	경기도 양평군 가군면 산수유꽃길 88	직영신	010-3667-8516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0	경기	양평	수이마을	단월면 봉상리 531	최성준	010-3594-1114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1	경기	가평	호롱이동마을	설악면 죽안리 425	김병욱	011-514-8881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2	경기	연천	촌성김시마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촌성리 184-1	유재상	031-835-0381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3	경남	합주	삼송마을	경남도 합주시 신원면 송계로 17	이영도	033-765-3381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농촌관광** 이제는 **등급** 보고 **고르세요!**

자료: 농촌관광 포털 사이트 웰촌(www.welchon.com)

#### (4) 제3기 농촌관광: 융복합 산업화

##### □ 농업의 6차산업화를 확대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 2014년 6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6월 시행됨으로써 농업 중심의 기존 6차산업 개념을 확대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추진
  - 동 법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농촌에 분포하는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농촌융복합산업에 포함하고 있음.
  - 다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농촌융복합산업이라는 용어보다는 6차산업화라는 기존 용어를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6차산업을 산업화 유형에 따라 생산중심형, 가공중심형, 유통중심형, 관광체험형, 외식중심형, 치유중심형으로 구분하여 농촌관광을 6차산업화의 주요 유형에 포함
  - 현재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총 992개소임<sup>4</sup>.

##### □ 융복합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시도

- ICT와의 융복합을 통해 창조마을 조성사업 추진
  - ICT를 통해 농촌의 복지·교육·문화 등을 개선한 살기 좋은 농촌 모델 구축 추구(2016년 현재 13개소 조성 중)
  - 비콘기술 등을 접목하여 첨단농업, 가공·유통·체험관광, 공동체 문화, 생활복지, 교육 등의 5개 분야에 29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sup>4</sup> 6차산업 포털(<http://www.6차산업.com/portal/main.do>) 2016년 12월10일 검색 결과.

하고 있음.

\* 농촌관광 사례: 경상남도 하동군 청학동의 경우 비콘을 활용하여 관광 안내 / 전라남도 강진군 녹향월촌의 경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마을관광안내시스템 개발

○ 관련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농촌관광 분야 확대

- 찾아가는 양조장(18개소), 교육농장(75), 농가맛집(117), 치유의 숲(11), 농촌형 승마시설(110), 낙농체험목장(30) 등의 육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
- 코레일과 연계한 농촌관광 기차여행 상품(20개) 운영
- 민간여행사와 협력하여 지역 간 관광자원을 연계한 코스형 농촌관광 상품(45) 개발

### 1.3. 6차산업화 정책 동향

#### □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시장개방, 농업종사자의 고령화,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분산된 농업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6차산업화 정책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4.6)되어 체계적인 6차산업화 정책 수립·추진의 근거가 됨.
- 동 법률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법률에서는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6차산업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6차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인증 사업자에게 창업·판로·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농식품 관련 자원, 생산물, 사업자 등을 서로 연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식품부에서 지구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이나 공동 마케팅·홍보·판로확보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15~'19)
-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법률에서는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2015년도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
  - 6차산업화를 통해 농촌지역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두고 6차산업화 정책 추진기반의 개선, 6차산업화 우수 경영체 육성, 지역단위 6차산업화 지원체계의 구축,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함.
  - 지역 밀착형 6차산업화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6차산업화 지구 조성 및 지역단위 6차산업화 육성 활성화를 계획에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한 기본계획 주요 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 ① 생략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융복합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유통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촌융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촌융복합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차산업화 지구는 단순 생산활동 집적을 넘어서는 연구개발, 전후방연관 산업, 기업 지원 기능 등이 공존하는 6차산업화 거점 공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연관 산업 인프라, 정책 간 연계성, 사업 추진체계 및 문화적·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6차산업화 지구 조성을 천명함.
- 지역 특화자원과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 가치사슬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내 민간 주도의 협력 관계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

□ 6차산업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지원 사업 내용

-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단 및 6차산업화 지구 지원 사업
  - 지역에서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주체들의 공동사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됨.

- 지역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 복수의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컨소시엄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며, 공동홍보·마케팅, 역량강화, 품질관리,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등의 경영활동을 지원
  - 생산자단체, 법인 등이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격이 있는 컨소시엄 또는 향후 법인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단을 주요 대상으로 함.
- 6차산업 우수경영체 인증제도
- 6차산업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인증사업자로 지정하여 우수경영체로 육성 및 6차산업 확산의 주체로 활용하고자 함.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행
  - 인증사업자는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유효기간 3년)’를 발급하고,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
  - '16년 현재 인증사업자로 1,009개 경영체가 지정되어 있음.
- 6차산업 경영체 대상 금융지원
- 농식품부에서 ‘6차산업 사업자 육성자금 지원’ 정책을 통해 시설·장비 구입 자금, 리모델링 자금, 운영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으며, 융자방식은 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선입선출 형태의 총 자금 Pool제로 운영
  -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서는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결합하여 매칭펀드(농식품투자조합)를 결성하여 6차산업 경영체를 지원함.
  - \* '13년 6차산업화 전문펀드 100억 원 결성완료 후 '14년 100억 원 추가 결성
- 6차산업 경영체 경영 컨설팅 지원
- 마을 경영체, 지역농협, 산림조합,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향토산업육성사업완료 사업단 등으로 법인격이 있는 6차산업화 경영체를 지원 대상으로 함.

- 6차산업화 자원조사 및 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자문, R&D과제 평가, 시제품 개발 및 제작, 시장조사 및 분석, 자금투자 유치, 브랜드개발, 마케팅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
- 지원범위는 법인의 경우 총사업비 2,500만 원, 농업인은 1,00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이상, 자부담 50% 이상의 조건으로 지원함.

#### 1.4. 6차산업화 정책의 성격 및 과제

##### □ 기존 농외소득 정책과의 차별성

- 농가 계층을 고려한 소득 기반 확충을 추진
  - 6차산업화 정책에서는 규모화·전문화된 농업 경영체 육성과 병행하여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의 소득기반 확충을 추진
  - 근거 법령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책 대상으로 일반 농가 및 마을 경영체 등을 아우르고 있음.
- 지역 농업에 기초한 혁신체계 구축으로 자생적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향
  - 지역혁신체계 개념을 적용하여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 자생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향
  - 농업·농촌 자원 및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하며,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 창출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 이러한 혁신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 내 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
- 농촌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인력 유입을 지향
  - 6차산업화 정책은 귀농·귀촌, 청년 창농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로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적극 유도하는 등 농업·농촌의 선순환 생태계를 견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 변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구분됨.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확산을 지향

- 개념적으로는 특화 품목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에 산재한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산업화의 대상으로 보며, 6차산업화의 확산은 소비자로 하여금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제로 작용
- 6차산업화 정책 및 사업들은 농촌 소득 증대 뿐만 아니라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꾀함으로써 농촌의 지속적인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지역 자원에 기초한 상향식 정책 추진

- 하향식 위주였던 과거 정책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향식 정책 집행방식을 지향
- 포괄보조금 도입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근거 법령에서부터 실제 정책, 사업의 추진 단위에 이르기 까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별 효과적인 사업 추진 체계 구축을 강조

□ 기존 농촌산업육성 정책을 통해 살펴본 향후 6차산업 추진 과제

○ 사업의 취지나 목표 설정 수단의 채택 등에 있어서는 지역혁신체계 및 클러스터 관련 논의의 구성요소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정됨.

- 농촌산업 육성 사업들에서 공통적으로 네트워킹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자발적 네트워킹을 지향하지만 실제 네트워크 과정에서 제품별 가치사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 부문 주도의 일방적인 네트

워킹이나 실효성 없는 네트워킹이 나타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또한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에 기반하여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유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개별 품목 육성 중심에 한정
  - 지역농업클러스터,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유사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대부분 해당 품목 육성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가치사슬 간 연계를 지원하지 못함.
  -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기초하여 상품화가 가능한 보다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
- 농가, 경영체 등 개별 주체의 다각화 활동에 초점 (집합적 활동 부재)
  - 주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집합적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 현재의 6차산업화 육성 정책은 개별 경영체의 융복합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주체들의 집합적 활동에 기반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만들어 내는데 한계
- 6차산업화 생산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추진체계 부재
  - 각종 사업단, 연구소, 지자체 또한 6차산업 관련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할 수 있는 추진 체계(플랫폼) 부재
- 지역 6차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선도 경영체 부족
  - 타 산업과 달리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주체들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주체(대기업·중견기업) 부족
  - 개별 경영체 등 민간 중심의 자발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2. 지역단위 6차산업화 개념 및 내용

### □ 지역단위 6차산업화 개념(농림축산식품부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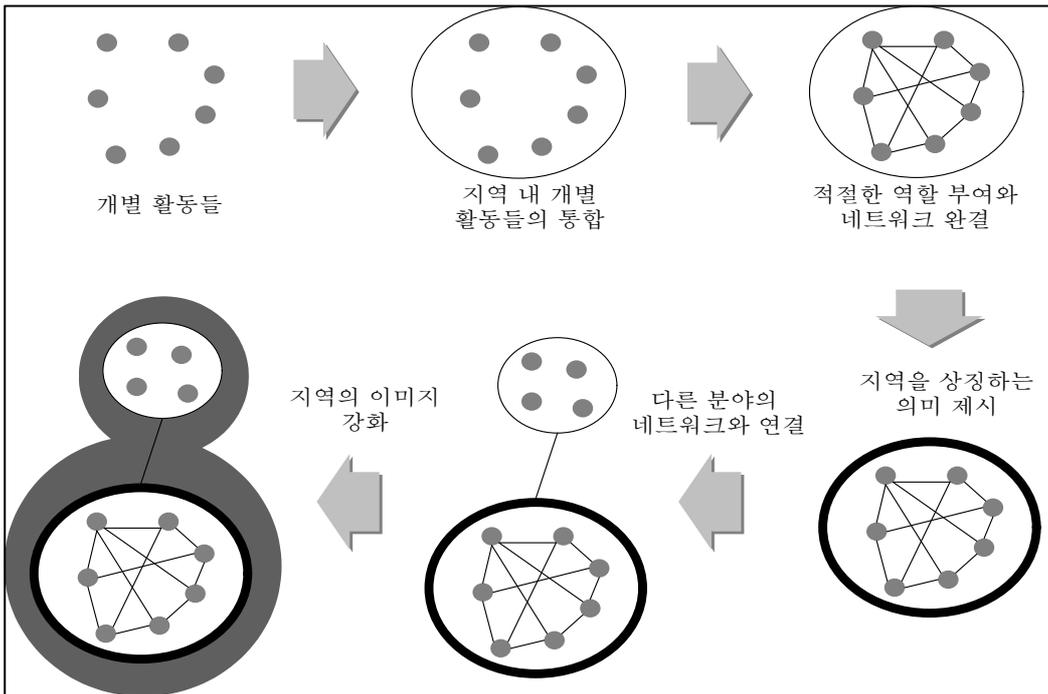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관광·수출 등에 종사하는 경영체들이 네트워크 구성, 가치사슬 효율화 등을 통해 집합적 활동에 기반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단위 시스템’

- 6차산업화 정책의 성과 확산을 통한 농촌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존 개별 경영체 지원에서 지역 품목 중심의 6차산업화 지원으로 정책 기조 전환
  - 6차산업 가치사슬 확산을 통해 지역농업 생산력 확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농업 및 지역산업 전반의 가치 창출 능력 확대 등 지역농업의 산업화 추진
  - 개별 주체의 다각화 활동 지원 중심에서 6차산업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한 지역 농촌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영역의 확대
- 지역 특화 품목 중심의 6차산업 시스템 구축 추진
  -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은 보다 많은 농가 및 경영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6차산업화 정책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 기반의 자생적인 농촌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발전 경로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음.
  - 기존 6차산업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6차산업화 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지역 특화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으로 육성 가능한 지역별, 품목별 후보군을 발굴하고, 지역 내 가치사슬의 형성 및 농가, 경영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기획·추진

표 2-6. 개별 경영체 중심의 6차산업화 정책 및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의 구분

	개별 주체의 6차산업화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
주요주체	개별 경영체	(개별 경영체) + 지원기관, 지자체
핵심 생산활동	농업·농촌 자원의 융복합화	(융복합활동) + 주체 간 집합적 생산 활동
지원 대상	개별 경영체의 생산활동	(개별경영체) + 가치사슬 연계 · 지역농산업 네트워크
생산주체 집적	무관	집적 이익 추구
공간범위	무관	다층적 공간범위 (마을 - 읍·면 - 시·군)
목표	6차산업화 가치사슬 확산	6차산업 중심의 자생적 농촌산업 생태계 구축

그림 2-4.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의 지역 내 가치사슬 형성 및 확산



자료: Brunori and Rossi(2000)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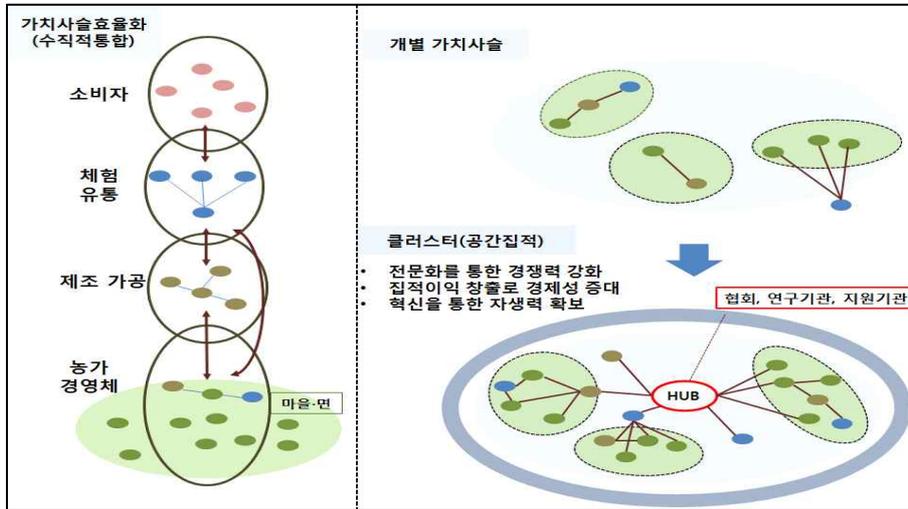
##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 지향 -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

-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융복합 활동을 조직하여 시너지 창출 - Unifying Theme
  - 무분별한 제품·프로그램 난립을 지양하고, (마을 혹은 시·군) 지역의 특화자원이나 전략 품목 등을 활용하여 시장 경쟁력 있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융복합 생산활동 연계
  - 개별 경영체 중심의 6차산업화 활동을 지역단위에서 재조직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발굴 추진
  - 경쟁력 있는 지역별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 대상 홍보에 활용
- 경영체, 관련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네트워킹 활성화(민간 컨소시엄 활성화)
  - 개별 가치사슬이나 거래관계에서 발전하여, 6차산업화 관련 농가·경영체와 가공·유통 업체 등이 협력하고 공동 학습이나 제품개발등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지역단위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에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6차산업 관련 집합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중심의 협력 모델을 발굴·지원
  - 지역단위 6차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다층적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지역의 농업을 기반으로 품목별 특징에 따른 다양한 지역단위 시스템 구축으로 집적 이익 창출
  - 마을, 읍·면 단위에서 새로운 융복합 생산활동 발굴 및 전문화
  - 시·군 단위에서 주요 품목의 6차산업화 지원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가치사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간 수준의 시스템 구축
  - 기존 6차산업화 집적지를 지역 농촌산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

○ 기존 농촌산업 인프라·자원과 연계한 정책 추진

- 농촌산업 육성 정책 및 사업을 통해 지역에 기 구축된 지자체연구소, 클러스터 사업단 등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6차산업화의 지역단위 확산 및 성과 창출 경로로 활용

그림 2-5. 지역단위 6차산업 정책의 추진 방향



## 제 3 장

---

### 지역단위 6차산업화 관련 여건 진단

#### 1. 6차산업화 정책의 추진 성과

##### □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 경제 활력 제고

- 6차산업화는 농가의 소득이나 고용 창출 등에 있어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정도채 외 2016).
- 6차산업 참여 주체는 기존 농업 생산을 넘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3-1).
  - \* 6차산업 참여농가의 평균 수익률(54.5%) vs 농업생산 농가 평균 수익률(32.0%)(2014년 기준)
  - \* 6차산업 참여 법인 평균 매출액(16.8억) vs 농업생산 법인 평균 매출액(11.7억)(2014년 기준)
- 6차산업화 관련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사업 분야(직매장, 가공, 관광/체험, 농가/식당)에 관계없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3-1. 6차산업 참여 농가의 매출, 소득, 수익률

(단위: 십억 원)

구분	매출	경영비	소득						수익률 (소득/ 매출)
			전체 (b+c+d)	농업 생산 (b+c)	출하(b)	직거래/ 직판장(c)	6차산업화		
							농업 생산 외 6차산업화(d)	(c+d)	
전체	4,332	1,745	2,093	1,582	749	833	512	1,344	54.5
농산물 가공	3,471	1,461	1,941	1,731	788	943	210	1,153	57.1
직판장/ 직매장	88	1,852	1,987	1,856	405	1,450	131	1,582	51.8
농가식당	28	3,430	2,992	615	236	379	2,377	2,756	46.6
농가민박	75	1,560	1,965	822	360	462	1,142	1,604	55.7
체험/관광	131	2,995	3,876	2,222	823	1,399	1,654	3,053	56.4

자료: 심재현·정도채, (2016), 농업전망 2016 : 농촌발전, 융복합산업으로 도약하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대부분의 농업법인에서 6차산업화 활동을 통해서 상당한 비중의 매출액 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
  - 6차산업화에 참여하는 농업법인의 매출액에서 6차산업화 관련 매출액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6차산업화를 통한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증가
    - \* 농업법인의 6차산업화를 통한 매출액(77.3%) vs 농업생산을 통한 매출액(22.7%)(2014년 기준)

표 3-2. 사업유형별 농업법인 매출액 비중 변화

(단위: 백만 원, %, %p)

구분	2010(A)		2014(B)		증감		증감률 (D-C)
	매출액	구성비 (C)	매출액	구성비 (D)	증감 (B-A)	구성비	
법인 수	12,872,088	100.0	23,023,039	100.0	10,150,951	100.0	0.0
농업 생산	3,294,850	25.6	5,227,656	22.7	1,932,806	19.0	-2.9
농업생산이외	9,577,238	74.4	17,795,383	77.3	8,218,145	81.0	2.9
가공 판매	2,946,106	22.9	6,241,583	27.1	3,295,477	32.5	4.2

구분	2010(A)		2014(B)		증감		증감률 (D-C)
	매출액	구성비 (C)	매출액	구성비 (D)	증감 (B-A)	구성비	
유통 판매	4,609,780	35.8	9,092,446	39.5	4,482,666	44.2	3.7
농업서비스	263,183	2.0	243,916	1.1	-19,267	-0.2	-1.0
기 타	1,758,169	13.7	2,217,438	9.6	459,269	4.5	-4.0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어업법인조사

- 농림업이 정체되는 것과는 달리, 농업 경영체가 창출하는 6차산업의 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6차산업화의 부가가치는 2011년 대비 2013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법인수의 증가와 함께 각 분야(가공, 유통, 음식·관광)별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는 증가하였고, 유통, 음식·관광 분야는 특히 괄목할 성장세를 보여줌.
    - \* 분야별 수입 증가율(2011년 대비 2013년 기준): 가공(52.9%), 유통(37.6%), 음식·관광(89.2%)
  - 직간접적으로 6차산업 지원 사업에 참가한 농가들의 매출, 소득, 그리고 부가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농가 대비 소득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 농업법인의 농업 생산 외 활동 부가가치 증가

		2011	2012	2013	증가율(11→13)
6차산업 법인 수		4,497	5,678	6,938	54.3%
<b>6차산업 부가가치(십억 원)</b>		<b>1,268.9</b>	<b>1,521.6</b>	<b>1,755.9</b>	<b>38.4%</b>
<b>농림업 부가가치(십억 원)</b>		<b>26,721</b>	<b>27,359</b>	<b>27,376</b>	<b>2.5%</b>
가공	법인 수	2,046	2,472	3,022	47.7%
	수입(십억 원)	3,474.5	4,217.0	5,313.0	52.9%
유통	법인 수	2,525	3,243	3,896	54.3%
	수입(십억 원)	5,733.8	6,878.2	7,888.8	37.6%
음식·관광	법인 수	340	506	644	89.4%
	수입(십억 원)	86.4	138.2	163.4	89.2%

주: 가공, 유통, 음식, 관광을 중복으로 참여하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유형별 법인수의 총합과 전체 법인수가 불일치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어업법인조사

- 6차산업화 관련 생산활동의 경우 유사한 기능의 경제활동에 비해 고용 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지난 3년 간 6차산업화 관련 창업자 수는 총 1,082명이며 연간 고용자 수는 평균 45.2명으로 농식품 가공 분야(20.7명)에서 연간 고용자 수가 가장 많음.

표 3-4. 6차산업화 관련 연간 고용자 수 - 사업분야별 분석

(단위: 명)

구 분	합계	가족	임원 (이사)	유급 고용자			
				소계	상시 고용자	임시 고용자	
합계	5,572	45.2	6.3	3.7	35.4	7.8	27.4
농식품 가공	4,013	20.7	1.4	.8	18.4	4.2	14.2
로컬푸드 직매장	304	7.0	1.2	.5	5.4	1.3	4.0
체험관광	1,068	11.6	1.8	2.1	7.8	1.4	6.4
농가식당	187	5.9	1.9	.3	3.8	.9	2.8

자료: 농촌진흥청(2015). 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 □ 6차산업화 사업 영역의 다각화 도모

- 6차산업화의 가공 분야이외의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

- 연도에 관계없이 제조·가공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지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유통, 관광 분야로의 투자 비중이 증가함.

표 3-5. 6차산업화 연도별 투자분야 비중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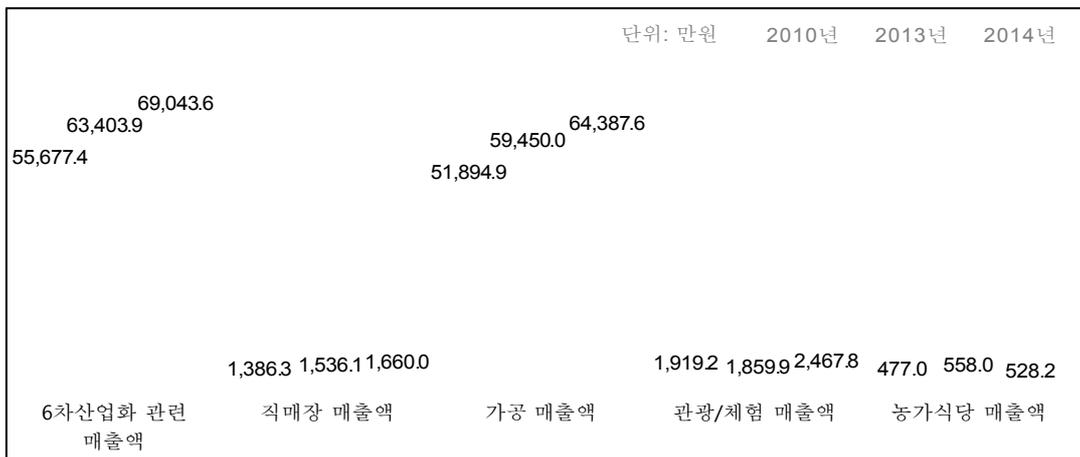
(단위: %)

구분	가공	유통	가공 유통	제조 가공	유통 제조가공	관광	농촌자원 복합산업	시설	기타
2012	16.0	13.8	2.5	47.2	1.1	13.5	1.1	1.1	2.1
2013	8.3	14.2	1.2	47.6	-	19.3	1.2	1.6	3.9
2014	5.6	18.9	1.5	44.8	-	18.9	1.9	1.1	4.4

자료: 농촌진흥청(2015). 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 6차산업화 관련 여러 사업 분야에서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가공 부문뿐만 아니라 직매장, 관광/체험 부문의 매출액이 소폭 증가

그림 3-1. 6차산업화 관련 매출액 추이



자료: 농촌진흥청(2015), 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이를 통한 매출액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농촌 관광,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한 도농 교류 기반 확대
  -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전국적으로 189,279천 명(2013년)에서 207,704천 명(2014년)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액 또한 1,141,107백만 원(2013년)에서 1,394,647백만 원(2014년)으로 증가함.

□ 농촌 산업의 새로운 인력 유입을 촉진

- 창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
  -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2015년 창업 경영체 수를 보면,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여러 사업 분야에 걸쳐 창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업한 경영체는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서 농촌 경제 활력을 증진을 위한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줌.

표 3-6.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2015년 창업 경영체 수

	총계	예산지원				예산비 지원	강소농	가공센터 지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가공	244	137	48	56	33	55	25	27
체험관광	125	97	68	11	18	13	14	1
외식	25	18	11	6	1	4	1	2
유통	11	7	1	2	4	1	2	1
기타	30	6	6			6	18	
계	435	265	134	75	56	79	60	31

자료: 농촌진흥청(2015), 6차산업화 시범사업 성과분석

- 귀농·귀촌 인구의 6차산업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농촌에 새롭게 정착하는 인구의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 있어 6차산업화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귀농·귀촌 인구는 6차산업화 관련 사업에 다방면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관광 부문과 관련해서는 50%에 가까운(체험관광: 44.7%, 농가식당: 46.5%)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3-7. 6차산업 참여 경영주 귀농/귀촌 여부 및 귀농/귀촌 시기

단위 : %(명)

구 분	귀농/귀촌함	귀농/귀촌 시기										
		평균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년 이상		
사업 분야	농식품 가공	4,768	25.8	11.9년	8.2	11.2	27.1	19.5	16.0	8.8	5.1	4.1
	로컬푸드 직매장	941	39.3	12.4년	6.7	8.4	29.3	20.4	14.2	11.5	5.9	3.6
	체험관광	1,656	44.7	12.8년	5.5	9.6	24.2	21.7	16.9	12.4	5.9	3.7
	농가식당	492	46.5	14.0년	5.4	8.5	20.2	21.5	17.9	13.5	6.3	6.7

자료: 농촌진흥청(2015). 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 농촌 지역의 원주민과 귀농·귀촌 인구의 6차산업화 관련 활동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귀농·귀촌 가구가 6차산업화 활동에 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3-8. 귀농·귀촌 가구와 원주민의 경제 다각화 활동 현황 비교

구 분	귀농·귀촌구분			전체	
	귀농	귀촌	원주민		
6차산업 관련 경제 다각화 활동 참여	1개 활동	35.0	20.5	16.0	17.6
	2개 이상	30.0	6.4	4.9	6.3
	안함	35.0	73.1	79.1	76.0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성주인 외(2016), 설문조사

#### □ 과소화, 공동화 위기에 직면한 농촌 공동체 유지에 기여

- 인구 고령화, 과소화에 따른 공동화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 마을에서, 6차 산업화와 관련한 경제 다각화 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가 높은 마을일수록 인구 감소 추세가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됨(성주인 외 2016).
  - 6차산업화 관련 경제 다각화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마을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다각화 활동 참여 비율이 낮은 마을에 비해 인구 감소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남.
  - 농촌 마을의 농업 외 소득 기회 확보 여부가 지역 공동체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

표 3-9. 농업 의존도에 따른 마을 인구 변화

구 분	6차산업 참여 구분			전체	
	적극 참여	참여	참여 안 함		
연도별 마을 평균 인구 규모 변화	1995년(A)	281.4	253.8	269.8	267.4
	2000년	267.7	216.2	234.8	232.0
	2005년	258.7	202.9	206.7	209.4
	2010년	276.9	189.6	191.7	195.7
	2013년(B)	256.9	184.8	186.4	191.1
<b>대비(B/A)</b>	<b>0.91</b>	<b>0.73</b>	<b>0.69</b>	<b>0.71</b>	

주: 1) 경제 다각화 활동 수준은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의 마을 단위 도농교류 및 경제 다각화 활동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판정

2) 전국 10,787개(2013년 기준) 행정리의 인구 통계자료를 집계하였으며, 분석 대상 행정리 수는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전국 45개 시·군 통계연보 참조

## □ 농촌관광 정책의 성과

### ○ 농촌관광 공급 기반 확대

- 휴양단지 23개소, 관광농원 545개소, 농어촌민박 24,246개소,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848개소 등 전국에 농촌관광 공급기반 마련
- 이밖에 농촌관광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마을공동체를 모두 포함하면 전국에 3천개가 넘는 농촌관광마을이 형성되어 있음.
- 최근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이나 ICT와의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분야와 접목된 농촌관광 분야의 확대와 다양한 농촌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 ○ 농촌관광 수요 증대와 시장 확대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2014년 도시민 농촌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연간 농촌관광총량(만 13세 이상 전체 도시민 기준)은 15,906,034일로, 연간 농촌관광객은 8,734,447명으로 추산되고 있음(그림 3-2).
- 동 농촌관광 총량은 같은 해 조사된 국내관광 총량(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민여행 실태조사」: 만 15세 이상 국민 기준) 190,394,184일의 약 8.4%에 해당
- 2014년 국내관광 총 비용이 14,420,159백만 원으로 추정되는바, 동 비중(8.4%)을 단순 적용하면 우리 국민들이 농촌관광에 지출하는 총 비용 규모는 연간 약 1조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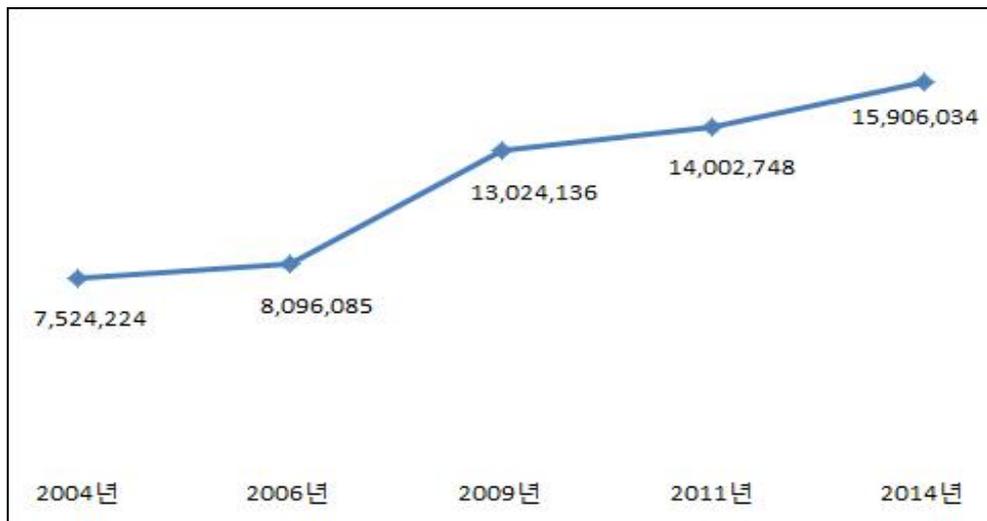
### ○ 주민 참여에 의한 마을경영 촉진

- 농촌관광에 따른 숙박, 음식,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활동영역에 주민들이 참여함에 따라 주민 참여에 의한 마을경영 촉진
-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민 참여 증가에 따라 개별 농촌관광마을의 평균 연간 고용 인원이 27.4명에 이르고 이중 해당 마을 주민의 고용 비중

이 66.8%로 나타났음(김광선 외 2016).

그림 3-2. 농촌관광 총량 변화

단위: 일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4), 2014 도시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 2. 6차산업화 현황 진단

### 2.1. 6차산업화 추진에 따른 농가 소득 증가 효과

6차산업 참여 농가의 경우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만, 농가 전반의 소득 개선 효과는 낮은 수준

○ 농가 소득 중 경제 다각화 활동과 관련 있는 겸업소득<sup>5</sup>의 경우 최근 3년

<sup>5</sup> 농가경제조사의 겸업소득은 농산물 가공, 직판, 직거래, 관광사업, 기타 농업서비스업, 농기계 임대업의 소득으로 구성되며, 6차산업화 외의 일부 경제활동에 관한 소득도 포함되지만, 통계자료의 농가 소득 유형 중 6차산업화 관련 소득 변화 추이를 가장 유사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6차산업화 관련 소득의 대리지표로 활용

간 성장세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농외소득의 경우 겸업소득과 농업 외 근로소득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6차 산업화와 관련이 높은 겸업소득의 변화를 바탕으로 6차산업 추진에 따른 소득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함.
-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의 전반적인 상승추세에도 불구하고 6차산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가의 겸업소득의 경우 증가세가 전체 농가소득 증가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 농가소득에서 겸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0.1%에서 2015년 9.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6차산업화 정책 추진 결과 농가의 2015년 농산물 제조가공 소득은 2013년 대비 18.7% 증가함.

표 3-10. 농가 겸업 소득 변화

(단위 : 원)

	2013	2014	2015
농가소득	34,618,612	36,493,912	38,321,392
농업소득	12,704,006	13,005,703	14,016,979
겸업소득	3,510,494	3,547,173	3,529,360
농산물 제조가공 소득	786,786	962,032	967,985
겸업소득비율	10.14%	9.72%	9.21%

자료 : 통계청(각연도), 농가경제조사

□ 농가소득 분석 결과, 6차산업화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는 일부 경영체, 농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 6차산업화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농가의 유형별 소득 구조 변화를 살펴봄.
  - 대부분의 농가 소득 분석 자료의 경우 농가 소득 전체만을 다루거나 농업 및 농업 외 소득의 평균값을 가지고 현상의 변화를 설명
  - 농가 전체의 평균소득 변화는 통계청 농가경제조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제공되는 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를 구득하기 위해 새로운 농가유형 구분에 따른 소득 구조를 분석함<sup>6</sup>.

- 경영주 연령과 표준영농규모를 기준으로 농가 유형을 구분함.
- 다수의 전업농이 65세까지는 이전의 경영규모를 유지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65세를 기준으로 고령농과 청장년농으로 구분함.
- 표준영농규모는 농업의 자본집약화에 따른 축사, 온실 등 농업자본 관련 유형자산을 영농규모로 치환하여 산출한 값으로 단순 재배 면적보다 농업 생산 규모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표준영농규모 = 경지면적+(농업용고정자산/해당년도 평균농지가)**

○ 최근 농가유형별 소득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령 농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농가 소득 증가율의 경우 청장년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령 소농의 경우 소득 증가율이 11.8%, 고령 중대농의 경우 5.6%로 같은 기간 청장년 소농의 소득 증가율인 16.1%와 청장년 중대농의 소득 증가율인 19.3%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1. 농가유형 구조 및 농가 소득 변화

(단위 : 천 원, %)

농가유형	농가 비중		평균 농가소득			평균 농업소득		
	2010	2015	2010	2015	증가율	2010	2015	증가율
고령 소농	47.2%	45.5%	22,100	24,700	11.8%	5,690	5,160	-9.3%
고령 중대농	7.8%	17.4%	35,500	37,500	5.6%	14,800	16,900	14.2%
청장년 소농	32.5%	21.5%	38,000	44,100	16.1%	8,830	5,900	-33.2%
청장년 중대농	12.5%	15.7%	58,500	69,800	19.3%	30,300	36,600	20.8%

자료: 김미복 외(2016),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6 본 장의 농가 유형 분류는 김미복 외(2016)의 농가 유형 분류 기준을 적용함.

- 고령 소농의 경우 최근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6차산업과 관련한 겸업소득의 증가율이 전체 농가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겸업소득의 증가율이 전체 농가 소득 및 농외소득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2. 고령 소농 유형의 소득구조 변화

	2010		2013		2015		증가율 (10-15)
	만원	비중	만원	비중	만원	비중	
농가소득	2,210	100.0%	2,270	100.0%	2,470	100.0%	11.8%
농외소득	789	35.7%	869	38.3%	797	32.3%	1.0%
겸업소득	153	6.9%	185	8.1%	197	8.0%	29.0%

자료: 통계청(각연도), 농가경제조사 재구성

- 고령 중대농의 경우 농외소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겸업소득의 감소율이 큰 것으로 확인됨.
- 고령 중대농의 경우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겸업소득 및 겸업소득이 전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3-13. 고령 중대농 유형의 소득구조 변화

	2010		2013		2015		증가율 (10-15)
	만원	비중	만원	비중	만원	비중	
농가소득	3,550	100.0%	3,300	100.0%	3,750	100.0%	5.6%
농외소득	980	27.6%	751	22.7%	843	22.5%	-14.0%
겸업소득	283	8.0%	242	7.3%	248	6.6%	-12.3%

자료: 통계청(각연도), 농가경제조사 재구성

- 청장년 소농의 경우 농가소득 대부분을 농외소득이 차지하고 있으나 겸업이나 사업에 의한 소득이 아닌 농업 외 부문의 고용에 따른 소득이 농외소득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가소득 및 농외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겸업소득과 농가소득에서 겸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4. 청장년 소농 유형의 소득구조 변화

	2010		2013		2015		증가율 (10-15)
	만원	비중	만원	비중	만원	비중	
농가소득	3,800	100.0%	4,110	100.0%	4,140	100.0%	8.9%
농외소득	2,110	55.5%	2,820	68.6%	2,980	72.0%	41.2%
겸업소득	587	15.5%	645	15.7%	536	13.0%	-8.7%

자료: 통계청(각년도), 농가경제조사 재구성

- 청장년 중대농의 경우 농업 소득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겸업소득을 비롯한 농외소득의 상승이 소득 증가분의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에서 15년 청장년 중대농 유형에 해당하는 농가들의 소득이 연평균 약 1,040만원 증가했는데 겸업소득은 약 300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 겸업소득은 약 49% 증가하였으며,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표 3-15. 청장년 중대농 유형의 소득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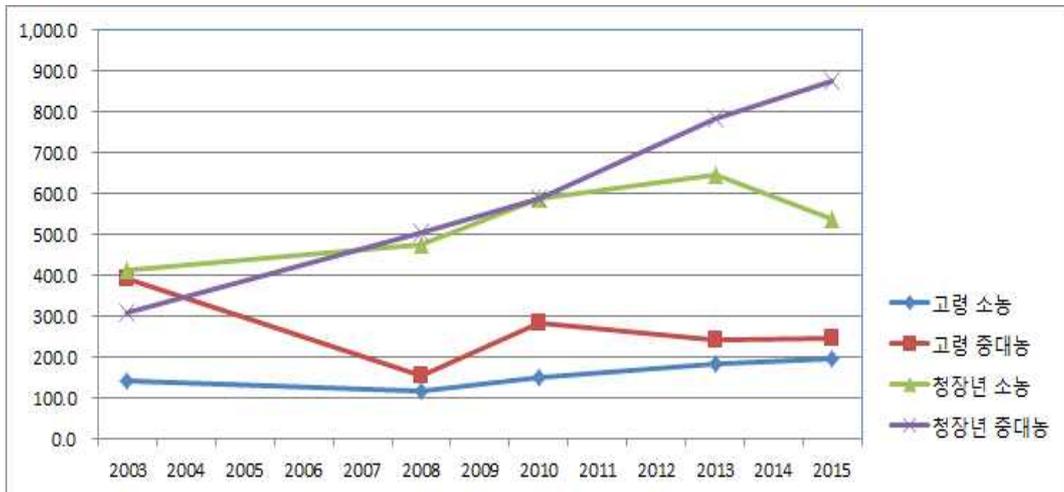
	2010		2013		2015		증가율 (03-15)	증가율 (10-15)
	만원	비중	만원	비중	만원	비중		
농가소득	5,850	100.0%	5,510	100.0%	6,980	100.0%	16.7%	19.3%
농외소득	1,600	27.4%	1,950	35.4%	2,080	29.8%	199.6%	30.0%
겸업소득	588	10.0%	785	14.2%	876	12.5%	185.2%	49.0%

자료: 통계청(각년도), 농가경제조사 재구성

- 청장년 중대농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양호한 집단의 경우 6차산업 정책의 추진에 따른 겸업소득 상승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영 여건이 양호한 경영체 뿐

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6차산업화에 참여하기 어려운 농가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중요함.

그림 3-3. 농가유형별 연평균 겸업소득의 변화



자료: 통계청(각년도), 농가경제조사 재구성

## 2.2. 6차산업 경영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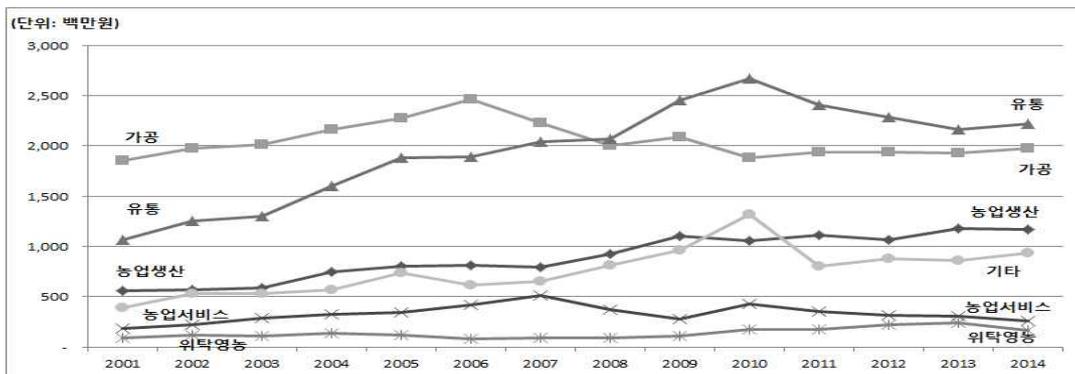
### □ 6차산업화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별 경영체들의 경우 성장의 한계에 직면

○ 6차산업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체들의 경우 경영체 유형에 따라 성장에 정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6차산업화 분야에 참여하는 농업법인들의 연도별 매출액 증가세가 최근 들어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가공, 유통, 서비스 부문의 총량적인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업체당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되는 상황임.

\* 농촌가공산업의 경영체당 매출액: 24.6억 원('06) → 19.8억('14)

그림 3-4. 6차산업 법인당 평균 매출액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각년도), 농업법인조사.

- 관련 업체들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일부 선도 업체를 제외한 여러 업체들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거나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임.
- 연간 매출액 1억 원 미만 법인 수가 2000년 512개에서 2014년 4,741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 565개이던 적자 업체 수도 2014년에는 5,205개로 급증

표 3-16.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따른 업체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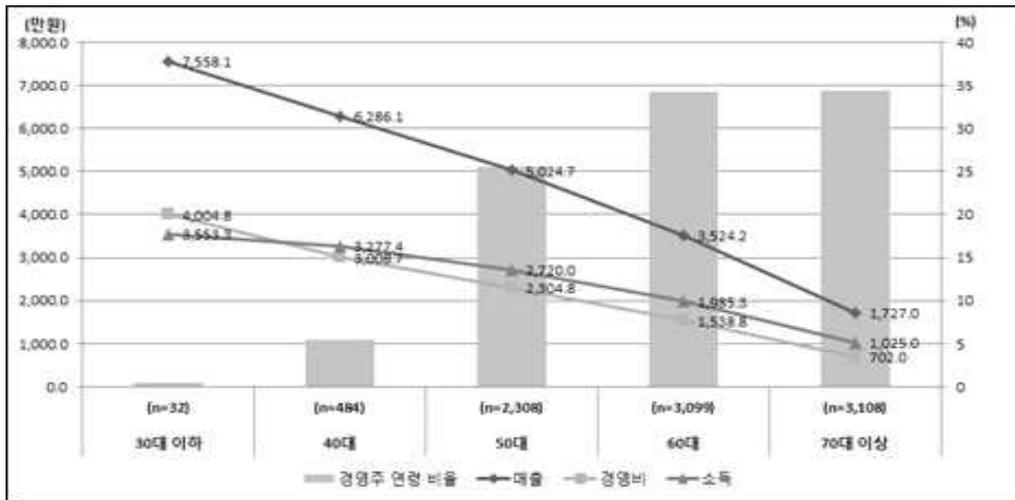
(단위: 개)

구 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1억 원 미만 업체 수	10억 원 이상 업체 수	적자 업체 수	5억 원 이상 흑자 업체 수
2000년	512	332	565	13
2005년	560	734	786	44
2010년	2,494	2,126	2,687	152
2014년	4,714	3,738	5,205	33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수정 및 보완.

- 6차산업 참여 농가 경영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농촌 지역의 고령화는 향후 6차산업 참여 및 농가 외연 확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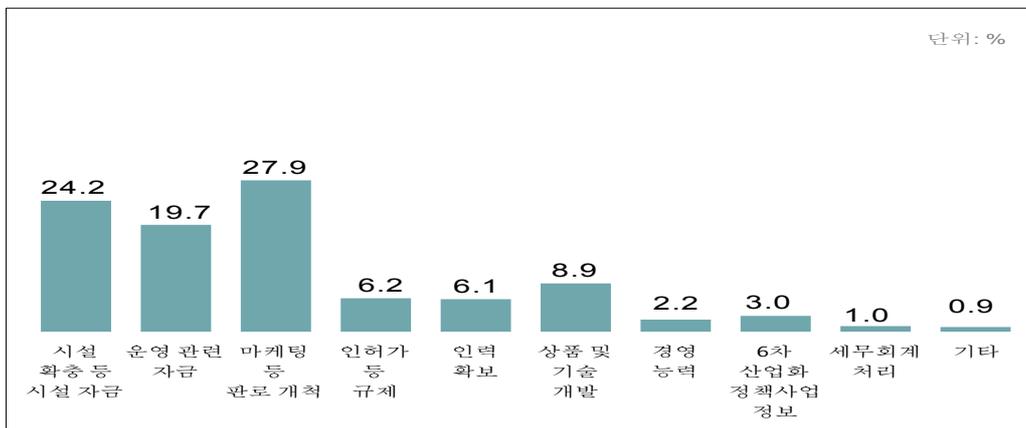
그림 3-5. 6차산업 참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주 연령 분포



자료: 농촌진흥청(2015), 6차산업화 시범사업 성과분석

- 6차산업 참여 경영체의 영세한 경영구조에 기인하여, 일반적인 경영활동과 관련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남.
  - 6차산업 경영체 실태조사 결과, 마케팅 등 판로개척, 시설 확충 등 시설자금, 운영 관련 자금 등의 경영체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전년도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특징을 보임.

그림 3-6. 6차산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자료: 농촌진흥청(2015),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보고서

### 2.3. 6차산업 관련 시장 환경 변화

□ 소비 트렌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한 지역단위 6차산업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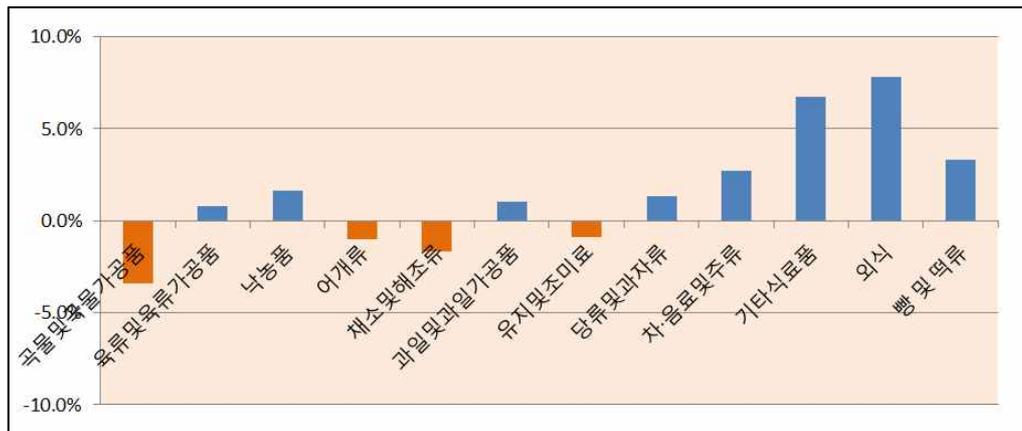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6차산업 외연 확대에서 발전하여, 제품·서비스에 대한 소비기반 확충을 추진
  - 6차산업 관련 제품이 소비자에게 차별성 있는 제품으로 인식되고 독자적 시장을 확보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인증제도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소비 트렌드 변화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요구됨.

□ 식품 소비의 경우 가공식품 품목의 소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sup>7</sup>.

- 1982년 이후 식품류별 연평균 소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곡물, 채소, 어패류 등의 경우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식료품, 외식, 빵 및 떡류 등 가공식품 및 외식과 관련한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곡물, 육류, 낙농품, 어패류, 채소 및 해조류, 과일류에 속하는 식품류의 소비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2025년까지 곡물, 과일, 채소, 육류에 대한 가구별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sup>7</sup> 본 절에서 제시한 식품 소비 변화에 관한 내용은 현재 연구 초진 중인(2016.1~10) 이계임, 김상효, 허성운, 2016, '한국인의 식품소비 심층분석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결과보고 세미나(2016, 10. 19) 자료 내용을 재구성 하여 수록한 것임.

그림 3-7. 식품별 연평균 소비 증감률(1982~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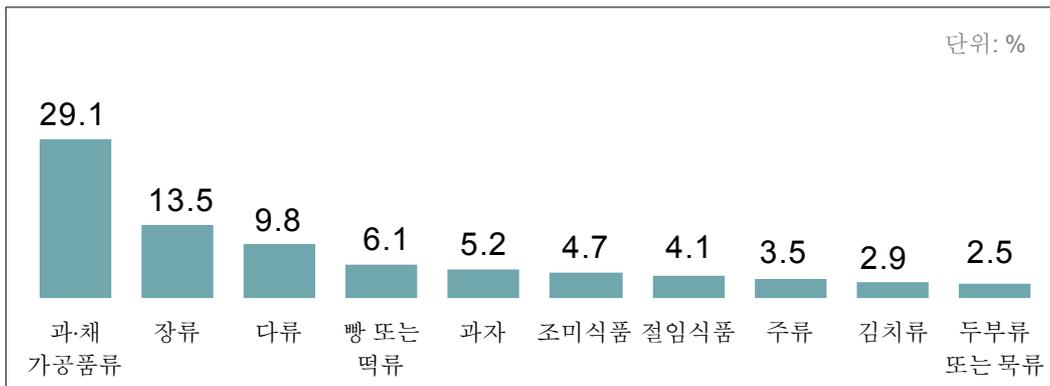


자료 : 이계임 외(2016), 한국인의 식품소비 심층분석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러한 소비 추세에도 불구하고 6차산업 가공 관련 제품의 경우 전통적인 과일 및 채소 가공품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6차산업 지원 사업의 투자 비중 중 제조·가공 부문에 투자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며, 6차산업 참여 경영체 매출액의 80%가 가공 매출액임을 고려할 때<sup>8</sup>, 제조·가공 부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
  - 과채 가공품류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장류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소비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로 현재 가공제품 비중이 시장 변화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식품 소비와 관련한 텍스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비 트렌드를 살펴본 결과, 건강/안전에 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급/다양화에 대한 텍스트 출현 빈도가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합리화나 윤리적 소비에 대한 텍스트는 출현빈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8 2015년 농촌진흥청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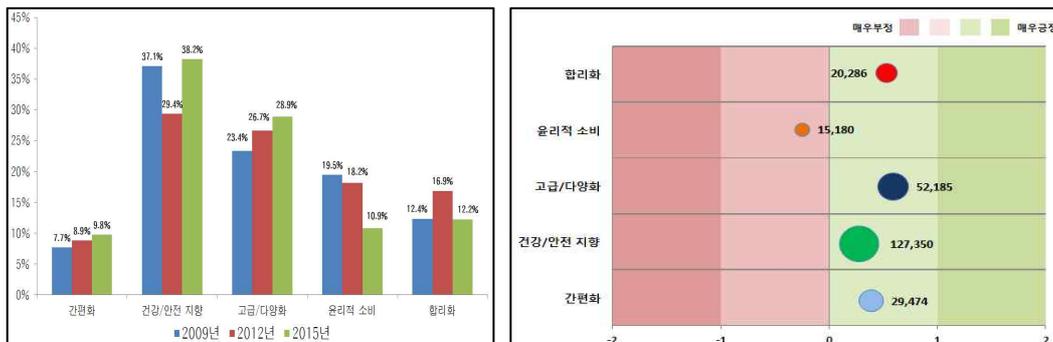
그림 3-8. 6차산업화 경영체의 농식품 가공매출액 상위 품목



자료: 농진청(2015),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 단순한 출현빈도 뿐만 아니라 출현 텍스트의 성격을 함께 살펴보면, 고급, 다양화와 관련한 텍스트에서 긍정적인 경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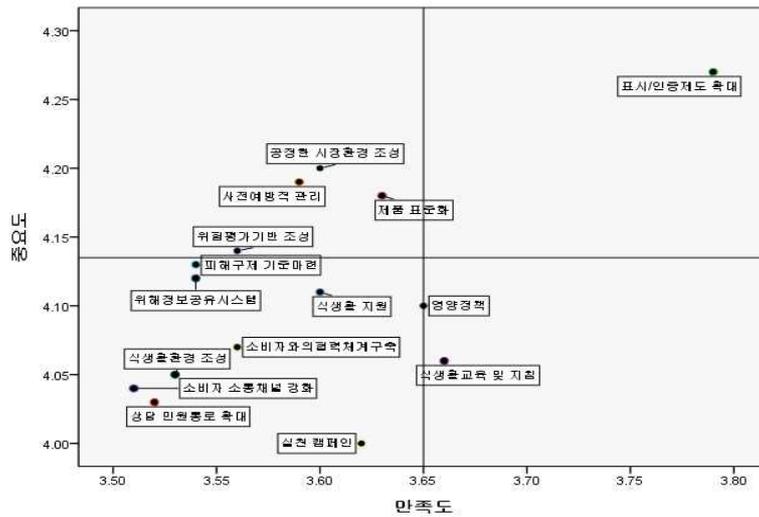
그림 3-9. 식품소비트렌드 텍스트 분석(좌: 출현빈도, 우: 텍스트 경향)



자료 : 이계임 외(2016), 한국인의 식품소비 심층분석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정책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ISA) 결과 ‘표시/인증제도 확대 및 강화’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0. 농식품 소비 세부정책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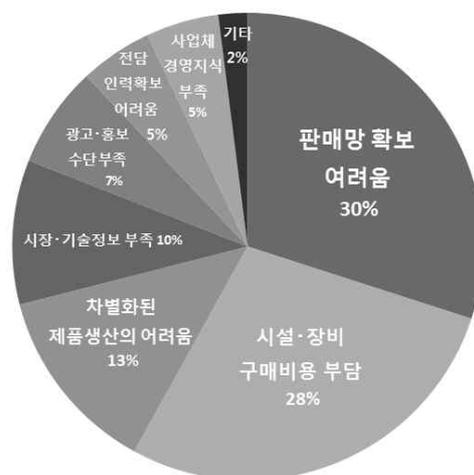
자료 : 이계임 외(2016), 한국인의 식품소비 심층분석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현재 6차산업화 정책으로는 다변화하는 관련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기존 6차산업 지원 정책의 경우 참여 법인 및 농가 확대를 통해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였지만, 관련 제품 구매 의향이 높지 않고, 6차산업화와 관련한 세분화된 시장도 발달되지 않은 상황
  - 6차산업화에 참여하려는 농가 및 법인의 수요는 크나,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해 지속적인 판로나 제품의 차별성을 갖지 못하면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6차산업화 활동 참여 법인 및 농가 확대를 통해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데 주력하였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련 제품 구매 의향이 높지 않고, 6차산업화 세분 시장도 발달하지 않은 상황임.
  - 6차산업화는 대부분 식용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 내 전통문화, 생태 환경, 지질, 경관 등 다양한 무형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 개발이 미흡

- 6차산업 인증사업자(960개소) 중 비식용자원을 활용하는 경영체는 54개소로 약 5.6% 수준이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288개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중 식용자원을 사업 아이템으로 삼은 경우가 93.2%를 차지
- 6차산업화 관련 제품이 소비자에게 차별성 있는 제품으로 인식되지 못하여 독자적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제품 품질 관리, 명성 유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하여 다양한 틈새시장 공략에 한계를 지님.

그림 3-11. 6차산업화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 농산품 가공 산업의 경우도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품의 생산보다는 대부분 단순 가공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농진청(2014) 6차산업 실태조사 결과, 생산과 가공을 병행하는 가운데 6차산업화에 참여하는 농가들 대부분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낮은 건조, 세정, 절단, 혼합 등의 단순 가공작업 비중이 높게 차지하며(84.2%), 법인의 경우도 49.9%가 단순 가공에 그치고 있음.

- 6차산업화 정책 추진 결과로 농가 단위 6차산업화가 상당수 늘어났으나, 상업적 목적보다는 지인에게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는 수준에 그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축산물 직거래의 경우도 고객은 일반소비자 개인인 경우가 94.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는 경로 1순위는 '지인의 요청'인 경우가 8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농진청 2014).

### 3. 지역단위 6차산업화 관련 현황 진단

#### 3.1. 6차산업화 지역 추진체계의 효과성

- 6차산업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단위의 지원체계를 구축
  - 광역 자치단체별 6차산업화 지원센터를 두고, 지역의 6차산업 경영체 지원 및 정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
    - 6차산업화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 코칭 등 경영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6차산업 경영체 실태 조사 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기초적인 자료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지역에서의 6차산업 추진 체계 현황 및 개선 과제에 대한 조사를 수행
  - 지역별 6차산업화 지원센터에 대한 방문·인터뷰 조사를 실시
    - 6차산업 추진 체계 상의 문제점, 지역단위 경영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지역별 지원 사업 추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

- 인터뷰는 7개 지역의 6차산업화 지원센터장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수행

□ **도별 지원센터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한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도별 6차산업화 지원센터가 활동 중이지만, 현장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광역 단위로 설치된 6차산업화 지원센터의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시·군 단위 이하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등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 또한 6차산업 가치사슬이 지역에 뿌리내림으로써 지역 내 주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만큼, 지역별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지역 경영체 간 개방적 협력 네트워크 형성의 어려움**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의 추진 방향에 따라 주체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존의 거래관계나 협의체 구조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 거래관계 대신 새로운 거래 관계 형성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경영체들이 많음.
  - 지역 내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할 코디네이터들이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아 네트워크 지원에 소극적임.
- 농협 등 기존 경영체 협의체 및 유사 조직의 지역 내 영향력이 강한 까닭에 새로운 형태의 협의체가 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기존 품목 중심의 협의체나 생산자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이업종 간 교류나 농업 경영체 외 타 주체들과의 네트워크가 어려운 현실임.

- 특화 품목 중심의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특화 품목 외 경영체들이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이는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혁신 창출에 제약으로 작용

**□ 지역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6차산업화 지원체계 구축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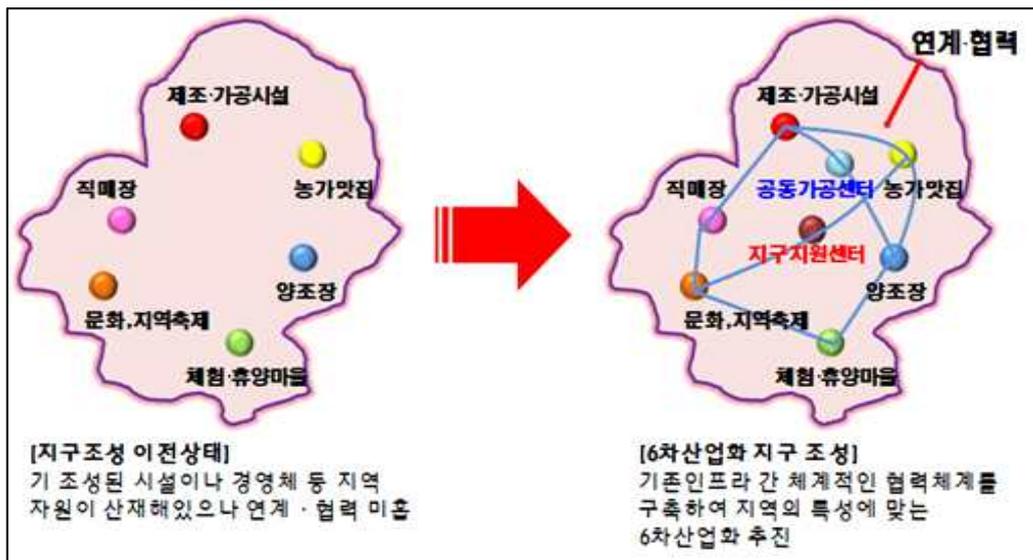
- 현재 지역 지원기관은 농식품부의 업무 매뉴얼에 따라 정책 및 사업의 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의 6차산업 전략 수립과 같은 기획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지역의 지원센터의 경우 개별 경영체의 컨설팅 및 정부 정책·사업의 지원 기능에 한정되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지역(지자체)별로 6차산업 관련 역량이나 관심도 상이한 까닭에 지역 간 정책 추진의 편차가 큼
  - 6차산업화에 대한 지자체별 역량 및 정책 관심도가 상이하여 지역 6차산업화 자원의 발굴 및 육성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축되어 있는 지원센터 중심의 지역 추진체계에서 발전하여 6차산업을 비롯한 농촌산업 육성 전반과 관련하여 시·군, 마을 등 다양한 공간 범위에서 정책·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장기 과제로 제시됨.

### 3.2. 지역단위 6차산업화 관련 지원 사업 운영 실태

□ 현재 6차산업 관련 지원 사업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6차산업화 지구) 사업이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의 주요 정책 수단임.

- 정책 대상을 6차산업 관련 생산활동, 경영체가 집적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경영체 간 다양한 융복합 활동을 통해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을 꾀한다는 점에서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가치에 부합
  - 2014년부터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올해까지 총 16개의 사업 지구가 선정되었음.
  -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식품부에서 지구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이나 공동 마케팅·홍보·관료확보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그림 3-12. 6차산업화 지구 조성 사업 구상도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2016), 한·중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발표자료

표 3-17. 6차산업화 지구 조성 현황

시·도	시·군	지구명	착수
충북	영동	영동 포도 와인 지구	'14년 착수
전북	순창	순창 차세대 장류 지구	'14년 착수
경남	하동	하동 녹차 지구	'14년 착수
강원	횡성	횡성 한우 지구	'15년 착수
충남	서천	서천 한산소곡주 지구	'15년 착수
전남	영광	영광 찰보리 지구	'15년 착수
경북	의성	의성 마늘 지구	'15년 착수
경북	문경	문경 오미자 지구	'15년 착수
제주	서귀포	서귀포 감귤 지구	'15년 착수
강원	강릉·평창	강릉·평창 고랭지 배추 지구	'16년 착수
충남	공주	공주 알밤 지구	'16년 착수
전북	장수	장수 레드푸드 지구	'16년 착수
경남	함양	함양 산양삼 지구	'16년 착수
전북	고창	고창 복분자 지구	'17년 착수(예정)
전남	고흥	고흥 유자 지구	'17년 착수(예정)
경북	마	안동 마 지구	'17년 착수(예정)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 6차산업화 지구 조성 사업의 추진 결과, 개별 지구의 경영체 매출 증가율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최초로 조성된 3개의 6차산업화지구의 경우 사업 전과 비교해서 매출의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6차산업의 외연이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8. 2014년도 조성 6차산업화 지구의 매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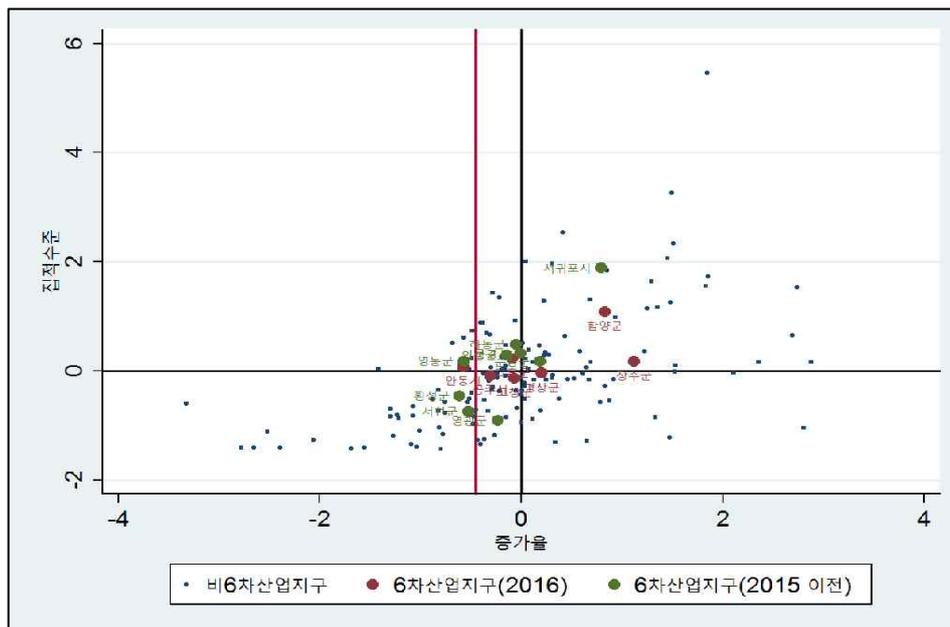
(단위:백만원)

구분	매출액				6차산업화 지구별 매출성과		
	2013년 (사업전)	2014년	2015년	2016년 (10월기준)	사업기간 평균매출액	전년대비 평균증감율	사업전대비 증감율
하동 녹차	28,250	31,100	32,900	33,500	32,500	4.9%	15%
순창 장류	360,000	392,900	391,200	423,200	402,433	7.19%	11.8%
영동 포도 와인	930	1,225	4,570	4,700	3,498	2.8%	376.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하지만,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내 농가의 6차산업 참여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임.
- 2010년, 2015년 통계청 농업총조사를 기준으로 6차산업화에 해당하는 경제 다각화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의 수를 시·군 단위로 분석한 결과, 6차산업화 지구 중 다수가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3-13>.
    - 일부 시·군의 경우 6차산업 참여 농가의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차산업 참여 농가의 집적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6차산업 경영체가 집적하고 성장하는 지역을 정책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6차산업화 지구 선정 지역의 경우 6차산업 참여 농가의 집적 수준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그림3-13>.

그림 3-13. 6차산업화 지구 시·군 및 비지정 시·군의 6차산업 참여 농가 증감 비교



자료 : 통계청, 2010, 2015년도 농업총조사 자료 재구성

□ 6차산업화 지구 운영 주체에 대한 인터뷰 조사 결과, 집적화에 따른 성과와 함께 다양한 개선 과제들이 도출됨.

- 6차산업화 지구별 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가치사슬의 외연을 확장하는 사례들이 나타남.
  - 순창 장류 지구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소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던 농가의 공동 판매 기반을 확충하는 성과를 달성
  - 영광 찰보리 지구의 경우 보리 부문 뿐만 아니라 낙농업 등 지역 내 다양한 품목 간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사슬의 확산을 꾀함.
  - 영동 포도와인 지구의 경우 와인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 연구회를 조직하여, 마케팅 및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수립
- 지역단위의 지원체계 부재로 인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나타남.
  - A 지구의 경우 제조업체가 6차산업의 주요 경영체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과의 연계와 농가 참여 확대를 강조하여 농업 지도 관련 지원 주체가 6차산업화 지구 사업을 운영·관리함에 따라 지역 내 주체들의 정책 수요 반영 및 효과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음.
  - B 지구의 경우 지역 내 지원 기관이 부재하고, 지역 외부 주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부족한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6차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나 체계가 구축되지 못함.
- 6차산업화 지구 간에도 성장 경로 및 발전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지역의 차이를 고려한 6차산업화 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은 부재
  - 6차산업화 지구를 비롯하여, 농식품부가 선정한 지역단위 6차산업 정책의 후보 지역을 살펴보면, 생산활동의 특성과 발전 경로 및 단계가 다양하게 나타남.

- 지역 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시도는 있지만, 유형별 지원 사업 추진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사업 설계는 이루어지지 못함.

표 3-19.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 대상 지역의 유형

	특화품목의 6차산업화	선도 경영체의 가치사슬 확산	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화 품목(1차) 중심</li> <li>• 초기 단계에서는 2, 3차 경쟁력이 낮으며 6차산업 선도 경영체 부족</li> <li>• 2, 3차 제품의 유통, 판매 역량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 경영체가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확산</li> <li>• 초기 지역 주체 연계 수준 낮음, 특화품목 형에 비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마케팅을 통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 브랜드 중심의 6차산업화</li> <li>• 특화도 및 주요 경영체의 시장 경쟁력 낮음</li> </ul>
주요 사례지역	ex) 고창 복분자, 하동 녹차, 문경 오미자 등	ex) 순창 장류, 서천 소곡주 등	ex) 장수 레드푸드 등

#### 4. 소결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 과제

##### □ 농가, 경영체 등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모색

- 기존 6차산업화 정책은 개별 농가나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
  - 상대적으로 역량이 열악한 농가, 경영체의 경우 개별적인 사업다각화가 어려우며, 농가 유형별 6차산업화 관련 겸업소득의 변화에서도 확인됨.
  -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경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농가라고 할지라도, 가공, 체험 경영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6차산업화 가치사슬의 편입을 유도하고 이를 새로운 소득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

- 개별 주체들의 다각화에 더해 6차산업 가치사슬 상의 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농가, 경영체의 6차산업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
  - 일반 농가들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6차산업화 추진보다는 거래관계 편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6차산업 가치사슬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0. 농가들의 6차산업 참여 방식 선호

희망하는 6차산업 참여 방식	응답자수(명)	비중(%)
농가 독자적으로 추진	92	24.2
기존 민간기업과 거래관계 형성	32	8.4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추진	90	23.7
로컬푸드를 통한 판매, 가공, 체험프로그램 참여	156	41.1
기타	10	2.6
계	380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 농촌공동체회사,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체험·관광, 6차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 대상의 단위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주체들의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산업화 기반의 강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를 비롯한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다양한 경영체 육성과 지역 자원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지역 개발 경영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생력 증진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지원 이후 급속하게 침체되는 지역 공동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중요
- 농촌의 인구·사회 변동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
  -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경영 다각화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주의 고령화 이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농촌의 인구 고령화는 계속해서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6차산업을 매개로 다양한 계층의 농촌 산업 가치사슬 편입을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
- 농촌에 거주하되 농업 부문의 종사비율이 높지 않은 청년 소농 계층에 대해 각자의 특성에 맞도록 6차산업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는 것이 중요

**□ 지역 전략산업으로서 6차산업의 위상을 강화하고 산업적 관점에서 지역 6차산업 고도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

- 새로운 혁신 추구 및 타 분야와의 적극적인 융복합을 추진
  - 농촌 관광의 경우 관광 추세는 과거의 대중관광과 달리 관광객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기에 마이크로 관광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나고 있으며, 극도로 파편화되고 분절화된 관광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촌관광 역시 끊임없이 새롭고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혁신 추구가 필요함.
  - 그러나 개별 경영체나 마을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농촌관광으로는 이러한 혁신 추구에 있어 다양한 역량 부족을 절감할 수밖에 없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타 지역과의 자원 연계, 타 분야와의 융복합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역 내 주체 간의 집합적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 소비 트렌드를 고려한 다양한 상품의 개발 및 인증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이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의 중요한 과제**

-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에 대응하여 보다 다양한 상품군의 개발이 요구됨.
  - 음료, 분말 등의 단순 가공 제품으로는 지속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

는 데 한계가 있음.

-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수요자의 분화에 따른 다양한 소비행태 및 수요에 대응하여 고령친화 식품, 기능성 식품, 간편식 등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요구됨.
  - 특히 열거한 식품군의 경우 일반적인 6차산업화 경영체의 개별 역량만으로 R&D 및 마케팅에 한계가 있음.
  - 지역 내 혁신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의 고도화, 공동 마케팅 등 집합적 활동을 통해 지역단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식품 관련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 및 만족도가 높은 만큼 이를 6차산업 인증제도 운영 방향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6차산업 인증제도 하에서는 소비자들이 인증제품이나 인증 경영체에 대한 차별성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6차산업 경영체 인증 내지는 제품·서비스 인증과 관련하여 제품·서비스의 안정성 등 신뢰도와 관련한 기준을 포함시켜, 인증제도가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인 가치를 인지시킬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6차산업의 경우 대부분 식품 중심의 상품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존 품목과 관련하여 새롭게 6차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것이 지역 공통의 현실임.
- 최근 강조되고 있는 비식용자원의 6차산업화 및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기초한 농촌 관광 활성화에 앞서 지역 역사·문화 자원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미 조사되어 있는 지역별역사·문화·생물 자원에 대한 재평가 등의 작업이 필요함.

- 지역 내 새로운 상품·서비스 가치사슬 확산 등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지역단위 지원체계의 개선이 요구됨.
- 현재 지역단위 6차산업 추진 체계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6차산업화 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지자체, 농협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됨.
  - 현재 6차산업화 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역 내 기관 간 효과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형태를 취하는 가운데 지역의 특성과 정책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 체계 구축이 요구됨.
  - 중앙정부-지자체-지원기관 간 체계적·효율적인 지역단위 6차산업 정책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됨.
- 지역단위 6차산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및 산업 구조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단위로 추진되는 6차산업화 실태조사의 경우 경영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침.
  - 주체 간 네트워크의 경우 생산, 제조·가공, 체험·서비스 등 각각의 주체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각기 다른 영역에서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까닭에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개념이나 의의만으로 이해 관계가 다른 지역 주체들의 연계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 효과적인 정책추진과,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역단위 6차산업 관련 가치사슬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단순히 거래관계나 협력 관계의 형성 유무만을 조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투입, 산출 흐름 및 부가가치의 창출, 그리고 지역 내 고용 및 혁신활동의 기여도와 같이 실체적 편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치사

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 내 주체들의 효과적인 가치사슬 구축 방향 및 정책 수단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함.

표 3-21. 지역단위 6차산업 추진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문제점 및 원인	개선방향
지역 내 네트워크 활성화(농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거래관계에 고착(lock-i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li> <li>• 인증자 협의회 등 경영체 조직의 내실 있는 운영</li> </ul>
이중 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집합적 활동,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부문별 분절된 거래관계</li> <li>• 경제활동 주체 외 지원기관과의 상시적 협력에 어려움</li> </ul>	
다양한 제품·서비스 가치사슬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부존 자원의 부족</li> <li>•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개별 경영체들의 역량 한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의 실제 흐름에 기초한 가치사슬 분석 실시 및 결과의 활용</li> <li>• 역사, 문화, 생물, 경관 등 타 정책 영역에서 조사된 자원 가치 재평가 및 활용 방안 모색</li> </ul>
지역단위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사군 단위의 열악한 지원 체계</li> <li>• 지역 지원기관의 역할 및 기능 한계</li> <li>• 지역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의 기획 기능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 지자체 - 지역 지원기관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체계 구축 필요 (ex 산업부-KIAT- 테크노파크)</li> </ul>

자료 : 6차산업화 지원센터 및 6차산업화 지구 인터뷰 내용 정리

○ 지역의 발전 경로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의 수립 필요

- 현재 지역단위 6차산업화 관련 사업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유사한 형태의 지원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단위 추진체계 하에서 지역별로 상이한 발전경로와 수준을 고려하여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중장기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제 4 장

---

###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 및 시사점

#### 1. 자원 융복합화를 통한 농촌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사례

##### 1.1. 농촌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

###### (1) 그리스 Leonidio - 지역 문화·역사 유산기반의 지역 활성화

###### □ 지역 개요

- Leonidio 지역은 전형적인 원격지 농촌지역으로 경제적 기회의 축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의 외부 유출을 겪어온 지역임.
- Leonidio 지역은 산으로 둘러 쌓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서부터 고유한 지역의 언어·의상과 같은 향토 문화 유산을 잘 보존
  -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Melitzazz 축제를 개최함.
  - 전통 춤 및 노래 공연, 외부 예술가 초청공연을 기획하여 전통과 현대 예술적 요소를 융화시켜 축제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

## □ 주요 사업 내용

- Leonidio 지역의 향토문화 자원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보다 많은 관광객들의 유치하기 위한 지역 역사, 문화 유산 중심의 농촌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EU LEADER)
- 지역 건축 유산을 활용한 농촌 관광 활성화
  - Leonidio 지역 내 Tsakonia 양식의 건축 자산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고, 건축 유산에서 기획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콘서트, 연극, 전시회 등)를 개최하고 유산을 중심으로 관광객 대상 이벤트를 개최
  -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포스터, 배너 등을 제작하여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공모, 복권 등을 통해 방문객을 유도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병행
- 지역 역사 유산을 거점으로 한 문화예술 축제 개최
  - 2015년부터는 대표적인 문화 이벤트로 지역에서 개최하는 ‘Fabbrica of Culture’ 전시회와 ‘Melitzazz’ 축제에서 Tsakonia 양식의 건축에 대해서 홍보하고, 축제 기간 동안 전통 양식 건축물에서 기획할 수 있는 이벤트를 다양화시켜 축제의 품질을 제고
  - 2016년에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함.
  - Leonidio 지역 내 주요 Tsakonia 양식 건축물에서 전통음악 및 춤, 재즈, 현대음악 및 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영화 상영, 어린이 체험 활동, 발표 등을 기획함.
  - 다양한 장르의 사진,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전통 건축 양식, 음식, 전통 공예품 등을 함께 전시함.

그림 4-1. Leonidio 지역 'Melitzazz' 축제



자료: Melitzazz 축제 홈페이지(<http://www.melitzazz.gr>; 2016. 10.14)

## (2) 덴마크 North Jutland - 공예산업 육성(The Taste of Craft)

### □ 개요

- 덴마크 북부지역으로 Jutland의 북쪽 지역과 Kattegat, Skagerrak, 북해를 끼고 있으며, 덴마크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임.
- 지역 내 농민과 수공예 장인 그리고 예술가 등의 협력에 기반하여 공예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가공산업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킨 사례
  - 'Visit North Jutland'라는 지역 내 관광 진흥 기관에서 2000~2006년 Leader+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기존 사업 지역을 확

대시커 덴마크 북쪽 전 지역에 있는 5개의 LAG(LAG Vendsyssel, LAG Brønderslve, LAG Thy-Mors, LAG Jammerbugt/Vesthimmerland, LAG Himmerland)가 공동으로 협력한 사례

#### □ 주요 사업 내용

- 사업은 5개 LAG지역의 발전전략의 목적과 내용을 반영하여 관광업 강화, 식품산업 발전,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진행
  - 지역 내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의 관광 매력 지수를 높이며 여름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6차산업화 활성화와 유사한 성격을 지님.
- 지역 내 주체들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하고 기존 관광상품의 고도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추진
  - 사업 코디네이터는 지역 농민이나 장인 및 기능보유자들과 함께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
  - 이벤트는 주로 여름에 예술 갤러리나 마을 광장에서 열렸으며, 이벤트의 주요 내용은 농민이나 장인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수공업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직접 제작 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그림 4-2. 덴마크 North Jutland 지역의 공예중심 관광 프로그램





자료: ENRD(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홈페이지 내 리플렛 참조  
 ([http://enrd.ec.europa.eu/enrd-static/policy-in-action/rdp\\_view/en/view\\_project\\_11100\\_en.html](http://enrd.ec.europa.eu/enrd-static/policy-in-action/rdp_view/en/view_project_11100_en.html) 2016. 10.14)

#### □ 지역단위의 주체 간 협력

- 농민과 장인 및 기능보유자 간 다양한 협력(거래관계) 네트워크 형성
  - 5개의 LAG가 속하는 지역에 농민과 장인 및 기능보유자 네트워크가 40여 개 구성되었으며, 사업 지역 내에 2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일 관광객의 수도 200명 정도 증가함.

### (3) 중국 계림 - 문화·경관 자원을 활용한 공연(인상유삼저)

#### □ 개요

- 지역의 전통, 문화적 자산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집합적 활동에 기반하여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한 사례
  - 지역의 설화와 지역 내 경관을 바탕으로 공연상품의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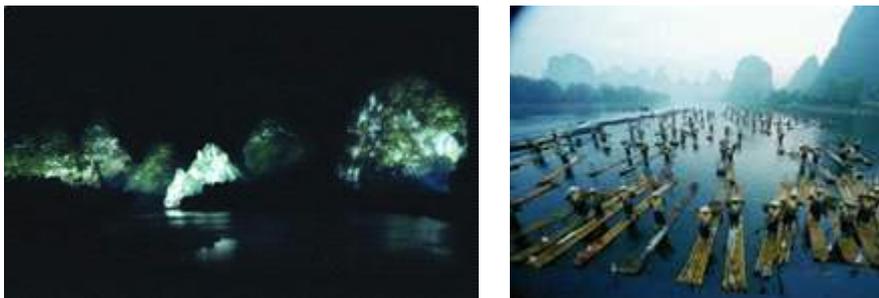
#### □ 주요 내용

- ‘인상유삼저(印像 劉三姐)’
  - 중국 유명 영화감독인 장예모 감독이 기획하고 연출한 실경수상 뮤지컬
  - 중국 계림지역에 오랫동안 구전되던 유삼저(유씨 집안의 셋째 딸) 설화

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로, 계림의 수려한 이강(漓江)과 주변 12개 산봉우리를 무대와 배경으로 공연

- 2004년 공연을 시작한 이래 거의 매일 2회씩 공연하고 있으며 4,000석에 이르는 객석이 매회 매진
-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뮤지컬 공연에 동원되는 인원이 700명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족과 묘족 등의 소수민족 주민
  - 관람료가 우리 돈 4만 원 정도에 이르는 고가임을 고려하면, 인상유삼저 및 관련 관광이 지역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그림 4-3. 중국 계림 실경수상 뮤지컬 인상유삼저



자료: 인상유삼저 인터넷 홈페이지(<http://en.yxlsj.com>); 김광선(2016), “문화를 생산하고 꿈을 파는 창조산업으로 거듭나야 할 농촌 관광”, 웹진 문화관광

## 1.2. 생태, 지질, 경관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

### (1) 오스트리아 Gesause 지역 - Geoline

#### □ 개요

- EU Leader+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지역의 지질학적 가치 및 자원을 바탕으로 농촌 관광을 활성화 시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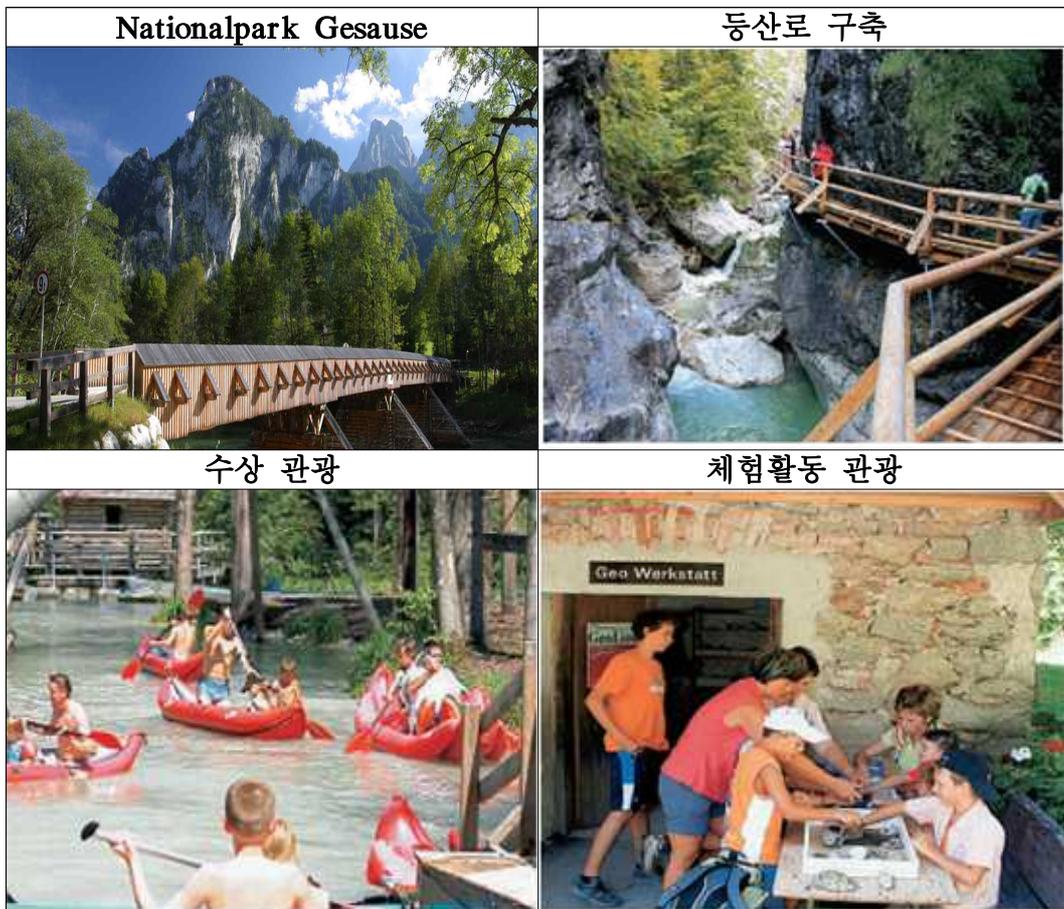
- 사업 추진주체인 오스트리아의 Gesause Eisenwurzen LAG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Solktaler 자연 보존 지역과 더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변의 유명 도시인 Liezen과 Dachstein-Tauern 지역의 그늘에 가려져 관광 부문의 성장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
  - 사례 지역은 오스트리아 중부의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음.
  - 인구밀도가 19명/km<sup>2</sup>이고 17개의 마을을 포함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낙후된 지역임.

#### □ Geoline 주요 내용

- 지역 내 하위 지역(마을) 간 연계를 통해 공동마케팅, 집합적 활동에 기초한 새로운 지역 관광 활성화 기회를 창출
  -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내 17개의 마을의 기존 프로젝트와 활동을 연계하기 위해 17개 마을에서 공동 테마 및 브랜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을 리모델링하고 공동 마케팅 활동을 추진
  - 사업의 주요 전략으로써 잠재적 여행객들에게 지역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12개 마을에서 함께 ‘Nationalpark Gesause 지질공원’이란 브랜드를 개발
  - 특히 문화 부문에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이벤트 및 홍보 패키지를 지역 사회 차원에서 함께 기획하고 추진함.
- 30개의 세부사업은 지역 내 여러 관광지과 관광 명소에서 동시에 추진되었으며, 전시회 개최나 산악 기차와 같은 관광 인프라 구축 활동 등을 포함하며 이는 5개의 주요 사업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관광 인프라 투자

- 관광 가이드 역량강화
- 파트너 간 네트워크 형성
- 마케팅(웹사이트 구축 포함)
- 통합된 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 주요 사업 추진 결과: 지질학 전시회, 지역 내 카르스트 지형과 사업 지역 관광 명소에 대한 비디오 제작, 4개의 등산로 구축, 지역의 산맥 3D 모델 제작, 사이버 비행 프로그램 개발, 지역 관광 정보 센터 건립 등

그림 4-4. Geoline 프로그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9), A Selection of Leader+ Best Practices

## □ 지역단위 관광 정착을 위한 노력

- 지역의 내생적 자원에 기초하여 혁신활동을 통해 지역 산업의 새로운 발전 경로를 창출
  - 사례 지역이 오스트리아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다양한 지역 중 하나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지질학이라는 테마를 사업의 주테마로 선정하였고, 지역 내에 산재해 있던 많은 관광 명소와 지역 조직을 연계한 관광 패키지 상품을 개발함.
  - Geoline 사업은 사업 시작에 앞서 2년간 과학자들과 지역개발 전문가들이 함께 진행한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연구 결과에 따라 지질학, 식물학, 지역 역사에 기반을 둔 30여개의 관광 자원을 발굴함.
  
- 지역 내외 주체들간 네트워크에 기반한 공동의 가치 창출 노력
  - 지역의 LAG에서는 효과적으로 외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는데, 유럽 지질공원 네트워크와 유네스코 글로벌 지질공원 네트워크 멤버십에 가입하여 전 세계에 있는 지질공원으로부터 성공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음.
  - 유럽 내에서 추진 중이던 Interreg IIIC 사업(유럽의 지질공원: 유럽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참여함으로써 유럽 내 타 지역의 지질공원들을 벤치마킹하여 성공 요소들을 사업의 다양한 활동들에 반영
  
-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공동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 EU의 Leader+ 프로그램에 선정된 사업이며, 2004년 5월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3년 반 기간 동안 총 예산은 1,939,000 유로(한화 약 25억 원)이 투입
  - 584,000 유로는 EAGGF, 200,000 유로는 국가 지원, 1,155,000 유로는 민간 투자로 충당

## (2) 일본 아카자와(赤澤) - 산림관광·의료 융복합을 통한 지역단위 관광 활성화

### □ 지역 개요

- 나가노현 아게마츠정(長野縣上松町)에 위치한 ‘아카자와 자연휴양림’은 에도시대부터 ‘나무 한그루에 목숨 하나’ 라고 불리어질 만큼 엄격한 산림 보호정책으로 기소(木曾)<sup>9</sup> 편백천연림을 관리해온 지역
  - 그 중 하나가 사례 지역인 아카자와 자연휴양림 지역이며, 예로부터 자연자원이 풍부한 기소 지역은 산림 자원이 아름다워 산책 코스로 유명
- 수입자재에 밀려 목재로서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 지역 임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별채에 의존하는 대신 산림의 관광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꾀함.
  - 1969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어 1982년에는 일본 최초 삼림욕대회 개최
- 지역 개요
  - 인구: 4,760명(남 2,294명 여 2,466명) 2016년 9월 현재
  - 세대수: 2,148세대
  - 산업: 목재산업을 기반한 산림 지역으로 목재, 목공, 농림업 등이 발전
  - 관광: 대표 관광자원으로 삼림욕의 발상지인 아카자와 자연휴양림과 일본 최대 화강암 산맥 ‘중앙 알프스 기소 고마가 타케’가 있으며 해발 2,956m이고 산악인 월터 웨스턴 등정 루트로 유명

<sup>9</sup> 옛 지명의 하나; 長野縣(나가노현)의 남서부, 木曾川(=長野縣·岐阜縣·愛知縣을 동쪽에서 남서로 흐르는 강) 상류의 총칭.

## □ 주요 사업 내용

- ‘산림욕’에 대한 건강증진의 과학적인 검증과 체류형 관광 촉진
  - 1989년 이후 관광객 및 방문자 수 둔화로 새로운 관광 콘텐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는 가운데, 2004년 산림테라피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제1기 산림테라피 거점으로 인증 받음.
- 산림테라피 프로젝트 추진(2004)
  - 아카자와 자연휴양림을 산림테라피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의회가 발족
  - 방문객 창구역할은 관광협회에서 현지가이드는 NPO 기소편백나무숲회원이 그리고 의료는 현립기소병원이 각각 담당하여 지역 산림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 경쟁 지역과의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에 노력
  - 일본 내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위해 효과가 높은 편백 기반으로 아름다운 산림과 더불어 목공제품, 다양한 천연 편백 제품 등을 개발·판매를 실시
  - 특히 중장년층 타깃 외국인 관광객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기존 방문 체류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수립

그림 4-5. 아카자와 산림 테라피 자연휴양림 및 체험시설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청(2015). 日本を元氣にする地域の力

## □ 지역단위의 주체간 협력 노력

- 산림 관련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사슬의 창출
  - 나가노 현립 기소병원의 경우 산림테라피 관련 R&D를 수행함으로써 산림테라피의 의료적 가치에 대해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꾀함.
  - 나가노 현립 기소병원의 단기종합건강진단을 연계한 ‘산림테라피종합검진’에서는 의사가 건강상태에 최적인 산림산책을 처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산림테라피 가이드가 관광객들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
  - 나가노현기소(長野縣木曾) 간호전문학교는 신슈(信州)기소간호전문학교로서 재편성되어 2014년부터 정식으로 간호사 자격과정을 운영 중이며, 재학생의 경우 1학년 때 30시간 이상 산림테라피 과정을 의무 이수해야 함.
  - 기소병원의 의사는 매주 목요일 아카자와 산림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을 하고, 간호실습생과 연수생도 동행하여 지역의료와 산림의학을 학습

그림 4-6. 나가노현 기소병원의 건강 상담 및 테라피 체험 방문객



자료 : 나가노현 아게마츠정 홈페이지 (<http://www.town.agematsu.nagano.jp/gyousei/index.html>)

- 지자체 단위의 지역 협력체 운영
  - 마을·관광협회·현립기소병원을 주축으로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 촉진과 지역 의료의 내실화를 추진

- 아게마츠정에서는 가이드 등록과 귀촌 상담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림을 이용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전략을 기획·추진

### 1.3. 기존 특화자원과 새로운 품목 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

#### (1) 일본 기타카타시-한자·고대문자를 활용한 교육 관광 활성화

##### □ 사례 개요

- 후쿠시마현 아이즈(福島縣會津)지방 북부에 위치한 기타카타시(喜多方市)는 5개의 시정촌이 합병한 곳으로, 기존의 관광자원과 신규 관광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농촌 관광 활성화 사례
  - ‘건축물과 라면 마을’로 유명하였으며, 최근 메밀 국수, 화석(化石), 풍선 기구와 같은 신규 관광자원과 최근 시민 정원을 새롭게 단장하여 방문객에게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제공
  - 경관 자원으로 ‘건축물’과 음식 자원으로 ‘라면’에 이어 ‘한자 마을’로서 새롭게 관광자원 활성화

##### □ 주요 사업 내용

-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서 한자(고대문자)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수년 전 상점이 고대문자간판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기타카타시에서는 고대문자를 이용하여 마을 만들기를 시작
  - 지역주민과 상인들에게 한자 활용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새로운 관광 자원 창출이라는 공통 목표를 설정
- 지역 간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한자 중심의 새로운 관광 자원 활성화
  - 지자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고대문자가 향후 대

표 관광자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부각

- 한자간판을 통해 관광객과 주민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참여
  - 기타카타관광물산협회와 기타카타시 중심시가지 지역 만들기 간담회, 현지 여행사와 연계 체제 확립을 통해 ‘한자(고대문자)’를 기타카타시 핵심자원으로 정착시킴.
  - 2013년 7월 지역을 한자 마을로 정착시키기 위해 각 단체, 기업 등으로 구성된 고대문자를 활용한 기타카타시 관광마을 만들기 추진간담회를 설립
- 새로운 관광 거점 및 상품 개발
- 시내의 메인 도로 역전 거리(驛前通り)~만남의 거리(ふれあい通り)~오다즈키구라 거리(小田付藏通り)를 경유하는 근처 산책코스에 고대문자를 넣은 한자 간판을 설치(121개 상가 참여)
  - 일본 최초로 ‘한자 산책지도’를 작성하였으며 만남의 거리(ふれあい通り)에는 한자 읽기와 산책지도를 사용한 이벤트가 개최되었고, 시내 초등학교서는 한자 관련 다양한 교내 행사들이 진행됨.
  - 2013년에는 일반 관광객 대상의 여행상품으로 판매되어 방문객 만족도 및 지역 인지도 향상에 기여

#### □ 지역단위의 주체간 협력 노력

- 기타카타시는 방문객의 불거리 제공 및 체류시간 연장을 위한 신규 콘텐츠가 필요하였으며, 지역 전체가 참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짐.
-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지역을 변모시켰으며 다각적인 시점과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통해 지역의 주요 관광 프로그램으로 발전
-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산책 코스인 ‘미스터리 워크’를 핵

심 콘텐츠로 활용하는 가운데, 민간 주체와 지자체가 협력에 근간을 둔 지역 관광 시스템을 구축

그림 4-7. 기타카타시 한자(미스터리) 거리



자료 : 후쿠시마현 기타카타시 홈페이지 (<https://www.city.kitakata.fukushima.jp/>)

## (2) 일본 오카야마현 마니와시(真庭市) - 바이오매스 투어

### □ 사례 개요

- 마니와시시는 지역 면적의 약 80%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원격지 지역으로 예전부터 목재산업이 지역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2005년 일본 정부의 시정촌 통합 정책에 따라 새롭게 탄생된 통합 시 지역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바이오매스 타운’으로 인증을 획득하고, 2014년 바이오매스 산업도시로 선정

### □ 주요 사업 내용

- 지역 주체 간 협력에 기초한 미래 전략 수립
  - 1993년 지역주민, 정치인, 기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21세기 마니와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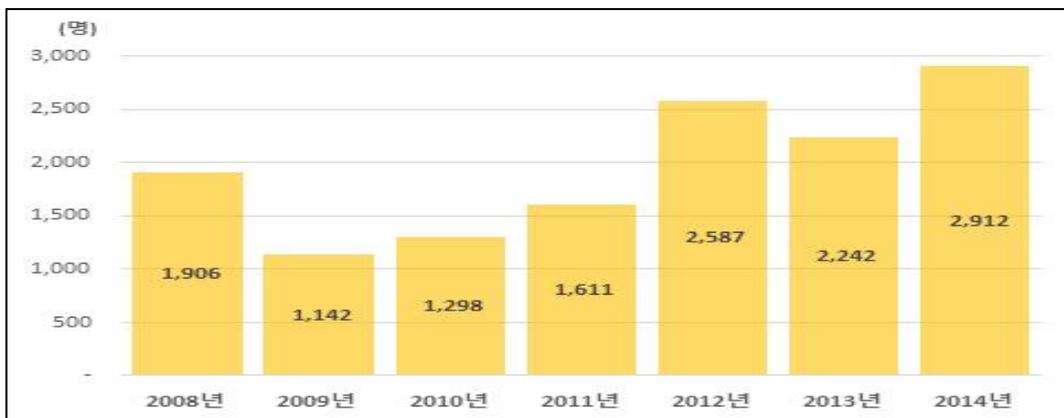
미래를 토론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이 모임이 주축이 되어 바이오매스 순환마을을 만들려는 노력을 구체화

- 1993년 지역의 젊은 경영자들이 풍부한 자연을 미래에 접목시키기 위해 ‘21세기 마니와시학원’을 설립하고, 이후 2002년 NPO법인을 취득 바이오매스 타운 추진의 원동력이 됨.
- 2006년 총무성의 ‘지역재생 매니저 사업’에 의해 마니와시(眞庭市) 산업관광창출위원회를 설립하고 행정 및 민간 사업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바이오매스투어마니와시’를 설립하여, 이 조직을 바탕으로 지역의 산업관광 정책을 기획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목재산업의 고도화와 관련한 새로운 관광 루트 개발

- ‘얼굴이 보이는 산업관광’이라는 컨셉으로 기술적인 측면 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속에서 바이오매스 자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바이오매스가 지역 내 어떻게 순환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테마로 프로그램 개발
- 관광 루트는 ‘시찰코스’와 ‘체험학습코스’로 운영되며, 임업이나 목질 바이오매스 관련, 낙농·농업의 바이오매스 사업의 확대 관련 사례 지역을 견학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그림 4-8. 마니와시 바이오매스 관광 참여자 수 변화



자료: 마니와 관광연맹

그림 4-9. 바이오매스 투어 홈페이지



자료 : 마니와시 바이오매스 투어 홈페이지(<http://www.biomass-tour-maniwa.jp/>)

### (3) 일본 고치현 - 유자·산림·산림철도유산 활용 마을 만들기

#### □ 지역 개요

- 고치현(高知縣) 동부에 위치한 우마지촌(馬路村)은 인구 약 900명으로 편의점이나 신호기가 없는 마을이지만 유자 가공식품산업, 목재가공산업, 온천시설 등으로 주간인구가 총 인구의 1.2배가 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 지역
- 유자 가공식품에 ‘고쿤 우마지촌(ごっくん馬路村)’라는 마을 이름을 브랜드화 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판다’라는 컨셉으로 전국에 출시

- 인구 : 919명(남 434명 여 485명) 2016년 9월 현재
- 세대수 : 444세대
- 우마지촌은 2008년 10월에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연합에 가맹



- 전국에 우마지촌 이름이 알려져 숲과 관련된 산업, 시찰 등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가 부흥한 농촌 마을

## □ 추진 배경

- 고치현 우마지촌(高知縣馬路村)에는 마을 96%를 차지하는 산림, 산간의 유자, 마을의 휴식처인 온천 등 지역 자원의 융복합 활용
  - 우마지촌에서는 산림을 활용하기 위해 제3섹터 ‘에코어스 우마지무라’를 시작으로 ‘숲을 가꾸고, 숲을 가공하고, 숲을 판매, 정보를 발신한다’라는 컨셉으로 숲을 활용하기 위해, 간벌재를 이용한 나무가방 ‘모나카’와 목재 가드레일 등 제품 개발 추진
  - 유자 가공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마을에 거주하는 아이들과 노인들을 활용하여 마을의 지명과 산, 강을 전면에 내세워 ‘우마지촌을 통째로 팔다’라는 컨셉으로 도시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우마지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도시민이 증가하면서 유자 제품 고객 수가 40만 명을 넘었으며 매출액이 연간 30억 엔을 초과
  - ‘가고 싶은 마을’, ‘응원하고 싶은 마을’로 관광산업과 숲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으로 나타남.

그림 4-10. 우마자촌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좌) 우마지산림철도 (우) 유자 주스 ‘고쿤 우마지촌’ 과 편백 간벌재를 사용한 나무가방 ‘모나카’

□ 추진 성과

- 지역단위 협의체 조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주요 정책 추진
  - 사무소·농림협동조합·산림조합·관광협회 등으로 조직된 산업진흥좌담회를 분기마다 개최
  - 지역산업진흥협의회와 좌담회에서는 보조사업 희망과 산업진흥시책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
  - 고객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정기적인 다이렉트 메일 발송과 민원 처리에 신속히 대응
- 관광, 유자 중심의 6차산업화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가 나타남.
  - 고치현우마지촌(高知縣馬路村)에서는 ‘가보고 싶은 마을’을 목표로 지역자원인 ‘유자’를 활용한 이벤트 ‘유자 하지마루 축제’를 개최하며, 2013년에는 인구 약 900명의 마을에 37,000명 관광객이 방문
  - 유자를 이용한 6차산업화에 힘쓰고 있으며, 유자의 새로운 상품으로 화장품사업에도 착수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
  - 지역산업진흥의 활성화에 따른 유자가공품산업과 목재가공품산업 등의 지역산업을 담당하는 회사·단체 등의 고용창출에도 기여

그림 4-11. 우마지촌 관광 프로그램 및 방문객 증가 추이



자료 : 우마지촌 내부자료

## 2. 지역단위 6차산업화 관련 정책 사례

### 2.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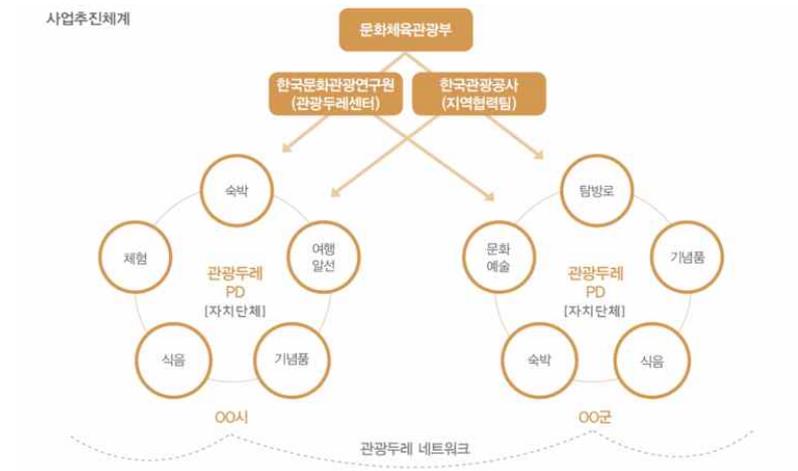
#### □ 추진 배경

- 주민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체 창업 및 육성을 통한 공동체 의식 제고 및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
  - 관광두레 육성조직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관광두레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광객 만족, 관광산업 수익, 관광자원 보호, 지역 주민의 4개 요소를 고려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구
-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체들의 역량제고를 꾀함.
  - 주민 공동체 조직을 발굴하여 조직화하고, 멘토링과 창업 파일럿을 통해 주민 공동체의 경영 경험과 역량 축적을 꾀함.
  -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체를 주체로 관광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실제 경영에 착수하며, 조직 운영, 회계와 재무 등 안정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지역 관광산업 전 가치사슬에 대한 지원

#### □ 주요 사업 내용

- 관광두레PD가 지역 현장에서 주민수요의 발굴과 조직화, 주민상담 창구, 정보 제공, 정부지원사업의 연계와 같은 주민주도 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해 현장밀착 지원 역할을 수행
  - 행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에서 중개, 조정 등의 중간지원 역할 수행

그림 4-12. 관광두레 사업 추진 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지역 내 다양한 체험, 음식, 기념품, 여행지 안내 등의 관광사업체를 육성, 사업체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 소득 및 일자리 창출
- 단계적 사업 추진
  - 1차년도: 관광두레 PD 선발 및 역량 강화, 관광두레 육성 주민 공동체 조직 발굴, 주민참여 방식의 워크숍과 지역진단을 통해 사업계획안을 작성
  - 2차년도: 관광두레 육성 조직을 대상으로 멘토링, 창업 아카데미, 창업파일럿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등을 시행하여 성공 창업을 유도
  - 3차년도: 홍보·마케팅 강화, 조직운영과 재무전략 등 경영 지원, 관광두레 육성 조직 간 네트워킹을 통해 관광두레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 성장의 기반을 구축

#### □ 농촌지역의 관광두레 사례 - 경기도 양평군

- 2013년 관광두레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던 양평군에는 현재 4개의 주민사업체(동동카누, 수미마을, 양평펜션협동조합, 빵빵한날)가 운영 중
- 양평의 농촌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개별사업체들을 육성하고 사업체 간 연계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만들어 관광객 · 체류시간 증가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모델 제시
  - 내륙의 섬처럼 두 개의 큰 강(남한강, 북한강)이 양평을 감싸고 흐르고 있으며, 양평군의 대부분은 친환경특구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깨끗하고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농촌 환경임.
- 양평고 카누부 출신의 지역민들이 카누부 출신 선수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목적으로 2013년 양평수상안전교육원을 조직해 <동동카누>라는 브랜드를 걸고 카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
  - 2014년 7~10월 간 체험객 2,484명, 매출액 2,310만 원(월평균 620명, 580만 원)
- <수미마을>은 농촌체험마을과 편의시설 지원사업,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선정을 계기로 비수기 없이 사계절 내내 다양한 축제 진행
  - 양평딸기도시락축제, 메기수염축제, 양평몽땅구이축제, 썬!겨울비밀축제 등을 계절별로 운영하며, 트랙터타기, 뗏목타기, 찜빵만들기 등 체험 가능
  - 2014년 1~10월 간 방문객 수 및 매출액이 각각 51,750명, 1,215백만 원으로, 전년 동기(46,090명, 962백만 원) 대비 각각 12.3%, 26.3% 증가, 방문객 수의 증가보다는 매출액의 증가가 2배 이상 이어서 경영 개선 지원의 효과가 나타남.
- <양평관광펜션협동조합>은 양평에 속해있는 펜션들의 협동과 친목도모, 공동 마케팅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조직화

## 2.2. 환경부 지역단위 생태관광 지원협력체계 구축 사업

### □ 주요 사업 내용

- 지자체·마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 협의체가 생태관광 인력 양성에 서부터 기획·운영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지역주민 중심의 생태관광 개발 사업으로 2012년부터 진행
-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안성, 인제, 남해)에 환경부와 지자체가 각각 1억 원을 지원하여 협의체를 구성
- 해설사, 생태관광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생태관광을 위한 인적 기반을 구성하고, 사회적기업 등의 자문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홍보 등의 생태관광을 추진
  - 지역민인 해설사의 해설을 통해 탐방객에게 자연에 대한 이해 및 자연보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수준 높은 생태관광 서비스를 제공
- 지역에 직접 연결되는 생태관광 소득구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여 침체된 지역의 활성화 기대
  - 안성, 인제, 남해 지역 간 교류를 통하여 각 지역에서 개발한 체험프로그램을 다른 시·군에서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지역 간 교류 네트워크 구축

### □ 지역단위 생태관광 지원협력체계 구축 사례 - 남해군

- 남해군은 2011년 환경부의 ‘지역단위 생태관광 지원협력체계 구축 사업’에서 해안형 생태관광을 대표하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모델창출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관련예산

과 인력양성, 홍보 등을 지원하고, 남해군은 이 시범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과 인력지원, 이해관계자 간의 비용과 수익 공유 등을 조정하는 역할, 지역협의체나 민간단체에서는 지역의 생태자원 발굴과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등 시범사업의 핵심주체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

- 그러나 자원발굴과 시범사업을 수행할 민간단체가 없어, 기존의 관광과 환경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남해군 생태관광협의회'를 창립
  - 남해군문화해설사, 환경센터, 예비사회적기업 (주)자연이야기, (사)남해군 체험마을연합회가 주도하여 결성
  - (주)자연이야기는 생태관광객의 모집·마케팅·홍보활동을 담당하고, 남해군문화해설사는 해설가이드, 남해군체험마을은 숙박·체험등 제반활동을 수행, 환경센터는 환경적 모니터링과 지속적 피드백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형성
- 남해군 생태관광협의회는 두 시범지자체와 공동된 사업인 생태관광자원 조사(1단계)를 거쳐 시범관광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시장성 조사(2)하고 생태관광아카데미를 통한 해설사 양성(3)을 단계적으로 진행
  - 2012년, 남해군 생태관광해설사 양성과정 운영(27명) 후, 1박2일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여 총 6회 300여명의 방문객이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방문객들은 추후 모니터요원으로 운영됨.
- 2014년 대한민국 생태관광 12지역에 선정되어 2016년까지 환경부의 지원과 함께 생태관광지역 12곳과 자매결연을 맺어 네트워크를 확장시켰으며, 인터넷환경신문 발간, 생태탐방지원센터 운영, 캠핑장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그림 4-13. 남해 생태 관광협의회 운영(좌:홈페이지, 우: 네트워크 포럼 운영)



자료 : 남해 생태관광협의회 홈페이지 (<http://econamhae.com>)

#### □ 지역단위 생태관광 지원협력체계 추진 사례 - 안성시

- 2011년 안성시는 환경부 및 지역협의체 (사)농촌관광CB센터, (사)지속가능한관광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와 생태관광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 시범사업 추진내용으로는 생태관광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 생태관광 분야 사회적기업의 설립 지원,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상품 개발·운영 및 홍보·마케팅, 생태관광 모델의 확산을 위한 사업, 생태관광의 만족도 제고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협의체는 해설사(25명)와 생태관광 인력(15명) 양성
- (사)지속가능한관광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는 생태관광에 필요한 전문지식 교육, (사)농촌관광CB센터는 지역의 생태자원 발굴, 주민과의 정보교류 및 사업 모니터링, 환경부는 사업 총괄 담당

### 2.3. 문화체육관광부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

- 지역의 수용태세·관광시설·관광콘텐츠·이동망 등을 관광객 동선에 따라 종합적으로 진단·개선하여 고품격 문화관광상품·코스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추구

- 전국을 10개의 관광권역으로 나누어 집중관광지로 조성('17년 예산 240억 원)
  - 숙박·식음·볼거리·교통 현황을 관광객의 동선에 따라 진단
  - 관광요소별로 종합 개선 및 코스화·상품화(240억 원)
-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전문가 진단과 컨설팅, 관광시설 정비, 관광콘텐츠확충, 교통편의 개선, 인력양성 등 권역별로 종합적 개선
  - 지자체·관광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관광포럼 운영, 관광 코디네이터 배치
- 체재기간, 관광객 특성, 이동형태 등을 고려하여 관광권역에 특화된 고품격 관광코스 개발 및 홍보·마케팅
- 행자부와 국토부·해수부·산림청·중소기업청 등의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

### 3. 요약 및 시사점

#### □ 지역 주체 간 집합적 활동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개별 경영체의 역량만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제품·서비스의 생산을 위하여 지역 내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집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제품·서비스의 지향점
  - 농가, 경영체 단위의 다각화 활동만으로는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제시된 주요 사례들 또한 기존의 6차산업 내지는 농촌 산업 제품·서비스의 한계에 봉착하는 가운데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는 모습을 보여줌.

- 개별 경영체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지역 산업 전반의 역량 및 협력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
- 새로운 지역의 제품·서비스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자원에 대한 면밀한 선행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 지역 자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시장 상황을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제품, 서비스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

#### □ 민간 주체와 공공 부문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창출

-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는 민간주체로 지역단위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개발·판매 과정에서도 민간 주체가 가치사슬 연계의 핵심 주체로 부각
  - 유럽의 LEADER 프로그램은 민간과 공공부문이 협력하는 대표적인 농촌개발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사례에서도 공공부문과 민간 주체들 간의 효과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농촌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과정이 나타남.
  - 대부분의 사례에서 민간 주체들의 자발적인 협의체 구성과 같은 협력 사례들을 확인
- 공공부문의 경우 지역 내 부족한 자원의 외부 연계나 주체들 간 네트워킹 등 지역 전반의 관계적 자산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주체들이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분위기 형성에 활동의 초점을 둠.

#### □ 혁신을 통한 핵심 콘텐츠의 고도화

- 농촌관광의 경우 기존의 획일화된 콘텐츠 대신 농촌의 문화적 지역성을 뜻하는 농촌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와, 그리고 IT나 디지털과 같은 신기술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가 개발되는 사례가 증가

- 농축산업과의 융복합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산업, 공예, 의료, 에너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통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의 다각화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농촌 다원적 가치, 다양한 지역 자산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는 기존 획일화된 농촌 관광의 틀을 발전시켜, 농가의 부수적인 농외소득 활동에 그치는 농촌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볼 수 있음.
- 지역 내 다양한 혁신 주체와의 연계가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확인됨.
- 기존의 농업 관련 혁신 주체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의료, 교육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때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개발과 지역 산업의 발전 경로 창출이 가능
  - 따라서 농업뿐만 아니라 타 부문 주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지역단위의 개방형 혁신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책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임.

#### □ 사업 간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 강조

- 6차산업화의 경우 농업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른 산업 부문과의 융복합이 강조되는 까닭에 필연적으로 여러 정책 영역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다양한 정책 부문 간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 특히, 농촌 관광의 경우 여러 부처들에 의해 유사한 사업이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정책 간 연계 등을 통해 한정된 투입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
  - 이는 중앙 부처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관련 정책·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주체들 또한 지역의 한정된 자원과 다양한 외부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됨.

## 제 5 장

### 중국의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 현황<sup>10</sup>

#### 1. 중국의 6차산업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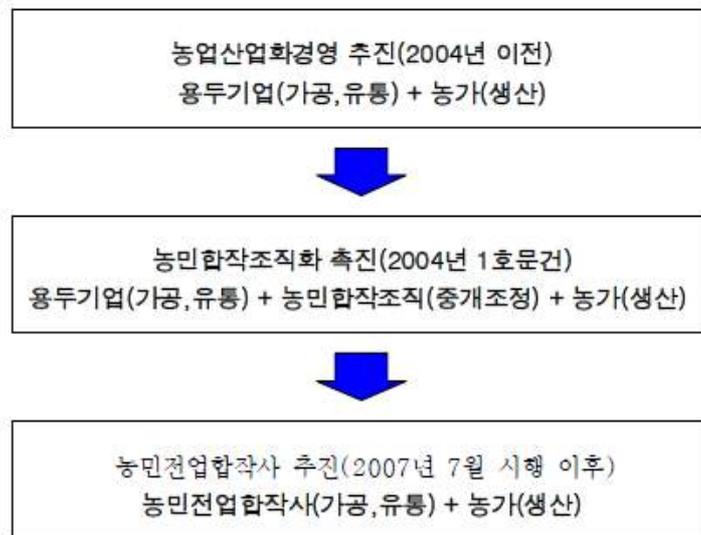
##### □ 노동간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중국의 농업산업화 정책 추진

- 영세한 농업구조와 시장개방의 압력에 따른 소득 격차 문제를 극복하고자 중국에서는 ‘농업의 산업화경영’을 추진
  -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마케팅 능력이 높은 기업의 주도하에 영세농가를 조직화하여 생산·가공·판매를 일체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하고 시장 교섭력을 증진하여 농공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최이석 2013).
- 형식은 식품제조회사를 중심으로 한 용두기업(농외기업)과 영세농가를 수직적으로 결합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농업의 산업화경영은 1988년 채소산지에서 시작되어 2002년 농업법 개정으로 산업화경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

<sup>10</sup> 중국 공동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였으며, 중국 연구진의 보고서 원문은 별도로 수록하였음.

- 이에 의하면 농업부는 국가급 용두기업, 성 정부는 성급 용두기업, 시는 시급 용두기업을 각각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용두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및 우대용자 등의 조치를 강구함.

그림 5-1. 중국의 산업화경영의 발전방향과 유형



자료: 김태곤 외(2011), 농업의 6차산업화와 부가가치 창출방안

□ ‘농업 산업화’ 정책은 농업·농촌의 1, 2, 3차 산업 융합 발전 정책으로 발전

- 2015년 12월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농업·농촌의 산업간 융합 발전 추진을 천명
  - 농촌에서 6차산업화를 추진하여 휴한농업, 농촌 전자 상거래 등 새로운 경영방식을 발전시키고 농업 구조조정과 품질과 농촌, 농가의 소득 증대를 꾀함.
  - 시장 원리에 입각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정책 개발, 융합 플랫폼 구축 등을 강화하고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6차산업화 추진 과정의 주요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농민의 지위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입지여건 및 산업구조에 따라 다양한 융합 방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펼침.
  - 농지 위탁 관리를 진행하고 농산물 가공, 물류 저장 등 시장화 서비스를 발전시킴.
  - 농업과 관광, 노후 생활 등과 연계 발전하고 농촌 전자 상거래, 농산물 맞춤형 제작 등 ‘네트워크+’ 새로운 영업 방식을 개발함.
- 농업·농촌산업의 융합화를 위해 관련 경영 주체의 다변화를 꾀함.
  - 대학, 중등 전문학교 졸업생들, 귀향인 등이 합작사를 만들어 가정 농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두기업이 직접 투자, 주식 참여 경영, 장기 계약 체결 등 방식으로 농민들이 다양한 형식의 적절한 규모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정함.
  - 창업 가이드 육성, 1만 명의 농민 창업 창조 선도자 교육, 1000개의 창업 창조 모범 기업 선정, 농민 창업 창조 대회 개최 등 농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 추진
  - \* 경영주체 다변화 사례 - 장쑤시 진촨 합작농장
    - 촌급 합작농장으로 집체경제가 주도하고 농민이 자발적으로 주주가 되어 농촌경제 합작조직 또는 농촌기업을 연결해 공동으로 농업생산경영 활동을 하는 형태로 운영
    - 장쑤 진촨 현대농업과학기술유한공사 등을 핵심 회원으로 하며, 위산전 등례촌과 중징촌 등 8개 촌을 연결하여 공동으로 창설. 촌급 집단이 주도하여 생산, 공급, 판매 단일화 모델을 통해 전문화 생산, 규모화 경영, 집약화 발전을 실현
    - 기존 농민의 경우 합작농장에 가입하면 직업농민으로 전환
    - 장쑤시는 2013년에 촌급 합작농장 10개를 건립하고 2015년까지 60개 건립의 목표로 달성하였음.

## □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일촌일품(一村一品) 사업 추진

- 중국 정부는 최근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현대식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일촌일품’, ‘여러 농촌 1품목’ 운동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선도산업의 육성을 강조
  - 일촌일품 발전을 “제13차 5개년 계획”의 농업농촌경제 발전에 포함시키고, 여러 중앙 1호 문건에서 일촌일품, 1향(현) 1업종 발전 지원과 현(縣) 단위 경제 활성화를 통한 농민 일자리 창출을 강조
  - 국내외 시장의 수요, 공급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선도 품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며, 특히 산업과 제품의 특징을 정확하게 모색, 해당 지역의 일촌일품의 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하여 적절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
  - 국가 농업종합개발, 현대 농업 시범지역 건설, 아름다운 농촌 건설, 빈곤 지역 보조 등 정책성 자금과 프로젝트 지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일촌일품 발전을 집중 지원함.
  
- 일촌일품 프로젝트를 통해 육성되는 경영체들이 지역의 선도기업과 농민 합작사, 거대 농업 중개인 그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높이고, 지역 농민과의 연계와 생산 과정에서의 표준화 등을 역점과제로 추진
  - 다양한 방식의 학습교류, 농촌과 기업의 직접 교류, 선도기업, 농민합작사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제품 판로 개척과 브랜드 가치 제고, 공·상업자본의 농촌발전 투자 확대 등을 노력하고 있음.
  - 도시의 전문가들을 일촌일품 발전에 참가시키고, 농민공과 대학생, 퇴역군인 등이 귀향, 창업하여 특색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우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 \* 일촌일품 주요 사례
  - 산서(山西)성의 경우 ‘일촌일품’과 ‘1현 1업종’ 발전전략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낙농, 호두, 대추, 육양(肉羊 : 식용 양고기), 좁쌀 농촌 등 각각

다른 특색을 갖춘 품목 간 가치사슬의 연계를 통해 농업 중심의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음.

- 사천(四川)성 안악(安岳)현의 경우 안악 레몬의 지역 브랜드화 전략을 실행하여, ‘中華名果-중국의 유명한 과일’, ‘天府十寶-황궁의 10대 보물’ 등 국가 지리적 표시 보호제품과 국가 유명상표를 획득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
- 이 외에도 중국 전역의 5만 여개 농민 협작사가 관련 상표를 등록하고 있으며, 상표는 ‘국가 저명상표’, ‘저명 상표’, ‘치명 상표’ 등의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고, 농업부에서 주관하여 전국 100개 조합, 100개 우수 농산물 브랜드를 선출하는 등의 우수 브랜드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 지역 농업과 연계한 농촌 가공산업 육성 추진

- 농업 발전 방식의 전환, 농업과 농촌의 경제구조 구조조정, 농민 취업 및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에서 농산물 가공산업의 중점 육성을 위한 정책을 도입(중국농업부, 2015년 2월)
  - 세수, 신용대출, 보험, 과학기술 혁신, 강농혜농(強農惠農), 중소기업 발전 지원 등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의 체계적인 추진을 천명
- 농산물 생산지역의 가공산업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함.
  - 주요 생산지역에서 생산과 판매가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합리적인 분업이 이루어지도록 함.
  - 비교우위를 갖춘 농산물 및 농특산물의 지역적 분포와 연계하여, 가공/유통이 생산 및 소비와 함께 계획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차, 2차, 3차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함.
  - 식량 주요 생산지역의 경우, 식량작물 가공업을 발전시키도록 촉진하며, 식량 가공 기술에 대한 혁신 및 보급을 추진하고, 식량의 건조 및 저장 가공 환경 개선함.

- 가공 기업들이 산업을 주 생산지역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주요 생산지역의 자원 간 비교 우위를 고려한 통합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주도 산업을 육성.
  - 농민합작사들이 농산물 가공 유통에 참여하도록 지원
- 가공 산업 부문의 선도기업을 육성함.
- 주식 가공과 관련된 유명기업 및 “라오즈하오(老字号)<sup>11</sup>”를 양성하고, 생산 표준화, 기술 집약화, 관리 과학화, 경영 브랜드화가 이루어지는 주식 가공 시범기업을 육성
  - 선도기업이 관련 중소기업과는 산업연맹 관계를, 그리고 농민합작사, 소형 가족농장, 대규모 전문농가 및 농민과는 이익 공동체를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농산물 가공 시범기업 및 시범조직을 구축함.
- 농산물 가공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가공산업 집적지의 클러스터화를 추진
- 현을 기본 단위로 하여 원료기지, 가공단지, 마케팅 시스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기능적으로 상호보완을 이루고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 국가 농산물 가공업 시범구, 시범현을 구축함.
  - 전문화, 규모화, 표준화된 원료 생산기지를 구축함. 즉, 기능이 모두 갖춰져 있으며 주변에 대한 영향력이 큰 가공단지 구축을 지원함.
  - 직판, 전자상거래, 모바일인터넷 마케팅,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새로운 유형의 유통과 결합하여 산업의 확장을 꾀함.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관광농업(휴한농업: 休閒農業) 육성
- 휴한농업(休閒農業)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 기능의 확장, 농경문화의 전승을 전제로, 농업·농촌 관련 휴양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추진.

11 오랜 역사와 명망을 지닌 중국전통기업의 대명사

- 대도시 주변, 명승지 주변, 경관 우수 지역, 자연생태구, 소수민족 거주지 및 전통적 농촌지역에서 휴한농업을 발전시키되, 각 지역별로 산림관광, 문화관광, 홍색관광(紅色旅游)<sup>12</sup> 등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 휴한농업의 다양한 발전 경로를 촉진
  - 농민들의 팜스테이를 지원하고, 휴한농업을 핵심으로 하는 6차산업형 마을을 개발하고,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휴양체험이 가능한 휴양농장을 개발하도록 함.
- 지역 산업 고도화 및 이익 공유 측면에서의 발전을 도모
- 농업 발전, 농민 소득증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팜스테이, 소규모 시장(小超市), 소형농장(小型采摘園) 등 독특한 관광 상품을 개발
  - 사회자본이 휴한농업 발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되, 농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농민들의 창업 및 취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휴한농업이 농촌 창업 및 농촌 일자리 창출의 주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역 브랜드 개발 및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생산요소 이동, 자본재편, 브랜드 통합조정을 통해 영향력 있는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
  -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농촌 휴양마을 소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농촌 추천, 전국 휴한농업 성급 시범사업 구축, 특색 있는 관광마을 시범사업 등 브랜드 육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영향력 있는 휴한농업 브랜드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할 것.
  - 각 지역별로 휴한농업 전문마을, 성급문명호(星級文明戶), 고급관광루트 등의 개발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독특한 지역

<sup>12</sup> 혁명 기념지, 기념물 및 혁명 정신을 수단으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객들이 혁명 정신을 익히고 혁명의 전통 교육과 부흥의 정신을 배우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면서 건문을 늘리기까지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관광 이벤트

브랜드를 육성하도록 함.

- 지역별 휴한농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
  - 2010년부터는 관광농업 농촌관광 시범 현(縣) 및 관광농업 시범지역 선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농민들이 팜스테이를 발전시키도록 지원하고, 유휴택지 정리 후 남은 건설용지는 휴한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마을 내 집체건설용지를 이용하여 휴한농업을 발전시키도록 장려
  - 각 지역별로 휴한농업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휴한농업을 현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구체적인 정책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휴한농업 발전을 지원
  - 지역별로 휴한농업 창업 발전 및 인프라 건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장려하며, 실제적 상황에 맞추어 지역별 업계 표준을 제정하고, 현지 휴한농업 발전 전략을 수립
  - 지역별 상황에 맞추어 휴한농업 시범사업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휴한농업의 새로운 발전모델, 농민과 공상자본의 이익연결 메커니즘, 6차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농경문화 전승 등을 중점으로 삼아 전국적으로 보급, 확산이 용이한 대표적 사례를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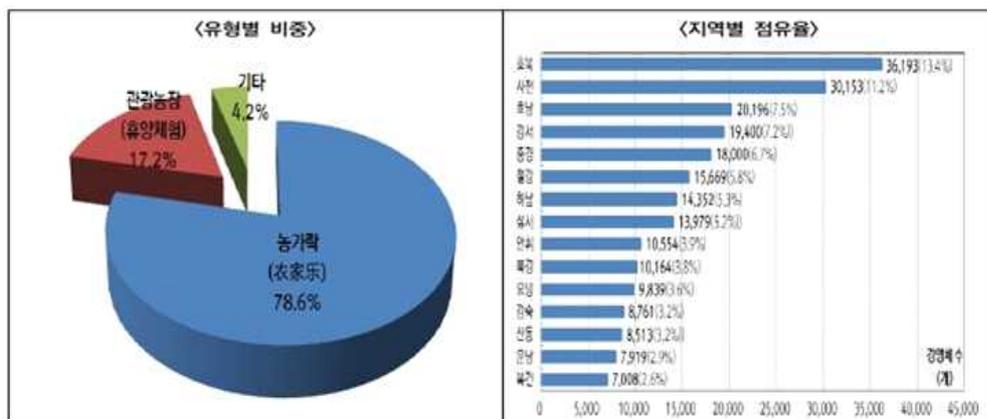
#### □ 최근 관광농업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과제

- 관광농업에 대한 정부 인식
  - 관광농업은 12.5 규획기간(2011~2015년) 빠르게 발전한데 이어 13.5 규획기간(2016~2020년)에 황금발전기를 맞이하여 농업분야의 공급측 구조개혁과 농촌지역의 1차 2차 3차 산업 융합발전을 촉진 하고 내수 확대 및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 관광농업에 대한 수요 증대가 전망되나 시장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향후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관광농업 현황

- 2014년 관광농업 관련 연간 매출액은 3,713억 위안(이 중 농부산물 판매액은 1,296위안)으로 농업총생산액의 3.6% 수준이며, 연간 관광농업 경영체 방문객 수는 16.5억 명
- 관광농업 경영체 수는 269.7천개이며, 숙박시설이 211.9천 개로 78.6%, 농장이 46.5천 개로 17.2%를 차지
- 관광농업 경영체 종사자 수는 687.4만이며, 이 중 농민취업자수는 556.6만 명으로 81%를 차지

그림 5-2. 중국 관광농업 경영체 유형별 비중 및 지역별 분포(2014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 월간 중국농업 브리프 2016. 9

## ○ 정책 추진 원칙

- 농촌지역에서 농업을 기초로 농민이 주체가 되어 계획적으로 관광농업의 발전을 추진하되, 농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민 소득 증대 추진을 최우선적으로 꾀함.
- 농업의 다원적 가치 간 융복합을 강화하고 도·농 교류에 입각한 통합적 발전을 지향
- 지역별 자원 및 발전 경로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적 특색을 부각시킨 발전 전략 수립

- 개발과 보호, 활용과 생태의 조화를 추구하고 자원, 환경의 부담 능력을 고려한 발전 계획 수립

○ 주요 추진 과제

- 관광농업구역(촌 또는 농장)을 조성하고 관광농업 벨트 및 산업클러스터 구축, 지역별 경제사회발전계획, 도농통합발전계획, 토지이용계획, 빈곤구제를 위한 빈곤가구 이주 계획 등과 연계하여 해당지역 관광농업 발전 계획 수립
- 농가락(農家樂) 사업 지원, 관광농업협작사 조직 지원 및 1차 2차 3차 산업 융합발전 촌(村) 조성 장려
- 지역 특색을 부각할 수 있는 콘텐츠와 관련된 서비스시설 건설을 통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 충족
- 농외자본의 빈곤지역 관광농업 개발 투자 장려 및 지원 방안 모색
- 농업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한 농업교육, 우수한 농경문화에 대한 학교 교육 추진사회실천 및 학술여행 시범기지 건설, 농촌 부녀자들의 수공예를 특색산업으로 육성
- 전통마을 및 주택 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통마을 보호사업의 실시와 감독 강화, 농촌지역 농업문화유산을 관광농업경영에 적극 활용하여 관광농업의 문화콘텐츠 강화
-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점 선 면을 연계한 관광농업 브랜드체계 구축
  - 아름다운 농촌 선전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름다운 관광 농촌(향, 진) 선정
  - 선(線): 명품 관광농업루트의 선전홍보를 중점 추진하여 농촌관광을 유인함으로써 내수 소비 촉진
  - 면(面): 전국 관광농업 시범 현(縣) 시(市) 구(區) 건설을 추진하고, 관광농업 클러스터구역을 육성

## ○ 농촌관광 시범지역 혁신 프로젝트(2010~)

- 2001년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에서 농촌관광발전 지도규범(農業旅游發展指導規範)을 제정하는 한편 농촌관광 시범지역 후보 명단 발표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203개와 156개의 시범지역 선정
- 지방의 자발적 창립, 자발적 신고, 성(省)급 추천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전국에 254개 웰빙농업과 농촌관광 시범 현, 640개 웰빙농업과 농촌관광 시범지역이 선정됨.
-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산업 경쟁력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큰 시범지역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 규모가 큰 웰빙농업과 농촌관광 시범 현, 일대는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경영 특화, 관리가 규범화, 브랜드 정착, 서비스 표준화가 진행됨.
- 웰빙농업 시범지역이 웰빙농업과 농촌관광 프로젝트 추진의 유력한 희망이 되었고, 농촌의 1, 2, 3차 산업 융합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부각
- 생태문명 및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추진하고, 중국 전통마을 및 특색 있는 민가(民居)를 보호하기 위해, 농업부에서는 2015년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농촌 휴양마을 추천 캠페인을 실시
- 농업부는 국가여유국(國家旅遊團)과 연합하여 전국 웰빙농업과 농촌관광 시범 현(縣), 시범지역 혁신 프로젝트를 실시
  - 상해(上海)시 농업위원회는 12개 부처가 협조하여, ‘상해시 웰빙농업과 농촌관광발전의 실시 의견(上海市休閒農業與鄉村旅遊發展的實施意見)’을 발표
  - 사천(四川)성 정부는 ‘웰빙농업과 농촌관광 발전 촉진 의견(加快發展休閒農業與鄉村旅遊的意見)’을 제정
  - 강소(江蘇)성은 ‘웰빙농업, 농촌관광 발전 계획(休閒觀光農業發展規劃)’을 편성, 관광가이드북을 출판하여 주요 대중교통 노선에 배포하고, ‘남경농업가년화(南京農業嘉年華)’ 등의 관광객 유치에 위한 행사를 개최

#### □ 중국 6차산업 관련 정책 및 지원 사업 추진 특징

- 농촌 자원의 융복합 활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 하에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추진되어오고 있음.
  - 농촌관광, 가공산업, 농업산업화 시범기지 등 주요 시범사례들은 시장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
- 생산활동의 규모화를 통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 창출에 역점을 둠
  - 용두기업, 가공산업 선도기업 육성, 농업산업화 시범기지 조성 등 6차산업 각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자본과 생산의 규모화를 꾀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농가 및 농민들의 고용이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병행
  - 대규모 생산기능과 지역 농가와의 공존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농가 참여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의미가 있음.
- 농촌관광 등 농업·농촌 가치의 다원적 활용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에 의해 6차산업 관련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
  - 정부 정책이 농촌, 농업의 현대화와 산업 간 융복합화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내 경영체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됨.

## 2. 중국 6차산업화 정책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전략

### □ 농촌 제조가공업 발전 동향

- 2014년 중앙농촌공작회의는 농촌 시장의 형세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농업에 가치사슬 등 현대산업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의하고, 1 / 2 /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할 것을 최초로 명확히 요구했으며 농촌의 1 / 2 / 3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2015년 중앙의 ‘1호문건’에 최초로 기입함. 문건의 내용은 이러함. “농민의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 가치사슬을 반드시 연장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농산물 가공업은 농산물과 최종소비자 사이의 중간 산업으로서 농업 및 농촌발전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선진국의 발전 역사에서 볼 수 있듯, 농산물 가공업은 농업보다 규모가 크고 효과와 수익이 크며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고, 많은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초기와 중기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발전을 도모한 영역이다”
- 신중국 성립 후, 중국 농산물 가공업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농산물 가공업 업계체계의 기반을 형성함. ‘11차 5개년 계획’ 이후 농산물 가공업은 급속한 발전을 달성함. 농산물 가공업계의 매출액은 2005년의 3.71조 위안에서 2014년의 18.48조 위안(시가)으로 급등해, 불변가격으로 계산할 경우 그 연평균 성장률이 17.6%에 달함. 농산물 가공업과 농업의 생산성 비율은 2005년의 1.1:1에서 2014년 2.0:1로 증가함. 그러나 고속 성장을 지속하던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새로운 상황 아래, 농산물 가공업은 전용 원료 부족, 수준 미달의 초벌가공, 낙후된 기술설비, 합리성이 부족한 산업 구조, 무거운 세금과 어려운 대출, 급격한 생산원가 상승, 수출 어려움 증가 등 여러 난관을 맞고 있음. ‘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농산물 가공업은 그 발전 방향을 어떻게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및 구조개선의 방향으로, 단순히 자원을 소모하는 산업에서 기술 발전과 브랜드

전략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무질서하고 분산된 발전에서 밀집 산업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해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실현할지 그 방법을 알아내야 하는 주요 문제와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농산물 가공업 및 농촌의 1 / 2 / 3차 산업의 융합발전 계획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농업을 토대로 기술, 모델 및 체제 혁신을 통해 농업과 농산물 가공업, 레저농업, 농업 서비스 등 농업 관련 산업을 더욱 유기적으로 일체화시켜, 상호 발전을 촉진하고 윈-윈을 실현해, 현대 농업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농업 내부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내 농민 고용을 증대하고, 농촌과 소도시 주민의 소득 차이를 줄임. 이 전략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다음 네 가지 방향의 중점 목표를 달성해야 함.
  - 첫째, 농업 가치사슬을 연장하고 농업의 전 산업생태계를 구축함. 주산지의 목축업, 식품가공업 발전을 지지하고, 농산물 가공 수준을 높임. 농업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유통방식 및 형태를 혁신하며, 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 유통을 결합하고, 농산물 유통의 핵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판을 추진함.
  - 둘째, 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농촌 생태레저, 관광, 문화교육 가치를 발굴해 농업발전의 가능성을 높임. 일촌일품(一村一品), 일향일업(一鄉一業)을 지원해 현(縣) 구역 경제를 강화함.
  - 셋째, 신기술, 새로운 경영방식 및 새로운 산업 모델을 농업에 도입하고 전자상거래 및 물류 등 현대 산업 모델을 이용해 농업 생산과 경영 방식을 전면 개조함.
  - 넷째, 다양한 수익 연결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농민이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창출로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미가공 원료가 가공 및 판매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수익을 합리적으로 분배함.

## □ 농촌 1·2·3차 산업 융합의 개념, 의미 및 주요 모델

- 중국 경제가 기존과는 다른 상황에 진입하고, 농업과 농촌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배경 아래, 중국의 농업과 공업의 관계 및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특히 현대 과학기술과 시장이 전통적인 재배업과 양식업의 경영이념에 빠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단순히 미가공 제품 생산만을 중시해서는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이룰 수 없음. 농산품 생산 전, 생산 중, 생산 후 단계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생산, 가공, 판매와 농업과 공업, 무역을 밀접히 연결하며, 생산을 전문화하고 제품을 상품화하고, 서비스 사회를 신속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을 중시하는 동시에 농업 생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생산과 가공, 판매의 유기적 결합 및 상호 발전을 중요하게 여겨 농업의 산업화 경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함.
- 가치사슬 등 현대 산업 방식을 농업에 도입하고, 1 / 2 /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는 등 농업 현대화의 중요 요소를 추진해야 함. 2, 3차 산업과 1차 산업이 상호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촌의 1~3차 산업융합 개념은 향후 중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였으며, 중국 농업의 현대화를 촉진시킴. 농촌의 1~3차 산업융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론과 실천의 두 각도에서 범위를 정하고, 1~3차 산업융합의 개념과 그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정의하며, 산업융합 원리와 메커니즘을 연구해야 함.
- 농촌의 1~3차 산업융합은 당과 국가가 중국 농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제안한 발전 방향으로, 기존에 학계에는 없던 이론임. 우리는 산업융합의 기본 개념을 참고하여 실천의 각도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음. 농촌의 산업융합은 제1차 산업인 농업을 토대로 산업 연동, 산업 통합, 기술 이전, 체제 혁신 등 방식을 통해 자본과 기술, 자원 등의 융복합하여 농산품 가공업 등 2차 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 농산

품 가공업을 판매/요식업/레저농업 등 기타 서비스업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농촌의 각 산업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최종적으로 농업 가치사슬을 연장하고 산업 범위를 확장하며 창출된 수익을 농가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요약하면 중국의 현재 농업과 2, 3차 산업의 융합발전에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주요 모델이 있음.
  - 첫째, 1차 산업 내부의 산업간 통합형 융합으로, 대표적으로 재배와 양식을 결합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둘째, 농업 가치사슬 연장형 융합으로, 이는 곧 1차 산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가치사슬을 앞뒤로 연장해 씨앗, 농약, 비료 공급과 농업 생산을 연결하고, 농산물 가공, 판매와 농산물 생산체인을 결합시키거나 농업 생산과 가공, 판매를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임.
  - 셋째, 농업과 기타 산업간 교차형 융합으로, 농업과 가공업을 융합해 브랜드화하거나 농업과 문화, 관광업을 융합한 레저농업이 대표적임.
  - 넷째, 선진 기술의 농업 침투형 융합임. 일례로 정보기술의 폭넓은 응용은 농업과 2, 3차 산업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고,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크게 줄이고, 온라인 마케팅과 온라인 임대 위탁관리 등을 가능하게 만들었음.
- 농촌의 1~3차 산업융합과 전통 산업융합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통적인 산업융합의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1~3차 산업융합을 살펴볼 수 있지만 농촌의 1~3차 산업융합은 사회 및 경제 개념에 보다 가까움. 경제발전의 보편적 법칙에 따르면 1차 산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비율은 매우 낮고, 절대 다수의 부가가치가 2, 3차 산업에서 발생함. 때문에 농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농산물 가공업과 기타 서비스업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만 각 산업의 조화로운 공동 발전이 가능해지고, 농업 가치사슬을 연장할 수 있으며, 농촌의 산업 범위를 넓힐 수 있고, 나아가 도농 일체화 발전을 실현하고 농가의 수익을 증대할 수 있음.

## □ 제13차 5개년 계획 농산품 가공업 및 1-3차 산업 융합 발전 계획

-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의 농업 및 농촌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고 농산품 가공업도 빠르게 발전했으며 산업융합의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유망업종 및 산업 모델이 대량 출현함에 따라 ‘제13차 5개년 계획’ 발전에 견고한 기반을 마련함. 농산품 가공업의 선도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농촌의 1~3차 산업융합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부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 13차 5개년 계획》의 관련 요구에 따라 2016년 11월 14일, 《전국 농산품 가공업과 농촌 1~3차 산업융합 발전 계획(2016-2020년)》(農加發[2016]5호, 약칭 《계획規划》)을 편성함.
- 《계획》은 농산품 가공업이 농업과 공업,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넓으며, 산업 연관도가 높고 농민의 고용 창출 효과가 뛰어나 산업융합의 필연적 선택이며, 이미 농업 현대화의 중요한 지표이자 국민 경제의 중대한 기둥이고, 건강한 나라 건설과 국민의 영양과 건강을 보장하는 중요 민생 산업이라고 강조함.
- ‘제13차 5개년 계획’ 농산품 가공업 발전 목표
  - 《계획》은 농산품 가공업의 기본원칙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명확히 요구함. 첫째, 혁신을 지속하고 융합의 활력을 자극함. 혁신을 산업융합 발전의 우선적 동력으로 삼고 힘써 혁신을 촉진하는 전략을 실시함. 음식, 농업, 자원, 생태를 중시하는 관념을 수립하고 산업융합의 이론을 심도 있게 혁신함. 합작제도와 주주합작제 및 주주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산업융합제를 점진적으로 혁신함.
  - 두 번째, 조화로운 발전을 지속하고 산업분포를 최적화함. 산업융합의 기초를 조화에 두고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의 교차융합을 대대적으로 추진함. 조화로운 융합에 역점을 두고 산업융합 발전을 촉진하고, 시장수요를 방향으로 삼고 시장 메커니즘과 시장의 주체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농업의 생산 전/ 중/ 후와 농산품 초기 단계 가공 및 추후 가공, 종합 가공

이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산업구조를 최적화하여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도농간, 지역, 산업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함.

- 2020년까지 산업융합의 전체적 수준을 현저히 높임. 또한 가치사슬을 더욱 완벽하게 정비하고, 다양한 기능과 풍부한 업체들, 더욱 안정적인 이익 결합 구조의 새로운 기본 구성을 구축함.
- 농업 생산구조를 최적화하며, 농산품 가공업의 주도적 기능을 증강함. 신생 업체들과 새로운 모델이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융합 메커니즘을 더욱 완벽하게 정비함.
- 주요 경제지표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효율 제고 및 수익 증대를 달성함. 산업은 중, 고급 단계를 향해 점차 발전하도록 하고 농업 경쟁력을 확실히 제고하며 농가 수익 증대를 촉진해, 빈곤층 구제와 빈곤층 탈피 기능을 지속 강화함.
- 먼저 농산품 가공업의 주도적 기능을 확실히 강화해야 함. 농산품 가공업의 산업 구조를 더욱 최적화하고, 산업 집약도를 현저히 제고하며,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 고품질의 브랜드를 설립하고,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 배출 감소의 효과를 대폭 강화함. 2020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산품 가공업체의 매출액이 총 26조 위안, 연평균 성장률은 6% 전후에 이르도록 하며, 농산품 가공업과 농업의 총생산 비율이 2.4:1에 이르도록 함.
- 주요 농산품의 가공전환율이 약 68%에 이르도록 하며, 그 중 식량, 과일, 채소, 육류, 수산물의 가공전환율은 각각 88%, 23%, 13%, 17%, 38%에 이르도록 함.
- 농산품의 정밀 가공과 부산물 종합 이용 수준을 대폭 제고함. 일정 규모 이상의 식용 농산품 가공기업의 자가지지 보유율이 50%에 이르도록 하며, 전용 원료 생산 수준도 현저히 높임.
- 신규업체와 새로운 모델이 왕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 농업 생산 서비스업의 신속 발전을 추진하고, “인터넷+”가 산업융합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도록 하며, 농업의 기능을 다변화함.

- 레저농업과 시골 관광 등 산업융합으로 생긴 신규업계와 새로운 모델이 더욱 활발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함. 2020년까지 농림어업 서비스업 생산액은 약 5500억 위안, 연평균 성장률은 약 9.5%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 기업 전자상거래 판매 보급률은 80%에 달하도록 하고, 농산품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8000억 위안, 연평균 성장률은 약 4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 레저농업 매출은 약 7000억 위안, 연평균 성장률은 10% 수준을 이루도록 하고, 연간 관광객 수는 33억 명을 돌파하도록 함.
- 이 밖에도 산업융합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함. 농업 생산과 가공, 판매가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고, 산업융합의 심도를 대폭 제고하며, 가치사슬을 완비함. 산업융합 주체의 현저한 증가, 농촌의 자원 활용 활성화, 주주합작제 등 이익연계 방식의 다원화를 추진함. 산업융합의 발전으로 창출된 부가가치 수익을 농가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그 액수 또한 지속 증가할 수 있도록 함. 도농간의 요소들이 양성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고, 도농간에 존재하는 공공 서비스의 수준 차이를 현저히 줄임. 산업융합 체계를 완비하며, 융합발전의 선도지역을 양성 및 구축함.

표 5-1. 중국 농촌 1·2·3차 산업 융합 발전의 주요지표 별 목표

주요지표					
유형	지표	2015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농산물 가공업	규모이상 농산물 가공업 영업수입(만 억 위안)	19.4	26	6%	
	농산물 가공업이 농업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2 : 1	2.5 : 1	[0.2]	
	주요 농산물가공 전환율1(%)	전체	70	75	[3]
		식량	80	85	[3]
		과일	20	25	[3]
		채소	10	15	[3]
		육류	20	25	[1]
수산물	40	45	[3]		
가공기업 생산기지 가진 비율2(%)	25	50	[25]		
산업태	농림어업 서비스업 총 생산액(억 위안)	4300	5500	9.5%	
	가공기업 전자상거래 판매 보급율3(%)	50	80	[30]	
	농산물 전자상거래(억 위안)	1500	8000	40%	
	레저농업 연간방문한 관광객(억 명)	22	33	8.4%	
	레저농업 연간 영업수입(억 위안)	4400	7000	10%	

자료: 중국농촌경제연구중심 내부자료

## □ 농산물 가공업 발전 관련 주요 과제

- 농촌의 1차산업 정비를 통해 산업융합의 기반 마련
  - 먼저 친환경 순환 농업의 발전을 추진함. 실제에 입각하여 시간과 공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과학의 주도 하에 지역 내 다양한 유형의 농업 생산이 이뤄지도록 하며, 식량 작물과 경제작물, 사료의 3종 재배 구조를 조화롭게 발전시킴. 재배와 양식이 결합된 순환 농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식량 작물과 경제작물, 사료의 재배 구조를 신속하게 확립하며, 농업과 목축업을 결합하고, 재배와 양식, 가공을 일체화하며, 1~3차 산업을 융합하는 현대 농업의 체계를 확립함. 어업과 임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농업과 어업, 농업과 임업의 복합 경영을 추진함. 정밀 가공과 과일이나 채소를 여가활동으로 채취하는 레저농업에 적합한 특색 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과 가공, 판매가 결합된 산업 구조를 확립함.
  - 둘째, 농산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농산품 가공업을 선두로 하여 농업 생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함. 우수 농산품 산지에서는 과학연구부처를 조직해 농산품 가공의 특성을 연구하고, 가공 전용의 우수한 품종과 기술을 선별하여 농산품 가공을 전용으로 하는 원료 생산을 추진함. 농산품 가공업체와 새로운 농업경영업체가 직접투자, 주식투자 경영, 장기계약 체결 등 방식을 통해 표준과 전문성, 규모를 갖춘 원료 생산기지를 건설하도록 장려함. 무공해 농산품과 친환경 식품, 유기농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원산지를 표기한 농산품 생산을 늘리는 등 농업 표준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의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며, 원산지에서 밥상까지 농산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확립해, 표준 생산과 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함.
  - 셋째, 농업 발전 시설을 개선함. 수준 높은 농지를 마련하고, 농산품 가공 전용의 원료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함. 농산품 보관 창고와 물류 설비를 구축하고, 현/ 향/ 촌의 3단계 물류 허브를 바탕으로 하는 농촌 물류 네트워크를 부단히 확립함. 농촌 공공시설과 주민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레저농업과 시골 관광도로, 전기/물 공급, 주차장, 전망대, 관광객 응접 센터 등 부대시설을 계속해서 완비함. 산업융합 발전과 새로운 도시화 건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농촌의 2/3차 산업을 현성(縣城), 주요 소도시 및 산업단지 등에 집중시켜, 해당 소도시를 농산품 가공과 무역, 물류 등 전문 특색을 가진 도시로 양성하고, 도시와 농촌의 인프라를 상호 연결함. 산업융합과 도시와 농촌 계획, 토지사용의 총체적 계획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현지의 산업 공간 배치와 기능을 확정함. 농촌의 유희 부지 정리 및 토지 정비 등 방식을 통해 새로 마련한 경지와 건설 부지를 산업융합 발전에 우선적으로 사용함.

○ 농산품 가공업 발전을 통해 산업융합의 파급효과 제고

- 농산지 내 초벌가공을 대폭 지원함. 식량, 과일/채소/차잎 등 주요 농산품 및 특색 농산품의 건조, 저장, 신선도 유지 처리 등 초벌가공 설비 구축을 중점으로 하여, 농산품 산지의 초벌가공 보조정책을 실시하는 지역, 품종 및 자금을 확대함. 실제 생산되는 농산품을 근거로 하여 초벌가공의 각 단계시설을 마련하고 완비하며, 초벌가공 설비를 적극적으로 종합 이용하고, 식량건조센터, 저장가공센터 및 과일/채소/차잎 가공센터 등을 건설함. 초벌가공 체인의 수준을 제고하고, 농산품 저온유통체제의 신속 발전을 도모해, 생산과 가공, 유통 및 소비를 효과적으로 연계함.
- 농산품 정밀가공의 전체적 수준을 전면 제고함. 곡물을 주로 생산하는 산지에 곡물 정밀가공, 그 중에서도 옥수수 정밀가공 시설 건립을 지원해 식량 재고를 없애고 소비를 촉진함. 주식 가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영양, 안전, 맛, 건강, 편리성, 실용성을 겸비한 전통 면과 쌀, 감자 및 고구마류, 잡곡, 반조리 식품 등 다양한 주식제품을 연구개발, 생산한다. 건강과 보양, 양로, 관광 등 산업과 복융합하고, 기능성 제품이나 특정 집단이 소비하는 관련 제품을 개발함. 새로운 비가열 가공, 살균, 고효율 정제, 친환경 에너지 절약식 건조 기술과 전통식품 공업화의 주요 기술을 신속히 업그레이드하고 통합 응용하며, 효소공학, 세포공학, 발효

공학, 단백질공학 등 바이오테크를 연구하고 관련 장비를 개발함. 정밀 가공설비를 정보화, 지능화, 세트화, 대형화하도록 연구와 제작을 지속하고, 주요 정밀가공 장비를 수입이 아닌 중국 국내에서 생산한 것으로 점진 대체함.

- 농산품과 그 부산물을 종합적으로 이용함. 짚, 벼 껍데기, 쌀겨, 밀기울, 주박, 과일 및 채소 껍데기, 가금류 뼈와 피, 수산물의 껍데기와 뼈, 내장 등 부산물을 가공하고 이용효율을 높여, 부산물 종합이용 기술 체계를 세우고, 신기술, 신제품, 신설비를 연구개발, 제작함. 부산물을 자원으로 사용하고, 재활용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며, 부산물 종합이용 기업과 농가로 구성된 합작사 등 새로운 경영주체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함. 재배와 양식을 주로 하는 업체의 생산방식에 변화를 가하고, 부산물이 재활용의 요구조건과 가공 기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함. 중소기업에 부산물 수집, 처리, 운송의 친환경적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을 장려해, 부산물 가공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함.
- 농촌 3차 산업 발전을 통한 산업융합 발전의 채널 확대
- 다양한 전문 유통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발함. 농산지의 마케팅 체계를 정비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사(農社), 농업기업, 농업학교, 농군 등 형식으로 직거래를 확대하며, 새로운 형태의 농업 기업이 도시 혹은 교외에 신선한 농산품을 직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장려함. 또한 다양한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지점을 농촌까지 확대하도록 장려해, 도시와 농촌 모두에 전방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유관부서가 각 성(구, 시)에서 실시하는 연도별 건설부지 별도비율을 준수하고, 신생 농업 기업 전용의 농산물 가공, 저장, 물류, 산지 도매시장 등 보조시설을 구축함. 농산물 도매시장/ 농산물시장 부동산세, 도농 토지사용세 우대 정책을 지속 실시함. 대형 농산물 가공/유통기업을 양성하고, 위탁관리 서비스와 전문서비스, 연쇄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함.

- 전자상거래 등 신경영/ 신모델을 적극 도입함.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와이브로 등 신세대 정보기술을 농산물 생산/경영/가공/유통/서비스 영역에 도입하고 응용해, 농업과 인터넷이 심도 깊게 융합되도록 함. 유통방식 및 경영 혁신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시범업체를 지정해 신생 농업 기업이 전국적 혹은 지역적인 농업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하며,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에 농산품을 취급할 것을 장려함. 유관부서의 농촌 물류/금융/저장 시스템 정비에 적극 협조하고, 정보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적은 단계만 거처도 최고의 속도로 최단 거리를 이동해 농산품을 유통하는 새로운 유통방식을 점차 확립하도록 함. 농업 사물인터넷의 주력 방향과 중점 분야, 발전 모델 및 추진 경로를 적극 탐색하고, 기존의 성공모델을 국가, 성, 현 등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응용함.
- 융합기제 혁신을 통해 산업융합의 원동력 주입
  - 다양한 산업융합의 주체를 양성하고, 가정이 운영하는 농장과 농민조합의 기본 역할을 강화하며, 농민조합의 규범적 발전을 추진함. 대학·중등 전문학교 졸업생/ 직업 농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농민공 및 다양한 농업 서비스업체로 하여금 가정 농장과 농민조합을 운영하도록 이끌고,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방식의 발전을 추진하며, 레저농업과 농촌 관광 등 경영활동을 전개함. 농업의 산업화를 이끌 선도기업을 양성하고, 시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 농산물 가공/유통, 전자상거래와 사회화 서비스를 중점 개발하며, 규범과 규모를 갖춘 원료생산기지를 건설하고, 농가와 농민조합이 적절한 수준의 규모를 갖추고 경영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한다. 상공자본의 현대농업 투자를 장려하고, 농상연맹 등 새로운 형식의 경영모델을 발전시킴.
  - 산업융합을 선도할 기업을 세움. 경제 규모, 과학기술, 사회 영향력 등 방면에서 우위를 점한 기업들이 업계를 선도하도록 장려하고, 농산물 정밀가공, 유통서비스, 레저관광, 전자상거래 등의 발전과 산업화를 추진

함. 산업융합을 촉진하고 가치사슬을 연장하며 각 단계에 숨은 잠재력을 발굴함. 다양한 경영 혁신을 시도하고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며 그 파급력을 확대하여, 농촌 산업융합 발전의 선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함.

- 다양한 산업융합 방식을 마련함. 농업 가치사슬을 연장하고 가정 농장/농민조합 등 주체들이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업, 농산물 가공유통, 레저 농업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적극 장려함. 기업들이 사업을 확대해 표준화된 원료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정밀가공/ 물류/ 배송/ 시장마케팅 체계를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며, “선도기업 + 조합 + 기지 + 농가”의 조직 모델을 널리 보급함.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현대 농업 시범지구/농업 현대화 시범기지/농산물 가공산업단지 등을 구축하며, 산업 클러스터를 세우고 관련 서비스 체계를 완비함. 산업융합의 선도구역을 설정하고 산업융합/ 산업과 농촌 융합/ 산업과 도시 융합을 추진함. 선도구역 내 경영업체 간의 자산/ 기술/ 이익 융합을 신속하게 추진해 다양한 자금을 통합하고 빈곤지역의 발전을 추진하며, 가공원료 기지/ 가공단지/ 저장물류기지/ 레저농업단지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함. 농촌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인터넷+” 발전 모델을 널리 보급해 다양한 산업융합의 주체들이 인터넷에서 농산물/ 가공품/ 농업 레저관광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등 마케팅을 펼치는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지함.
- 다양한 형식의 수익 연결 메커니즘을 구축함. 계약농업을 혁신하고, 호혜평등한 기초 위에서 기업이 농민/ 농가 농장/ 농민조합과 계약을 맺고 대출을 제공하며, 농가가 농업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함. 또한 기업과 농가는 서로 협력해 농산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기술 연구개발/ 생산표준/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합 브랜드를 만들고 이익을 공유함.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합작사 창립을 적극 장려하고, 집단경영 자산을 환산해 농가에 주식으로 배분함. 다양한 지역의 농지 기준지가를 평가하고 농가의 토지를 지분으로 환산해 등기 혹은 운영하는 데 근거로 삼고, 농가의 토지경영권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수익분배 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융합

에 참여하는 공상기업은 토지를 운용하는 농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며 고용을 보장하고, 기능교육 및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농가의 생산 경영 규모 확대, 관리수준 제고를 이끔. 선도기업과 농가의 연대 장려 기제를 강화함. 리스크 방지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공상자본을 농지에 빌려주는 규범을 세우며, 토지운용과 계약농업 관련 계약이행 여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함.

#### □ 농산품 가공업의 산업 구도

- 현지의 보유 자원 및 지역 안배를 근거로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 융합발전을 추진함. 자연 자원 및 입지적 우위에 따라 우수 원료기지를 구축하고 가공 전용의 품종을 생산하며, 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전자 상거래 등 플랫폼을 구축하여, 프리미엄 산업 클러스터를 양성함. 중점 가공 산업을 바탕으로 초벌가공/ 정밀가공/ 부산물 종합이용/ 전통식품 가공업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저온유통체제/ 지능화 물류 등 설비를 건설하며, 새로운 마케팅모델을 세움. 중점 산업과 프리미엄 산업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산업융합의 시범지역을 운영하고, 가공 전용 품종 사육, 원료기지 보유, 가공전환 및 현대식 물류, 간편 마케팅의 특징을 모두 갖춘 농산품 가공단지과 산업융합 선도구역을 양성하고, 산업융합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함.
- 융합발전지역의 기능
  - 곡물을 생산하는 핵심지역에 우수 원료기지를 대대적으로 설립하고 가공 전용 품종을 생산하며, 주종 곡물의 산지 내 초벌가공을 추진하고 전통적 가공기술 및 설비를 개선함. 동베이/ 양쯔강 중하류 등 쌀 주산지와 황화이하이(黃淮海)/ 양쯔강 중하류 등 밀 주산지, 동베이/화베이 등 옥수수 주산지, 동베이/ 화베이/ 시베이/ 시난 등 감자 옥수수 주산지, 동베이/ 황화이하이 등 콩 주산지, 양쯔강 유역과 북방 등 청경채 주산지, 농

업과 목축업이 교차하는 등베이 지역에 우수 원료기지를 중점 건설함. 등베이, 화베이, 양쯔강 중하류, 주종 식량과 식용유 주종 작물 핵심 생산지에는 초벌가공 벨트를 구축하고, 생산 협력조직/ 혁신연맹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유도함. 더욱 전문적이고 간편한 식량과 식용유 작물 생산/ 저장/ 유통/ 금융/ 대출 플랫폼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연 생태와 전통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레저농업의 발전 모델을 세움.

- 경제작물을 주로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가공전용 원료기지,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경제작물 산지 내 초벌가공/ 정밀가공/ 종합이용 기술을 개선하고, 관련 시설을 정비해 레저농업의 발전을 추진함. 보하이만과 시베이 황토고원에서는 사과 원료기지를, 양쯔강 상중류 / 푸지엔/ 광둥/ 장시성 남부/ 상난(湘南)/ 구이베이(桂北)/어시(鄂西)/ 샹시(湘西) 지역에서는 감귤류 원료기지를, 화난/ 시난/ 양쯔강 유역/ 황토고원/ 원구이고원(云貴高原)/ 북부의 고위도/ 황화이하이/ 보하이만 등 지역에는 채소 원료기지를, 양쯔강 유역/ 동남연해지역/ 서남부 지역에는 녹차/우롱차 등 차 전용원료기지를, 화난/시난 지역에는 열대과일 원료기지를 구축함. 동남연해지역과 보하이만 등 지역 및 서남부 지역에는 각각 과일 채소 급속냉동, 과일채소즙, 과일채소 건조를 위한 초벌가공 벨트를 구축하고, 열대/ 아열대/ 등베이 지역에는 과일 채소 주스, 통조림 및 부산물 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가공 산업벨트를 조성함. 허베이/ 산시/ 산둥/ 푸지엔/ 저장/ 광둥/ 광시/ 장쑤/ 신장 등 지역에는 과일/ 채소 건조 및 영양 건강 식품 가공 산업벨트를 조성함. 중원, 시베이, 구이저우 및 양쯔강/ 저장/ 푸지엔 등지에는 차 음료 및 인스턴트차 가공 산업벨트를 조성함. 신장, 양쯔강 및 황허 유역의 면화 주요 생산지와 광시/ 윈난 등 설탕 주요 생산지에는 우수 원료지와 가공 산업벨트를 조성함. 과일/채소/ 차 원료 기업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품 생산 + 정밀가공 + 레저 관광”의 융합발전 모델을 적극 확장해 레저농업의 발전을 추진함.

- 양식을 주로 하는 지역에 가공원료기지를 구축하고, 산지 초별가공과 고부가가치의 종합이용을 추진하며, 물류 시스템과 정보 네트워크 공유 플랫폼을 구축함. 양식 표준화와 적정 규모의 양식을 점진 추진하고, 등베이/ 중부/ 서남부의 주요 양돈지, 중원/ 등베이/ 시베이/ 시난의 육우 주요 생산지, 중원/ 중동부/ 시베이/ 시난의 양고기 주요 생산지, 등베이/ 내몽고/ 화베이/ 시베이/ 남방 및 대도시 교외의 낙농업 주요지대, 화베이/ 양쯔강 중하류/ 화난/ 시난/ 등베이 등 가금류 생산지에 각각 육류, 유제품류, 달걀 제품의 우수 원료생산기지를 구축함. 연해지역에서는 간석지의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하고, 생태양식 및 깊은 수심에서의 가두리 양식을 늘리고, 공장식 수산물 순환 양식을 발전시키며,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외해 양식 공간을 확장해 생태 “해상 곡창 지대”를 만들고, 우수한 해산물 식자재를 공급함. 내륙에서는 양식에 적합한 지역의 양식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논과 저지대, 알칼리성 토지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 생태적이고 건강한 양식의 발전을 적극 도모하여, 품질 좋은 민물 수산물의 생산기지를 구축함. 연해와 양쯔강 중하류 지역에는 우수 수산물 가공 산업지대를 조성하고, 생산업체, 연구기관, 학교가 연계하여 기술혁신과 선진설비 연구개발 및 보급에 힘쓰며, 시장지향적이고 자원집약적인 가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원료 주산지에는 초별가공과 고부가가치의 종합이용 산업벨트를 건설함.
- 베이징/텐진/허베이, 양쯔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동남연해지역, 양쯔강 경제벨트 등 대도시와 중급도시 외곽 및 대도시 농업지대에는 주식/ 인스턴트 식품/ 레저식품 가공산업 벨트와 농산품 정밀가공 및 종합이용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대형 농산품 가공업 산업단지를 양성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벨트를 조성함. 대도시와 중급도시 외곽 및 대도시 농업지대의 농업 자원과 농산품 가공 산업벨트를 결합하고, 농업문화/ 농사 체험/ 교육/ 과학기술 보급/ 생태관광/ 인문창의/ 음식문화/ 생활 서비스/ 외식 서비스 등 레저농업과 시골관광의 발전모델을 혁신하며, 중앙주식주방(中央主食廚房)/ 레저 농원/ 농산품 및 가공품 저장 물류 설비

및 배송 시스템/ 인터넷 마케팅 등 플랫폼 구축을 장려하고, 노동 주민들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소비수요를 충족함.

- 빈곤지역에서 빈곤 지원 및 빈곤 퇴치를 실시하고, 현지 보유 자원에 따라 실정에 맞게 농산물 가공/ 레저농업/ 시골관광을 개발함. 빈곤지역/ 혁명 근거지 지역/ 소수민족 거주지역/ 국경 지역/ 생태보호지역에서 산업을 동력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신모델을 탐색하고, 농촌의 빈곤층 노동력을 가공업/ 레저농업/ 서비스업 방향으로 유도함. 농민조합과 기업 등 새로운 경영주체를 선두로 하여 현지 보유자원에 따라 농가와 협력해 안정적인 수익 연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농산물 생산/ 가공/ 저장/ 신선도 유지/ 판매/ 레저/ 서비스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 빈곤층의 수익창출을 보장한다. 적절한 수준의 집중 구도를 세우고, 중점 제품을 키우며, 현을 단위로 하여 특색 산업기지를 구축하고, 촌(향)을 기반으로 특색 히트제품을 재배해, 현지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층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함.

#### ○ 융합발전의 중점 산업구조

- 곡물/ 면화/ 식물성 기름/ 설탕 가공업에 관해서는, 중국의 우수한 곡물/ 면화/ 식물성 기름/ 설탕 자원과 산업 우위를 활용해, 우수 곡물/ 면화/ 식물성 기름/ 설탕 원료기지를 구축하고, 곡물/ 식물성 기름 가공을 전용으로 하는 품종을 양성하고 널리 보급함. 곡물/ 면화/ 식물성 기름/ 설탕 가공 기술을 혁신하고, 초벌가공과 정밀가공, 부산물 종합이용 및 전통식품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가공기업이 에너지를 더욱 절약하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며, 품질을 개선하고 효율을 높이도록 함. 시장의 소비수요에 맞춰 곡물/ 면화/ 식물성 기름/ 설탕 가공제품의 종류를 늘리고, 공급 제품의 구조와 품질을 개선함. 곡물/ 면화/ 식물성 기름 가공제품의 정보 플랫폼/ 거래시장을 구축하고, 새로운 마케팅 모델을 개발함. 곡물 저온저장/ 벌크 곡물의 저장운송 모델을 시행하고, 인터넷과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이용해 저장과 물류의 지능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함.

- 과일/채소/차 가공업에 관해서, 중국의 우수한 원료자원과 기후조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에 과일/채소/차 가공 전용원료기지를 구축하고, 저온유통 기술의 발전을 추진하며, 장비를 정비함. 과일/채소 착즙 및 농축액, 신형 캔 가공 등을 적극 개발하고, 에너지는 절약하면서 품질은 높이는 과일/채소 건조/급속 냉동/절단/식용균 등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과실주 양조/과일 채소 부산물 종합이용 기술을 개발함. 찻잎 가공제품의 구조를 조정하고 정밀가공 제품의 비중을 늘리며, 차음료/기능성 차 제품을 개발하고, 차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 가금류 가공업에 대해서는 가금류를 적정 규모로 사육하도록 하고, 우수 원료생산기지를 구축하며, 주요 가축 제품의 자급 수준과 제품 품질을 제고함. 가금류의 도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생산성 낮은 업체는 퇴출함.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며, 등급별 관리를 실시함. 중국식 육류제품 가공기술 혁신과 산업화 장비 연구제작 및 보급에 중점을 두고, 뼈/피/내장 기관/가죽/털/날개 등 가금류 부산물의 이용 효율을 제고함.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특색 유제품과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 계란 가공기술을 중점 보급하며, 전용 계란액과 계란분말 등 계란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함. 인터넷과 와이브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기술을 결합해 저장(저온유통) 물류 시스템을 완비하며, 제품의 추적 가능성을 높여 식품안전을 보장함.
- 수산물 가공업은 체계화/표준화/브랜드화/고품질화/정보화의 특징을 겸비한 수산물 가치사슬을 구축함. 전통 수산물 가공산업을 개조 개선하고, 반조리 수산식품/냉동즉석식품/인스턴트 식품/레저식품/기능성 식품 등 현대 수산식품을 개발함. 민물/해양 수산물의 정밀가공 비율을 높이고 이용효율이 높은 제품의 비율 또한 높임. 수산물 가공의 자동화/지능화/정보화/브랜드화를 실현한다. 다양함과 기능, 선진 기술을 갖춘 현대 수산물 저온유통 물류 시스템을 구축함.

## ○ 농산품 가공단지와 산업융합 선도구역 건설

- 농산품 가공단지를 건설하고, 우수한 특색 농산품 구역과 현대 농업시범 구역을 결합하여 전체 농산품 가공업과 가공단지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중점 기능구역과 산업단지 클러스터에 산업이 밀집되도록 함. 산업의 밀집 및 융합 발전을 고수하고 전용품종/ 원료기지/ 가공 전환/ 현대 물류/ 민첩한 마케팅을 두루 갖춘 농산품 가공단지를 구축함. 원료기지의 표준화/ 가공단지 밀집/ 물류배송의 시스템화/ 마케팅 네트워크의 '삼위일체'를 실현하고, 모든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상호 배합하며 기능을 상호 보완하는 등 긴밀히 연계된 농산품 가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함.
- 자산을 연결고리로, 혁신을 동력으로 하여 산업간 침투와 교차, 연동, 요소 밀집, 메커니즘 완비, 다른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단지 내부의 산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해 신기술/ 신경영/ 신 산업모델을 구축하여, 농촌의 자원/ 요소/ 기술/ 시장수요 통합과 개선을 이끌고, 가치사슬의 확장을 달성함. 또한 산업범위와 산업 기능을 확대하고 농민의 고용과 수익 증대를 실현하며 농산품 가공단지의 건설 수준을 제고하여 농산품 가공단지의 혁신과 구조 전환을 뒷받침함.
- 산업융합 선도구역 건설에 관해서는, 농산품 가공단지/ 현대농업 시범구역/ 도시 현대농업 모범구역/ 농업 산업화 시범기지/ 레저농업 및 시골관광 시범 현을 축매제 삼아 산업융합 시범구역을 구축함.
- 시범실시 항목을 구성하고, 식량 주요 생산지/ 우수 특색 농산품 생산지/ 빈곤지역/ 가공업 주요 밀집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산업융합 선도구역을 양성함. 원료기지의 표준화, 가공단지의 집약화, 물류배송의 시스템화 및 시장 마케팅 네트워크 등 산업융합의 조건을 먼저 시행하고 시험하도록 하며, 관련 산업과 관련 단계들을 융합하고 상호 조합하여 서로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며, 긴밀히 연계하여 소도시와 가공단지, 원료 생산지가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인력이 모여들고 공공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함.

- 새로운 농업 경영 기업들이 가공/ 유통/ 직판 경로를 구축하고 원료기지 와 마케팅 설비, 레저농업, 전자상거래, 공공서비스 시설, 농산품 및 부산 물 가공 및 종합이용 설비를 갖추도록 적극 지원함. 시범구역을 운영하고 발전 방법을 탐색하며 경험을 집대성하여 산업융합의 전반적 수준을 계속 제고하고 가치사슬을 점차 구축하며 기능과 경영 방식의 다양화와 긴밀한 이익 연계를 달성하여 생산지와 도시를 더욱 조화롭게 융합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함.

#### □ 농산품 가공업 관련 사업

##### ○ 전용 원료기지 구축 사업

- 전용 원료기지 구축 사업을 실시함. 기본적으로 곡물을 자급할 수 있으며 식량 공급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전제 하에 시장 수요와 현지 보유 자원에 맞춰 농산품 가공업/ 레저농업/ 시골관광 등 생산 후 단계에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함. 전용품종, 원료기지, 농산품 생산의 표준화 등 사업을 중점 개선함.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전용품종 육성, 원료기지 구축, 농산품 표준화 생산 등이 있음.
- 전용품종 육성과 원료기지 구축을 위해서는 인프라를 힘써 구축하고, 농산품 가공의 특성 연구를 통해 우량종에 관한 과학연구의 난관을 극복하여, 기계화 생산에 적합하고 생산성이 높으며 저항력이 강하고 정밀가공과 레저 채집에 적합하며 보급이 쉬운 신품종을 육성하고 보급함. 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금을 통합하며, 융자방식을 혁신하여 기업과 농가에 다양한 협력을 지원함. 사회자본으로 기업 경영에 적합한 현대식 재배업과 양식업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전용 원료기지를 건설함.
- 농산품의 표준화 생산을 추진함. 농업 표준화 시범구역/ 원예작물 표준단지/ 표준화 규모 양식장(단지), 건강한 수산물 양식 시범 현(장)의 건설을 추진하고, 무공해 농산품/ 친환경 식품/ 유기농 농산품/ 원산지 표시

농산품을 개발하며, 농산지에서부터 밥상에 이를 때까지 농산품 품질과 식품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체계 완비에 속도를 높임. 농산품 생산의 표준화/ 전문화/ 규모화를 실현하고 농산품의 가공과 유통에 양질의 안전한 원료를 공급함.

○ 농산품 가공업 개조/ 개선 사업

- 농산품 가공업 개조 및 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농산품 가공업과 농촌 산업이 교차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함. 기존의 발전 방식을 전환하고 구조를 조정 및 최적화하며 품질의 효익을 제고하는 것을 근간으로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요소 주도형에서 혁신 주도형으로, 분산형에서 밀집형으로 발전의 방향을 전환함.
- 발전의 질과 효익/ 공급측 구성 개혁/ 친환경 생산방식/ 소비방식/ 자원환경 및 집약형 발전에 더욱 중점을 두고, 지원정책/ 과학기술 혁신/ 인재중심/ 공공 서비스/ 조직관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체계를 구축함. 초별가공/ 정밀가공/ 부산물 종합이용/ 주식 가공/ 고품질 브랜드 개발/ 가공단지 건설 등 중점 영역에서 새로운 성과를 내도록 함. 농산품 가공업의 개조와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
- 농산지 내 초별가공 설비를 구축함. 농산지 내 초별가공 보조정책을 통해 각지의 주요 농산지에 초별가공 설비를 집중 구축하여, 현지 농산품의 손해 절감, 품질 향상, 농민 고용과 수입 증대, 농산품 시장의 안정적 공급, 농업 가치사슬 확장 및 산업융합 발전을 위해 노력함. ‘13차 5개년 계획’ 기간 말까지, 보조금과 실시지역을 확대하고 과일/채소 저장용량은 800만 톤, 과일/채소 건조용량은 260만 톤 신설 추가해, 손해는 줄이고 공급은 늘리며, 농민의 수익을 증대하고, 농업의 효율을 높이며, 품질은 제고하는’ 목표를 달성함.
- 주식의 가공 능력을 높임. 곡물 등 주요 농산품의 가공 전환을 추진하고, 도농 주민의 다양한 소비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주식 가공업 발전을 추진하고, 농산품 생산과 신선도 유지, 식품 가공, 직판 배송과 외식

서비스를 통합한 경영을 장려함. 농산품 산지와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교외에 주식 가공산업 클러스터를 양성하여,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파급력 또한 강력한 주식 가공 시범기업과 주식 가공 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관련 산업의 융합발전을 실현함. 5년 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교외에 도농 주민을 위한 1000개의 중앙주방을 마련하고, 현 급의 지역에는 현 지역 주민을 위해 전통 면과 쌀 등 주식 곡물 가공 생산라인을 2000개 신설함. 주요 농산품 생산지에는 300개의 반조리 식품 가공 사업을 실시함.

- 품질 및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고, 농산품 가공업 품질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한 조치를 실시함. 표준화 생산능력을 제고하고,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완비하며,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관련 표준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함. 선진 표준을 적극 도입하고 생산의 표준화를 추진함. 생산 전 과정에서 품질을 통제하는 능력을 대폭 제고하고, 기업들이 선진적인 품질 관리와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실시하도록 장려함. 전 직원이 참여하고 전 과정에 전방위적으로 품질관리를 하도록 관련 제도를 점차 구축하고, 전 과정 품질관리 및 통제를 실현함. 기술 장비 혁신능력을 대폭 높이고, 기업 본연의 혁신능력을 강화함. 브랜드 양성 능력을 제고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와 “중국 서비스”의 우수한 이미지를 보여줄 브랜드를 양성하는 데 박차를 가함.
- 농산품 가공기술을 집대성한 기지를 구축함. 주요 농산지의 농산품 가공 전환과 현 지역의 농산품 정밀가공을 중점 추진함. 식량과 식용유/ 과일/ 채소/ 찻잎/ 축산물/ 수산물 등이 가공 후 손실이 막대하고 종합이용율이 저조하며, 물/ 에너지 낭비가 크고 자동화 수준이 낮고, 맛과 영양 성분의 손실이 심각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중국 전역의 농산품 가공 과학기술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함. 국가 농산품 가공기술 연구개발 체계 및 연구력이 뛰어난 과학기술 기구에 의지하고, 정부 투자 등 방식을 통해 농산품 가공기술 통합 기지를 구축하고, 공통적인 주요 기술을 연구하며 핵심 장비를 혁신 제작함. 이로써 “통합도가

높고 시스템이 확립되었으며, 적용과 복제가 가능한” 농산품 가공 기술과 장비를 마련하고 농산품 가공의 통합 혁신능력과 과학기술의 응용력을 높여, 농산품 가공 기업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주요 기술 수요를 만족시킴. 2020년까지 농산품 가공기술 통합 기지를 40곳 구축함.

- 농산품 가공의 종합이용 시범구역을 실시함. 농산품 및 가공 부산물의 종합이용 시범구역은 시범 현, 시범단지, 시범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재정 보조와 감세 등 정책을 수단으로 하여 금융자본과 사회자본 투입을 유치하고, 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함. 짚/ 식량/ 식용유/ 감자 고구마/ 과일/ 채소/ 가금류/ 수산물 가공의 부산물을 순환이용하고, 버리는 것 없이 온전히 이용하며, 이 자원을 종합 이용하는 성숙한 기술설비를 통합하고 보급하며 시범을 보임. 공정과 설비를 조합하여 짚 속 미생물 부패를 이용한 유기비료/ 벼 껍데기와 쌀겨/ 과일 껍데기/ 가금류 뼈와 피/ 수산물 껍데기와 뼈, 내장 등의 종합이용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상품/ 방법/ 관리 표준 및 관련 기술조작 규정 등을 완비함.

#### □ 농촌지역 가공업 시장 현황

- 중국 농산품 가공업의 발전 여건은 날로 성숙해가고, 규모 또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2015년 전국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농산품 가공기업은 7만 8천 업체로, 매출액은 약 20조 위안에 달함.
-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농산품 가공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0%를 초과했고, 농산품 가공업 생산성과 농업 총 생산성비는 1.7:1에서 약 2.2:1로 증가했으며 농산물 가공 전환률은 65%에 달함. 혁신 속도가 높아졌고, 국가 농산품 가공기술 연구개발 체계도 그 초보적인 틀이 마련되었으며, 주요 공통 기술이 개발됐고 성숙한 응용기술들이 시범을 보였으며 널리 보급됨.
- 산업의 밀집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등베이 지역과 양쯔강 유역의 벼 가

공, 황화이하이 지역의 우수 밀 전용 가공, 둥베이 지역의 옥수수 및 콩 가공, 양쯔강 유역의 우수 유채씨 가공, 중원지역의 소/ 양고기 가공, 서북 및 보하이만 지역의 사과 가공, 연해지역과 양쯔강 유역의 수산물 가공 등 산업단지가 조성됨. 파급력도 강화되어, 전문적이고 표준과 규모를 갖춘 원료기지가 약 1억 농민에게 영향을 미침.

○ 농산품 가공업의 발전추세

- 농산품 가공업의 연 매출액. 통계 수치로 보면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농산품 가공업은 빠른 발전을 지속함. 2010년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산품 가공업체의 매출액은 10.59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25.3% 증가했고, 2011년 매출액은 13.05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23.2% 증가했으며, 2012년 매출액은 15.17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함.
- 2013년 매출액은 17.21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고, 2014년에는 매출액 18.48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해, 2014년에 이미 ‘12차 5개년 계획’의 목표치인 18조 위안을 달성함.
-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농산품 가공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3%에 이르러, ‘12차 5개년 계획’의 목표치를 2%p 웃돌음. 추세보외법과 지수평활법 등 예측방법을 사용해 ‘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의 농산품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해보면, 약 8% 전후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알 수 있음.
- 주요 농산물 가공 전환률. 《농산품 가공업 11차 5개년 계획》과 《농산품 가공업 12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주요 농산품 가공 전환률은 이미 60%에 이룸. 그 중 곡물 가공 전환률은 75%, 과일은 15% 이상, 채소는 5%, 육류는 15%, 수산물은 35% 이상을 달성함.
- 주요 농산물의 심층 가공률(생산량 중 2차 이상 가공된 제품의 비율)은 40%를 초과함. 2015년까지 중국의 주요 농산물 가공률은 6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 곡물 가공률은 80%, 과일은 20% 이상, 채소는 10%, 육류는 20%, 수산물은 4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주요 농산물의 정밀가공 비율은 45%를 뛰어넘음. 이를 근거로 예측하건대 2020년까지 중국의 주요 농산물 가공률은 70%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각 곡물은 85%, 과일은 30% 이상, 채소는 20%, 육류는 30%, 수산물은 45% 이상이 될 것임. 주요 농산물의 정밀가공 비율도 50%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 농업과 농산품 가공업의 생산액 비율. 2010년, 농산품 가공 총 생산액과 농업 생산액 비율은 1.7:1로, 2011년에는 1.78:1, 2012년에는 1.88:1, 2013년에는 1.97:1로 점차 상승함. 예측에 따르면 2015년에는 농산물 가공업과 농업 생산액의 비율은 2.2:1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농산품 가공업의 매출액이 8% 수준의 연평균 성장률을 유지하고, 농업 총 생산이 5%의 연평균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13차 5개년 계획' 말미에는 농산품 가공업 생산액과 농업 생산액의 비율이 2.5:1, 연평균 성장률은 0.06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농업 산업화 참여 농가 수 증가. 《전국 농업과 농업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농민조합 수는 39.9만 개로, 가입 농가는 2900만 가구였음. 다양한 농업 산업화 경영조직은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연평균 13% 증가해 그 수가 25만에 이르렀고, 이에 참여한 농가 수는 연평균 4.23% 늘어 1.07억 가구를 돌파함.
- '12차 5개년 계획' 말미에는 농업 산업화 참여 농가 수가 1.3억 가구에 달해 연평균 증가율 3.9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2020년에는 농업 산업화 참여 농가 수는 1.4억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표 5-2. 농산물가공업 발전현황 및 2020년 목표치 예상

지표	2010	2015E	2020E	연평균증가율
농산물가공업연간영업수입 (만 억위안)	10.59	19.96	29.33	8%

주요 농산물 가공전환율 (%)	65	70	75	[5]
식량	75	80	85	[5]
과일	15	20	25	[5]
채소	5	10	15	[5]
육류	15	20	25	[5]
수산물	35	40	45	[5]
농업과 농산물가공업 생산액 대비	1.7 : 1	2.2 : 1	2.5 : 1	0.06
농업산업화 경영조직 연계된 농가 (억 호)	1.07	1.3	1.4	2%

자료: 중국농촌경제연구중심 내부자료

#### ○ 농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 기호

- 경제사회가 빠른 발전을 지속하고, 산업화, 정보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에 없던 도시화가 이뤄지면서 도농 주민의 생활 및 소비 방식에도 새롭고 중대한 단계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소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산물 전체 소비 중 차지하는 가공품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음. 식품 및 농산물 품질과 안전성을 중시하고, 브랜드 농산품을 선호하는 소비 성향이 강화되고 있음.
- 농산물 소비수요가 빠르게 분화하고 있으며, 시장 세분화 및 시장 분할이 농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음. 농산물 소비의 기능화/ 다양화/ 간편화/ 안전화 추세가 강해지고 있으며, 개성 있고 체험할 수 있으며 고급 제품을 선호하는 성향이 농산물 소비수요 증가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대중적이지 않고 특색 있는 로컬 특산품이 고소득 및 중간 소득 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
- 농산물 소비수요의 변화는 중국 식품 가공업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몇 가지 난제를 안겨줌. 특히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는 이제까지 중국 농산물 가공업 발전을 방해해온 심각한 문제였음.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클렌부테를 먹인 고기, 독성 생강, 멜라민 사건 등 농산물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소비자들은 점차 안전한 농산품을 원하게 됨. 식품 인증마크는 고품질과 저품질 식품을 가르는

중요한 표식이 되어, 소비자들에게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안전 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 10여 년의 발전을 거치며, 중국의 식품 품질 및 안전 인증은 제품 인증을 주로, 시스템 인증을 부로 하는 체계를 갖추었음.

- 제품 인증 방면은 농산물 무공해 인증과 친환경 식품 인증, 유기농 제품 인증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시스템 인증 방면은 주로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과 GAPS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인증, ISO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음. 중국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꾸준히 향상되며, 소비자들이 양이 아닌 질을 기준으로 농수산물 가공품을 선택하게 되었음. 농수산물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식품의 원산지와 브랜드 및 인증 시스템이 소비자들이 주시하는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중국 학자들의 소비자 연구조사에 따르면, 중국 도시의 소비수준은 농촌의 소비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높고, 농산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수준도 도시가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하지만 현재 중국 소비자의 수입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고급 농산품 소비 증가에는 한계가 있음. 지금도 대다수 소비자들은 식품 혹은 농산품 구매 시 가격의 저렴함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음. (문원지에閔文杰 등, 2007)
- 하지만 안전한 농산품의 경우 일반 농산품 대비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에 일반 농산품보다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음. 유기농 농산품을 예로 들면, 일반 농산품보다 가격이 약 2~6배 비싼 것이 현실임. (강명리康明麗 등, 2003)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품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심지어 일부는 이를 사치품이라고 생각하기도 함. (뤄샤오위羅少郁, 2007) 한편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무공해/친환경/유기농 제품에 대한 지불의사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함. (세민謝敏, 2007; 다이잉춘戴迎春 등, 2006; 왕즈강王志剛 등, 2007)
- 수입 농산 가공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선호도에 대한 기존의 중국 연

구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정보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은 수입 농산가공 식품을 중국 생산 가공식품보다 더 높게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며, 젊은 소비층이 한국 식품에 느끼는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특히 드라마에서 언급되는 식품은 젊은 소비층의 인기 식품으로 떠오름. 바나나우유가 그 대표적 예임. 시장 개방과 한중 FTA의 체결에 따라 한국 농수산 가공식품이 기술과 안전 측면에서 중국 제품보다 우수할 것이라는 믿음에 수많은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고 있음.

#### □ 농촌지역 가공업 성공사례

- 농촌의 1/ 2/ 3차 산업이 융합되며, 농산품 가공업에 대한 요구 수준도 더욱 높아지고 있음. 1차 산업은 새로운 경제협력조직을 스스로 조직해, 농산품 가공업체의 주도 아래 일정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조직적이고 집중적이며 전문적인 생산을 하게 되었음.
- 1차 산업은 2/ 3차 산업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게 되었고, 1/ 2/ 3차 산업 간의 연동효과가 더욱 강해졌음. 세 산업은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으로 서로를 지지하며, 농민들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직한 농민조합을 통해 산업간 연동을 실현했으며, “농산품 가공의 선두업체 + 협동조합 + 농가” 등 다양한 경제조직을 선보여, 전통농업의 “생산은 적게, 시장은 크게”의 모순을 해결함.
- 조사에 따르면 산업융합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농업 경제조직이 나날이 혁신을 더하고 있고, 농업 생산체인도 과학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가치사슬의 확장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함. 나날이 명확해지고 있는 1/ 2/ 3차 산업융합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의 몇 가지 조직혁신모델 사례를 그 예로 들고자 함.

- 사례 1 : 생산부문 확장 모델----산동 서우광(山東壽光) 채소 가공 산업의 확산
  - 중국의 채소 생산을 책임지는 산둥반도 중부에 위치한 서우광시는 최근 몇 년 사이 채소 생산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생산을 표준화하고 제품을 국제화하며, 채소 생산의 전 과정에 걸쳐 품질관리를 실시해, “기업은 기지를 만들고, 기지는 농가를 모은다”는 가치사슬의 윈스탑 모델을 구축함.
  - 서우광시가 채소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그것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자연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함. 채소 재배업 클러스터는 이 가치사슬의 핵심으로, 클러스터가 있어 후방연계산업이 파생되고 전방연계산업을 흡입할 수 있었음.
  - 채소 재배업 클러스터의 주도 아래 전후방연계산업인 채소 가공/ 배송/ 판매와 농약/ 비료/ 농업용 비닐/ 종자/ 종묘/ 철근 등 생산재 산업이 연이어 입주했고 완전한 채소부문의 가치사슬이 구축되었음.
  - 산동 서우광의 채소 산업은 전형적인 생산 단계의 확장 모델로서, 이 모델은 농업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으며, 농업 재배나 양식 기지 혹은 농가로 구성된 산업 클러스터의 기반 위에서 2/ 3차 산업으로 연장됨.
  
- 사례 2: 가공 단계 추진 모델----랴오닝 후이산(遼寧輝山)농산물 가공 산업
  - 랴오닝 후이산 농업 R&D 단지는 과학기술을 필두로 하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체제 메커니즘을 끊임없이 혁신하며, “농산품 가공이 주도하여, 공업이 농업을 되살리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함.
  - 후이산 농업 R&D 단지의 농업 관련 가치사슬은 농산품 가공업체를 유치함으로써 특색이 명확한 주도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관련 농업의 첨단기술 연구로 농산품 가공업 클러스터 모델을 강화함.
  - 초기 단계의 농산품 품질을 보증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품 가공의 선두업체와 생산 초기 단계의 농산품 관련 산업협회가 계약을 체결하여 “업체 + 산업협회 + 기지 +농가”의 조직형식을 구축함.

- 라오닝 후이산 농업 R&D 단지는 자체의 농업 산업화 경영구조를 바탕으로 농산품 가공의 초보적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데 성공함. 다양한 농산품 가공업체가 밀집하자 후이산 농업 R&D 단지는 순환 산업 생태계의 중요한 일환이 되었고, 업체 간 협업과 연동효과가 강화되었으며 전후방연계산업의 다양한 가공업체가 긴밀히 연결됨.
  - 중량(中糧, COFCO) 그룹의 단지 입주 후, 그룹은 곧 업스트림의 식량 생산기지과 연결되었고 식품가공 등 다운스트림 업체와도 연동되어 최종적으로 중량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생태계가 형성됨. 또한 원료 생산부터 농산품 정밀가공, 나아가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순환 가치사슬이 완성됨.
- 사례 3: 식품가공업체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및 수익 재분배 - 내몽고 싸이바오 오토밀(內蒙古塞宝燕麥食品公司)
- 싸이바오오토밀 주식회사는 내몽고 싸이바오 그룹 소속 최대의 자회사로,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시의 진촨(金川) 개발구 공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음.
  - 최첨단 가공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이 업체는 오토밀/ 귀리쌀/ 인스턴트 잡곡 및 면류/ 밀가루 등을 가공하는 네 개의 자동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음. 오토밀 일일 생산능력은 50톤, 귀리쌀은 40톤에 이르며, 중국 전역의 50여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대리점을 두고 있음.
  - 수출입 자율 경영권을 보유하여, 제품을 한국/ 일본/ 미국/ 남아프리카 등지에 수출하고 있음. 다년 간 발전을 거듭한 뒤, 2006년에는 “후허하오터시 농업 산업화의 선두기업”에 선정되었고, 2011년에는 “내몽고 농업 산업화의 선두기업”으로 선정됨.
  - 싸이바오는 현지의 풍부한 귀리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고 귀리 재배기지의 건설에 적극 투자하여, 제품이 시작되는 초기부터 우수한 품질을 약속하며,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음. 업체가 생산 중인 귀리 제품은 주로 우촨(武川), 허린(和林), 량청(涼城) 현 등지의 20년 기한 임대 토지에 건설한 유기농 귀리 재배기지에서 재배된 원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업체가 생산하는 귀리 원료는 특별히 무공해 생태환경의 기지에서 생산되어 그 품질이 우수함. 2010년, 업체는 우찬현 상투하이향(上禿亥鄉)에 유기농 귀리 재배기지를 세웠고, 20여 협력사와 협업 관계를 구축함. 또한 계약 체결을 통해 재배 표준을 명시하고 재배 농가 별 파일을 만들어 기지 내 농가에 대해 재배, 기술 지도, 농자재 공급, 매입 및 정산을 일괄적으로 진행함.
- 윤작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여 재배의 규범화, 표준화를 실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귀리 품질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확보함. 매년 수확한 귀리는 모두 싸이바오 업체가 일괄 매입해 농가의 재배 적극성을 유도하는 한편, 일정 기준을 통과한 원자재 공급을 보장하고, 농가의 수익 증대를 주도함.
-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내몽고 우한현의 귀리 산업구역 내 농가의 귀리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1387.5킬로그램/헥타르, 가격은 1.3위안/500그램, 묘(畝) 당 생산액은 240.5위안으로, 대다수가 농가 자체가 선택한 종자를 사용함.
- 싸이바오의 유기농 귀리 재배기지는 귀리 중에서도 품질이 우수한 품종인 ‘옌커 1호(燕科1号)’와 ‘바요우(壩莠1号)’를 선택하고 있으며, 1묘당 단위 생산량은 2250킬로그램/헥타르임. 싸이바오는 1.8위안/500그램의 가격으로 귀리를 일괄 구매하고 있으며, 묘당 생산액은 540위안에 이룸.
- 기지 내 농가의 묘당 생산액은 300위안 가량 증가했고, 농가당 평균 수입도 3282위안 증가해, 1000여 농가의 참여를 추가로 유도함. 이렇게 함으로써 싸이바오는 농가의 재배 참여 적극성을 높였고 추가로 창출된 농산품의 부가가치의 일부를 농가와 공유하고, 부가가치 수익의 재분배를 실현해 회사와 농가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게 함.
-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싸이바오는 원료기지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다양한 재배모델을 탐색 중임. 또한 “기업 + 협회 + 농가”의 산업경영모델을 채택하고 3만 헥타르에 이르는 귀리 재배기지를 구축해, 더 많은 농가가 직접적인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함.
- 싸이바오는 내몽고 농업 축산업 과학연구원/내몽고 농업대학의 귀리 과

학연구원을 초청해 협력 농가를 대상으로 귀리 재배기술을 교육하고, 협력 농가의 재배 적극성을 제고하며, 특색 있는 농업의 밀집 재배와 현지의 일자리 창출에 시범적 효과를 보임.

- 사례 4: 선두기업의 파급 모델 - 칭다오 동성그룹(靑島東生集團股份有限公司)
  - 동성그룹의 땅콩 가공 역사의 시작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회사 설립 초기 가공량은 1만 톤에 미달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10여 년의 눈부신 발전을 통해 현재 땅콩 가공량은 약 10만 톤에 이를 정도로 증가함.
  - 현재 동성그룹은 라이시(萊西) 시의 크고 작은 땅콩 가공기업 약 400개를 선도하고 있으며 재배 기지/ 매입/ 공장 정밀가공/ 수출/ 땅콩 부산물 가공/ 운송/ 포장/ 기계 생산 등 세분된 분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이전에는 소/중 규모 공장에서 초벌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했다면 이제는 대형 공장에서 정밀가공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완전하고 세분된 가치 사슬을 구축함.
  - 이 산업단지는 산업화 생산이 갖는 특유의 원가 경쟁우위와 한 지역에 밀집된 땅콩 산업지구로서 갖는 경쟁우위를 겸한, 중국에서 땅콩 가공이 가장 집중된 지역이 되었음.
  - WTO 가입 후, 땅콩 수출의 무역 규제를 돌파하기 위해 동성그룹은 원료부터 통제를 장악하기로 결단하고, 2001년부터 약 2만 가구의 농가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우수한 품질의 땅콩 품종을 생산할 6만 묘의 기지를 구축했으며 표준화 생산을 추진함으로써, 땅콩 원료의 품질을 대폭 제고했다. 2008년도 동성 그룹은 생산기지를 8만 묘로 확장함. 그 중 3만 묘는 국가 무공해제품 인증/ A급 친환경 식품인증을 통과했고, 1200묘의 기지는 국가 유기농 식품 인증을 통과함.
  - “산동성 수출 농산품 그린카드 행동계획” 중 EU에 수출하는 땅콩 생산의 시범구역 건설 및 EU 수출 땅콩의 우수 농작 규범 제정을 맡았으며, 현재 회사의 생산기지는 이미 10만 묘에 달하고, 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12000여 가구에 달함.

- 동성그룹은 생산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농업부의 전문가를 초청해 농가를 대상으로 품종 선택, 재배, 일상적 관리, 저장 등 땅콩 생산의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또한 농민에게 품질 지상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그들의 재배수준 및 관리 수준, 과학의식을 높임.
- 기지에서는 표준화 관리를 추진하고, 평상시 비료와 농약 사용 등 일상적 관리를 포함해 품종 선택부터 재배, 수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기록으로 남겨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 참고할 데이터가 생기면 땅콩 품질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고, 농가를 과학 재배의 길로 점차적으로 인도할 수 있음.
- 동성그룹은 표준화 생산을 시행하는 동시에 시장수요의 변화를 근거로 생산기술의 갱신과 연구개발, 혁신을 지속 추진했고, 땅콩 정밀가공을 발전시켜, 땅콩잼, 견과류 제품, 껍질을 벗긴 제품 등 다양한 제품 시리즈의 생산기술 및 설비를 도입하고, 생산효율 및 연구개발 능력을 대폭 제고함. 2003년 동성그룹은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함.
- 2006년 이 연구개발센터는 “칭다오시 기업기술센터”로 선정되었고, 2007년에는 국가 농업부로부터 “국가 농산품 가공기술 연구개발 땅콩 전문 센터”로 선정됨.
- 동성그룹은 매해 300만 위안 이상의 거금을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음. 연구개발센터가 연구 개발한 “저온에서 땅콩 껍질 벗겨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은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 그 기술성이 중국 내에서는 최고일 뿐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도 도달한 것으로 인정받음. 이 기술은 생산 단계에서 아플라톡신의 발생 비율을 현저히 낮추는 동시에 땅콩이 함유하고 있는 천연 활성 단백질 고유의 향과 맛을 지켜, 땅콩 수출이 가지고 있던 기술 장벽을 효과적으로 타파했으며, EU 등 해외로 해상 운송하는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 이 기술 덕분에 저온에서 땅콩 껍질을 벗겨 만든 제품을 중국에서 대규모 생산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제품의 부가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었음.
- 동성그룹은 전면적으로 품질을 관리해, HACCP, ISO9001을 핵심으로

하는 품질보장체계를 세우고, 단계별 분석과 세분화를 실시하였으며, 매 직원/ 공정/ 제품부터 시작해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행함.

-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문제의 근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기업의 관리 수준 및 제품 품질 관리 능력을 대폭 제고했음. 또한 기업 브랜드 구축을 위해 강력한 품질보장을 시행함. 동성그룹의 대표 브랜드 “TOPSEN”과 “후이성위엔(匯生園)”은 각각 산동의 유명 상표/ 산동 브랜드/ 산동성 중점양성 수출 브랜드로 지명되었으며, “후이성위엔” 상표는 현재 중국 유명상표 등록을 신청한 상태임.

#### □ 농산품 가공기업의 성공요인 분석

##### ○ 선두기업의 주도적 역할 발휘

- 농업의 선두기업들은 시장 개척/ 소비 유도/ 생산 주도/ 부가가치 증가 등 종합적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새로운 상태에 적응하고 나아가 더욱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감.
- 생산기지와 농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선두기업과 농가와의 협력 경영 모델을 혁신하고, 이익 연계 메커니즘을 완비해, 협력 농가도 산업화 경영이 가져오는 결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 과학기술 혁신으로 원료생산기지를 발전시켜 원료생산의 집약화/ 규모화/ 표준화를 실시하고, 가공식품의 생산원가를 낮추고,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농산지의 농산품 가공업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함.
- 상호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기업과 농가가 협력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주요한 방식은 바로 계약 체결임. “선두” 기업과 생산기지, 농촌 혹은 농가는 매매 계약서를 체결해, 쌍방의 책임과 권리를 다음과 같이 명시함. 기업은 기지와 농가에 대해 명확한 지원정책을 가지고, 전 생산과정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 최저가를 설정하며, 우선적 구매를 보장함.
- 농가는 계약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정해진 양의 우수한 원료를 기업에 납품하고, “선두” 기업은 해당 원료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판매함.

이렇게 선두기업이 주도하는 방식 아래 농업 가치사슬은 시장가격 메커니즘과 비시장의 조직 메커니즘을 상호 연계하여, 융통성 있게 이익을 분배하고 조직 원가를 낮출 수 있음.

- 또한 이는 ‘선두’ 기업이 농업에 자금과 현대기술을 투입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함. 산업 발전이 불안정하고 시장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단계에서 선두기업이 주도하는 발전 모델은 적용이 용이함.
- 생산 규모 확대, 업계 협력 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
- 농산품 가공기업은 재배 및 양식기지와 가정 농장, 협동조합 등 농업 및 목축업 제품 생산의 주체와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는 기지 및 제품 공급원을 구축하여, 지역적 집약 생산을 실현함.
  - 또한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규모를 확대해 내부의 규모경제를 실현함. 가치사슬 간의 기능 협력(업계 협력)을 통해 경영주체 외부의 규모경제를 실현하고, 외부의 규모경제를 달성함.
  - 업계 협력은 동종 업계의 서로 다른 기업들이 물질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하는 것을 가리키며, 동종업계 혹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산업이 한데 모여, 생산/ 공급/ 판매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줄이고, 운송비용을 낮추며, 에너지 소모와 물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물질과 자금을 절약하는 동시에 다양한 생산요소를 집중적으로 사용함. 이는 협업 생산과 전문적 생산에 유리하게 작용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함.
- 전체 가치사슬 관점에서 기업의 발전 방향 모색
- 전체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가치사슬을 확장함. 다운스트림의 주체들과 함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산업체인의 각 단계를 연동함. 이와 동시에, 각 생산 단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가치 증대라는 개념을 기업 생산 및 경영 전 과정에 적용해 가치사슬을 개선함.
  - 가치사슬의 범위를 확장하고, 농산물의 정밀가공 비율을 높이며, 부가가

치를 창출함. 가치사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종합이용을 늘리고, 각 산업의 단계와 기능을 보완하며, 농업 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농업 기능을 다양화함으로써 수익 증대를 실현함.

- 뿐만 아니라 이익 분배에 있어 농가 또한 자신의 수입 증대를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창출된 부가가치 수입을 공유할 수 있게 하며,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긴밀한 이익 연계 관계를 구축하여, 농가가 가치체인의 가치 증가로부터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함.
- 거래관계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를 따라감.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 추세를 조준하고 “인터넷+”, “생태+” 등 현대적 개념을 생산 및 경영 활동에 도입해, 생산/ 경영/ 자원이용 방식을 혁신하고, 농업을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하여 생산/ 생활/ 생태가 모두 윈-윈 할 수 있게 함.

### 3. 중국 농촌관광의 개념 및 발전단계

#### 3.1. 중국 농촌관광산업의 시장 동향

- 중국은 기존 레저경제, 레저 관련 산업이 다른 국가에 비해 뒤늦게 발전하였으나 발전 잠재력만큼은 막대함. 동부 연해 지역의 경우 이미 상당한 규모로 발전이 진행됨. 급속한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수준 제고에 힘입어 중국은 현재 점차적으로 ‘레저시대’로 진입
- 휴양관광, 특히 향촌관광, 도시 교외관광, 로드 트립 등의 방식이 도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관광방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지의 교외지역엔 수많은 농업생태원이 설립됨. 이러한 관광농업생태원의 대부분이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쾌적한 여건을 제공하여

관광, 여행뿐 아니라 농사일 체험, 휴양이 동시에 가능하고, 여기에 민속적인 색채를 가미함으로써 중국 특색의 관광형 농업 모델이 형성됨.

### (1) 중국 농촌관광의 발전 추세

- 1980년대 중기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관광농업은 30년에 가까운 발전 역사를 갖고 있음. 초기 농민의 자발적인 과수원 개방, 과일따기 체험 프로그램부터 최근의 다양한 농업관광원, 과기시범원, 농업박람원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향촌관광은 초창기, 발전기, 확장기, 개선기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음. 특히 현재 레저농업/향촌관광이 농민 취업 및 수익 증대, 빈곤 탈피,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 농촌 1/2/3차 산업의 융복합, 농민 창업 유도 등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앞으로 농업과 관광, 교육, 문화, 의료/양로 등 산업간의 긴밀한 융합, 레저산업과 향촌 관광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농민들의 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함.
- 초창기/자생적 발전 단계 (1980년 대 중후반 - 1994년)
  - 팜스테이의 등장 : 1986년 오픈한 중국 청두(成都)의 ‘쉬자다웬(徐家大院)’은 ‘팜스테이’라는 관광 모델을 통한 향촌관광 시대의 본격 진입을 의미함. 또한 1989년 4월 ‘중국농민관광협회’가 ‘중국향촌관광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94년 중국 내 ‘1+2’ 휴가 제도가 공포, 시행됨.
- 전면적 발전 단계 (1995 - 2001년)
  - 향촌 휴일 경제 : 1995년 5월 1일부터 토요일 양일간 휴무제가 시행되고, 1999년 춘절, 노동절(5월 1일), 국경절(10월 1일)이 7일간 휴무로 변경됨. 또한 2000년 국무원이 발표한 제 46호 문건에는 ‘황금연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됨.
  - 1995년 ‘중국 민속풍속 여행’이라는 여행 테마와 ‘중국, 56개 민족의 집’

이라는 홍보 슬로건에 힘입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소수민족 거주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함.

- 1998년 중국 여유국은 ‘화하도농관광(華夏城鄉游)’을 그 해 여행테마로 선정, ‘농가 음식을 먹고, 농가에서 자고, 농사일을 하고, 농가 풍경을 느끼자’라는 새로운 컨셉이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임.
- 양적/질적 확장 단계 (2002~2006년)
- 2002년 중국은 <전국 농공업 관광 시범지역 점검 표준(시행)> 발표함. 이는 중국의 향촌관광이 제도화, 고도화 단계로 나아가게 됨을 의미하며, 2002년 관광농업 관련 사업은 총 2,246건, 관광객 수 3618.1만 명, 매출액 22.75억 위안을 기록함.
  - 2004년 후진타오 총서기는 상하이 시찰 시, ‘농업관광 및 생태관광의 발전을 통해 농민의 소득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05년 중국 정부가 토지도급경영권 거래제를 시행하면서 규모가 큰 경영체가 등장하게 됨. 2005년 당시 국무원 부총리였던 우이(吳儀)는 전국관광업무회의에서 관광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관광업을 삼농(농업, 농촌, 농민) 문제 해결과 결합, 농촌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농업관광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 2006년 중국 당 중앙에서 제시한 사회주의 신농촌의 전략 구상은 관광농업이라는 새로운 농촌산업 발전에 역사적인 전기를 가져다 주었으며, 중국 여유국은 <농촌관광 발전 촉진 관련 지도 의견>를 발표하여 ‘공업을 활용하여 농업을 발전시키고, 도시를 활용하여 농촌을 발전시키자’라는 농촌관광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중국 농촌관광의 해’를 지정하고 농촌관광의 역할을 적극 강조함.
- 업그레이드 및 지속 가능 발전 단계 (2007년-현재)
- 2007년 중국은 토지도급경영권 거래를 정착시키고, 2008년 관련 시장을 정비함으로써 그간 향촌관광 발전을 저해했던 토지제도 문제를 해결함.

2007년 제시된 ‘중국의 조화로운 도농관광’, ‘매력 넘치는 향촌, 활력 넘치는 도시, 조화로운 중국’이라는 슬로건은 농촌을 크게 변화시킴.

- 2007년 중국 여유국과 농업부는 <전국 향촌관광 발전 추진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하고 향촌관광 발전을 적극 추진함. 2008년 <중공중앙의 농촌 개혁 발전 추진 관련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에 힘입어 향촌관광의 운영모델은 더욱 과학적, 합리적, 다원화되기에 이르며, 2009년 <관광업의 빠른 발전에 대한 의견> 중 향촌관광을 통한 농민 소득 증대 사업 방안이 제시됨.
- 2015년 중앙 1호 문건인 <개혁/혁신 강화를 통한 농업 현대화 건설 추진에 대한 의견> 중 농촌의 요소자원 활용을 통해 농민의 소득 증대를 강조한 향촌/생태/레저/관광업 발전 추진방안이 제시됨. 구체적으로 농촌의 1/2/3차 산업 융복합, 자원 경쟁우위에 입각한 발전, 시장 수요에 기반한 발전, 농업의 다양한 기능 적극 활용, 향촌의 생태레저, 여행관광, 문화교육의 가치 적극 발굴, 다양하고 특색 있는 향촌관광 상품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농업부 천샤오화(陳曉華) 부부장은 2016년 열린 전국레저농업 및 향촌관광 경험 교류회에서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전국 레저농업과 향촌관광의 발전 추세가 양호하다고 말함. 다양한 신경영체의 등장, 새로운 기체의 꾸준한 모색, 새로운 기능으로의 확장, 유형의 다양화 등 산업 전반적으로 ‘발전 가속화, 배치 고도화, 품질 향상, 영역 확대’ 등의 발전 특색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업종, 새로운 동력 포인트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함. 또한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레저농업과 향촌관광은 농민 취업 및 수익 증대, 국민들의 레저 소비에 대한 수요 만족,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목표로 산업 전체의 수준을 끌어 올리고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레저농업과 향촌관광이 농민 취업 및 수익 증대를 실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2) 소비 수준

- 소비 수준 면에서 보았을 때 중국의 현재 농업관광 제품은 중저급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관광농업의 관광 사업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유형의 관광 사업과 비교했을 때, 농촌의 농업 생산 자원과 향토문화, 농경문화, 민속문화 자원 등을 기반으로 한 농촌관광 사업은 저비용, 저투자, 유연한 운영을 특징으로 함.
- 관광상품 면에서 살펴보면, 가격은 중저가를 위주로 하며, 소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저급에 대한 소비가 주류를 이룸. ‘팜스테이’ 관광농원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으로 토일 1박2일 상품의 비용이 100위안 정도임. 농촌관광을 하는 국내 관광객의 절대 다수는 가족끼리 휴일을 보내기 위해 농촌관광을 선택함. 일반적으로 근교 여행이 많고, 기간도 비교적 짧은 편으로 보통 1~2일 정도이다. 물론 소비 수준도 낮은 편임.
- 사업 개발 수준에서 살펴보면, 농업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이 미흡하며, 사업간 중복이 많고 기능도 유사함. 건물이나 시설 공사만 중시하고 주변 환경 조성은 경시되는 현상도 여전함.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의 농업관광은 완전히 성숙한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함.

## (3) 관련 통계

-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중국 내 각종 농업단지가 3,000개에 달하며 31개 성시(省市)에 분포해 있지만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중국의 중동부 지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편임. 수많은 관광농업 사업이 중국 동부의 경제적으로 발달한 성(省) 혹은 중동부 대도시의 교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관광농업 발전 수준과 도시군의 발전 수준은 비례함.

- 전국적으로 보면 환발해(环渤海), 장삼각(長三角), 주삼각(珠三角), 청두(成都) - 충칭(重慶) 지역 등의 관광농업 밀집지역이 이미 형성됨. 이에 반해 서부 및 중부 성(省)의 일부 농업 특색지역 및 민속문화 특색지역은 상기 지역만큼 관광농업이 발전하지 못함. 359개 농업관광 시범대상을 예로 살펴보면 동부/중부/서부 세 개 지역 중 동부 지역 195개로 54.32%, 중부 지역 68개로 18.94%, 서부지역 96개로 26.74%를 차지함.
- 성(省)/시(市)/구(區)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이 보유한 성은 순서대로 연해지역인 산둥성(山東省) 55개로 15.32%, 장수성(江蘇省) 43개로 11.98%, 랴오닝성(遼寧省) 34개로 9.47%를 차지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구이저우성(貴州省) 18개, 안후이성(安徽省)과 쓰촨성(四川省)이 각각 17개, 허베이성(河北省) 15개, 저장성(浙江省)과 광둥성(廣東省)이 14개, 산시성(山西省) 13개, 허난성(河南省) 12개, 광시성(廣西省) 11개, 내몽고(內蒙古)와 신장(新疆)이 10개, 나머지 성은 10개 미만으로 집계됨.

표 5-3. 전국 359개 농촌관광 시범단지 분포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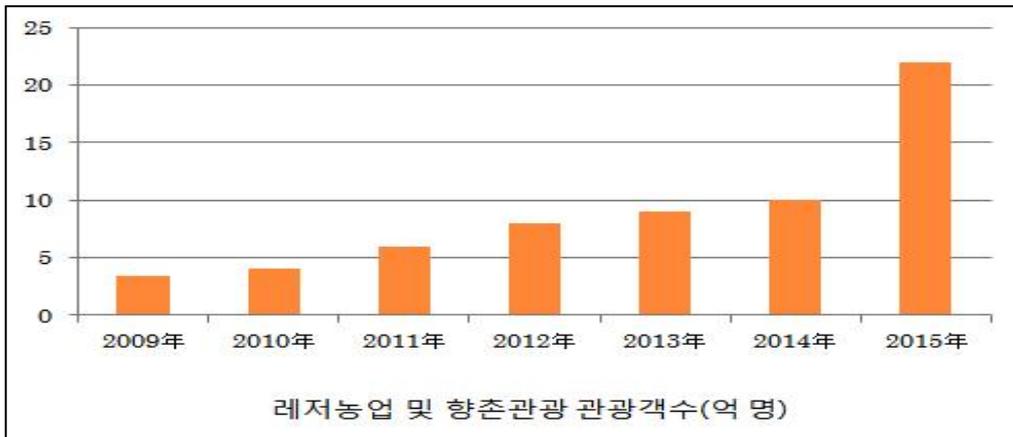
구분	지역	수량	비율
지역별	동부	195	54.32%
	중부	68	18.94%
	서부	96	26.74%
성(省),시(市),구(區)별	산둥성(山東省)	55	15.32%
	장수성(江蘇省)	43	11.98%
	랴오닝성(遼寧省)	34	9.47%
	구이저우성(貴州省)	18	5.01%
	안후이성(安徽省)	17	4.74%
	쓰촨성(四川省)	17	4.74%
	허베이성(河北省)	15	4.18%
	저장성(浙江省)	14	3.9%
	광둥성(廣東省)	14	3.9%
	산시성(山西省)	13	3.62%
	허난성(河南省)	12	3.34%

	광시성(广西省)	11	3.06%
	내몽고(内蒙)	10	2.79%
	신장(新疆)	10	2.79%
	기타	10개 이하	2.79% 이하

자료: 허베이이공대학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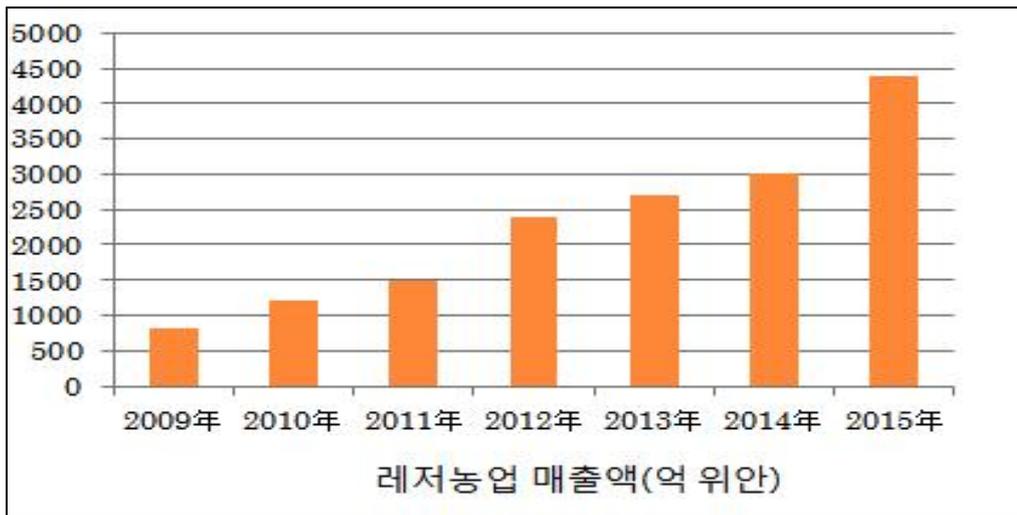
- 2009년 관광농업을 테마로 한 농업생태원은 전국적으로 130만 개를 넘어섬. 연간 매출은 806.7억 위안 이상으로 농촌지역의 중요한 2차/3차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으며, 2010년 레저관광농업의 총생산성은 251,430만 위안, 농업 총생산성은 154.2억 위안, 농림어업 서비스업의 총생산성은 5.9억 위안으로 레저농업의 총생산성이 전체 농업의 총생산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3%임.
- 2011년 전국 내 팜스테이는 총 150만 개, 일정 규모 이상의 레저농업단지는 2만 개를 돌파하였으며, 연간 관광객 수는 6억 명, 연간 매출액은 1,500억 위안 이상으로 1500만 명 농민의 수익 창출에 기여함.
- 2012년 말 기준, 전국 9만 개 마을이 레저농업 및 향촌관광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레저농업 및 향촌관광 경영체는 180만 가구에 달하며, 그 중 팜스테이 150만 가구,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 3.3만 개 이상으로 연간 관광객 8억 명, 연간 매출액 2400억 위안, 종사자 수 2,800만 명으로 전체 농촌노동력의 6.9%을 차지함.
- 2013년 전국 팜스테이 가구 150만 가구, 레저농업 집적촌 9만 개 이상, 연간 관광객 수 9억 여 명, 매출액 2,700여 억 위안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2014년 말 기준, 전국 팜스테이 가구 150만 가구, 연간 관광객 수 10만 명, 연간 매출액 3000억 위안을 기록함.
- 2015년 전국 레저농업 및 향촌관광 관광객 수 22만 명, 연간 매출액 4400억 위안, 종사자수 790만 명으로 그 중 농민이 630만 명으로 550만 명 농민의 수익 창출을 이끌었으며, ‘제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관광객 수와 매출액 모두 1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5-3. 레저농업 및 향촌관광 관광객 수 추이



자료: 중국 연구진 작성

그림 5-4. 레저농업 및 향촌관광 매출액 추이



자료: 중국 연구진 작성

#### (4) 시장 동향

- 레저농업은 현대농업의 새로운 산업형태이자 현대관광의 새로운 소비 형태로 농림어업 등 다양한 영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 넣음. 2001년 국가 여유국은 농업관광 발전 추진 사업을 당해년도 핵심 업무로 지정하

- 고 <농업관광 발전 지도 규범>을 수립함. 뿐만 아니라 2001년 말 농업관광 시범대상 1차 후보지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관광농업의 전국적인 발전을 적극 추진함.
- 2004년 전국 관광농업 발전 추진을 위해 국가여유국은 총 203개의 농업관광 시범대상을, 2005년에는 156개의 2차 대상을 발표함. 현재까지 농업관광 시범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총 359개로 전국 31개 성시에 분포해 있으며, 농업/임업/목축업/부업/어업 다양한 업계에서 관광농업 발전을 위한 모범이 되고 있음.
  - 중국 관광농업은 과학화, 규범화라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함. 2010년 레저농업 및 향촌관광 발전 가속화, 농업 기능 확장 추진, 농촌경제 구조조정,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농민 취업 및 수익 증대를 위해 중국 농업부와 국가여유국은 전국적으로 레저농업 향촌관광 시범현(縣) 및 전국 레저농업 시범대상 구축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함.
  - ‘제13차 5개년’ 기간 동안 도농 주민 생활수준 향상, 여가시간 증가, 소비수요 업그레이드에 힘입어 레저농업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큰 상태로 앞으로 농촌관광은 황금발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산업화, 도시화 심화에 따라 중국의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36.2%에서 2009년 46.6%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56.1%에 달함.
  - 현재 중국의 일인당 GDP는 4,000달러를 돌파하였으며, 가처분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도농 주민의 여가 소비에 대한 지불 능력이 눈에 띄게 확대됨.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국민 여가소비 대중화 발전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바쁜 라이프스타일, 높은 스트레스, 심각한 환경오염과 ‘고층 빌딩, 시멘트 숲’에 시달렸던 중국인들은 자연과 시골생활에 대한 동경,

자연생태계와 향촌의 전원, 애초의 순박함과 순수함으로 돌아가서 여행하고, 휴양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함.

-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농경문화, 농후한 향촌문화, 다채로운 민속과 풍속은 도시민들 마음속의 ‘세상 밖 도원(世外桃源)’과도 같음. 레저농업과 향촌관광은 이렇게 새로운 수요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게 된 것임. 중국은 70%의 관광자원이 향촌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농촌의 기초 인프라 구축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농촌의 수도, 전기, 도로, 통신 기반 여건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음. 이는 레저농업의 발전에 더 없이 좋은 환경을 조성함.
- 농업의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에 있어 레저농업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음. 레저농업은 농업 공급 개혁 옵션 중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아래 세 가지 각도에서 도농 주민의 농업 레저 기능에 대한 수요의 증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첫째, 도농 주민의 레저 제품에 대한 구매력으로, 현 단계에서 살펴보면 도농 주민의 관광, 특히 레저관광에 대한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함.
  - 둘째, 구매 의향으로, 깨끗한 공기, 청산녹수에 대한 도농 주민의 동경과 갈망 역시 눈에 띄게 증가함. 친환경 제품의 희소성과 생태적 가치는 이미 일정 수준까지 증가하였고, 도농 주민은 친환경 제품, 친환경 지역의 농산품을 구매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충분히 있음.
  - 셋째, 구매력의 실현 조건으로, 구매력과 구매 의향이 있는 상황에서 교통과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구매 의향을 현실로 전환할만한 여건이 점차 마련되고 있음. 이 밖에 토지, 자금, 인재, 농촌의 기초인프라 이 네 가지 각도에서도 레저농업은 농업 공급 구조 개혁의 중요한 옵션으로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임.

- 중국 사회과학원 대중선호실험실(輿情實驗室)이 2016년 발표한 <중국 향촌관광 발전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향촌관광 발전 성숙도 방면에서 저장성(浙江省)이 1위, 산시성(陝西省)이 2위를 차지함. 2016년은 중국의 향촌관광 발전에 있어 전환점의 의미를 갖는 매우 중요한 해로, 중국의 향촌관광은 과거의 소관광(小觀光), 중관광(中觀光) 시대에서 대관광(大觀光)의 시대로 진입하였음. 향촌관광 관광객 수는 13.6억 명으로 평균적으로 모든 중국인이 한번씩은 향촌관광을 한 셈이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음. 향촌관광은 더 이상 ‘농촌관광’, ‘농업관광’이 아닌 도시와 상대되는 하나의 공간 개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향촌관광, 향촌레저휴양 등을 포함하는 하나의 새로운 큰 산업으로 향후 매출액 1조 위안 이상의 업체도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보임.

### 3.2. 중국 농촌 관광산업의 주요 모델

- 중국은 풍부한 농업자원, 유구한 농업 생산 역사, 다채로운 민속 문화를 자랑함. 이를 기반으로 관광농업은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농업관광원, 테마농원, 농업과기시범원, 생태농업 리조트, 민속문화원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이들 대부분은 현지의 농업 자원 및 향촌 환경과의 접목을 통해 각자의 특색을 잘 살려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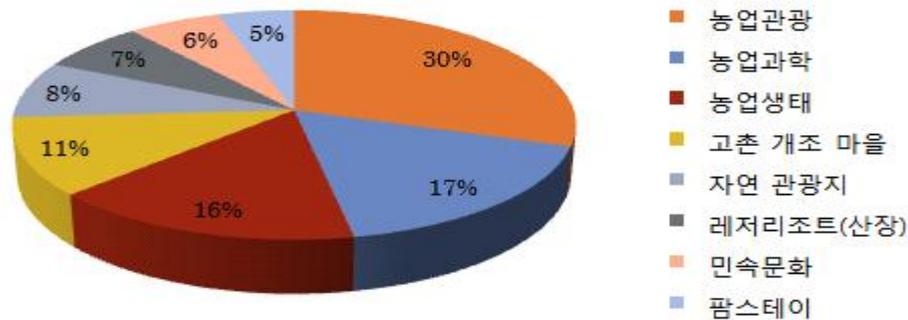
표 5-4. 중국 농촌관광의 주요 모델

명칭	특징	대표 사례
농업 관광원	관광과 농업을 결합, 농업관광, 이색채소밭, 꽃밭, 삼림공원 등을 포함. 농업 재배는 물론 관광객들에게 전원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 줌	우시타이후화회원 (无錫太湖花卉園)

명칭	특징	대표 사례
테마 농업원	테마파크의 운영 컨셉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농산품 생산장소, 농산품 소비장소, 레저 놀이공원을 결합하여 전원의 풍경감상, 생산 활동 참여, 녹색 식품 시식 및 구매, 휴식과 엔터테인먼트, 체험농업이 가능함	칭다오라오산다원생태원 (青島嶗山茶苑生態園)
농업테크 시범원	농업, 테크놀로지, 관광을 결합, 연구, 생산, 거래, 교육, 여행을 망라하는 농업단지로 교육과 관광의 기능을 두루갖춤	서우광채소하이테크시범원 (壽光蔬菜高科技示范園)
생태농업 리조트	자연의 아름다움을 갖춘 시골의 풍경과 깨끗한 환경의 녹색 공간을 활용하여 만든 종합 휴식농업원.관광, 과일 따기, 농업체험 뿐 아니라 농민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음. 숙박, 휴양 가능	베이징시에다오녹색생태리조트 (北京蟹島綠色生態度假村)엔타 이핑라이싱루이정원 (烟台蓬萊興瑞莊園)
민속문화 박물관	농경문화, 민족문화, 민속문화를 기반으로 농경 전시, 절기별 민속, 축제행사 등	웨이팡양가부민간예술대관원 (濰坊楊家埠民間藝術大觀園)

자료: 중국농촌경제연구중심 내부자료

그림 5-5. 중국 농촌관광 유형별 비율



자료: 중국과학원 내부자료

- 전국 359개 농업관광 시범대상을 예로 살펴보면 주요 테마로는 농업관광, 과일 시식/수확 체험, 생태 과학기술, 민속문화, 레저휴양 등으로 다양함.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농업관광체험이 31.2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농업 과학기술 유형, 농업생태 유형, 고촌 개조 마을, 자연 생태, 레저 리조트(산장), 민속문화, 팜스테이가 뒤를 잇고 있음.

### 3.3. 지역별 관광농업 발전 현황

- 2015년 국가여유국은 베이징시 다싱구(大興區) 등 68개 현(시, 구)를 전국 레저농업/향촌관광 시범현으로 지정하고, 베이징의 중농춘위 레저농장(中農春雨休閒農場)를 포함한 153개를 전국 레저농업/향촌관광 시범대상으로 지정함. 본 절에서는 국내 레저농업이 발달한 베이징, 산시성(陝西省) 등을 중심으로 대표 사례를 소개함.

#### (1) 베이징 레저농업

- 베이징은 총 16개의 구(區)와 현(縣)으로 나뉘며, 각 구와 현이 보유한 부존자원과 입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농업 관련 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구/현마다 차별화된 선택을 함. 베이징 농업위원회와 베이징 여유국은 <베이징시 교외지역 민속관광 수용태세 평가 표준>과 <베이징시 관광농업원 시범사업 평가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베이징시 교외 민속관광 수용태세 평가 입시조례> 등 관련 문건을 발표함. 2005년에는 <베이징시 교외 민속관광 발전계획 (2005-2010)>을 제정하기도 함.
- 2006년 베이징 시정부는 <구/현 기능별 포지셔닝과 평가 지표에 관한 지도 의견>을 제시하고 당시 18개 구/현을 수도 기능 핵심구, 도시 기능 확장구, 도시 발전 신구, 생태 보존 발전구 이렇게 네 개의 기능구로 분류함. 상기 지역은 레저관광농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동일하나 각 지역의 위치, 부존자원 등의 여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레저관광농업 발전 추진 시

중점사항과 관광원 개수 역시 상이할 수 밖에 없음. 그 중 평구(平谷)의 경우 관광원의 수가 234개로 가장 많고, 평타이(丰台)가 10개로 가장 적음.

- 베이징의 레저관광농업은 최근 빠른 발전에 힘입어 2011년 기준 총 1,300개의 농업관광원이 생겼으며, 생산 피크기간 중 종사자는 총 46,038명, 연간 관광객수 18,429,456명, 총매출 217,151.8만 위안으로 집계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일따기 체험 매출이 51,092.3만 위안으로 전체 관광레저농업 매출의 23.53%(표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원 평균 매출과 관광객 일인당 지출은 각각 22.3%, 17.5% 증가함.
  - 민속관광(民俗游) 참여 농가는 총 13,907가구로 그 중 경영농가 8,396가구, 2011년 종사자수는 18,232명, 연간 관광객수 16,688,923명, 연간 매출액 86,822.2만 위안으로 집계됨.
  - 숙박 매출은 16948.5만 위안으로 민속관광 총 매출의 19.52%를 차지하였으며, 민속관광 가구당 평균 매출과 관광객 일인당 지출은 각각 12.3%, 10% 증가함. 상기 수치를 통해 교외 농민, 특히 산간지역 농민들의 취업 및 수익증대에 있어 레저관광농업과 향촌관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2년 10월 베이징시는 2012년 ‘중국 특색 레저도시-문화레저의 도시’라는 칭호를 얻게 됨. 2016년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베이징시 민속관광 매출은 1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하였고, 관광원 매출은 19.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함. 농업 전시회 및 농사 축제의 경우 총 415.6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2.2억 위안의 매출을 달성함.

표 5-5. 베이징 시의 농촌관광 유형

모델	위치 및 주요 관광객	특징	사례
도시 의존형	1)중대형 도시로부터 30km 이내 2)중대형 도시의 시민, 업무회의 차 방문하는 외지인	1)경제가 발달한 중대형 도시를 기반으로 하므로 지리적 경쟁우위, 기술 경쟁우위, 시장 경쟁우위 보유함 2)막대한 시범/선도 효과를 지니며,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음 3)일반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되며, 단지 내 부지사용 비율이 높은 편 4)단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으로 대부분 66.7㎡ 미만	시에다오녹색생태리 조트는 베이징시차오양구에 위치하며, 시내에서 10km 떨어져 있음. 총면적 2.0km <sup>2</sup> , 생태농업관광구면적은 1.8km <sup>2</sup>
관광지 의존형	1)중대형 도시로부터 30km 이내, 대형 관광지로부터 10km 이내, 교통 편리 2)관광지구와 관광객 공유	1)유명한 관광지에 기반하며, 관광지의 자연환경과 시장 내 인지도 활용 2)주요 유형 : 팜스테이, 민속촌, 과일따기 농장	베이징 광산구쓰뚜민속정원은 베이징 서남부에 위치, 시내에서 70여 km 떨어져 있음. 쓰뚜국가지질공원 내 위치하며, 예산포 관광지에서 30km 떨어져 있음. 근처에 동후강, 시후강, 구산자이, 타이핑원숭이산 등 관광지가 있음.
전통 민속 의존형	1)중대형 도시로부터 30~100km 이내, 교통 편리 2)중대형 도시 시민	1)역내 전통 민속을 기반으로 관광객의 역내 전통 민속의 취향에 따라 좌우됨 2)주요 유형 : 팜스테이, 민속촌 3)단지 내 부지가 상대적으로 넓은 편	화이러우캠핑장은 상짜즈촌의 360년간 이어져 내려온 만주족 문화를 기반으로 함. 만주족의 민속공연, 이색적인 건물양식 등의 볼거리와 다양한 먹거리 체험이 가능함.
지역 특산 의존형	1)중대형 도시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농촌, 교통편리 2)농촌부근거주주민	1)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재배 역사가 유구하고, 농업 기반이 우수함 2)주요 유형 : 과일따기 농장 3)단지 규모가 큰 편으로 대부분 66.7km <sup>2</sup> 이상	베이징 미원구의 황토오리/배 관광 체험 농장은 베이징 시내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 황토오리는 명나라부터 시작

모델	위치 및 주요 관광객	특징	사례
			되어 지금까지 약 6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함. 또한 “배 중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어 청나라 건륭황제에게 공납품으로 올려지기도 함

주: 분류는 중국과학원의 두샤산의 기준에 따름.  
 자료: 베이징시 관광레저농업협회 내부자료

표 5-6. 베이징 시의 농촌관광 유형별 현황

항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농업관광원							
농업관광원(개)	1021	1230	1302	1332	1294	1303	1300
성수기 종사자(명)	40,729	52,828	51,392	49,366	49,504	42,561	46,038
관광객(만 명)	892.5	1210.6	1446.8	1498.2	1597.4	1774.9	1842.9
총매출액(억 위안)	7.88	10.49	13.15	13.58	15.24	17.8	21.72
민속관광							
민속관광 운영 가구(가구)	7268	8726	10323	9151	8705	7979	8396
민속관광 종사자(명)	14070	18253	20750	19421	19790	16856	18232
민속관광 관광객수(만 명)	758.9	982.5	1167.6	1205.6	1393.1	1553.6	1668.9
민속관광 총수입	3.14	3.65	4.96	5.29	6.09	7.35	8.68

주: 민속관광 운영가구란, 실제 운영주체의 가구수를 의미함  
 자료: 베이징 통계연감(2012); 인단홍 외(2013), 베이징시 관광농업발전 현황 및 분석

## (2) 상하이 레저농업

- 2009년 한 해 상하이는 총 12,360.74만 명의 국내 관광객을 수용하였으며, 매출은 1913.8억 위안을 기록함. 2009년 기준 상하이에 이미 110개의 각종 농업관광단지가 조성되었으며, 연간 관광객 수가 만 명 이상인 곳이 70

여 곳에 달함. 연간 농업관광 관련 관광객 수는 1000만 명으로 이로 인한 매출액은 15억 위안으로 집계됨.

- 3만 개의 지역 농민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상하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레저농업관광지가 바오산(宝山), 자딩(嘉定), 칭푸(青浦), 평시엔(奉賢), 송장(松江), 진산(金山), 푸동(浦東), 충밍(崇明)에 분포해 있는 상황임. 각 레저농업장은 점차적으로 종합적,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5-7. 상하이 시의 농촌관광 유형 및 내용

레저농업 유형	관광지명	내용 및 특징	소재지
팜스테이	첸웨이촌(前衛村)	농가음식, 농가숙박, 농사일, 갯벌, 갈대	충밍(崇明)
	잉동촌(瀛東村)	농가음식, 농가숙박, 농사일, 어항, 갯벌	충밍(崇明)
	뤄화촌(綠華村)	귀뚜라미 등	충밍(崇明)
	난장촌(南江村)	민물게 양식	충밍(崇明)
	마루진(馬陸鎮)	과일따기, 포도 시식, 포도연구소, 와인양주공장	자딩(嘉定)
	취싱진(徐行鎮)	타조, 공작새, 금계 등 특수양식장	자딩(嘉定)
	안팅진(安亭鎮)	천년된 은행나무, 백무은행원(百畝銀杏園)	자딩(嘉定)
	중홍촌(中洪村)	그림그리기, 꽃 케이크 만들기 등	진산(金山)
	타오자촌(姚家村)	홍복숭아	진산(金山)
	송장토마토농장(松江番茄農庄)	전원풍경, 농가체험, 농가음식, 농사일	송장(松江)
리조트	상하이삼림리조트(上海森林度假村)	전원정취, 전원풍경, 음식, 숙박, 관광	칭푸(青浦)
	동핑삼림공원(東平森林公園)	숲 감상, 유원지, 숲 레저, 휴양	충밍(崇明)
	상하이청춘관광세계(上海青青旅游世界)	이색 수목, 유원지, 레스토랑, 휴양	송장(松江)
	상하이빈하이삼리공원(上海濱海森林公園)	갯벌, 인공숲, 휴양, 레저, 레크레이션	송장(松江)

레저농업 유형	관광지명	내용 및 특징	소재지
관광농업	순차오현대농업단지 (孫橋現代農業園區)	현대화농업, 꽃시장, 애원동물시장, 쇼핑, 과학교육	푸둥(浦東)
	중허장미원(中荷玫瑰園)	꽃감상, 꽃구매, 과학교육	송장(松江)
	빈하이타운(濱海桃園)	복숭아나무, 꽃감상, 복숭아시식, 관광	송장(松江)
	타오웬민속문화촌 (桃園民俗文化村)	전원풍경, 도원 문화, 민속민풍	송장(松江)
	상하이강난원예장 (上海康南園藝場)	원예	난후이(南匯)
	신차오화훼묘목센터 (新橋花卉苗木中心)	국내외 화훼감상, 레저, 꽃 구입	송장(松江)
	교통대농과대화훼원 (交大農科花卉園)	화훼감상, 화훼구매, 과학교육	송장(松江)
	쓰와이도원(世外桃源)	전원풍경, 복숭아 농장, 전원정취, 잔디썰매, 레저, 쇼핑	평시엔(奉賢)

자료: 중국농촌경제연구중심 내부자료

### (3) 산시(陝西) 향촌관광

- 산시성(陝西省) 레저농업은 주로 레저향촌, 레저농장, 레저농원 세 형태로 나타남.
  - 레저향촌은 농촌의 아름다운 전원을 기반으로 농가 음식, 농산물 재배 체험, 농가 정원생활 체험 등을 제공함. 대표적인 예로 평리현(平利縣)의 룽터우촌(龍頭村), 자수이현(柞水縣)의 동간거우촌(東干溝村) 등을 들 수 있음.
  - 레저농장은 휴양, 레크레이션 기능을 강조한 형태로 산웬현(三原縣)의 진웬산장(金源山庄), 셴무현(神木縣)의 산베이민속문화대관원(陝北民俗文化大觀園) 등이 대표적임.
  - 마지막으로 레저농원은 농업 생산 및 과학기술 시범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동시에 농업 생산 체험, 농업 기술 교육 등의 기능을 겸비한 형태로

시안(西安)의 취장 농업박람회(曲江農業博覽園)과 평동 농박원(洋東農博園) 등이 대표적임.

- 의존하는 자원 요소를 기준으로 크게 우위산업 의존형, 민속문화 의존형, 관광지 의존형, 도시입지 의존형, 산수생태 의존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우위산업 의존형은 역내 우위산업을 기반으로 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확장하고, 산업 체인을 연장한 것임. 감골 산업을 활용하여 발전시킨 청구현(城固縣)의 리우자잉촌(劉家營村)이 이 유형에 해당함.
  - 민속문화 의존형은 농경문명과 민속문화를 계승, 전시하고 1/2/3차 산업의 융복합 발전을 추진함. 관중(關中: 고대 지명으로 지금의 산시(陝西)성에 해당함) 민속문화, 전통 먹거리를 특징으로 하는 리첸현(禮泉縣)의 웬자촌(袁家村)이 대표적인 민속문화 의존형임.
  - 관광지 의존형은 관광지 자원에 기대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전통 마을을 기반으로 한 닝창현(寧強縣)의 칭무촨촌(青木川村) 등이 여기에 해당함.
  - 도시입지 의존형의 특징은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적 우위가 뛰어남. 친링기슭 바로 옆에 위치한 환산관광고속도로의 창안구 상왕촌(長安區上王村) 등이 대표적인 도시입지 의존형이라 할 수 있음.
  - 산수생태 의존형은 아름다운 산수풍경과 자연환경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유형으로 창안구(長安區)의 상위거우촌(祥峪溝村) 등이 여기에 속함.
- 산시성 레저 농가 경영체의 연평균 매출은 5만 위안 이상이며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은 1.2만 위안 이상임. 시안(西安) 친링베이루(秦嶺北麓) 레저농업 클러스터의 경우 매출이 현지 농업 총생산성의 30% 이상을 차지함. 그 밖에 레저농업의 발전은 요식업, 가공업, 교통, 무역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고용 유발 효과로 이어짐. 예를 들어 리첸현(禮泉縣)의 웬자촌(袁家村)의 경우 주변 10개 마을 600여 명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농민의 연간 소득이 1200만 위안에 달함.

-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산시성 향촌관광은 시범현 구축, 문화관광 명촌(名村) 조성, 관광마을 구축, 향촌관광 관광지 구축, 향촌관광을 통한 빈곤 지원 등을 중점으로 정책 지원, 사업 지원, 표준 제정, 브랜드 구축, 시범사업 추진, 서비스 수준 제고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향촌 생태환경 보존, 향촌 문화 구현, 향촌관광 다양화 등을 적극 추진하였고, 짧은 기간 내 상당한 진척을 거두었음.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산시성의 향촌관광 관광객 수는 총 47166.5만 명으로 연평균 30.3%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은 500.8억 위안으로 연평균 30.8% 증가함. 2014년 산시성의 레저농업 관광객 5800만 명, 총 매출액 50여억 위안, 직접 종사자 31만 명, 그 중 농민 종사자 28만 명으로 집계됨.
- 2015년까지 산시성 내 레저농원 363개, 레저농장 346개, 레저농가 전문마을 270개, 레저농가 운영 가구 1.3만 여 가구로 집계됨. 전국 레저농업 및 향촌관광 시범현 중 5개, 시범대상 중 15개가 산시성에 구축되었으며 중국 내 가장 아름다운 레저향촌 6개, 중국 중요 농업문화유산 1곳, 중국 아름다운 전원 11곳, 전국 5성급 레저농장 4개, 4성급 레저농장 2곳이 모두 산시성에 위치하고 있음.
- 2015년 산시성 향촌관광 관광객 1.4억 명, 관광 총수입 158.9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5%, 25.7% 증가함. 성(省)급 관광 시범현 17개, 국가급 레저농업 향촌관광 시범현 6개, 시범대상 20개, 문화관광 유명 진(鎮) 31개, 성급 관광특색 유명 진(鎮) 79개, 향촌관광 시범마을 120개, 4A급 향촌관광 지구 8개, 3A급 향촌관광 지구 14개가 모두 구축 완료됨. 또한 산시성의 웬자촌(袁家村)과 마웨이이(馬嵬驛)는 국가 여유국으로부터 전국 향촌관광 창업 시범 기지로 선정됨.
- 향촌관광 관광객수가 산시성 전체 관광객수의 1/3을 넘으면서 향촌관광의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 민생 개선, 빈곤 탈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갈

수록 강조되고 있음. 현재 웬자촌(袁家村), 마웨이이(馬嵬驛), 샤샤허(沙沙河), 칭무촨(青木川), 란텐탕위(藍田湯峪), 리우베이(留壩), 샹뤄 아름다운 향촌(商洛美麗鄉村), 다리(大荔) 등 산시 향촌관광의 대표사례가 현재 산시 향촌관광의 차별화, 지속 가능 발전을 이끌고 있음.

#### (4) 장시성(江西) 레저향촌 건설

- 2016년 초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장시성 시찰 후 ‘농촌을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즐겁게 일하는 아름다운 터전으로 만들자’는 전략 목표를 제시함. 장시성은 ‘녹색 발전’이라는 이념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아름다운 레저향촌 구축’을 도농 일체화 발전 총 계획 중 하나로 포함시킴. 또한 현대농업 발전 추진을 위해 레저농업을 주요 사업으로 보고 특별기금 조성을 통해 레저농업 시범단지과 아름다운 향촌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임.
- 현재 장시성에는 총 3,820개의 레저농업 업체 및 19,300개의 팜스테이가 운영되고 있음.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관광객 수는 총 2,370만 명, 총 매출은 124억 위안을 기록함으로써 현대농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음.
- 녹색 생태는 장시성의 가장 큰 경쟁우위이자 브랜드라 할 수 있다. 2014년 장시성은 성 전체가 생태문명 선형 시범구로 지정됨. 이러한 생태 경쟁우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장시성은 언제나 생태문명 발전 이념을 유지하였음. 장시성의 파란 하늘, 맑은 물, 푸른 산과 초원 이러한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환경보호 및 환경정비 업무를 강화하여 중국의 아름다운 레저향촌을 구축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생적 생산, 건강한 양식, 입체적 재배 등의 모델을 적극 추진하고 농업의 면원(面源) 오염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아 아름다운 향촌의 기반을 공고히 함. 현재 장시성 내 토양 검정 실시 후 토양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은 면적은 6800만 묘(畝, 중국식 토지 단위), 농약 사용 감소 기술이 적용된 토지 면적은 7500만 묘에 달한다. 544개 표준화 시범장이 구축되었고, 불합리하게 투입된 비료 9.7만 톤을 줄였으며, 연간 2000여 만 톤에 달하는 오물 배출량을 감소시켰다.

- 둘째, 농촌 생활쓰레기 정비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농촌 생활오수 배출, 쓰레기 분리수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함. 지우장시 쌍차오촌(九江市双橋村)의 경우 총 100만 위안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분산식 농촌 생활오수 처리장을 마련하였으며, 20만 위안을 투입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장을 구축하여 농촌 쓰레기 및 오수 처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
  - 셋째, 향촌 본연의 생태환경을 바탕으로 기초인프라 건설 강화, 향촌환경 미화를 강화함. 지안시 슈커우촌(吉安市蜀口村)의 경우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1,000만 위안을 투입해 아름다운 향촌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음. 20개 마을 전체가 아름다운 향촌 정비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38km에 달하는 마을도로나 만들어졌고, 도서지역의 경우 14km에 달하는 가로등이 설치됨. 이 밖에 2,000미터의 자갈길을 조성하고, 10여 곳의 공공화장실을 대상으로 개선, 개조 작업을 진행함. 향촌이 아름다워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도 점차 강화되는 효과를 냄.
- 장시성에는 역사가 유구하고, 인문학적 색채가 짙은 마을이 여럿 있음. 이러한 마을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찬란하고 다양한 장시성의 지방 문화가 형성된 것임. 장시성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각기 다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문화 색채를 충분히 살리고 농업의 기능을 확장하였으며 농산품 경쟁력을 강화함. 이를 통해 신농촌 산업의 고도화, 업그레이드, 구조전환을 모색하여 농촌다운 농촌, 부유한 농민을 실현하고자 함.
- 지안시 타이허현 마쓰진 슈커우촌(吉安市泰和縣馬市鎮蜀口村)은 장시성의 전형적인 루링(廬陵)의 전통민속 문화촌으로 차(茶) 생산 역사가 깊음. 청명조(淸明朝) 때에는 이 지역의 차가 상납품으로 지정되기도 하

였으며, ‘차 산업을 통해 생태 관광을 발전시켜 아름다운 새마을을 만들자’는 슈커우촌이 모색한 새로운 발전 노선임. 찻잎의 생산, 가공, 제품 포장 공법의 개선을 통해 관광 및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찻잎 생산량도 배로 증가함.

- 전체 마을의 차 산업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 2015년 농민 일인당 소득은 2014년 대비 2,837위안 증가, 32%의 성장률을 보였다. 향촌의 특색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장시성은 ‘전국 녹색식품 산업기지를 만들자’를 목표로 설정하고 농산물 시장 경쟁력 강화, 농업의 효율 제고, 농민의 수익 증대를 꾀함. 현재 장시성의 ‘3품 1표(무공해, 녹색, 유기농)’ 인증 발급 건수는 총 3,234건으로 여러 해 동안 연속 전국 10위권 진입에 성공하였음. 이 밖에 국가 농산물 품질 안전 현(縣) 3곳, 성급 녹색 유기농 농산물 시범현(縣) 5곳을 구축하였고, 올해 중국 농업부로부터 전국 녹색 유기농 농산물 시범 기지 시범성(省)으로 지정됨.
- 장시성은 혁명의 근거지로 농민들의 민풍이 순박하고 마음이 따뜻하며 손님맛이를 즐긴다는 특성이 있음. 장시성은 아름다운 레저향촌 브랜드 구축을 중점사항으로 역내 브랜드 구축, 기업 브랜드 육성, 아름다운 레저향촌 공공 브랜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음.
  - 장시성 우닝현 뤼핑진 창쉐이촌(武宁縣羅坪鎮長水村), 지우장공칭청시 간루진 왕차오촌(九江共青城市甘露鎮雙橋村) 등 아름다운 레저향촌은 연달아 ‘전국 생태문화촌’, ‘국가급 생태촌’, ‘전국 녹색 소강 시범촌’, ‘전국 생태시범촌’, ‘장시성 문명 촌진(村鎮)’, ‘장시성 10대 조화로운 마을’, ‘장시성 레저농업시범지구’ 등으로 평가되는 등 각 지도부와 사회 각계로부터 폭 넓게 인정받고 있음.
  - 국가 및 각 부처 위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 장시성 향촌을 방문하고 조사 및 지도를 진행했으며, 다른 성의 당 정부 대표단 및 해외 대표단 역시 앞다투어 장시성의 향촌을 둘러 봄. 지금까지 장시성에는 총 10개의 레저농업 향촌관광 시범현, 18개의 5성급 레저농업기업, 2곳

의 중국 중요 농업문화 유산, 1곳의 글로벌 중요 농업문화 유산, 13개 중국 아름다운 레저향촌, 4개의 전국 10대 레저농장이 있으며, 대규모의 성(省)급 레저농업 시범대상을 구축함.

### 3.4. 중국 농촌관광 대표 사례

#### (1) 베이징시 시에다오 녹색생태 리조트(北京市蟹島綠色生態度假村)

- 베이징시 시에다오 녹색생태 리조트는 베이징시 차오양구(朝陽區) 동북쪽에 위치하며 부지 면적은 200여 ha에 달한다. 교통이 편리하고 모든 시설을 갖추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2000년 6월 베이징시로부터 현대농업시범단지, 2000년 9월 국가환경보호총국, 중국 환경과학회로부터 베이징 녹색생태원기지로 선정됨.
- 2003년 8월 OFDC(국가 환경보호 총국 유기식품 발전센터)로부터 유기농 식품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04년 4월 국가여유국의 평가 실사를 차질 없이 통과하여 전국 1차 농업관광 시범대상으로 선정됨.
- 베이징시 시에다오 녹색생태 리조트는 ‘점원후원(前店后園)’의 관리 모델을 채택, ‘이원양점, 이점축원(以園養店,以店促園)’를 목표로 운영 중임.
  - ‘전점(前店)’은 관광휴양 구역으로 총면적의 10%를 차지하며 관광객의 레저 휴양을 위한 장소를 의미하며, 관광휴양구역 내에는 각종 레스토랑, 숙박, 헬스장, 오락시설이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민속공연 및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됨.
  - ‘후원(后園)’은 유기농 식품 재배 및 양식 기지로 총면적의 90%를 차지하며 농업 생산은 물론 관광객에서 참관, 직접 수확 체험, 친환경 계란 담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됨. 이렇게 관광객이 농업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써 건강을 챙기고 환경보호 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음.

- 리조트에서 자체 생산한 농산품은 바로 관광휴양구역 내 위치한 레스토랑과 각종 오락시설로 공급되며, 제품의 녹색, 안전, 무오염이라는 장점을 부각하고 식품의 신선도를 보장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 관광휴양구역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통해 형성된 향토 스타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 다음 자체 재배/양식한 농산품 판매를 위해 시장을 개척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한층 더 높임. 리조트 내 호텔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적절한 처리를 거쳐 유기 비료로 사용함. 이런 식으로 베이징시 시에다오 녹색생태 리조트는 ‘이원양점, 이점축원(以園養店,以店促園)’의 목표를 달성함.
  - ‘전점후원(前店后園)’식 경영 모델을 통해 관광업과 농업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농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 접근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관광업 발전을 위해 외연 확대의 채널을 제공한 것이다. 농업 단일 생산의 ‘재배면적은 넓으나 수익은 적은’ 국면을 타개하고, ‘농업/관광 합일’이라는 통합 효과를 거두었다.
- 농업 재배양식 구역의 면적은 2,500묘이며, 재배생산구역, 재배관광구역, 양식생산구역, 양식관광구역으로 분류됨. 재배생산구역에서는 벼, 밀, 옥수수, 수수, 콩류 등 60여 개 농작물을 재배함.
- 재배관광구역에는 100여 개의 채소 비닐하우스가 있으며 일반채소 및 특용채소 총 80여 종을 생산함. 양식생산구역의 경우 돼지, 소, 양, 말, 나귀, 노새, 닭, 오리, 거위 등 10여 종의 가축, 가금류를 사육 및 어류/계 등 10여 종의 수산물을 양식하기 때문에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필요로 하는 육류, 가금류, 달걀, 우유의 자급자족이 가능함. 양식관광구역에는 친환경 달걀 채집장과 야생동물 보호소가 설치되어 있음.
  - 리조트는 매년 ‘농업 생태 당일치기 여행’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은 농업 전문가의 해설 및 지도 하에 농업 지식과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실제로 재배를 경험해 볼 수 있음. 또한 농작물 수확, 생태 숲 체험, 친환경 계란

줍기, 동물과 친해지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와 학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은 대자연의 품속에서 실제 경험을 통해 환경보호 의식도 제고할 수 있음.

- 2,400m 수심의 온천 우물, 하루 처리량이 450m<sup>3</sup>에 달하는 메탄가스 탱크, 하루 처리량이 2,000톤에 달하는 오수처리장으로 구성된 생태 선순환의 핵심인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구역’이 단지 내 조성되어 있음.
  - 해당 구역은 지열 활용 구역, 오수 처리 구역, 태양에너지 채집 구역, 메탄가스 생산 구역으로 나뉨.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은 단지 내에서 지렛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메탄가스 에너지 공급, 온천 열에너지, 오수처리를 핵심으로 하는 ‘바이오 제조’와 ‘바이오 분해’가 단지 내 물질 순환 및 물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있음.
  - 오수, 매연, 생활 쓰레기, 농약 잔류, 화학비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제로 배출’을 실현함. 또한 메탄가스 지식, 자원 순환 및 바이오 체인 구조에 대한 현장 참관 등의 활동을 통해 과학지식 보급은 물론 환경보호 교육 효과를 볼 수 있음.
- 호수 생태 전시 구역은 저수지, 연못 등 인공 수계(水系)로 구성되어 있음. 수면에서는 부평초, 갈대 등 부유식물을 키우고, 물속에서는 어류, 게를 양식하며, 둑(제방) 주변에서는 나무와 풀을 심어 수양버들이 바람에 날리고 갈대가 흔들리며, 오리와 거위가 물 위를 거닐고, 작은 배가 떠 다니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냄.
- 환경보호 산업단지는 시에다오 환경보호 생태단지 내 가장 핵심적인 구역이라 할 수 있음. 생태시스템과 환경보호 산업을 결합한 플랫폼 기지로 환경보호 생태 전시, 환경보호 과학 교육, 환경보호 생태 기술 보급, 환경보호 생태 제품 거래소 등의 기능을 갖고 있음.

- 시에다오 녹색 색채 리조트는 자주 경영, 스스로 손익을 책임지는 기업 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리조트 부지는 경영자가 진잔향 창덴촌(金盞乡长店村) 촌민들의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조사에 따르면 경영자는 매년 농가에 임대료를 지급하며, 시에다오는 매년 일정 자금을 투입하여 현지 농민들이 토지를 통해 지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리조트 내 농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현지 농가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함. 시에다오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670명의 직원 중 현지 주민은 약 200여 명으로 전체 직원 수의 30%를 차지함.

## (2) 웨이팡 양자부 민간예술 대관원(潍坊杨家埠民间艺术大观园) (민속문화)

- 양자부 민간예술 대관원(杨家埠民间艺术大观园)의 총 부지 면적은 160000m<sup>2</sup>, 직원 수는 120명임. 2007년 관광객 수는 50여 만 명, 2008년 상반기에만 3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함.
- 양자부는 2002년 산둥성 정부로부터 ‘산둥성 역사 문화 명촌(名村)’이란 호칭을, 2004년 성정부로부터 ‘서비스 선진업체’란 명예를 획득하였으며, 2005년 성(省) 관광업계는 이 곳을 ‘산둥성 관광레저업 10대 우수 브랜드’ 중 하나로 지정함. 2006년에는 ‘전국 농업관광 시범단지’, ‘민족적 특색을 가장 잘 보여주는 56개 관광지 중 하나’로 평가 받았으며, 2007년 국가 AAAA급 관광지 평가를 통과함. 웨이팡 양가부 민간예술 대관원의 연화(年画)와 연은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 양가부 민간예술 대관원은 양가부 관광개발구의 꽃이라 할 수 있음. 대관원은 연화(年花)와 연이라는 민속 아이টে를 테마로 연 박물관, 회화관, 18 여자작업실, 연화 박물관, 연화 작업실, 민속관, 문물관, 백년 결혼 증서 전시회, 무명천 작업실, 농기구 전시회, 홍색 컬렉션, 서예원, 상아분월대(嫦

- 娥奔月台), 옛가계 거리, 삼성호수, 두슈어산(度朔山) 및 양자부 청명시대 고촌락, 오래된 왜나무 등 수십 개의 볼거리와 전시관을 보유하고 있음. 이곳에서 관광객은 연 만들기, 연화 인쇄 등의 체험뿐 아니라 몇 백 년 전 양자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느끼고, 양자부 사람들의 옛 민속과 인정을 맞볼 수 있음.
- 국제 교류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이곳의 관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수십 개 국가와 지역의 관광객들은 독특한 민속 정취와 농후한 향토 분위기에 매료되어 양자부 민간예술 대관원을 꾸준히 찾고 있음. 관광객들은 대관원에서 높은 나무다리 타기(蹠高蹠), 꽃가마 들기(拾花轎), 모내기춤 추기(扭秧歌), 폭죽 터트리기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데 보통 양자부의 연, 연화, 현지 민속에 상당한 흥미를 느끼고 높이 평가함. 유네스코 관계자는 이 곳 참관 후 ‘멀지 않은 미래에 양자부는 산동 지역뿐 아니라 전 중국의 민속 관광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평가함.
  - 1980~90년대에는 경제 수준이 낮고 시장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 투입도 충분치 않았음. 당시 ‘성급 주관 부처의 지도와 지원 하에 ‘민속가정’을 중심으로 방문식 민속관광을 전개하고 ‘개별 농가 관광’ 모델을 채택함. 이 당시 문을 연 대관원은 정확히 말하면 ‘테마여관’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은 민가와 공방이 결합된 ‘민속가정’에서 현장 참관/참여, ‘동방 경전예술(東方經典藝術)’이라 불리는 연화 인쇄 과정 체험, 민간 공예 전문가와 면대면 교류를 할 수 있었음. 이렇게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향촌 관광 모델은 현지의 토지와 기타 생산 자재를 집중하여 산출량을 크게 증가시켜 토지의 가치 상승 및 주변의 분산된 노동력 흡수가 가능해짐.
  - 오너와 농민들이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공유할 수 있었음. 경제 효익의 개념이 부각됨에 따라 ‘개별 농가 관광’은 이점대면(以点帶面 : 점을 가지

고 면을 이끔) 양상이 나타나고,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20여 개의 향촌 여관을 추가로 세움으로써 양자부촌은 방사효과가 있는 ‘농가+농가’ 모델을 채택하게 됨. 이렇게 만들어진 여관들 역시 공방, 민가, 관광객 수용을 모두 아우르는 민속 ‘테마여관’이었으며, 이러한 모델은 일반적으로 투자가 적고 관광객 수용량은 제한적이지만 향촌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고, 관광객이 지불하는 비용도 높지 않으며, 가장 원시 상태의 현지 풍습과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관광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90년대 후반 들어 양자부 민속관광은 자주 경영의 시장화 단계에 진입하게 됨. 이익 추구에 따라 마을 내 집단경제를 중심으로 한 ‘민속대관원’을 설립함. 이 당시 대관원의 관리 모델은 약화된 ‘기업+농가’이지만 실제로는 ‘마을위원회(마을위원회가 세운 기업)+농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민속박물관, 목판 연화 작업실, 연 제작실, 연 날리는 곳 등을 폐쇄 관리와 함께 입장료를 받는 단지 안으로 집중시킴. 관광객들은 티켓을 사서 ‘대관원’에 들어오면 각종 민속 공연을 모두 관람할 수 있었음. 즉, 민간예술 공방과 민간 예술인을 보기 위해 더 이상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빌 필요가 없었고, 이러한 모델 하에서는 농가의 유희 자산, 잉여 노동력, 풍부한 농사 활동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
- 90년대 중후반 들어 단지 경영 모델은 ‘기업+농가’ 모델을 채택하게 됨. 일반적으로 기업은 농가와 직접 협력을 하지 않고, 현지 마을 위원회가 농가의 향촌관광 참여를 배정하는 업무를 맡음. 마을위원회 농가 선정, 관광객 맞이 배정, 정기검사, 사고 처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 조직을 구성함. 농가는 자신의 집 유지보수와 규정에 따른 관광객 맞이, 가이드 서비스, 청소, 환경미화 등을 담당하였음. 하지만 서비스 수준 보장 차원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서비스 교육 및 관련 규칙의 제정을 여행사가 담당함.

- 관광산업 체인 내 각 참여자의 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익 공유를 통해 과도한 상업화를 막고 현지 문화를 보호해야 함. 이에 현재 채택한 관리모델은 ‘정부+기업+농가+지역사회+관광협회’ 모델임. 즉, ‘기업+농가’의 모델과 ‘정부+기업+관광협회+여행사’의 모델을 결합한 것으로, 향촌관광 개발에 있어 정부는 전체적인 총괄 업무를 담당함. 현(縣)과 향(鄉)급 정부와 관광 관련 부처는 시장 수요와 관광 계획에 따라 개발 지역, 개발 내용, 개발 일정 등을 확정하고, 개발 과정 중 정부와 관광 부처는 필요한 지도 및 총괄 업무를 이행함. 기업과 지역사회는 분업을 통해 협업하는 한편 지역사회 보호 및 농가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며, 농민과 관광협회는 농민들이 지방극의 공연, 가이드, 공예품 제작, 민박(식사 포함)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한편 전통 민가의 유지보수 작업, 업체와 농민의 이익 조율을 담당함. 마지막으로 여행사는 시장 개척 및 관광객 유치를 담당하게 됨.

### (3) 베이징 자오다오푸형 농업관광원(北京交道富恒農業觀光園)

- 자오다오푸형 농업관광원은 2006년 3월에 설립되었으면 부지 면적은 80ha에 달함. 농업 자원을 기반으로 베이징 서남 지역에 표준화된 농업 생태공원을 조성하자는 취지하에 설립됨.
- 유기농업 발전을 출발점으로 새롭고, 이색적이며, 특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품을 생산함. 관광원은 하이테크 농업을 내세우며, 농업 자원을 토대로 에너지 절약, 순환, 고효율의 도시형 생태농업을 운영하고 있음. 관광원 내에서는 무공해 유기농 과일을 재배한다. 유기농 과일따기 체험장의 면적은 40ha에 달하며, 현재 앵두, 살구, 자두, 프룬, 복숭아, 사과, 대추, 호두, 포도 등 여러 품종을 재배하고 있음.
- 연동온실(multi-span greenhouse)을 구축하여 내부를 여러 개의 기능구역으로 나누고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음. 또한 주변 지역의 농민이 직접 전

문 해설가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여 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농업관광원의 주요 사업은 과일따기 체험, 전원 스타일의 숙박 및 음식, 친환경 낚시터, 민속체험 및 민속공연, 비즈니스 회의 및 전시, 레저휴양 및 향촌 엔터테인먼트, 유기농 채소 및 과일 재배, 친환경 양식, 하이테크 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쇼핑 및 서비스 시설, 물류 및 도매 등임.
  - 단지 내 수확 체험장 면적은 44.7ha로 327개의 비닐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품종 딸기, 특화 채소, 각종 산나물, 고품질 균류 등 하이테크 품종을 재배 중임. 관광객은 이 곳에서 사계절 내내 수확 체험이 가능하며 고품질 유기농 과일/채소를 맛볼 수 있으며, 시장에도 공급함.
  - 엔터테인먼트 구역에는 다목적 수영장, 노래방, 추억의 영화 상영, 캠프 파이어, 민속공연, 레슬링 공연뿐 아니라 탁구/배드민턴 시합, 줄다리기 등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음. 그 밖에 동물감상 구역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강아지(목양견, 말티즈, 차우차우 등), 양, 닭, 오리, 거위 등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함.
  - 관광원 내에는 5.3ha의 대형 낚시터도 마련되어 있어 관광객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켜 줌. 나무 돌보기 입양 구역도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 품종으로는 자두나무, 앵두나무, 프룬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살구나무, 호두나무, 감나무, 산사나무 등이 있음.
  - 도시민들은 일정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면 일정 면적의 토지를 임대 사용할 수 있는 시민농장도 운영 중임. 토지 임대 후 도시민은 땅갈기부터 거름주기, 씨앗 구매, 품종 선정, 심기, 물주기까지 스스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다양한 전원 스타일의 레저 오두막이 운영되고 있음. 주차 가능 차량 수는 500대이며, 12곳의 음수대와 20개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내부에 10.48km에 달하는 도로와 17km에 달하는 수확체험 길(支路)을 구축하였으며, 도로 양쪽에 태양에너지 가로등과 영문 표지판, 안내 지도를 설치함.

- 베이징 푸형 생태농업관광원은 현지 대표기업으로 베이징 더우덴푸형 농산품 전문 협동조합(北京寶店富恒農產品專業合作社)을 설립하고 현지 농민들의 자발적인 협동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 방식은 농촌 협력조직과 같은 신형 기업 모델에게는 신선한 시도라 할 수 있음. 푸형 협동조합은 2007년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전문 협동조합법>이 정식으로 공포된 이래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한 전국 농민 전문 협력조직 중 1호 협동조합임.
- 관광원의 조직 구조는 ‘기업+농촌 전문협력조직’의 모델을 채택함. 베이징 푸형 농업생태관광원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원을 이용하여 농촌 전문 협력조직인 베이징 더우덴푸형 농산품 전문 협동조합과 일괄 구매, 일괄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푸형’이라는 브랜드를 일괄 사용하고 있음. 즉, ‘기업+상표+농가’라는 새로운 산업화 경영 모델을 만든 것임. 이를 통해 농민의 시장 참여가 더욱 조직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음. 관광단지는 협력조직의 농가에 대해 일괄 구매, 일괄 판매를 시행하고, 재배 과정에 대해 엄격히 모니터링을 함. 종자, 비료, 수자원 등 생산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자재를 일괄 구매하고, 농산품 완제품의 수확 및 판매 역시 회사 제도 및 규정에 따라 관리를 진행하여 농산품의 품질 보증은 물론 농민의 수익 증대를 도모함.

#### (4) 핑구구 다화산진 과자위촌(平谷區大華山鎮掛甲峪村)

- 과자위촌은 베이징시 핑구구 다화산진(北京市平谷區大華山鎮)에 위치하며, 베이징 시내에서 80km 떨어져 있다. 과자위촌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전체 면적은 550ha에 달한다. 친환경, 유기농 과수를 주로 생산하며 수려한 풍경을 자랑함. 베이징 교외의 ‘과수의 고향’이자 관광명소라 할 수 있음.

- 생산 용지 면적은 8,000묘이며 1,500묘에 달하는 계단식 밭을 개발하여 10만 그루의 복숭아 나무를 재배하고 있음. 35km의 시멘트 도로가 전체 과자위촌에 깔려 있으며, 온대 반습윤성 계절풍 기후에 속하며, 연평균 기온은 10~20도 안팎임. 총 146가구, 460명이 살고 있으며, 해발 180~250m의 골짜기에 크게 두 촌락으로 나뉘어 생활하고 있음.
- 관광지에는 텐허폭포(天河瀑布), 거북이산(烏龜山), 리우량이 갑옷을 걸친 곳(六郎掛甲處), 오륜 표시(五環標志), 봉황나무(鳳凰樹) 등이 있다. 관광객 수용 시설 역시 비교적 잘 완비되어 있음. 그 중 숙박시설(오두막, 온돌)은 200여 개의 객실을, 음식점(회전 음식점, 민속대식당)은 총 200여 개의 테이블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망대와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정자 등이 있으며, 100여 개의 소형 저수지와 물탱크가 있어 물 저장량은 총 10만<sup>m</sup>³임. 촌 내에는 텐자고압용기부품유한공사(甲高壓容器配件有限公司), 텐자고나광개발유한공사(天甲旅游開發有限公司), 과자위농림공사(掛甲峪農林公司), 베이징명웬산예대중스포츠국제교류활동센터유한공사(北京夢圓山野大衆體育國際交流活動中心有限公司) 등이 있음.
- 과자위촌은 수도, 전력, 도로, 통신 등 기초인프라와 주변의 과수원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을 결합하여 1,500묘에 달하는 수준 높은 체험형 과수원을 만들고, ‘5개 폭포, 10개 연못, 2개 호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과 관광의 결합, 과수와 농업의 상호 촉진, 농민의 수익 증대, 특히 신농촌 구축까지 농민의 1/2/3차 산업 발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함.
- 과자위촌(掛甲峪村)은 토지와 나무 전체를 집단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농촌 주주합작제 개혁을 시행하였으며, 기업 경영 방식을 채택함. 농촌 주주제 시행 후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 주주총회 소집, 선서를 통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선출함.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담당하고 마을 내 각종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전문 인력을 채용해 경영을 맡기는 등 완전한 기업 경영으

로 운영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운영상황, 재무상황, 분배 방안을 관리 감독한다. 과자위촌의 모든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논의되며, 중대사항의 경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함. ‘독단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인 촌민 모두 알 권리와 발언권을 가짐.

- 주주인 촌민이 소유한 지분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님. 지분의 구조는 뚜렷한 신농촌 색채를 띠. 기분은 촌민이 기존 자산(호적주, 토지주, 나무주)에 따라 분배한 것을 기초로 하되 주식으로 표창을 대신하거나, 주식으로 혁신을 촉진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촌민들이 과자위촌을 위해 서비스, 취업하도록 장려함. 형식은 구체적으로 근속주, 호적주, 토지주, 나무주, 산아제한주, 정신문명주, 특수공헌주가 있음. 근속주 70%, 호적주 2%, 토지/나무주 5%, 산아제한주 5%, 정신문명주 5%, 특수공헌주 13%임.
- 과자위촌은 모든 촌민의 자산 통합 후 촌집체(村集体)에 일괄 경영관리를 맡김. 또한 텐자관광공사(成立了天甲旅游公司), 텐자공업공사(天甲工业公司), 텐자농림공사(天甲农林公司), 텐자마을관리공사(天甲物业管理公司), 텐자건축공사(天甲建筑公司)의 다섯 개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음. 촌민의 취업을 배정하고, 시장경쟁에 참여하여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규모의 경제를 구현함.
- 농민의 수익 출처는 수익분배, 토지임대, 월급, 관광객 맞이 수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음. 과자위촌의 단체 자산은 2001년의 1,000만 위안에서 2009년의 1.8억 위안으로 증가함. 2009년 과자위촌의 일인당 실제 소득은 22,600위안으로 시 전체 평균은 11,986위안, 구 전체의 10,870위안을 크게 상회함.

(5) 산시 린이현 ‘홍탄스성급삼림공원’(山西臨邑縣‘紅壇寺省級森林公園’)

- 홍탄스 삼림공원은 루핑평원(魯北平原)과 더저우(德州) 지역 중부에 위치함. 린이현 린즈진(臨邑縣林子鎮) 내에 있으며, 현(縣) 시내로부터 9km, 더저우시(德州市)로부터 50km 떨어져 있는 AA 국가급 관광단지임. 이 곳은 관광,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 쇼핑, 휴양, 농업개발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생태농업개발원으로 황허구다오습지(黃河古道濕地)를 이용하여 100년에 걸쳐 만들어 짐.
- 단지 총 면적은 24,027묘이며, 그 중 임지 면적은 15,000묘에 달한다. 기존의 자연 경관 자원 개발을 통해 인문경관과 자연경관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푸른 물, 공기, 햇살, 녹지라는 테마를 잘 보여주는 곳임. 단지 전체와 기지는 현재 개방식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관광객은 단지 내에서 자유롭게 둘러보고, 즐길 수 있음. 봄에는 화원, 여름에는 유원지, 가을에는 수확, 겨울에는 눈썰매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원은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과학적 계획에 따라 적절한 기능, 아름다운 환경, 하이테크, 고효율의 생태농업 종합 개발구로 구축되었으며, 관광 서비스, 호수 플레이, 홍탄 휴양, 갈대 풍경, 나무 바다, 생태관광원 이렇게 여섯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 공원 내 위치한 홍탄사지(紅壇寺址)는 명나라 초기 저명한 옛 전쟁터임.
- 공원의 숲은 아카시아 나무라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백양나무, 버드나무, 느릅나무, 오동나무, 참죽나무, 뽕나무, 두충나무, 부용 등의 나무가 심어져 있음. 숲에는 30여 종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고, 다양한 식생과 70여 품종의 들꽃을 감상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숲의 서쪽에는 역사 고적지인 평뤄옌(鳳落堰)도 있음.

### 3.5. 중국 농촌관광의 해외 관광객 현황

-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 인바운드 시장은 연평균 1.21% 성장하여, 2636만 명을 기록함. 현재 외국인 인바운드 시장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소폭 성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현재 중국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은 외국인 인바운드 시장에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채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됨. ‘일대일로’는 아시아/유럽/아프리카 세 개의 대륙을 가로지르며 65개 국가, 44억 명 인구, 해당 지역의 경제총량은 21조 USD, 관광총량은 전 세계의 70%를 차지함.
- 2015년 중국 여유국이 발표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인바운드 관광객수는 1.34억 명,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 중 레저관광객 824.88만 명, 관광 수입 1,136.5억 USD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 7.8% 증가함. 입국 후 일박 이상을 하는 관광객 수는 5688.6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 증가함.

### 3.6. 중국 농촌관광의 최신 동향 및 정책 지원

#### □ 중국 농촌관광의 정책 동향

- <중공중앙 국무원의 종합적인 도농 발전 촉진 및 농업 농촌의 발전 기반 공고화에 대한 몇 가지 의견> (中發[2010]1호)은 ‘농민 창업 및 취업 촉진’과 관련하여 ‘레저농업, 향촌관광, 산림관광, 농촌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켜 비농(非農) 분야의 고용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음. 이어 2010년 중국 농업부는 <레저농업 ‘제12차 5개년’ 발전 계획>을 제정함.

- 《농업의 다양한 기능 개발 및 레저농업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
  - ‘2015년 농업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주택노동건설부 등 11개 관련 부처와 함께 <농업의 다양한 기능 개발 및 레저농업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 발표하여 향후 용지, 세수, 자금조달, 공공서비스 등에서 레저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을 밝힘.
  - 상기 <통지>에 따르면, 용지 지원과 관련하여 경지보호제도를 엄격히 시행한다는 전제 하에 농민 취업 및 소득 증대에 대한 공헌도가 높고, 향후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레저농업 사업 용지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할 방침임. 특히 농민이 유희주택 부지를 팜스테이 부지로 활용할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 지원할 것이며, 향촌 주민이 자신의 주택부지 혹은 기타 부지를 활용한 합법적 관광 운영 관련 관리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예정임.
  - 세수 지원 관련, 중앙 정부의 향촌 건설 자금 중 일부를 적당한 범위 내에서 레저농업 클러스터 건설에 투입할 예정이며, 레저농업 창업 및 인프라 건설에 대한 각 지방 정부의 지원 강화를 요청함. 레저농업에 대한 세수 우대 정책을 실시하여 레저농업 경영체 중 세수 우대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에 대해 관련 세수 혜택을 제공할 방침임.
  - 자금 조달 관련, 대출기관의 레저농업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장려하고, 은행과 업체간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여 레저농업 경영체의 자금 조달 해결에 일조하고자 함. 은행은 레저농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레저농업의 투/융자 기제의 다원화 방안을 모색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레저농업 기업의 상장을 장려함.
  - 공공서비스 관련, 온/오프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인터넷 예약 및 인터넷 결제 등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여 레저농업의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을 제고시키고자 함. 이 밖에 운영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및 이를 제도화하고, 레저농업 클러스터 지역의 대중교통 시스템 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임.

## ○ 2016년 《정부 업무 보고》

- 2016년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현재 중국의 발전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며 반드시 새로운 발전 동력을 발굴하고 신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함. 신기술, 신산업, 신업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체제 및 매커니즘의 혁신을 통해 경제 발전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2016년 중앙 1호 문건에 따르면, 농촌의 소강(小康)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농촌만이 보유하고 있는 경쟁우위를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발굴하고, 농촌의 신산업, 신업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즉, 농업을 관광, 교육문화, 보건 양로 등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농업, 체험농업, 창업농업 등 새로운 업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 《전국 농업 현대화 계획 (2016-2020년)》

- 농업의 다양한 기능 확대와 관련하여 산업의 재편성을 제시함. 정부 보조, 사회자금이 시장 원칙에 따라 산업투자기금 등 조성을 통해 향촌관광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하며, 레저산업 발전은 농업 취업의 밀도를 높이는 데 필수임을 밝힘.

## ○ 농업부 《레저농업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

- 2016년 농업부에서 발표한 <레저농업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은 중국 공산당 제 18기 3중, 4중, 5중 전체회의의 정신을 철저히 실현하고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라는 발전 이념을 견지해야 함을 밝히고 있음.
- 현대 농업 발전, 농민 소득 증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3대 임무로 함. 농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촉진, 소비자의 레저소비에 대한 수요 만족, 아름답고 살기좋은 향촌 건설을 목표로 하며, 소비 활력 자극, 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산업 발전을 통한 빈곤 탈피를 중점으로 농경문화/아름다운 전원/친환경 농업/전통 촌락을 보존하고 통일된 계획의 수립을

추구함.

- 혁신적인 업무 매커니즘 구축하고, 발전정책을 고도화하며,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사업 자원을 통합하고, 농업을 관광/교육/문화/건강양로 등의 산업과 심도있는 통합을 추진하여 레저농업의 발전 수준을 제고함. 이를 통해 레저농업산업을 농촌의 번영, 부유한 농민의 신형 지주산업으로 육성함. 동시에 레저농업을 통해 도농 주민에게는 산과 물을 느끼고 향수를 추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관광업 발전 관련 용지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 2016년 국토자원부, 주택도시건설부, 국가여유국은 <관광업 발전 관련 용지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관광업 발전에 필요한 용지 공급을 보장하여 향촌관광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함. 토지 이용 총 계획, 향촌 건설 계획, 관광지 계획 등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관련 법에 의거하여 독자 설립, 토지사용권을 통한 지분 참여, 공동경영 등의 방식을 통해 숙박, 레스토랑, 주차장 등 관광서비스 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
  -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 관리 방법에 따라 도시민과 향촌주민은 자가 소유 주택 혹은 기타 조건을 활용하여 관련 법에 의거하여 관광업에 종사할 수 있음.
  - 농촌의 단체 경제조직 이외의 회사나 개인은 관련 법에 의거하여 도급 거래 방식을 통해 농민이 소유한 농용지, 미사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광 관련 재배업, 임업, 목축업, 어업에 종사할 수 있음.
- 국무원 판공청의 《관광 투자와 소비 촉진을 위한 의견》
- 향촌관광 업그레이드 계획을 실시하여 관광 소비의 범주를 확장하고 향촌관광의 개성화, 특색화 발전 방향을 향후에도 견지함. 현지 자원과 생태환경에 따라 향촌의 생활, 생산, 생태적 특징을 부각하여 향촌문화가 갖는 매력을 발굴할 것이며, 다양하고 특색있는 향촌관광 상품을 개발하

고, 지역별 색채가 접목된 축제를 개최함.

- 기존의 민족 촌락과 고촌을 보호하는 한편, 역사적/지역적/민족적 특색을 보유한 관광촌을 대거 구축하여 관광객에게 산수(山水)를 직접 보고 향수를 추억하고, 향촌 인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레저 농업과 향촌관광의 부대시설을 완비하며, 레저농업과 향촌관광 발전에 필요한 도로, 전력, 음수, 화장실, 주차장, 쓰레기/오수 처리 시설, 네트워크 등 공공서비스 시설을 구축함.
  - 향촌관광 관련 창업을 장려함. 장려 정책을 정비하고 관련 전문 교육을 강화함. 3년 내 농민공, 대학생, 전문 기술자 등 100만 명의 향촌관광 창업을 목표로 함. 문화계, 예술계, 과학계 전문가들이 조건에 충족되는 향촌에서 창작 활동 및 창업을 하도록 장려하며,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향촌관광 창업 시범 기지를 마련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광 창업/취업 향촌을 구축함.
  - 향촌관광을 통한 빈곤 탈피를 적극 추진함. 관련 향촌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지도, 홍보를 강화하고 향촌관광 빈곤 구제 공익 캠페인을 전개함. 2015년에 이미 560개 향촌을 대상으로 향촌관광을 통한 빈곤 탈피 시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20년까지 향촌관광을 통해 전국적으로 매년 200만 농촌 빈곤 인구의 빈곤 탈피를 도울 것이며, 6,000개 향촌을 대상으로 향촌관광 사업을 지원하여 중점 향촌의 향촌관광 연간 매출 100만 위안을 달성하고자 함.
- 《농업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 액션플랜》에 관한 통지 발표
- 2015년 중국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농업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 액션플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 전자상거래 시장 주체 적극 육성, 농업 전자상거래 온/오프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 완비, 농업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채널 구축, 농업 전자상거래 기술 혁신 응용력 확대, 농업 전자상거래 정책 체계 개선 가속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 중국 농촌관광 지원 사업

- 2015년 농업부 관공청이 발표한 <레저농업/향촌관광 선전 홍보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의 취지는 레저농업/향촌관광의 홍보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레저농업의 업그레이드 사업 추진에 있음. 본 통보에서는 레저농업/향촌관광 홍보 업무 관련, 계절의 특성과 중점 업무사항을 결합하여 주요 연휴 전에 레저농업/향촌관광 추천 관광지 및 노선을 추천, 소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Wechat(웨이신), 신문, 잡지 등의 플랫폼을 통해 안정적인 홍보 채널을 구축하여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소비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산업 전체의 경제적 효익과 사회적 효익을 제고하여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함.
- 본 통지는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비자에게는 실시간 예약, 정보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레저 장소를 찾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 레저농업/향촌관광 경영체에게는 시장 확대 및 내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홍보 플랫폼, 홍보력, 관광객 유치의 미흡함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뉴미디어를 적절히 활용하여 온라인 홍보력을 강화해야 함을 밝히고 있음. Wechat, 인터넷, 모바일 등의 뉴미디어 플랫폼의 신속하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종 농사 축제, 페스티벌, 박람회, 이색 대회 등 레저농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유리하게 조성해 소비자들의 건강한 소비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함.

### (1) 중국 농업부, 국경절 황금연휴에 맞춰 레저농업/향촌관광 추천 관광지 및 노선 소개

- 레저농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레저소비의 새로운 방식을 이끌어 내며, 농촌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고자 2016년 중국 농업부는

계절적 특성과 연휴 시기에 맞추어 ‘설에 농가에서 새해 맞이하기’, ‘이른 봄, 시골로 봄나들이 떠나자’, ‘여름, 농촌의 먹거리 여행’ 세 개의 테마를 정함. 레저농업/향촌관광 추천 관광지 1,502개, 추천 루트 528개를 소개하였고, 교통 정보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였다. 이는 도시민의 레저 소비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켜 현재까지 2억 명 관광객의 향촌 레저 소비를 이끌어냄. 또한 도시민이 농경의 즐거움과 분위기를 체험하고, 전원 생활을 맛보고, 민속 풍속을 느낄 수 있도록 중국 농업부는 성별로 선정 및 전문가 심사 과정을 거쳐 ‘한가위, 직접 수확하러 가자!’를 테마로 한 레저농업/향촌관광 추천 관광지 및 루트를 소개하기도 함. 여기에는 150개 중국의 아름다운 레저향촌과 62개 중국의 중요 농업문화유산, 530개 추천 관광지 및 240개 추천 루트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웹사이트, Wechat, 신문, 잡지 등을 통해 광범위한 홍보를 펼쳐 도시민들이 각자의 니즈에 맞춰 음식, 숙박, 교통, 관광, 쇼핑, 학습, 교육, 오락 등 고품질 레저 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150개 향촌은 2016년 새롭게 선정된 중국의 아름다운 레저향촌으로 이색 민가촌, 이색 민속촌, 현대 신촌, 역사 고촌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들 향촌들은 파란 하늘, 푸른 녹지, 맑은 물을 자랑하거나 농경문화의 숨결이 살아있고, 다채로운 민속문화를 선보이며, 전통 민가의 특색이 뚜렷하고, 레저 서비스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도시민의 관광, 레저휴양, 양로, 향수를 추억하기에 알맞은 곳들임.
- 62개 중국 중요 농업문화유산은 유구한 역사의 뿌리가 있고, 우수한 농산품과 풍부한 생물자원, 독특한 촌락 경관, 순박한 민속 풍습을 보유하고 있음. 경제 가치와 생태 가치가 고도로 융합된 전통적인 농업생산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뽕싹하게 늘어서 있는 계단식 밭, 안개가 자욱하게 낀 찾잎대농장, 벼와 물고기의 조화로운 공생을 보여주는 논 양식장, 끝도 없이 광활하게 펼쳐진 초원의 유목 부락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 생태의 아름다움, 인문의 아름다움, 조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음.

## (2) 베이징/텐진/허베이, 레저농업 ‘벨트’ 공동 구축

- 베이징/텐진/허베이 정부의 관련 부처가 2016년 11월 3일 허베이 량팡시(廊坊市)에서 체결한 베이징/텐진/허베이 레저농업 공동 발전 기본 협정에 따르면, 세 지역은 향후 레저농업 구축 총괄 기획, 베이징/텐진/허베이 레저농업 표준 통일, 레저농업 명품 관광루트 공동 조성, 베이징/텐진/허베이 레저농업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레저농업 인재 양성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함.
  - 본 협정에 따르면, 먼저 세 지역은 총 계획의 공동 수립에 합의함. 합리적 배치, 상호 단점 보완 및 장점 부각을 통해 레저농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고, 경제/생태/공유 등의 측면에서 윈윈을 추구하고자 함.
  - 둘째, 세 지역의 레저농업 기업(단지), 레저농장, 농(어)가락 등 경영체 건설, 서비스, 관리 표준 연계를 강화하고, 시장 행위를 규범화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 셋째, 베이징/텐진/허베이 세 지역 농촌의 특색있는 자원/문화/브랜드/프로그램 등을 공동 발굴, 개발하여 스타일이 각기 다르면서 각자의 테마를 부각시킨 ‘레저농업 추천 여행 루트’를 만들어 베이징/텐진/허베이 ‘레저농업 벨트(廊道)’를 구축하고자 함.
  - 그 밖에 베이징/텐진/허베이 농업 부처는 ‘인터넷+레저농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함. 베이징/텐진/허베이 레저농업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설명회, 박람회, 농사 축제, 대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베이징/텐진/허베이 레저농업의 지역 브랜드화를 추진하고자 함.

## (3) 레저농업의 인터넷+ 대폭 지원

- ‘인터넷+’의 전형적 모델을 지원, 연구, 보급함.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인터넷+농산물 가공업/레저농업’의 성공모델과 성공사례를 연구 정리하고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함. 또한 지역, 업계협회, 기업 차원의 ‘인터넷+농산물 가공업/레저농업’ 관련 세미나, 포럼 개최를 지원하여 ‘인터넷+농산물

가공업/레저농업' 추진 과정 중 직면할 수 있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함.

- 신형 농업 경영체의 전자상거래 활용 능력 제고, 농산품 및 농업 생산자재의 인터넷 마케팅 지원, 농업 생산 서비스의 온라인상 교류와 거래 추진, 농업 전자상거래 기업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체를 육성하고 각 시장의 주체가 농업 전자상거래에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함.

\* 액션플랜 1 - 역량 제고

국가 전자상거래 전문 기술인력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신형 농업 경영체 대상 교육을 진행함. 신형 직업농민 교육, 농촌 실용 인재 트레이닝 등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 농업인, 가정농장, 농민협동조합 등 신형 농업 경영체와 농업기업 책임자를 중점 조직하고 관련 교육기관, 전자상거래 기업을 연결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 농산품과 농업 생산자재의 인터넷 경영전략과 기법 관련 교육을 진행함. 이론과 실제 능력을 겸비한 농업 전자상거래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신형 농업 경영체의 전자상거래 활용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킴.

\* 액션플랜2 - 플랫폼 연결

농업 부처와 상무 부처는 중개/교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전자상거래 업체를 조직, 지도하여 농업 전자상거래 사업 발전을 추진함. 각종 전시회와 포럼을 통해 대형 농업인, 가정농장, 농민협동조합 등 신형 농업 경영체, 농산품 판매업체, 국유농장과 농업기업 등을 조직하고 다양한 형식의 교류를 추진함. 농업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연계를 통해 생산과 수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농산품과 농업생산자재의 인터넷 판매를 추진함.

\* 액션플랜 3 - 전자상거래 확장

정책과 정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종합 전자상거래 기업이 농업 전자상거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도록 유도함. 또한 수직형 농업 전자상거

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기업의 농업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조건을 갖춘 기존 농산품 유통기업과 농업생산자재 생산판매업체의 전자상거래를 유도함.

- 농산품과 농업생산자재의 온·오프라인 협력 발전모델을 모색하고 농산품 모니터링 조기경보, 품질 표준과 팔로우업 체계를 개선하며 농업 전자상거래 관련 데이터 정보 공유를 추진하여 농업 전체 생산라인의 데이터를 교류하고 농업 전자상거래 온·오프라인 공공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농업 전자상거래에 공공서비스 기반을 제공함.

\* 액션플랜 4 - 인터넷 집하 플랫폼

농산품 인터넷 집하 플랫폼을 구축함. 농산품 산지 시장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집하 연계 기능을 개선함. 집하 과정의 표준화, 규모화를 추진하고, 중복 구매 상품 상태가 항상 균일할 수 있도록 함.

\* 액션플랜 5 - 상품 소개

농산품 전시 플랫폼을 완비함. 농산품 판매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전시장’을 조성하여 ‘명특우신(名特优新: 우수한 품질의 특색있는 브랜드 상품), ‘삼품일표(三品一標: 무공해농산품, 친환경식품, 유기농산물, 정부추진 우수농산품 브랜드), ‘일촌일품(一村一品: 마을마다 한 가지 특산품을 만들어 농촌소득 증대를 모색하는 운동) 농산품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함. 이와 함께 농산품 인터넷 판매의 공신력, 신뢰도, 선호도를 향상시킴.

\* 액션플랜 6 - 정보 공유

농산품 시장정보 모니터링 조기경보체계를 완비하고, 농산품 생산판매 동향 모니터링 통계를 강화함. 정보 획득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농산품 시장 정보 조기경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여 농산품 생산, 소비, 무역, 재고, 비용, 가격, 미래 동향 등 시장 정보를 적시에 정확히 발표함. 또한 농산품 품질안전 정보 공개 수준을 높임.

\* 액션플랜 7 - 품질 감독관리

농산품 품질표준과 품질안전 팔로우업 체계를 개선하고 농산품 품질, 포

장표준 제정 및 개정을 서둘러 ‘명특우신’, ‘삼품일표’, ‘일촌일품’ 등 전자상거래 기초데이터베이스와 국가 농산품 품질안전 팔로우업 관리정보체계를 완비하고 농약, 가축약, 비료 등 농업 투입제품의 팔로우업 체계를 구축하며 농업 관련 전자상거래 기업의 데이터 공유체계를 모색하여 품질 사후관리와 책임 규명을 가능하도록 함.

\* 액션플랜 8 - 운영 보장

농업생산경영 전 산업의 전자상거래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업계 각 분야의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을 기초로 재배, 축산, 수산 및 종자, 화학비료, 농약, 가축 약제, 사료, 농기구 등 전자상거래 정보 공유와 상호 교류를 통해 농업 전자상거래 협력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함. 신뢰체계를 완비하고 은행, 세무, 상공, 품질 검사, 비즈니스 등 분야와 전자상거래 관련 주체의 신용 정보를 통합하여 신용 문서 제도를 추진하고 시장 환경을 정비하여 농업 전자상거래 신뢰도를 향상시킴.

- 관련 부처와의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여 네트워크, 물류, 저온 유통 체계, 저장 등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함. 관련 경영체가 기술, 매커니즘, 모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농촌지역으로의 정보서비스 보급, 전자상거래의 농촌지역 종합 시범 사업을 추진함. 농업 전자상거래의 혁신을 위해 양호한 조건과 노하우를 제공함.

\* 액션플랜 9 - 채널 확장

농촌지역 내 정보서비스 보급을 확대하고, 농촌 종합 정보서비스 체계(12316)와 마을 정보서비스 센터 구축을 통해 전자상거래 업무를 지원하여 농민에게 정보 컨설팅, 위탁 판매, 구매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농촌 물류체계 구조를 신속히 개선하고 택배 업무를 서부지역 및 농촌지역에서 진행되는 작업을 통해 농촌 종합 판매점, 슈퍼마켓, 우편의 ‘삼농(농업, 농촌, 농민)’ 서비스 센터, 마을 우체국, 택배 지점 등 1차 농촌 물류거점 건설을 통해 물류 택배기업의 농촌 확장 업무를 지원함.

\* 액션플랜 10 - 시장 구조전환

농산품 전자상거래 기업이 농산품 품종, 생산량, 산지, 수확시기 등 생산

자 정보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산지 및 판매지역 농산물 도매시장의 IT, 경영방식, 서비스모델 등 분야의 혁신을 장려하고 온·오프라인의 장점이 잘 결합될 수 있도록 함.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 인프라, 품질 검측 설비, 상품 유통 채널 등을 농산물 전자상거래에 적극 활용함.

\* 액션플랜 11 - 모델 혁신

전자상거래 업체, 국유농장, 농민 협동조합, 지역사회간 협력을 통해 농산물 체험관, 셀프 수령 데스크, 택배함 등을 공동 구축하고 ‘거점+도시 지역사회’의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모델을 시범적으로 시행함. 판매지 도매시장의 장점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발전을 지원하여 도시의 일상적 소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도매시장+택배’ 모델을 모색한다. 종자, 농약, 화학비료 등 농업 생산자재 업체가 지역별 마을 정보서비스 센터를 통한 ‘농자재 안심 납품’모델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함. 전자상거래 업체가 글로벌 마케팅 채널을 구축하고,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농업 전자상거래의 글로벌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액션플랜 12 - 인프라 지원

농촌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건설하고 4G 인터넷을 농촌지역에 보급함. 농업 생산거점의 규모화, 표준화, 스마트화, 품질 추적 관리 기능을 강화함. 여건이 되는 지역에 농촌 전자상거래 산업 거점, 물류단지, 창업 단지를 구축함. 전자상거래 시장 주체가 농촌과 도시에 창고, 저온 유통 체계, 등급 포장, 스마트 배송 등 시설 설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농업 전자상거래 발전의 기본 조건을 개선함.

- ‘수요 견인, 목표 초월, 발전 지원, 미래 인도’ 원칙에 따라 농업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핵심중점기술을 발전시키며 관련 표준, 법규를 제정 및 개선하고 선진 실용정보화 기술을 유통 등 분야에 활용하여 농업 전자상거래 기술혁신활용능력을 업그레이드 함.

\* 액션플랜 13 - 기술혁신

농업 전자상거래 핵심중점기술 R&D를 강화함. 핵심 집적회로, 무선주

과수 인식, 스마트형 단말기, 시스템 통합, 인터넷과 정보보안 및 빅데이터 처리, 응용 소프트웨어 등 공통성과 핵심기술 R&D 활용 부문의 기술적 성과 획득에 주력하고 자주적 지식소유권 보호를 강화하며 기업이 주체가 되고 시장이 주도하는 산학연 결합 기술혁신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함.

\* 액션플랜 14 - 시범 보급

국가 전자상거래 시범도시 건설에 적극 참여함. 2년에 한 번 농업 농촌 정보화 시범기지 신고 인증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행함. 각 신형 농업경영체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장려하여 농업 전자상거래 기업의 모범사례를 만듦.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IoT 등 차세대 정보기술이 농업 전자상거래 전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함. 금융기관, 비은행 지불기관이 농업전자상거래 기업, 물류기업 및 관련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지불시스템을 제공하도록 하고 농촌지역에 온라인 결제, 휴대전화 결제 등 결제 방식을 보급함. 농산품 도매시장의 전자상거래 기술 활용과 농산품 전자결제, 전자거래, 전자경매, 전자상거래 활용을 추진하고 유통 효율과 정보 공개 수준을 높임.

\* 액션플랜 15 - 표준 수립

전자상거래 기업이 전자상거래 농산품의 품질, 등급 구분, 상품 포장, 물류 배송, 업무 규정 등 관련 표준을 제정, 운영하도록 장려함. 택배기업이 전자상거래 농산품 배달 요구에 맞는 포장, 전문화 서비스 등 관련 표준을 제정, 운영하도록 장려함. 또한 농산품/농업 생산자재 상품 품질의 국가 및 업계 표준, 생산기술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 혹은 개정함. 이 밖에 국가 농업 표준화 시범현을 건설하여 각 전자상거래 주체가 공동으로 농산품 표준화 생산시범기지를 건설하도록 유도함. 또한 농업 전자상거래 기술 표준과 업무 규정을 연구 제정함.

\* 액션플랜 16 - 정책 연구

각 실무부처를 통해 연구기관, 대학, 업체와 발전전략 공동 연구를 진행함. 이를 통해 주요 쟁점 논의 연구, 정책적 제안사항 건의뿐 아니라 농

업 전자상거래 발전 연간보고서를 작성함. 또한 각급 발전개혁, 농업, 상무 부처는 연구기관, 대학, 업체를 조직하여 농업 전자상거래 중대 문제 연구를 장려하며, 기획 및 정책 제정 시 이를 참고함.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의 주도 하에, 산학연 결합된 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센터, 사업 센터, 중점실험실을 구축함.

\* 액션플랜 17 - 싱크탱크 활용

매년 개최되는 ‘중국 전자상거래 혁신 발전 회의’와 ‘농업 정보화 고위층 포럼’ 기간에 ‘농업 전자상거래 분야별 포럼’을 추가 개최함. 또한 지역, 업계 협회, 기업의 포럼, 세미나 개최를 지원하여 각 지의 농업 전자상거래 발전 성공 모델과 성공 사례를 총정리하고 농업 전자상거래 발전 과정 중 직면할 수 있는 애로사항과 문제를 연구하여 농업 전자상거래의 건강하고 빠른 발전을 이끔.

- ‘정부 주도, 시장 주체’의 원칙에 따라 전략 관리와 정책 수립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의 농업 전자상거래 관련 심사승인 사항과 절차 최적화에 협조함. 농업 전자상거래 발전 지원 정책을 추진, 이행, 지원하며, 자원 분배 중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여 농업 전자상거래 발전에 유리한 정책 환경을 조성함.

\* 액션플랜 18 - 정책 지원

관련 부처와 함께 농업 전자상거래 정책을 혁신하고, 농업 전자상거래 발전 관련 용지, 수도, 전기, 네트워크 등 정책을 제정, 이행하여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루트의 다원화된 투융자 기제를 마련함. 관련 부처의 농업 전자상거래 기존 심사 승인사항 정비에 협조하여 법률 및 법규 근거가 없는 사항은 일괄 해지하고 불법적인 행정 허가, 행정 허가 조건/절차 추가를 금지함.

\* 액션플랜 19 - 하드웨어 지원

농산품 유통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급 정부는 생산지 화물 집하, 산지 프리쿨링(Pre-cooling), 신선 냉장, 등급별 포장, 저온 유통체계 물류, 운송차량, 중계 창고, 도시배송시설 등에서 지원을 강화함. 관련 규

정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농기계 구입 보조금, 농산품 산지 초별 가공 보조금 등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킴. 보험사의 신선 농산품 배송 품질 보험 시행을 장려함.

\* 액션플랜 20 - 운영 지원

농업 전자상거래 표준화 기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설립한다. 관련 과학 연구와 교육업체, 기업을 조직하여 농업 전자상거래 핵심 및 중점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함.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증된 농업 전자상거래 기업은 법에 근거하여 관련 우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정보 서비스의 농촌지역 보급, 농촌 정보서비스센터 구축, 정보인력 트레이닝 및 정부 구매 공익 서비스 지원을 추진함. 신형 농업 경영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농산품 온라인 마케팅 및 시장 보급을 장려하고 신형 직업농민, 대학생 촌민위원회 간부, 귀향 농민공, 농촌 중개상, 농촌 정보인력 등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창업을 지도함.

### 3.6. 중국 농촌관광 발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안

#### □ 현존하는 문제점

- 과학적인 기획이 부족함. 기존의 레저관광농업은 대부분 마을과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유형이 비슷하고 독창적인 기획이 부족함.
- 전반적인 수준이 낮음. 운영 규모가 영세하고, 프로그램도 단조로움. 차별화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경제효과를 창출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많음.
- 관리 및 서비스가 체계적이지 않음. 관리 인력의 절대 다수가 원래 생산, 가공, 판매에 종사했던 인력이고, 서비스 인력은 기본적으로 채용한 인력임. 이 때문에 관리 경험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소양 수준이 낮음.

- 정책 지원이 부족함. 어느 한 요소의 병목 현상으로 레저관광농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 현재 대부분 지방의 시(市)와 현(縣) 모두 관광농업 관련 총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며, 명확한 관리기제와 관리방법도 부재한 상태임. 관광농업 발전이 기본적으로 향촌과 기업의 자발적인 개발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전체적인 개발 구도가 합리적이지 못함. 물론 일부 지역의 경우 건축, 농림, 수리, 관광 부처에서 관련 표준을 수립하여 관광지 등급을 부여하고, 관련 관리방법을 이행하고 있음. 그러나 몇 개의 부처마다 각기 다른 계획과 관리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거시적 통제와 지도가 미흡한 실정임. 설상가상으로 투자자들도 발전 기획 능력이 부족해 개발 투자시 임의적이고 맹목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중국 관광농원의 경우 수량은 많으나 규모가 모두 작은 편임. 국외의 경험을 살펴보면, 농업관광구는 반경 29.5km 일 때 경제효과가 최대로 나타난다고 함. 하지만 중국 내 대부분의 농업관광구 반경은 이 수치에 미치지 못함. 관광농업의 개발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자연 경관과 농업 자원에 의존해야 하며, 지역과 문화의 특색이 뚜렷하게 반영되어야 함.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세밀한 발전 기획과 시장조사를 소홀히 하여 주변 자연 경관과의 부조화를 초래하거나 특색이 없거나 중복, 베끼기도 서슴지 않음. 삼림공원, 관광 과수원의 경우 건설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관광 프로그램도 관광, 과일따기 체험 등에 한정됨.
- 관광농업 관광지 대부분은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외 혹은 농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단일하고, 쇼핑, 레스토랑 등 관광 관련 부대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임. 또한 프로그램이 단조롭기 때문에 여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즐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이렇게 관광지 인프라가 수량 및 수준면에서 관광객의 음식, 숙박, 교통, 관광,

쇼핑, 오락 등 여러 방면의 요구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임. 수용태세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위생임. 일부 관광지의 경우 위생 여건이 관광객의 요구와 간극이 커 관광객을 붙들지 못하거나 관광지 체류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열악한 접근성 또한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로, 수많은 지역, 특히 빈곤 산간지역은 양질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 조건이 좋지 않아 현지 관광사업의 추진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 현재 관광농업의 전체 규모가 크지 않아 독립적이고 온전한 산업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함. 경영자는 메인 건물에는 기꺼이 투자를 하지만, 환경 정비 혹은 환경 미화에는 공을 들이려 하지 않음. 투자 대비 고수익을 기대하며, 저렴하고 품질이 열악한 농산품을 외부로부터 구입해서 관광객을 기만하기도 함. 시야가 좁은 경영자는 다른 이의 선진 관리 경험을 벤치마킹하려는 의지, 협력/협업 의식이나 관광지 이미지 구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
- 현재 중국 대부분 지역의 관광농업은 단순 관광 단계에 머물러 있음. 농업 경관과 농산품 모두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수기와 비수기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성수기 때엔 문전성시를 이루는 반면 비수기에는 찾아오는 방문객이 드물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함. 기온과 날씨의 영향으로 봄과 가을은 관광농원의 황금 성수기로 보통 일평균 수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함. 하지만 여름철과 겨울철의 상황은 성수기의 1/3 정도로 상당히 대조적임.
- 중국 내 관광농업은 신흥 산업이라 아직 전문적인 정책 체계나 지원 수단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 때문에 수많은 지역이 진정한 의미의 관광농업 발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즉, 지역 농산품이나 관광서비스가 아닌 입장료에만 기대어 수익을 내고 있음. 관광농업 대부분은 공공재의 속성

을 지닌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발전함. 관광농업의 비(非)배타성과 비(非)경쟁성으로 인해 누군가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는 ‘무임승차’가 발생하기 쉬워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게 됨.

- 중국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촌 토지는 점거, 철거, 유실 등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음. 이 때문에 농촌의 논밭을 포함한 자연환경은 착박되거나 파괴되고 있음. 관광농업이 기반으로 할 농업 자연자원과 문화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음. <2014년 국가통계 개황>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과거 15년 동안 중국은 총 90만 개의 자연촌(村)이 자취를 감추었음. 하루 평균 백 개의 농촌 마을이 사라진 셈임. 중국 농촌은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지니고 계승하는 중요한 매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 도시화 건설의 파괴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이는 농촌 자연 풍경 및 문화 유적의 유실이자 향촌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 매력의 상실이라 할 수 있음.

#### □ 개선방안 제안

- 레저관광농업은 신중한 논의, 체계적인 기획, 과학적 발전 계획 제정 하에서 발전을 도모해야 함.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고, 지리적인 요소도 다르며, 산업의 특색 또한 다름. 따라서 계획 수립 시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대책 수립, 특색 부각, 합리적 배치, 조화로운 발전 모색’, ‘합리적인 개발, 지속적인 이용, 경작지 보호’ 요구에 따라 지역 포지셔닝, 기능 포지셔닝, 형태 포지셔닝을 중시해야 함. 모방, 맹목적인 고급화, 무조건 크고 세련되게 짓거나 농촌을 훼손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며, 질서 있는 발전, 상대적인 집중, 규모있는 개발을 지향해야 함.

- 레저관광농업의 발전 계획은 토지 이용 총 계획, 농업 발전 계획, 도시 관광 계획, 신농촌 건설 계획과 서로 연계되어야 함. 계획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향후 예측이 가능해야 함. 전원의 풍경, 마을의 농가, 농촌의 풍토와 인정, 농경민족의 문화 등의 자원을 잘 활용하여 농업 생산, 농촌 생활, 자연 생태간 조화로운 융합을 추진해야 함. 이를 통해 농업의 매력을 선보이고, 관광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며, 환경보호,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해야 함.
- 레저관광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을 기초로, 농민을 주체로, 농촌을 특징으로 해야 하며, 농업의 발전, 농민 수익의 증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 사업 추진 시 농촌의 색채를 최대한 부각시켜야 함. 농가 음식을 먹고, 농가에서 숙박을 하고, 농사일을 하고, 농촌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시설재배, 친환경 양식, 입체재배, 재배와 양식의 통합화 등 고효율 생태농업 모델이 갖는 여러 기능을 확대하여 색다름, 특별함,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관광객의 소비 심리를 만족시켜야 함.
- 레저관광농업은 ‘삼농(농업, 농촌, 농민)’의 연장이자 관광업의 공간상의 확장이라 할 수 있음. 농본(農本)을 강조하는 한편, 관광업 진흥도 함께 중시되어야 한다. ‘농업 안에 관광 있고, 관광으로 농업을 강조하고, 농업과 관광을 접목시키고, 농업을 부각시켜 관광을 진흥시키자(農中有旅,以旅强農、農旅結合,强農興旅)’를 유연하게 운용해야 할 것임. 레저성을 돋보이게 하고, 참여성을 강화하며, 오락성을 구현하여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관광객이 오리지널 팜스테이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예를 들어 저장성 윈링시(浙江溫嶺市)는 기후가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관광자원이 풍부함. 산업도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우위를 활용하여 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꾸준히 확대하며 레저관광농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함.

- 레저관광농업 발전에 있어 서비스는 핵심이고 안전은 필수임. 따라서 내부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며, 관광객의 신체 건강 및 생명 안전을 보장해야 함. 업계 관리 표준 및 서비스 관리 방법을 수립하여 완벽한 품질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농촌의 직업 교육과 함께 종사자들의 농예지식 함양, 요리기능 습득, 식품 위생, 안전 생산, 신용 의식, 삼림 방화 등의 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종합 소양 수준 및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함. 이 밖에 레저관광농업의 업계 협회 및 전문 협동조합 등의 중개서비스 조직을 갖추어 자체 서비스, 자체 관리, 자체 통제, 자체 발전을 도모해야 함. 관련 주무부처는 정기적으로 조사, 지도를 전개하고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이행해야 함. 적시에 리스크를 예방하는 한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협조해야 함. 이를 통해 차별화, 관리의 체계화, 우수한 서비스,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레저관광농업으로 발전시켜야 함.
- 레저관광농업은 시대 발전 및 사회 진보의 산물이며, 체계성이 강한 산업으로 각 급, 각 부처의 협조 및 협업을 필수로 함. 재정부처는 레저관광농업 관련 특별기금을 마련하여 한 해 예산에 편입시키고, 특색 있고, 운영능력이 우수하며, 발전 전망이 긍정적인 레저관광농업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함. 이와 함께 산업자본, 민영자본, 외부자본의 유입을 적극 독려하여 ‘정부 지원 하에, 경영체 위주로, 사회가 참여하는’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 금융부처는 신용대출 구조를 개선하여 레저관광농업을 농촌 지원 중점사항으로 포함시켜야 함. 적당한 범위 내에서 담보 조건을 완화하고, 심사 수속을 간소화하며, 대출 금리 및 시기상의 우대를 부여해야 함.
- 농업부처는 토지 거래 기제 혁신을 적극 추진해야 함. ‘자발, 합법, 보상’의 원칙에 따라 양도, 임대, 상호교환, 지분 참여 등의 형식을 통해 토지의 ‘규모 있는 운영’을 추진해야 함.

- 국토부는 버려진 토지, 임지, 황폐한 산 등의 개발을 적극 장려하여 토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함. 이 밖에 기타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레저관광농업 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 레저관광농업은 과학발전관에 입각하고,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동반되어야 하는 현대농업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은 농업의 효율 증대, 농민의 수익 증대, 농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 각 급, 각 부처는 반드시 생각을 통일하고, 합의를 이루는 한편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획하고 실행하는 등 레저관광농업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해야 함. 이와 함께 홍보를 강화하여 레저관광농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함. 각종 매체를 통해 대표적 사례를 적시에 보도하여 레저관광농업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또한 각종 축제,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며 관련 창구를 개설해야 함. 레저관광농업 전시 사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하며, 브랜드 전략을 통해 레저관광농업의 질서있고 신속하며,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관광농업의 기본은 농업 내부 기능의 선순환 및 생태의 합리성임. 따라서 관광농업의 발전은 반드시 관광과 생태농업의 조화 속에서 추진되어야 함. 관광농업 중 ‘농업’의 포지셔닝은 관광과 생태농업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의 특색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함. 즉, 지역 생태농업의 특색과 지역 농업문화 특색이 잘 드러나야 함. 따라서 자연 생태에 적합한 생태농업과 전통 농촌 민속 문화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고 충분히 구현되어야 함. 개발 추진 시 반드시 생태 효익형 노선을 채택해야 함. (1) 기존 자연을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경지의 무분별한 남용을 엄격히 통제해야 함. (2) 지역의 실제 상황에 맞게 개성과 특색을 잘 살려서 개발을 진행해야 함. (3) 관광지 내 부적절한 건물을 세우는 등의 환경과 경관에 대한 파괴를 방지해야 함. (4) 농업관광원 주변 산업 및 도시화 등 관광지에

-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통제해야 함 (5) 농업관광원 입장객수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여 단지 내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함.
-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에 부합되어야만 관광농업의 자연, 전통, 레저, 녹색의 특징을 제대로 살려 농업, 관광, 교육, 생태, 종합의 ‘다섯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관광농업 발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제 6 장

---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 방향 및 정책 과제

#### 1.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의의 및 추진 방향

- 지역단위 6차산업화는 농촌경제 및 지역 활성화라는 6차산업화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존 6차산업화 정책을 개선·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 개별 경영체의 다각화에 초점을 둔 초기 6차산업화 정책 추진만으로는 농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고령농의 참여 확대 및 소득 제고를 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가 소득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 6차산업화 추진에 따른 성과는 경영역량을 보유한 농가 및 경영체에 한정되는 것으로 확인됨.
  - 대부분의 농가들은 독자적인 6차산업화 추진보다는 선도 경영체와의 거래관계를 통해 6차산업화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단위 6차산업화 관련 중국 및 다수의 성공 사례에서 지역 농가들의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6차산업화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 경제 전반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출현하는 것을 확인함.
  - 보다 많은 농가·경영체의 참여와, 생산활동 성장에 따른 부가가치가 지역 내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지역단위 6차산업화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지역 컨소시엄사업, 6차산업화 지구 등 의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역단위 6차산업화는 지역 농업 및 농촌산업의 발전 경로 상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산업의 발전 경로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검토해야 함.
- 6차산업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환경의 개선 노력을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의 틀에서 지속해야 함.
  - 6차산업화 정책 추진 결과로 나타나는 경영체 성과, 관련 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함.
  - 6차산업화 경영체 현황, 통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생성·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단위 6차산업화는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6차산업화의 고도화를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원을 발굴·육성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 해야 함.
  - 6차산업화의 외연 확장이라는 정책 성과에도 불구하고, 6차산업 관련 생산활동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며, 기존 주체들이 진출하기 용이한 제한된 상품·서비스 영역으로 한정됨.
    - 6차산업 제품들은 장류, 음료 등 전통적인 농식품 가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농촌 관광 또한 마을 중심의 사업추진에 따라 다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임.
    -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존 품목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지역 생산활동을 고도화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음.
  - 사례를 통해, 농업·농촌이 보유한 유·무형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기존 제품·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상품과 부가가치가 창출됨을 확인했으며, 이는 개별 경영체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며, 지역 단위의 집합적 활동을 통해 가능함.

- 문화, 생태, 경관 등 농업·농촌이 가진 다양한 자원을 6차산업화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됨.
- 기존 6차산업 관련 생산주체 외에도 지역 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사슬 형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은 농촌산업 육성 관련 지역 농정 추진체계의 개선을 도모**

- 6차산업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단위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나, 효과적인 지원 수단 및 사업의 부족으로 인해 지원기관의 역할이나 기능이 제한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농업 및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주체들의 6차산업화 생산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 단위 추진체계의 정비와 기존 지역단위 사업의 개선이 필요함.

## 2.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 방향에 따른 정책 과제

### 2.1. 6차산업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 내 협업과 분업 체계 구축을 통해 6차산업화의 외연 확장 및 보다 많은 농가·경영체의 참여를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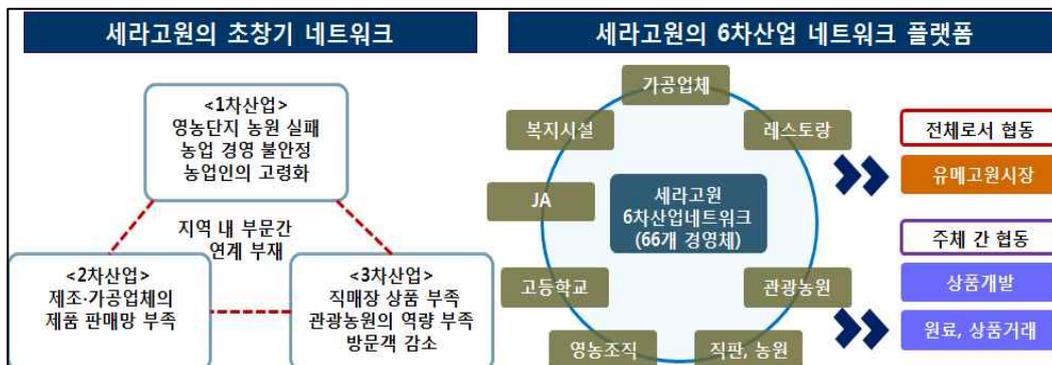
- 6차산업 실태 분석 결과, 참여 농가의 소득 창출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으나, 경영 여건이 열악한 농가들의 경우 독자적인 6차산업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전체 농가의 6차산업 관련 소득 증가도 제한적으로 나타남.

- 개별 농가 단위에서까지 2·3차 융복합 활동에 일률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은 다수의 농가 여건을 고려할 때, 효과적이지 못 함.
  - 농산물 생산에 주력할 농가와 가공·체험관광 등의 다각화를 확대할 농가 및 법인을 구분하여 지역단위에서 여러 주체들 간 협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 내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각자의 역량과 특성에 맞는 형태로 6차산업 참여 기회를 보장
- 가공센터 등을 확대하여 영세 농가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역량 있는 귀농·귀촌인 및 청년 인력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6차산업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강화
  - 주체 간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의 확대 필요

□ 지역 내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사슬의 발현을 유도

- 기존 고착된 거래관계에서는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주체 간 협력에 기반한 집합적 활동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그림 6-1. 네트워크를 통한 세라고원의 6차산업 활성화



자료 : 고바야시 시게노리 외(2014), 일본 농업의 6차산업화 현황과 정책 재구성

- 지금까지 대부분의 네트워킹 지원 사업은 거래관계 형성을 전제로 추진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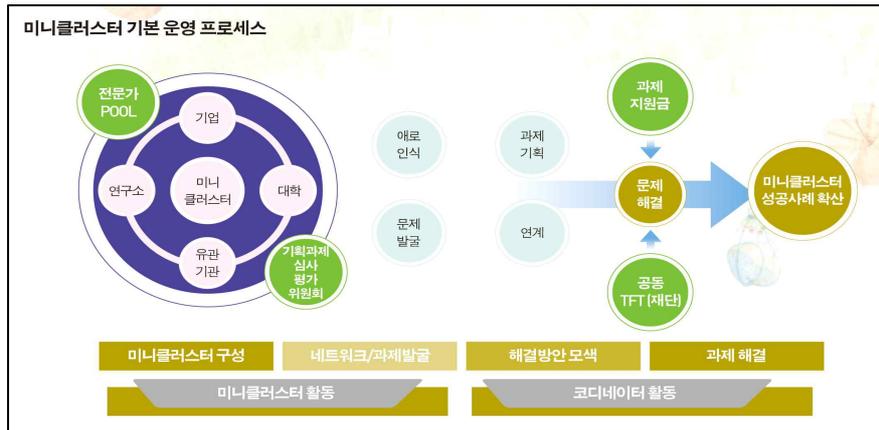
었으나, 보다 넓은 범위에서 지역 내 주체들 간 자유로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가치사슬 형성을 위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활성화 사례

- 산업단지 공단 미니클러스터 사업

-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클러스터화 하는 정책 추진
  - 미니클러스터는 대규모 산업클러스터(산업단지) 내 산학연관 소규모 협의체
  - 전략 업종, 기술 특성, 가치사슬에 따라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
  - 공간적 집적은 이루어진 상태로, 단순 집적에서 발달하여 참여 주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과업으로 설정하고 애로과제 발굴 및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조직으로 운영
  - 43개 미니클러스터에 약 1,200개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
  - 클러스터별 특성에 맞게 네트워크를 구성, 산업단지공단 등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시사점
  - 미니클러스터는 기존의 가치사슬(대기업 중심의 협력(하청)업체 협의회 등)과 무관하게 이업종간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주체들 간 다양한 형태의 재결합을 지원
  - 중소기업이나 연구자 등 한 곳에 모이기 어려운 주체들에 대하여 기존에 지역에서 활동하던 코디네이터(산업단지공단)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
  - 중앙-광역(산업단지 광역권 본부)-지역(개별 산업단지)으로 이어지는 지역단위별 지원기관 간 체계적 역할 분담
  - 주체 간 네트워킹 활성화가 운영의 최우선 목표이며, 산업, 경제적 성과는 부수적 성과로 간주
  -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가 없는 클러스터의 퇴출(지원중단)을 실시

그림 6-2. 산업단지 미니클러스터 프로세스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 기존 농가·경영체 네트워크 활동을 6차산업 중심으로 재편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을 통해 추진해오고 있는 품목이나 지역별 농가·경영체들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6차산업과 연계
  -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농산물 가공 및 6차산업 관련 연구회가 결성되어,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농가·경영체·지원기관의 협력·네트워크가 확산
  -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존 품목, 농산물 가공 관련 농업인 협의체에 대하여 6차산업 관련 교육 및 주체 간 연계·협력의 기회로 활용
- 역량이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경영체 협의체에 대하여 기존 지역단위 6차산업화 지원사업(지역 컨소시엄 사업)을 통한 지원 검토

\* 경남 우리농산물가공연구회

- 농업인의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농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의 일환으로 2009년 설립(경남도 농업기술원)

- 정기적인 역량 강화 교육 및 자발적인 분기별 교육을 통해 농산물 가공·제조 관련 기술 교육, 정보 교류 및 품질 제고를 위한 학습 등의 활동을 수행
- 회원 사업장 간 순회교육을 통해 주체 간 사업 유형을 파악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의 발굴 기회로 활용

## 2.2. 지역의 6차산업 성장단계 및 경로를 고려한 지원 사업의 차별화

□ 지역, 품목마다 6차산업 성장 경로는 상이하며, 이를 고려한 차별적인 지원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특화 품목 관련 다각화 활동이 지역단위 6차산업화 형태로 진화
  - 고창 복분자, 고흥 유자, 안동 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생산 관련 지역의 경쟁우위는 존재하지만 6차산업화 관련 생산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 경영체의 부재가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2, 3차 제품·서비스 개발 필요, 1차 제품과는 달리 2·3차 제품의 유통·판매망이 열악하며, 이에 지역 내 6차산업화 확산을 위해 특화 품목 관련 우수 경영체 및 마을 단위 경영체 육성이 필요함.
  - 이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기존 농촌산업 지원 사업의 대상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지역 내 기 구축된 인프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임.
- 지역 내 입지한 선도 경영체의 가치사슬이 지역 내 확산되는 형태로 6차산업화가 성장하는 지역
  - 순창 장류, 서천 한산소곡주 등이 이에 해당하며, 선도 경영체를 모방하거나 경영체와의 거래 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단위의 6차산업 생산활동이 집적
  - 이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지역 농업과의 연계가 부족하

- 며, 경쟁력이 주요 경영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선도 경영체의 지역 내 농가와의 연계 확산에 초점을 두고, 유사 경영체 및 관련 경영체의 동반 집적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 내 경영체와 농가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6차산업 성장에 따른 부가가치가 지역 내부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지원이 요구됨.
  - 초기 성장 단계에서는 지역의 생산 역량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구축(공동 가공센터 등)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최근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연구개발·마케팅 등의 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남.
- 타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기 어려운 특정 작물에 대하여 외부 주체와의 협력 혹은 새로운 마케팅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창출하는 전략을 취하며, 충주 당노 바이오, 장성 컬러푸드, 장수 레드푸드 등이 이에 해당함.
  -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6차산업의 선도 주체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앞선 유형의 지역과 같이 지역 내 거래 관계를 확산시키는 형태의 지원이 추가되어야 함.
- 6차산업화 지구 추진과 관련하여 지구 선정 단계에서 지구의 유형 및 6차산업화 성장 단계를 구분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 운영을 체계화
- 6차산업 관련 생산활동이 집적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이 발현되거나,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품목 혹은 지역단위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6차산업화 지구 선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구 선정 시에 활용
  - 6차산업화 지구 간 성장유형 및 발전단계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6차산업화 지구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시 적

용

- 지역별차이를 고려한 사업 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6차산업화 지구의 성과 점검에 활용

표 6-1. 지역 6차산업 성장 경로에 따른 단계별 지원 방향

	특화품목의 6차산업화	선도 경영체의 가치사슬 확산	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화 품목(1차) 중심</li> <li>• 초기 단계에서는 2, 3차 경쟁력이 낮으며 6차산업 선도 경영체 부족</li> <li>• 2, 3차 제품의 유통, 판매 역량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 경영체가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확산</li> <li>• 초기 지역 주체 연계 수준 낮음, 특화품목 형에 비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마케팅을 통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 브랜드 중심의 6차산업화</li> <li>• 특화도 및 주요 경영체의 시장 경쟁력 낮음</li> </ul>	
지원 방향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차산업 우수 경영체 발굴·육성((예비)인증경영체)</li> <li>• 마을단위 경영체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체의 지역 농가와 연계 강화(농협 지원 등)</li> <li>• 인프라 구축(가공, 판매시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화된 제품·서비스(킬러 콘텐츠)개발</li> <li>• 연구개발, 마케팅 지원</li> </ul>
	성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조직화 및 원물의 지역단위 유통 활성화(농협)</li> <li>• 주요 제품(특화품목, 선도경영체 제품 등)을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li> <li>• 우수·선도 경영체 발굴 지원(인증업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6차산업 제품 판매망 구축 지원 등 유통·판매 확대</li> <li>• 선도 경영체 육성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단위 마케팅, 홍보 강화</li> <li>•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다각화를 통한 지역 내 농가, 경영체들의 가치사슬 참여 확대</li> </ul>
성숙기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차산업화 지구 등을 통해 성장 거점 확보</li> <li>• 지역 내 주체 간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 주체 간 자발적 거래 관계 형성 및 신제품 개발 등의 혁신 활동 활성화</li> <li>• 특화 품목과 연계한 새로운 가치사슬 개발 ex) 순창 장류 + 건강·장수(힐링) 식품·관광</li> </ul>			

□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전략산업 육성 사업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효율적인 지원 정책의 추진 필요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식품클러스터사업 등 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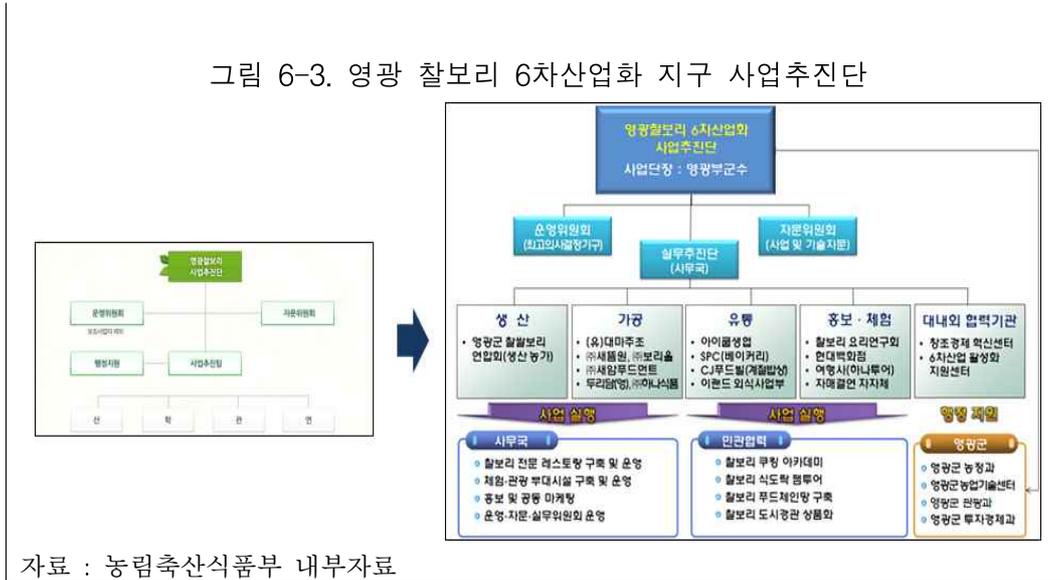
유사 사업을 통해 지역에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된 경우, 집적된 생산주체 및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꾀하는 가운데 6차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에 기 구축된 6차산업 관련 인프라의 변용·재활용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
  - 기존 사업에 의해 구축된 사업단, 협의체 등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6차산업 추진체계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
- 특히 기존 사업에 의해 형성된 지역의 민간 주체들이 주도하는 네트워크에 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지향해야 함.
- 농가 및 사업체 역량, 자본 등이 미비한 농촌 여건상 초창기에 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지역 내 민간 주체들이 6차산업화 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때,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 영광 찰보리 6차산업화 지구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로 지역에 조직된 ‘보리울사업단’이 주축이 되어 6차산업화 사업추진단을 조직
  - 보리울 사업단의 경우 농협 및 민간 경영체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공동 출자 형식)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음.
- 사업단을 중심으로 기존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결과 지역 내 형성된 거래관계 및 지원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보리 가공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새로운 가치사슬의 형성을 꾀함.
  - 전문 레스토랑, 홍보·체험 시설 등 6차산업 관련 공동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내 타 부문(낙농, 유가공) 농가·경영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6차산업의 지역 내 확산을 도모함.

그림 6-3. 영광 찰보리 6차산업화 지구 사업추진단



### 2.3.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혁신 역량 강화

□ 지역단위 6차산업 정책은 개별 농가, 사업체 단위 경쟁력만이 아니라,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

○ 개별 품목이나 특정 부문에 대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지역 전반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육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형성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별 경영체나, 가치사슬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근본적인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함.

□ 다변화된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 6차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 서는 지속적인 R&D 추진 등 혁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신제품 개발, 기능성 검증 등 기존 방식의 R&D와 더불어 홍보, 마케팅 등 6차산업 추진 체계의 혁신을 위한 서비스 R&D를 지속적으로 추진
  - 기존 6차산업 및 유사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연구개발의 경우 직접적인 제품 개발과 관련한 주제로 한정되어 추진되는 경향이 있음.
  - 6차산업화와 관련하여 제품개발과 더불어 홍보, 마케팅, 디자인, 판매 플랫폼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가운데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
  - 융복합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와의 공동 R&D 추진
  - 주요 사례에서도 의료, 바이오메스 등 지역 내 자원과 연계한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제품·서비스·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R&D 등 주체 간 공동의 노력을 기울임.

### □ 지역 내·외 주체 간 협력을 통한 6차산업관련 전·후방 지원 체계 구축

- 농촌 지역의 열악한 역량을 감안하여 지역 내·외부 혁신주체에 대하여 6차산업에 대한 환기가 필요
  - 농촌 지역 내 다양한 혁신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6차산업화 지구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 6차산업 관련 혁신활동 수행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지자체 연구소 등 지역 내 혁신기관 중심으로 R&D를 추진하고, 6차산업 관련 지역 혁신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

### □ 농촌 관광과 관련하여 새로운 혁신 추구를 통해 융복합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다양화·분절화된 관광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촌관광 역시 끊임없이 새롭고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혁신 추구가 필요함.

- 오늘날의 관광 추세는 과거의 대중관광과 달리 관광객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기에 마이크로 관광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나고 있음
  - 그러나 마을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농촌관광으로는 이러한 혁신 추구에 있어 다양한 역량 부족을 절감할 수밖에 없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타 지역과의 자원 연계, 타 분야와의 융복합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
- 농촌 지역 내 문화·예술, 생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와 연계를 통해 6차산업의 지원 방안을 모색
    - 농촌 지역의 문화·예술·경관 자원을 활용한 농촌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 지역의 문화·예술 주체들을 활용한 지역 6차산업 브랜드·제품 디자인
- **식량 품목 중심의 6차산업 추진 방식에서 발전하여,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에 기반한 산업 육성 필요**
-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역 내 전통 문화, 생태 환경, 지질, 경관 등 다양한 무형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 개발을 통해 6차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보다 많은 주체들의 6차산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의 장수(長壽)산업 육성**

- 순창군은 장류 가공을 중심으로 6차산업화 지구로 선정되어, 관련 생산 활동이 집적하고 있으며, 최근 장류와 더불어 지역 연구소를 중심으로 장수 관련 융복합 활동이 성장하고 있음.
  - 건강장수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장류 및 지역 특화 품목의 기능성 규명 및 건강 식단, 식품 꾸러미 개발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후 준비 교육, 건강관리 관련 바른 먹거리 교육, 식문화 체험, 주변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명상·치유 체험 등 ‘건

- 강·장수'를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들을 개발·운영
- 건강장수 체험과학관을 설립하여 관광객 유치 및 체험프로그램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
- 순창건강장수연구소는 외부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고령화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사슬 육성을 지원

그림 6-4.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좌), 체험 프로그램(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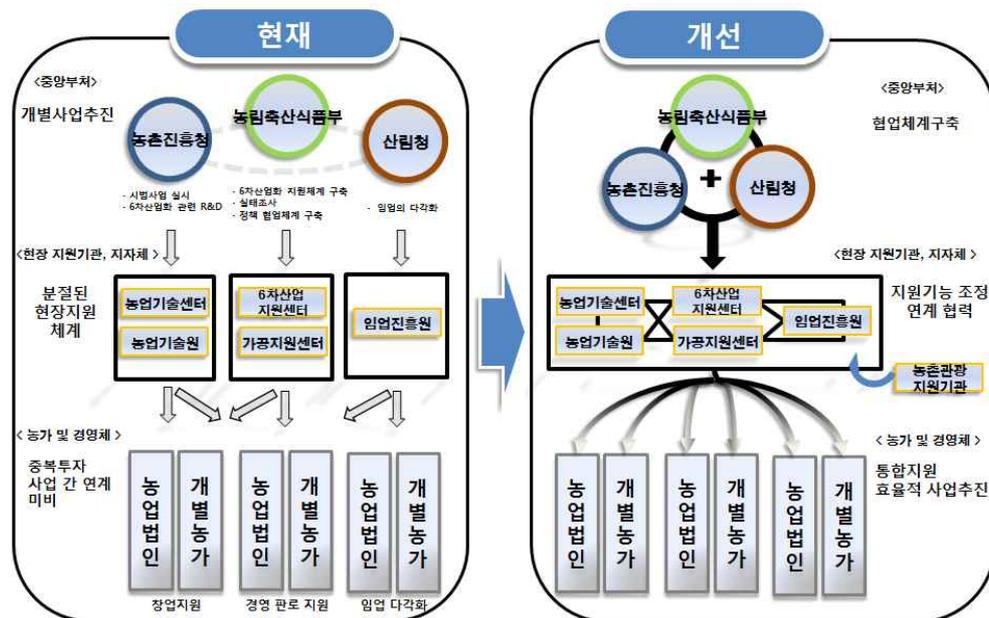
자료 :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제공

## 2.4. 지역 수요 맞춤형 6차산업 지원 체계 구축

- 6차산업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에서 6차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현재 지원체계 하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움.
  - 광역지자체별로 운영 중에 있는 6차산업화 지원센터의 경우 현재 중앙부처의 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에 치중하고 있음.
    - 제한된 인력·자원으로 인해 지역 경영체 지원이나 지역의 6차산업화 전략 수립 등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6차산업화 지원센터의 지역단위 6차산업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 보강 등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의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검토

- 중앙정부, 지자체, 지원기관 등 지역 6차산업화 정책 추진체계에  
서 기관 간 기능 및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관 간 연계·  
협력의 노력도 미흡함.
- 6차산업의 성과가 지역 내에서 전개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지역 특  
성을 고려한 사업기획과 정책수단을 조직하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 농식품부, 농진청 등 정부기관 및 이들과 밀접한 지역단위 조직이 지역  
에서 개별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까닭에 사업 간 중복·비효율의  
문제 발생
  - 농촌관광의 경우 지역 차원의 지원 기관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분절화되어 있는 지역 6차산업화 지원 기  
능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이 요구됨.

그림 6-5. 6차산업 지역 추진체계 개선 방안



- 중장기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농촌산업 및 6차산업 관련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관리하는 추진 주체를 설립하고, 중앙 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에 따라 추진체계가 달라지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산업 관련 지역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어려움.
  -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농촌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농촌산업의 지역별 전략 기획 및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
    - 가칭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사업단’을 두고,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 부 록 1

---

### 지역단위 6차산업 관련 신규 사업 제안

#### □ 농공상 융합 협력체계 구축 지원

- 개요: 농공상 융합 협력을 통해 국산 농수산물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과 협의회 개최 등을 지원
- 대상:
  - ① 지역 식품산업, 농림수산업, 관련산업, 대학, 시험연구기관 등이 서로 연대해 설립한 단체
  - ② 농림어업자 또는 상공업자 등에 의해 조직된 단체
  - ③ 민간사업자 등
- 지원내용
  - 협의회 개최(지원대상자 ①, ②): 새로운 농공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는 협의회와 신상품 전시회 개최
  - 협력 사업에 착수할 인재 육성(지원대상자 ①, ②): 농공상 협력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력과 상품개발력, 판매력 등을 몸에 익히기 위한 연수회 개최
  - 신상품개발·판로확대[지원대상자 ①, ②, ③]: 신상품개발을 위한 시책, 패키지 디자인 설계, 성분분석과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회 출품 등
  - 코디네이터 활동 [지원대상자 ①]: 코디네이터에 의한 농공상 협력사업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
- 지원체계: 지자체에서 계획서 접수 후, 전문기관 혹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심의위원회 활용), 지자체를 통한 지원금 수령

#### □ 농공상 융합을 위한 새로운 사업활동 촉진 지원

- 개요: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농공상 융합사업)의 창출과 경영 개선 도모
- 대상: 농림어업자와 중소기업자, 법인, NGO 등
- 지원내용
  - ① 사업화·시장화 지원사업: 시제품 개발, 시장조사, 전시회 출전, 전문가에 의한 지도·조언 등
  - ② 연계체 구축 지원사업(지원기관형): 연계체 구축, 시장조사, 전문가 파견 등)

#### □ 농공상 융합형 제품 판로개척 지원

- 개요: 농공상 융합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
- 대상: 농공상 융합을 통해 신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판로개척을 목표로 하는 농업법인이나 중소기업 등
- 지원내용
  - ① 일정기간에 걸쳐서 수도권 백화점 등에 상설형식의 판매 스페이스를 설치하고, 신상품 판로개척을 지원
    - 소비자에게 상품 홍보 기회 제공
  - ② 대도시에서 실시하는 전시·상담회를 통해 신상품 판로 개척 지원
    - 출전 노하우 축적, 바이어와의 상담기회 제공

#### □ 농공상 융합형 기술개발사업

- 개요: 농공상 융합형 기술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 대상: 농공상 융합 및 연계를 한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연구기관
- 추진체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 운영

- 중소기업청은 2010년 이미 시행하였음. 농림수산식품부는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기술개발사업에 예산적 참여를 하거나, 별도의 농공상 융합형 기술개발사업 실시

#### □ 농공상 융합형 창업촉진센터

- 개요: 농공상 융합형 기업 창업 촉진 및 보육
- 지원대상: 농공상 융합기업 특화 창업보육센터(창업촉진센터)
- 지원내용: 설비확충비, 디자인 개발, 시제품제작 등 입주기업의 직접사업 화비 중심으로 지원
- 중소기업청은 2010년 이미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2011년부터 지원할 계획임. 농림수산식품부도 중소기업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에 예산적 참여를 하거나, 별도의 농공상 융합형 창업촉진센터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 농공상 융합형 제품 개발을 위한 산학연 연계 지원

- 개요: 산학연 연계를 지원하는 코디네이터가 신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공동연구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신기술 개발을 희망하는 시험연구기관, 농업법인, 중소기업 등
- 지원 내용
  - 농림수산·식품산업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코디네이터가 연구기관, 농업법인, 중소기업 등을 방문하여 연구과제 발굴, 공동연구 그룹 형성, 공동 연구과제로 다른 분야 기관과 기업의 참여 촉진 등의 지원을 하는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연계 형성을 지원

## □ 농공상 융합을 위한 산학 인재 육성 파트너십 사업

- 개요: 농어업과 상공업의 협력에 의해 농어촌지역 문제 해결에 공헌하는 핵심 인재 육성 지원
- 대상: 지역 산학(기업·대학·공익법인 등) 컨소시엄
- 지원 내용(위탁가능): 실천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위탁 기관은 2년 이내
- 컨소시엄 운영 형태
  - 농림수산식품부가 컨소시엄에 위탁
  - 산업계와 교육계가 연계하여 운영관리법인 형성
  - 운영관리법인은 산업계와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 산업계: 구체적 인재상 제시, 현장의 구체적 사례 제시, 기업인 강사 파견, 수강생 파견, 연수현장 제공, 새로운 지식을 현장으로 피드백, 수료생의 적절한 채용
    - 교육계: 기업과제 및 니즈에 맞춘 연구, 기업의 사례를 지식화 및 체계화, 실천적 교육기법의 개발 및 시행, 산업계 니즈를 반영한 교재 개발, 기업인 강사 교육, 산학 공동연구에 의한 문제 해결, 수료생 동문회 결성
    - 컨소시엄(기업과 교육기관 연대): 산업계와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코스설계 및 개발, 교재개발, 학습환경정비, 실습환경정비, 관련조사, 위원회 운영, 실습기자재의 조달, 강사의 조달 등

□ **농공상 융합 활성화를 위한 농림수산물 관련 지적 재산 활용 지원**

- 개요: 농림수산물분야에 있는 지적 재산에 관한 고민과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조언하여 지적 재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 농림수산물 관계자, 중소기업 등
- 지원내용: 농림수산물사업자가 사업 중에 생기는 지적재산에 관한 고민과 문제에 대해 적절한 전문가(변호사, 각종 분야의 어드바이저 등)를 코디네이트하여 파견하고 해결책을 조언하도록 해 농림수산물 사업자가 지적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부 록 2

## 농가경제 조사 시도별 겸업소득 현황

(단위: 원)

지역	2013년			2014년		
	농가소득	겸업소득	농산물제조 가공소득	농가소득	겸업소득	농산물제조 가공소득
서울	24,200,000	7,667	0	35,000,000	2,667	0
부산	48,500,000	6,983,398	497,000	44,800,000	5,846,837	655,870
대구	38,300,000	2,906,933	60,000	37,500,000	3,080,787	0
인천	35,800,000	8,721,239	534,500	42,900,000	9,015,488	294,335
광주	17,800,000	5,878	332,039	13,000,000	372,244	454,286
대전	23,600,000	922,432	89,723	31,000,000	2,303,729	42,500
울산	32,900,000	3,869,160	349,296	41,500,000	6,974,642	410,116
세종	0	0	0	0	0	0
경기	36,900,000	3,518,820	105,202	40,900,000	3,615,902	197,795
강원	34,900,000	2,118,320	1,327,585	38,100,000	2,610,402	1,543,106
충북	37,200,000	4,650,416	2,828,344	38,600,000	4,614,040	3,672,638
충남	32,500,000	3,207,082	245,939	33,400,000	3,368,381	285,679
전북	34,200,000	4,157,212	505,653	38,100,000	3,219,022	614,991
전남	32,700,000	3,762,336	995,512	31,000,000	3,266,171	1,178,147
경북	34,900,000	3,292,514	689,104	36,700,000	3,225,884	967,397
경남	28,400,000	2,262,571	443,772	30,900,000	3,077,479	354,827
제주	44,200,000	4,619,254	71,172	45,600,000	5,157,381	56,209
전국평균	34,618,612	3,510,494	786,786	36,493,912	3,547,173	962,032

지역	2015년			연평균 증감액(2013~2015)		
	농가소득	겸업소득	농산물제조 가공소득	농가소득	겸업소득	농산물제조 가공소득
서울	49,600,000	4,601,000	0	12,700,000	2,296,667	0
부산	38,600,000	5,202,257	576,478	-4,950,000	-890,571	39,739
대구	30,200,000	885,774	0	-4,050,000	-1,010,580	-30,000
인천	36,200,000	7,643,654	427,524	200,000	-538,793	-53,488
광주	18,500,000	448,214	282,357	350,000	221,168	-24,841
대전	23,300,000	2,364,584	76,620	-150,000	721,076	-6,552
울산	49,600,000	7,655,572	573,462	8,350,000	1,893,206	112,083
세종	34,300,000	6,591,599	795,540	17,150,000	3,295,800	397,770
경기	41,700,000	4,167,827	215,109	2,400,000	324,504	54,954
강원	41,300,000	3,084,569	1,646,197	3,200,000	483,125	159,306
충북	38,900,000	4,261,608	3,452,529	850,000	-194,404	312,093
충남	37,700,000	3,109,590	244,592	2,600,000	-48,746	-673
전북	39,900,000	3,000,257	647,391	2,850,000	-578,478	70,869
전남	34,500,000	3,240,759	1,176,649	900,000	-260,789	90,569
경북	38,600,000	2,960,267	917,506	1,850,000	-166,124	114,201
경남	35,300,000	3,354,155	585,424	3,450,000	545,792	70,826
제주	39,700,000	4,551,831	15,033	-2,250,000	-33,712	-28,070
전국평균	38,321,392	3,529,360	967,985	1,851,390	9,433	90,599



## 참 고 문 헌

- 김광선·안 석·박지연. 2016.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 2016. “문화를 생산하고 꿈을 파는 창조산업으로 거듭나야 할 농촌 관광” 웹진 문화관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광선, 2014.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산업정책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 권인혜, 김창호. 2010. 「농촌지역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발전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송미령·권인혜. 2009. 「농촌 및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제도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기태, 김원경, 박주희. 2012. 「농협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윤. 2013. “혁신클러스터와 6차산업을 통한 전북농업발전방안.” 「농정연구센터 논집」 47: pp.95-114.
- 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2016.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농정포커스」 제13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 김성우, 김윤진, 차원규. 2014. 「고랭지배추 6차산업화 지구조성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성우, 전창곤, 김윤진, 변승연. 2014.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추진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성훈, 박동진, 김지현, 이도경, 명수환. 6차산업화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태 진단 및 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사)한국농업경제학회,
- 김용렬, 김태곤, 허주녕, 2014, 「한국 농업의 6차산업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렬, 정은미, 최용욱, 한태녕, 2014, 「농촌산업 통계·동향 분석을 통한 6차산업 발전전략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렬. 2012. 「농어촌산업화 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렬, 허주녕, 홍성학, 이진홍. 2012.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와 정책 수요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렬, 허주녕, 김세중, 정명운, 2011.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원 실효성 확보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 등. 2012. “농어촌 지역의 인구·산업·일자리 동향과 전망.”·농업전망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김태연. 2004.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철민. 2003.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식품산업의 성장과 구조 변화 요인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 허주녕, 2011. 「농업의 6차산업화와 부가가치 창출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2013.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 2014. 「일본의 6차산업화 추진과 특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부. 2006. 「농림업 주요통계」.
- 농림축산식품부. 2016.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농림축산식품부. 2015.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단 선정 및 사업비 편성기준(안)」.
- 농림축산식품부. 2015. 「2016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업·농촌에 창조를 담다-2014 6차산업화성과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2013.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2009.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2009.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2005.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농촌진흥청. 2010. 신시장, 신사업 창출의 농상공연대 사례보고서,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14. 「2014 도시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 농촌진흥청, 2015, 「6차산업 실태조사」, 농촌진흥청.
- 류필선. 2014. “ICT 융·복합을 통해 6차산업으로 이끈다.” 「현대양계」540: pp.140-143.
- 리우 징, 2014, 「중국 농업의 6차산업: 발전과 진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 김종인, 김경덕, 2015,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6차산업화 전문인력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시현·김용렬·권인혜·류경선. 2012. 「농촌관광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시현. 2013.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종훈, 황재희, 이성우. 2014. “농업의 6차산업화가 농가 및 농업법인의 농업 및 농외소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계획학회지」. 20(4): pp.193-208.
- 박주영, 송미령. 2006. “신활력사업 추진의 쟁점과 과제.” 「농촌경제」. 30(1): pp.83-108.
- 변필성, 윤영모. 2011.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낙후지역 발전연구」. 국토연구원.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14. 「2015~2019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보고서.
- 서윤정. 2011.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활성화 사례 및 과제.” 2011 지역생활문화와 농촌관광 심포지엄 발표자료.
- 서윤정. 2013. 「6차산업 융복합 혁명: 융복합 산업의 원리와 실제」. HNCOM.
- 서윤정, 조록환, 이응규. 2011. “전통·향토음식을 활용한 푸드투어리즘 개발.” 「농촌관광연구」18(1): 117-188. 한국농촌관광학회.
- 성주인, 송미령, 정문수, 민경찬, 2016,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 (2/5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심재현, 정도채, 유은영, 2015,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방향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성주인, 정규형, 정문수. 20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농어촌산업 고도화/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활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김광선. 2010. “농어촌정책의 성과와 통합적 추진체계 개편의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 농어촌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 국가 농어촌정책 세미나. 2010년 6월 8일. 광화문 정부청사 국제회의장.
- 송미령·김광선·권인혜. 2008. 「농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실태와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양정임, 이정희, 황대용. 2014. “지역농업자원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 전문가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지」20(3): pp.111-120.
- 양현봉, 6차산업화 정책의 추진실태와 발전과제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유정규, 2013,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역과 발전」 11:pp.12-16.
- 유정규. 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정책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농정연구센터 제126회 월례세미나.
- 이계임, 2016, 한국인의 식품소비 심층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용선, 국승용, 김성우, 서대석, 김종진, 신유선, 노호영, 노수정. 2012,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원예·특작산업 발전전략(1/2년차) : 원예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희, 김종진, 허성윤. 2012.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한성, 이상학, 윤승원. 2012.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사업의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장덕기. 2013. 「전남 로컬푸드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전남발전연구원.
- 장민기, 임성규, 김경환, 강마야, 김기현, 김연민, 이윤미, 정상택, 이지혜. 2007.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본 사업 추진방안 연구」. 전남발전연구원.
- 장양례, 황대용, 김승희, 문명희, 이수진, 장동진, 강희준. “6차산업 현장활용을 위한 외식중심형 농가레스토랑 만족도제고 연구.” 「관광경영연구」61: pp.287-307.
- 전형진, 2016, “중국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 동향과 시사점”, 「월간 중국농업브리프」 2016.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형진, 2016, “중국 관광농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월간 중국농업브리프」 201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2016,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 「농정포커스」 제 123호, 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록환, 방도혁, 서환석. 2013. “농업·농촌 6차산업 정책요구 분석.” 「농어촌관광연구」 20(2): pp.137-152.
- 진혜련, 채혜성. 2013. “농업·농촌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마을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기초조형학연구」14(5): pp.597-609.
- 채필호. 2013. “일본의 소위 「6차산업화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외국법제정보」 2013-4: pp. 32-43.
- 최경환, 김용렬, 허주녕, 한태녕. 2014. 「농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농공단지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지현, 김병률, 김성우, 이동소, 김윤진, 차원규, 박재홍, 강혜정, 안동환. 2013.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5/5차연도) : 식품산업 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해용, 윤유식, 박재덕. 2014. “6차산업으로서 농촌체험관광의 선택속성과 체험 프로그램 선호도가 농촌관광 행동의도 및 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8(2): pp.185-198.
- 한국조경신문. 2015. “정부지원 마을공동체, 7개 부처 13개 사업 유형은?” 2015년 10월 5일 기사.
- 함유근, 김영수. 2010.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대안」. 삼성경제연구소.

- 황만길. 2012.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지역과농업6호』: pp.167-192.
- 행정자치부. 2015. “마을공동체 사업의 유사·중복 요인 걷어내야”. 2105년 9월 16일자 보도 자료.
- 행정자치부. 2007. 「제2기 신활력지역 선정 종합보고서」. 행정자치부.
- European Commission. 2007. A Selection of Leader+ Best Practices.
- 國土交通省, 觀光廳. 2015. 『日本を元氣にする地域の力』

- Melitzazz 홈페이지. <<http://www.melitzazz.gr>>.
- ENRD(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홈페이지. <<http://enrd.ec.eu>>.
- 고치현 우마지촌. <<http://www.vill.umaji.kochi.jp/html/index.htm>>.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네이버, 네이버트렌드분석. <<http://datalab.naver.com/>>.
- 나가노현 아게마츠정 홈페이지. <<http://www.town.agematsu.nagano.jp/gyousei/index.html>>.
- 바이오매스투어 홈페이지. <<http://www.biomass-tour-maniwa.jp>>
- 오카야마현 마니와시 홈페이지. <<http://www.city.maniwa.lg.jp/webapps/www/>>.
- 오카야마현 마니와시 바이오매스 투어 홈페이지. <<http://www.biomass-tour-maniwa.jp/>>.
- 인상유삼저 홈페이지. <<http://en.yxlsj.com>>.
- 한국은행,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 후쿠시마현 가타카타시. <<https://www.city.kitakata.fukushima.jp/>>.
- 히로시마현 세라군 세라마치정. <<https://www.pref.hiroshima.lg.jp/shi-machi/seracho.html>>.

#### <중국연구진 작성 자료 참고문헌>

- 두샨샨(杜姗姗), 차이젠밍(蔡建明), 천이제(陳奕捷). 베이징시 관광농업원 발전 유형에 대한 연구[J]. 중국농업대학학보, 2012, 17(1):167-175.
- 양즈난(楊智勇), 왕춘지(王春枝) 등. 중국 인바운드관광 시장 분석 및 발전대책[J]. 가뭇지역의 자원 및 환경, 2006, 20(6):141-145.
- 리샤오잉(李曉穎). 생태농업관광원의 이론 및 실천[D]. 남경임업대학南京, 2011.
- 리하오광(李昊匡), 차오리즈(喬立志), 자오푸전(趙蒲珍) 등. 베이징시 관광농업산업 발전 연구[J]. 장수상론, 2013(6):37-39.
- 리진차이(李金才), 장스공(張士功), 치우젠쿤(邱建軍) 등. 중국 생태농업모델에 대한 분석연구[J]. 중국생태농업학보, 2008, 16(5):1275-1278.
- 리상위(李翔宇), 장룡(張龍). 중국관광농업현황 분석 및 대책 연구[J]. 지우장학원학보(자연과학판), 2006, 21(1):116-119.

- 마바오(馬瑩), 장리시아(張莉俠), 마자(馬佳) 등. 상하이시 레저농업 발전 연구 - 문화 자원의 각도에서[J]. 상하이농업학보, 2011, 27(4):38-42.
- 자쎬칭(郝宣卿), 자차오빈(郝巧彬). 중국 레저관광농업 발전 전략 및 전망[J]. 농업전망, 2008, 4(11):19-21.
- 주화핑(朱華平). 상하이 향촌관광업 발전 연구[J]. 상하이농촌경제, 2015(4):15-19
- 뤄윈(羅文). 베이징시 창핑구 관광농업 발전 대책 연구[D]. 중국농업과학원, 2007.
- 장원(張文), 펑바이자(馮百俠). 중국 관광농업 발전 현황 및 대책[J]. 허베이연합대학학보(사회과학판), 2010, 10(6):77-79.
- 리쥘구(李君茹). 중국 관광농업 발전 현황 및 대책 분석[J]. 농촌경제, 2004(11):11-15.
- 장지에(張杰). 중국 관광농업발전에 대한 연구[J]. 안후이농업과학, 2009, 37(9):4153-4154.
- 인단홍(尹丹紅), 쉬펑(徐峰). 베이징시 관광농업 발전 현황 및 분석[J]. 농업과기 및 정보:현대원림, 2013(2):25-30
- 왕완페이(王婉飛), 왕민셴(王敏嫻), 저우단(周丹) 등. 중국 관광농업 발전 태세[J]. 경제지리, 2006, 26(5):854-856.
- 순이후이(孫藝惠), 양춘둥(楊存棟), 천텐(陳田) 등. 중국 관광농업 발전 및 발전 태세[J]. 경제지리, 2007, 27(5):835-839.
- 시용샤오홍(熊曉紅). 발달지역의 레저관광농업의 발전 동력 기제에 대한 연구- 저장성을 사례로[J]. 기술경제 및 관리연구, 2011(4):107-110.
- 니촨(倪川). 관광농업상대원 계획설계 이론연구 및 실천[D]. 푸젠농림대학, 2010..
- 왕상춘(王向春). 베이징시 관광농업 발전 연구[D]. 중국농업대학, 2005.
- 우제(巫杰). 레저관광농업단지 계획 연구[D]. 남경농업대학, 2013.
- 샤오징(肖靜). 중국 관광농업발전의 대책연구[D]. 시난대학, 2006.
- 천구이(陳佳). 지역 특색의 관광농업단지 건설모델에 대한 연구[D]. 시베이농과기대학, 2015.
- 치우리(邱莉). 베이징시 레저관광농업 발전 연구[D]. 중국농업과학원, 2012.
- 장메이(張梅). 베이징시 레저관광농업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연구[D]. 중국농업과기원, 2009.
- 쉬샨(徐姍). 베이징관광농업단지 계획에 대한 연구[D]. 베이징임업대학, 2013.
- 딩충밍(丁忠明), 순징수이(孫敬水). 중국 관광농업 발전에 대한 연구[J]. 중국농촌경제, 2000(12):27-31.
- 위레이밍(于雷鳴). 과자위촌 ‘지주제개혁’ 실록[J]. 마을원회 주임, 2010(17):17-17.
- 시용빙첸(熊丙全), 리첸(李謙), 리우이룽(劉益榮) 등. 중국 관광농업의 문제점 및 발전대책 [J]. 쓰촨농업과기, 2011(3):5-7.

- 차오옌잉(曹艷英), 마룬화(馬潤花), 쉬민잉(徐民英). 중국 관광농업 문제점 및 발전방향[J]. 아열대 자원과 환경 학보, 2004, 19(3):21-24.
- 샤오진차이(邵錦彩), 리우웬링(劉元玲). 관광농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J]. 과기정보, 2010(25):821.
- 송밍(宋明). 중국관광농업 발전에 대한 문제 및 분석[J]. 내몽고농업과기, 2006(2):1-3.
- 송진핑(宋金平), 가이원싱(盖文興). 중국관광농업발전의 문제점과 대책[J]. 중국소프트과학, 2003(2):31-34.
- 천구이잉(陳桂英). 중국 관광레저농업 발전의 경쟁우위 및 모델[J]. 현대농업과기, 2012(1):330-330.
- 황차오(黃超). 레저관광농업 발전모델에 대한 연구[J]. 현대원예, 2011(19):18-18.
- 리원룡(李文榮). 농업관광단지 발전모델에 대한 연구[J]. 농업기계화연구, 2006(8):5-7.
- 리진(李瑾). 중국 관광농업의 지역 모델/기능구/규획에 대한 연구[J]. 중국농업자원 및 구역 계획, 2002, 23(2):48-49.
- 엔리자오(嚴力蛟). 중국 레저관광농업의 모델 및 발전 대책[J]. 신농촌, 2007(2):6-7.
- 위메이주(余美珠), 웨슈치(袁書琪). 관광농업 개발모델 및 개발대책에 대한 연구[J]. 푸젠사범대학 학보(철학사회과학판), 2004(6):62-67.
- 리우쥔(劉俊), 리징촨(李敬川), 왕시우펀(王秀芬) 등. 중국도시관광농업의 발전 개황[J]. 허베이임업과기, 2011(5):63-64.
- 량리우커(梁留科), 우츠팡(吳次芳), 차오신샹(曹新向) 등. 관광농업 발전의 조건 및 대책에 대한 연구[J]. 시베이농림과기대학 학보西北(사회과학판), 2002, 2(4):64-68.
- 텐펑쥘(田逢軍). 최근 중국관광농업 연구 총술[J]. 지역연구 및 개발, 2007, 26(1):107-112.
- 장슈푸(張樹夫), 탕지강(唐繼剛). 관광농업 개발 중 문제점 및 대책[J]. 농업경제, 2001(6):18-19.
- 왕지첸(王繼權). 관광농업 발전 시 주의해야 하는 문제점[J]. 생태경제, 2001(1):43-45.
- 우옌화(吳雁華), 푸화(傅樞). 관광농업발전에 대한 문제점 및 문제 연구[J]. 수도사범대학학보(자연과학판), 2002, 23(2):71-74.
- 귀환청(郭煥成), 리우쥔핑(劉軍萍), 왕윈차이(王云才). 관광농업 발전 연구[J]. 경제지리, 2000, 20(2):119-124.
- 주옌후이(朱彦慧). 양자부 민간예술대관원 관리모델 연구[D]. 시안석유대학, 2014
- 리우밍궈(劉明國), 샤오젠청(邵建成) 등. 레저농업의 문제 및 쟁점 《농민일보》 (2015년05월16일 07판)



中国农村地区加工产业市场动向及成功案例研究  
중국 6차산업화 정책 동향 및 농촌 가공산업 육성  
사례

张照新(农业部农村经济研究中心)

장 자오신(중국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中韩6次产业合作研究

中国农村地区  
加工产业市场动向及成功案例研究

2016. 12

农业部农村经济研究中心



# 目录

一、发展农村地区加工产业的政策规划 .....	247
(一) 农村地区加工业发展方向 .....	247
(二) 农村一二三产融合的概念、内涵及主要模式 .....	248
(三) “十三五”农产品加工业与农村三产融合的发展规划 .....	250
1. “十三五”农产品加工业的发展目标 .....	250
2. 发展农产品加工业的主要任务 .....	253
3. 农产品加工业的产业布局 .....	256
4. 农产品加工业有关工程项目 .....	260
二、农村地区加工产业的市场现状 .....	263
(一) 农产品加工业的发展势头 .....	263
(二) 中国消费者对农水产加工食品的消费嗜好 .....	265
三、农村地区加工产业发展的成功案例及因素 .....	266
(一) 农村地区农产品加工业发展的成功案例 .....	266
案例一: 生产部门延伸模式——山东寿光蔬菜产业链 .....	266
案例二: 加工部门推进模式——辽宁辉山农产品加工产业链 .....	267
案例三: 食品加工业对价值增值的带动与再分配——以内蒙古塞宝燕麦食品公司为例 .....	267
案例四: 龙头企业带动模式——青岛东生集团股份有限公司 .....	268
(二) 农产品加工企业的成功因素分析 .....	270
1. 发挥龙头企业的主导作用 .....	270
2. 扩大生产规模, 强化行业联系, 形成规模经济优势 .....	271
3. 从全产业链的视角来谋划企业发展 .....	271



## 中国农村地区加工产业市场动向及成功案例研究

中国经济正在向形态更高级、分工更复杂、结构更合理的阶段演化,经济发展进入新常态。面对新常态,加快促进农村地区农产品加工业及一二三产业融合发展、转型升级,是“十三五”期间“三农”工作的重中之重。农村地区的农产品加工业具有行业覆盖面宽、产业关联度高、中小微企业多、带动农民就业增收作用强等特点,是农业现代化的重要标志,是一二三产业融合发展的关键环节,是经济社会发展的战略性支柱产业,是保证国民营养安全健康的民生产业。近年来,农村地区新型农业经营主体不断兴起,使得包括农产品加工和流通一体化的二三产业成为了农村经济发展新的亮点。

### 一、发展农村地区加工产业的政策规划

#### (一) 农村地区加工业发展方向

2014年中央农村工作会议审时度势,提出要把产业链、价值链等现代产业组织方式引入农业,首次明确要求促进一二三产业融合互动,并首次把推进农村一二三产业融合发展写入2015年的中央“一号文件”。文件指出:“增加农民收入,必须延长农业产业链、提高农业附加值。农产品加工业作为连接初级农产品生产与居民最终消费的中间产业,与农业与农村发展高度关联。发达国家发展的历史证明,农产品加工业是比农业规模大、效益高、贡献多的产业,也是广大发展中国家工业化初期和中期优先发展的领域。”

新中国成立以后,中国农产品加工业有了长足的发展,并初步形成了农产品加工业工业体系。“十一五”以来,农产品加工业实现了飞速发展,2005—2014年农产品加工业主营业务收入由3.71万亿元上升到18.48万亿元(现价),按照可比价计算年均增长率为17.6%。农产品加工业与农业的产值之比由2005年的1.1:1上升到2014年的2.0:1。然而,在中国经济社会发展由高速转向中高速增长的新常态下,农产品加工业面临着专用原料缺乏、初加工水平低、技术装备水平落后、结构布局不够合理、税赋重融资难、生

产成本上升过快、出口难度加大等多重问题挑战。“十三五”期间,农产品加工业发展面临的核心问题和任务要求是,如何促进农产品加工业由规模数量扩张向质量提升和结构优化方向转变,由资源简单消耗向技术升级和品牌战略方向转变,由分散无序发展向产业化和集聚区方向转变,实现产业持续健康发展。

“十三五”时期,农产品加工业及农村一二三产业融合发展规划的发展思路可以概括为:以农业为出发点,通过技术创新、组织创新、模式创新和体制创新,将农业发展与农产品加工业、休闲农业、农业服务业等涉农产业发展更好地结合起来,融为一体,相互促进,实现共赢,从而加快推进现代农业建设,充分挖掘农业内部增收潜力,促进农民就业增收,持续缩小城乡居民收入差距。为实现这一战略构想,“十三五”时期需要完成以下四个方面的重点目标:

一是延伸农业产业链条,打造农业全产业链。支持主产区发展畜牧业、粮食加工业和农产品精深加工。加快发展农业服务业,创新流通方式和流通业态,推进电商与实体流通相结合,完善农产品流通骨干网络,推进各种形式的对接直销。

二是充分发挥农业的多功能性,积极开发农业多种功能,挖掘乡村生态休闲、旅游观光、文化教育价值,拓展农业发展空间。要扶持发展一村一品、一乡(县)一业,壮大县域经济。

三是将新技术、新的经营业态、新的商业模式等引入农业,积极利用电商、物流等现代商业模式对农业生产经营方式进行改造。

四是完善利益联结机制,让农民从产业链增值中获取更多利益,合理分享初级产品进入加工销售领域后的增值利润。

## (二) 农村一二三产融合的概念、内涵及主要模式

在中国经济步入新常态、农业农村发展进入新阶段的背景下,我国工农关系和城乡关系继续发生重大变化,特别是现代科技和市场形态加快对传统种养业经营理念的改造,单纯重视初级产品生产使农业发展越来越难以为继,农业产前、产中、产后更加紧密衔接,产加销、农工贸环环相扣,生产专业

化、产品商品化、服务社会化迅速发展,这就要求我们在重视农业生产的同时,必须高度重视与农业生产密切相关的各产业的发展,高度重视生产、加工、销售有机结合和相互促进,大力推进农业产业化经营。因此,中央农村工作会议提出:要把产业链、价值链等现代产业组织的方式引入农业,促进一二三产业的融合互动等推进农业现代化的重大部署。农村三产融合旨在将二三产业与第一产业交互共同发展,这一概念的提出为我国未来农业的发展指明了方向,加速了我国农业现代化的进程。要加速农村三产融合的推进,首先要从理论和实践两个角度进行界定,明确三产融合的概念和要求,并对三产融合的机理和机制进行探索,这样既可以为后续的研究有的放矢的提供目标保障,同时也能为后续三产融合的实践操作指明方向。

农村三产融合是党和国家根据中国农业的现状审时度势提出的新的发展方向,理论界并没有现成的成果。我们可以借鉴产业融合的基本理论,从实践的角度进行界定:农村三产融合指的是第一产业的农业为基本依托,通过产业联动、产业集聚、技术渗透、体制创新等方式,将资本、技术及资源要素进行跨界集约化配置,综合发展农产品加工业等第二产业;同时使农业生产、农产品加工业与销售、餐饮、休闲农业和其他服务业有机的整合在一起,实现农村各产业有机融合、协同发展,最终实现农业产业链的延伸、产业范围的扩展,让农户共享增值收益。

概括起来,我国现存农业与二三产业融合发展有以下四种主要模式:一是第一产业内部产业整合型融合,比如种植与养殖相结合;二是农业产业链延伸型融合,即以第一产业的农业为中心向前后链条延伸,将种子、农药、肥料供应与农业生产连接起来,或将农产品加工、销售与农产品生产连接起来,或者组建农业产加销一条龙;三是农业与其他产业交叉型融合,比如农业与加工业的融合形成品牌农业,及农业与文化、旅游业的融合而来的休闲农业等;四是先进要素技术对农业的渗透型融合,比如信息技术的快速推广应用,既模糊了农业与二三产业间的边界,也大大缩短了供求双方之间的距离,使得网络营销、在线租赁托管等成为可能。

农村三产融合与产业融合具有同根性,三产融合可以借鉴传统产业融合的理论基础。但农村三产融合更多的是社会和经济的概念,根据经济发展的普遍规律,发生在第一产业的增加值所占份额很小,绝大部分的增加值发生在二、三产业。因此,在发展农业的同时兼顾农产品加工业与其他服务业,最终

使得各产业协同发展,延伸农业产业链,扩大农村的产业范围,最终实现城乡一体化发展,提高农户的收益水平。

### (三) “十三五”农产品加工业与农村三产融合的发展规划

“十二五”时期,中国农业农村经济形势持续向好,农产品加工业快速发展,产业融合新主体新业态新模式大量涌现,为“十三五”发展打下坚实基础。为了进一步发挥农产品加工业引领带动作用,推进农村一二三产业融合发展,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有关部署要求,农业部于2016年11月14日研究编制了《全国农产品加工业与农村一二三产业融合发展规划(2016—2020年)》(农加发〔2016〕5号,简称《规划》)。《规划》指出,农产品加工业连接工农、沟通城乡,行业覆盖面宽、产业关联度高、带动农民就业增收作用强,是产业融合的必然选择,已经成为农业现代化的重要标志、国民经济的重要支柱、建设健康中国保障群众营养健康的重要民生产业。

#### 1. “十三五”农产品加工业的发展目标

##### (1) 基本原则

《规划》对发展农产品加工业的基本原则作出了明确要求,一是坚持创新驱动,激发融合活力。把创新作为引领产业融合发展的第一动力,着力实施创新驱动战略。树立“大食物、大农业、大资源、大生态”观念,深入开展产业融合理论创新;大力发展合作社、股份合作社和股份制,逐步推进产业融合制度创新;二是坚持协调发展,优化产业布局。把协调作为产业融合发展的内在要求,着力推进产业交叉融合。要增强发展的协调性,以市场需求为导向,充分发挥市场机制和市场主体的作用,推动农业产前产中产后和农产品初加工、精深加工及综合利用加工协调发展,引导优化产业布局,拓宽发展空间,促进城乡、区域、产业间的协调发展。

**三是**坚持绿色生态,促进持续发展。把绿色作为产业融合发展的基本遵循,着力促进可持续发展。牢固树立节约集约循环利用的资源观,通过绿色加工、综合利用,实现节能降耗、环境友好,形成“资源—加工—产品—资源”模式,发展营养安全、绿色生态、美味健康、方便实惠的食品产业;遵循生产生活生态并重,发展培育新业态;坚持绿色富国、绿色惠民,推动形成产业融合的绿色发展方式。**四是**坚持开放合作,拓展融合空间。把开放作为产业融合发展的必由之路,着力推动产业“走出去”和国际产能合作。鼓励引导农产品加工、流通等涉农企业参与双向开放,充分利用好国内国外两种资源、两个市场,搭建区域间、国际间投资贸易合作平台,加强国际交流合作,推动产品、技术、标准、服务走出去。**五是**坚持利益共享,增进人民福祉。把共享作为产业融合发展的本质要求,着力促进农民增收。通过支持政策与带动农民分享利益挂钩,激励企业承担社会责任,大力发展农民共享产业,多渠道促进农民增收;完善企农利益联结机制,形成利益共同体、命运共同体和责任共同体。

## (2) 发展目标

到2020年,产业融合发展总体水平明显提升,产业链条完整、功能多样、业态丰富、利益联结更加稳定的新格局基本形成,农业生产结构更加优化,农产品加工业引领带动作用显著增强,新业态新模式加快发展,产业融合机制进一步完善,主要经济指标比较协调、企业效益有所上升、产业逐步迈向中高端水平,带动农业竞争力明显提高,促进农民增收和精准扶贫、精准脱贫作用持续增强。

首先,要实现农产品加工业引领带动作用显著增强。农产品加工业产业布局进一步优化,产业集聚程度明显提高,科技创新能力不断增强,质量品牌建设迈上新台阶,节能减排成效显著。到2020年,力争规模以上农产品加工业主营业务收入达到26万亿元,年均增长6%左右,农产品加工业与农业总产值比达到2.4:1。主要农产品加工转化率达到68%左右,其中粮食、水果、蔬菜、

肉类、水产品分别达到88%、23%、13%、17%、38%；农产品精深加工和副产物综合利用水平明显提高。规模以上食用农产品加工企业自建基地拥有率达到50%，专用原料生产水平明显提高。

其次，促进新业态新模式发展更加活跃。农业生产性服务业快速发展，“互联网+”对产业融合的支撑作用不断增强，拓展农业多功能取得新进展，休闲农业和乡村旅游等产业融合新业态新模式发展更加活跃。到2020年，力争农林牧渔服务业产值达到5500亿元，年均增速保持在9.5%左右；企业电商销售普及率达到80%；农产品电子商务交易额达到8000亿元，年均增速保持在40%左右；休闲农业营业收入达到7000亿元，年均增长10%左右，接待游客突破33亿人次。

另外，确保产业融合机制进一步完善。农业产加销衔接更加紧密，产业融合深度显著提升，产业链更加完整，价值链明显提升。产业融合主体明显增加，农村资源要素充分激活，股份合作等利益联结方式更加多元，农民共享产业融合发展增值收益不断增加。城乡之间要素良性互动，公共服务均等化水平明显改善，产业融合体系更加健全，培育形成一批融合发展先导区。

表 1“十三五”农产品加工业发展目标

主要指标					
类别	指标	2015年	2020年	年均增长	
农产品加工业	规模以上农产品加工业主营业务收入（万亿元）	19.4	26	6%	
	农产品加工业与农业总产值比 1	2.2 : 1	2.4 : 1	[0.2]	
	主要农产品加工转化率（%）	总体	65	68	[3]
		其中：粮食	85	88	[3]
		水果	20	23	[3]
		蔬菜	10	13	[3]
		肉类	16	17	[1]
水产品	35	38	[3]		
加工企业自建基地拥有率 2（%）	25	50	[25]		
新业态	农林牧渔服务业产值（亿元）	4300	5500	9.5%	
	加工企业电商销售普及率 3（%）	50	80	[30]	
	农产品电子商务交易额（亿元）	1500	8000	40%	
	休闲农业年接待旅游人次（亿人次）	22	33	8.4%	
	休闲农业年营业收入（亿元）	4400	7000	10%	

注：[]为五年累计增加数。

1. 农产品加工业与农业总产值之比=农产品加工业总产值/农业总产值,其中农产品加工业总产值以农产品加工业主营业务收入数据为基础计算。

2. 加工企业自建基地拥有率=规模以上食用农产品加工企业中拥有自建基地的企业数量/规模以上食用农产品加工企业总数量。

3. 加工企业电商销售普及率=规模以上食用农产品加工企业开展电子商务交易的企业数量/规模以上食用农产品加工企业总数量。

## 2. 发展农产品加工业的主要任务

### (1) 做优农村第一产业,夯实产业融合发展基础

首先,发展绿色循环农业。立足实际,从时间和空间上合理布局,科学引导不同类型区域农业生产,促进粮食、经济作物、饲草料三元种植结构协调发展。大力发展种养结合循环农业,加快构建粮经饲统筹、农牧结合、种养加一体、一二三产业融合的现代农业产业体系。积极发展渔业和林下经济,推进农渔、农林复合经营。围绕适合精深加工、休闲采摘的特色农产品,发展优势特色产业,形成产加销结合的产业结构。

其次,推进优质农产品生产。以农产品加工业为引领,稳步发展农业生产。在优势农产品产区,组织科研单位开展农产品加工特性研究,筛选推广一批加工专用优良品种和技术,促进农产品加工专用原料生产。引导鼓励农产品加工企业及新型农业经营主体通过直接投资、参股经营、签订长期合同等方式,带动建设一批标准化、专业化、规模化原料生产基地。推进无公害农产品、绿色食品、有机农产品和农产品地理标志产品生产,加强农业标准体系建设,严格生产全过程管理,建立从农田到餐桌的农产品质量安全监管体系,提高标准化生产和监管水平。

再次,优化农业发展设施条件。推进高标准农田建设,不断提高农产品加工专用原料生产能力。加强农产品仓储物流设施建设,不断健全以县、乡、村三级物流节点为支撑的农村物流网络体系。支持农村公共设施和人居环境改善,不断完善休闲农业和乡村旅游道路、供电、供水、停车场、观景台、游客接待中心等配套设施建设。将产业融合发展与新型城镇化建设有机结合,引导农村二三产业向县城、重点乡镇及产业园区等集中,培育农产品加工、商贸物流等专业特色小城镇,促进城乡基础设施互联互通、共建共享。

加强产业融合发展与城乡总体规划、土地利用总体规划有效衔接,完善县域产业空间布局和功能定位。通过农村闲置宅基地整理、土地整治等新增的耕地和建设用地,优先用于产业融合发展。

### (2) 做强农产品加工业,提升产业融合发展带动能力

第一,大力支持发展农产品产地初加工。以粮食、果蔬、茶叶等主要及特色农产品的干燥、储藏保鲜等初加工设施建设为重点,扩大农产品产地初加工补助政策实施区域、品种范围及资金规模。鼓励各地根据农业生产实际,加强初加工各环节设施的优化配套;积极推动初加工设施综合利用,建设粮食烘储加工中心、果蔬茶加工中心等;推进初加工全链条水平提升,加快农产品冷链物流发展,实现生产、加工、流通、消费有效衔接。

第二,全面提升农产品精深加工整体水平。支持粮食主产区发展粮食特别是玉米深加工,去库存、促消费。培育主食加工产业集群,研制生产一批营养、安全、美味、健康、方便、实惠的传统面米、马铃薯及薯类、杂粮、预制菜肴等多元化主食产品。加强与健康、养生、养老、旅游等产业融合对接,开发功能性及特殊人群膳食相关产品。加快新型非热加工、新型杀菌、高效分离、绿色节能干燥和传统食品工业化关键技术升级与集成应用,开展酶工程、细胞工程、发酵工程及蛋白质工程等生物制造技术与装备研发,开展信息化、智能化、成套化、大型化精深加工装备研制,逐步实现关键精深加工装备国产化。

第三,努力推动农产品及加工副产物综合利用。重点开展秸秆、稻壳、米糠、麦麸、饼粕、果蔬皮渣、畜禽骨血、水产品皮骨内脏等副产物梯次加工和全值高值利用,建立副产物综合利用技术体系,研制一批新技术、新产品、新设备。坚持资源化、减量化、可循环发展方向,促进综合利用企业与农民合作社等新型经营主体有机结合,调整种养业主体生产方式,使副产物更加符合循环利用要求和加工标准;鼓励中小企业建立副产物收集、处理和运输的绿色通道,实现加工副产物的有效供应。

### (3) 做活农村第三产业,拓宽产业融合发展途径

首先,大力发展各类专业流通服务。健全农产品产地营销体系,推广农

超、农社（区）、农企、农校、农军等形式的产销对接,鼓励新型农业经营主体在城市社区或郊区设立鲜活农产品直销网点。鼓励各类服务主体把服务网点延伸到农村社区,向全方位城乡社区服务拓展。配合有关部门落实在各省（区、市）年度建设用地指标中单列一定比例,专门用于新型农业经营主体进行农产品加工、仓储物流、产地批发市场等辅助设施建设。继续实施农产品批发市场、农贸市场房产税、城镇土地使用税优惠政策。培育大型农产品加工、流通企业,支持开展托管服务、专项服务、连锁服务、个性化服务等多元服务。

其次,积极发展电子商务等新业态新模式。推进大数据、物联网、云计算、移动互联网等新一代信息技术向农业生产、经营、加工、流通、服务领域的渗透和应用,促进农业与互联网的深度融合。支持流通方式和业态创新,开展电子商务试点,推进新型农业经营主体对接全国性和区域性农业电子商务平台,鼓励和引导大型电商企业开展农产品电子商务业务。积极协调有关部门完善农村物流、金融、仓储体系,充分利用信息技术逐步创建最快速度、最短距离、最少环节的新型农产品流通方式。积极探索农业物联网应用主攻方向、重点领域、发展模式及推进路径,稳步开展成功经验模式在国家级、省级、县级等层面推广应用。

#### （4）创新融合机制,激发产业融合发展内生动力

第一,培育多元化产业融合主体。强化家庭农场、农民合作社的基础作用,促进农民合作社规范发展,引导大中专毕业生、新型职业农民、务工经商返乡人员以及各类农业服务主体兴办家庭农场、农民合作社,发展农业生产、农产品加工、流通、销售,开展休闲农业和乡村旅游等经营活动。培育壮大农业产业化龙头企业,引导其发挥引领示范作用,重点发展农产品加工流通、电子商务和社会化服务,建设标准化和规模化的原料生产基地,带动农户和农民合作社发展适度规模经营。鼓励和支持工商资本投资现代农业,促进农商联盟等新型经营模式发展。

第二,打造产业融合领军型企业。鼓励一批在经济规模、科技含量和社会影响力方面具有引领优势的企业突出主业,大力发展农产品精深加工、流通服务、休闲旅游、电子商务等,推进产业化经营,增进融合,带动产业链前延后伸,挖掘各环节潜力,创新多种业态,增强核心竞争能力和辐射带动能力,

充分发挥在农村产业融合发展中的领军作用。

第三,发展多类型产业融合方式。延伸农业产业链,积极鼓励家庭农场、农民合作社等主体向生产性服务业、农产品加工流通和休闲农业延伸;积极支持企业前延后伸建设标准化原料生产基地、发展精深加工、物流配送和市场营销体系,探索推广“龙头企业+合作社+基地+农户”的组织模式。引导产业集聚发展,创建现代农业示范区、农业产业化示范基地和农产品加工产业园区,培育产业集群,完善配套服务体系。积极打造产业融合先导区,推动产业融合、产村融合、产城融合,加快先导区内主体间的资产融合、技术融合、利益融合,整合各类资金,引导集中连片发展,推动加工专用原料基地、加工园区、仓储物流基地、休闲农业园区有机衔接。大力发展农村电子商务,推广“互联网+”发展模式,支持各类产业融合主体借力互联网积极打造农产品、加工产品、农业休闲旅游商品及服务的网上营销平台。

第四,建立多形式利益联结机制。创新发展订单农业,引导支持企业在平等互利基础上,与农户、家庭农场、农民合作社签订购销合同、提供贷款担保、资助农户参加农业保险,鼓励农产品产销合作,建立技术开发、生产标准和质量追溯体系,打造联合品牌,实现利益共享。鼓励发展农民股份合作,加快推进将集体经营性资产折股量化到农户,探索不同区域的农用地基准地价评估,为农户土地入股或流转提供依据,探索形成以农民土地经营权入股的利润分配机制。强化企业社会责任,鼓励引导从事产业融合的工商企业优先聘用流转出土地的农民,提供技能培训、就业岗位和社会保障,辐射带动农户扩大生产经营规模、提高管理水平,强化龙头企业联农带农激励机制。健全风险防范机制,规范工商资本租赁农地行为,建立土地流转、订单农业等风险保障金制度,鼓励制定适合农村特点的信用评级方法体系,制定和推行涉农合同示范文本,加强土地流转、订单等合同履行监督。

### 3. 农产品加工业的产业布局

根据各地资源禀赋和区域布局,因地制宜推进融合发展。依托自然和区位优势,大力发展优质原料基地和加工专用品种生产,积极推动科技研发、电子商务等平台建设,培育优势产业集群。依托重点加工产业,合理布局初加工、精深加工、副产物综合利用以及传统食品加工业,推进冷链物流、智能

物流等设施建设,大力发展新型商业营销模式。依托重点产业和优势产业集群,推动产业融合试点示范,培育一批集专用品种、原料基地、加工转化、现代物流、便捷营销为一体的农产品加工园区和产业融合先导区,不断提升产业融合发展水平。

### (1) 融合发展区域功能定位

首先,在粮食生产核心区,大力发展优质原料基地及加工专用品种生产,积极推动大宗粮食作物产地初加工、传统加工技术升级与装备创制。在东北、长江中下游等稻谷主产区,黄淮海、长江中下游等小麦主产区,东北、华北等玉米主产区,东北、华北、西北和西南等马铃薯主产区,东北和黄淮海等大豆主产区,长江流域和北方等油菜主产区,东北农牧交错区及沿黄河花生主产区,重点开展优质原料基地建设。在东北、华北、长江中下游、大宗粮油作物生产核心区形成初加工产业带,引导生产合作组织、创新联盟发挥更大作用,建立更加专业、便捷的粮油生产仓储、物流、金融、信贷平台与服务网络,打造自然生态与传统文化结合的休闲农业发展模式。

其次,在经济作物生产优势区,加强加工专用原料基地建设,加快电子商务平台建设,积极推动经济作物产地初加工、精深加工和综合利用技术升级与装备创制,大力促进休闲农业发展。在渤海湾和西北黄土高原地区发展苹果原料基地;在长江上中游、浙闽粤和赣南湘南桂北、鄂西湘西发展柑橘原料基地;在华南与西南热区、长江流域、黄土高原、云贵高原、北部高纬度、黄淮海与环渤海等地发展蔬菜原料基地;在长江流域、东南沿海、西南地区发展绿茶、乌龙茶等茶专用原料基地,在华南、西南热区发展热带水果原料基地。在东南沿海、环渤海等地以及西部地区分别建设速冻果蔬、果蔬浆及果蔬干粽初加工产业带;在热带、亚热带、东北地区建设果蔬制汁制罐及副产物高值化加工产业带;在河北、山西、山东、福建、浙江、广东、广西、江苏、新疆等地建设果蔬干制及营养健康食品加工产业带;在中原、西北、贵州及江浙闽地区等建设茶饮料及速溶茶加工产业带。在新疆、长江及黄河流域等棉花主产区和广西、云南等糖料主产区,发展优质原料基地及加工产业带。推动果蔬茶原料企业电子商务平台及物流体系建设,积极拓展“农产品生产+精深加工+休闲旅游”的融合模式,大力发展休闲农业。

再者,在养殖产品优势区,进一步加强加工原料基地建设,大力发展产地

初加工和高值化综合利用,物流体系和信息网络共享平台。稳步推进养殖标准化和适度规模养殖,在东北、中部、西南的生猪主产区,在中原、东北、西北、西南的肉牛主产区,在中原、中东部、西北、西南的肉羊主产区,在东北、内蒙古、华北、西北、南方和大城市郊区奶业主产区,在华北、长江中下游、华南、西南、东北等肉禽优势产区,在华东、华北、华中、华南、西南禽蛋主产区,分别建设肉、奶、蛋制品优质原料生产基地。在沿海地区积极保护滩涂生态环境,鼓励发展生态养殖、深水抗风浪网箱养殖和工厂化循环水养殖,开展海洋牧场建设,拓展外海养殖空间,打造生态“海上粮仓”,提供优质海产品食材。在内陆地区稳定宜养区域养殖规模,充分利用稻田、低洼地和盐碱地资源,积极发展生态健康养殖,建设优质淡水产品生产基地。在沿海和长江中下游地区建设优质水产品加工产业带。推动产学研结合,大力推进技术创新与先进装备研发与推广,建立市场导向、资源聚集的加工产业集群。在原料主产区建立初加工和高值化综合利用产业带。

第四,在大中城市郊区及都市农业区,例如在京津冀、长三角、珠三角、东南沿海、长江经济带等大中城市郊区及都市农业发展区建立主食加工、方便食品加工、休闲食品加工产业带以及农产品精深加工与综合利用产业带,培育一批大型农产品加工企业、产业园区,形成具有国际竞争优势的产业带。结合大中城市郊区及都市农业区农业资源及农产品加工产业带,创新农业文化、农耕(渔事)体验、教育科普、生态观光、人文创意、饮食文化、生活服务、餐饮服务等休闲农业和乡村旅游发展模式,鼓励建设中央主食厨房、休闲农园、农产品及加工品的仓储物流设施及配送体系、网上营销等设施平台,满足城乡居民多元化、个性化的消费需求。

第五,在贫困地区实施精准扶贫、精准脱贫,立足当地资源优势,因地制宜发展农产品加工、休闲农业和乡村旅游,探索支持贫困地区、革命老区、民族地区、边疆地区和生态涵养地区的产业扶贫新模式,加快农村贫困劳动力向加工业、休闲农业及服务业的转移。以农民合作社、企业等新型经营主体为龙头,立足当地资源,与农户建立稳固的利益联结机制,发展农产品生产、加工、储藏保鲜、销售及休闲、服务等融合经营,确保贫困人口精准受益。适当集中布局,培育重点产品,以县为单元建设特色产业基地,以村(乡)为基础培植特色拳头产品,实现就地脱贫,提高扶贫实效。

## (2) 融合发展重点产业结构

首先,对于粮棉油糖加工业,依托我国粮棉油糖资源与产业优势,着力建设优质粮棉油糖原料基地,大力培育推广粮油加工专用品种;健全粮棉油糖加工科技创新体系,积极推动粮棉油糖产地初加工、精深加工、副产物综合利用以及传统食品工业化,提升粮棉油糖加工企业节能降耗、提质增效的水平与能力;适应市场消费需求,丰富粮棉油糖加工产品种类,改善供给产品结构 with 质量;建立粮油加工产品信息平台、交易市场,发展新型商业营销模式;推行低温储粮、散粮流通的粮食贮运模式,借助互联网、物联网等信息技术,大力推进智能仓储、智能物流。

其次,对于果蔬茶加工业,依托我国原料资源优势 and 气候特点,加强不同地区果蔬茶加工专用原料基地建设,提升果蔬茶加工冷链技术及设施装备水平。积极发展果蔬鲜榨汁、浓缩果浆和新型罐头加工;发展节能提质果蔬干制、速冻果蔬、鲜切果蔬、食用菌等加工和果酒酿造、果蔬副产物综合利用技术;调整茶叶加工产品结构,加大精深加工产品比重,开发茶饮料、功能性茶产品,加强茶资源高效利用。

再次,对于畜禽加工业,加快推进畜禽适度规模养殖,建设优质原料生产基地,提高主要畜产品自给水平和产品质量。大力推进畜禽屠宰工艺升级,淘汰落后产能;强化减损降耗、分等分级,中式肉制品加工技术革新与工业化装备研制与推广,着重开展骨、血、脏器和皮毛羽等畜禽副产物的综合利用;发展适合不同消费者需求的特色乳制品和功能性产品;重点推广洁蛋加工技术,开发专用蛋液、蛋粉等系列产品。结合物联网、移动互联网、云计算等信息化技术,完善仓储(冷链)物流建设,提高产品可追溯性,保障食品安全。

另外,对于水产品加工业,培育组织化、标准化、品牌化、优质化、信息化水产品产业链。开展传统水产品加工产业的升级改造;开发标准配方预制食品、预包装食品、方便食品、休闲食品、功能性食品等现代水产食品,提高淡水、海水产品精深加工和高效利用产品的比例;实现水产品加工的自动化、智能化、信息化、品牌化。发展种类齐全、功能完备、技术先进的水产品现代冷链物流体系。

### (3) 农产品加工园区和产业融合先导区建设

农产品加工园区的建设,结合优势特色农产品区域和现代农业示范区布局规划,对农产品加工业整体以及加工园区进行科学合理的布局,引导产业向重点功能区和产业园区集聚。坚持集聚发展和融合互动,打造集专用品种、原料基地、加工转化、现代物流、便捷营销为一体的农产品加工园区,培育标准化原料基地、集约化加工园区、体系化物流配送和营销网络“三位一体”、有机衔接、相互配套、功能互补、联系紧密的农产品加工产业集群,以资产为纽带,以创新为动力,通过产业间相互渗透、交叉重组、前后联动、要素聚集、机制完善和跨界配置,实现园区内部产业有机整合、紧密相连、一体推进,形成新技术、新业态、新商业模式,带动资源、要素、技术、市场需求在农村的整合集成和优化重组,最终实现产业链条和价值链条延伸、产业范围扩大、产业功能拓展和农民就业增收,努力提升农产品加工园区建设水平,为农产品加工业创新发展和转型升级提供有力支撑。

产业融合先导区的建设,以农产品加工园区、现代农业示范区、都市现代农业样板区、农业产业化示范基地、休闲农业和乡村旅游示范县为载体,推动产业融合试点示范。组织实施试点示范项目,在粮食主产区、特色优势农产品产区、老少边穷地区、加工业优势区,优先培育一批产业融合先导区。在标准化原料基地、集约化加工园区和体系化物流配送及市场营销网络等开展产业融合先行先试,促进各有关产业和环节交叉融合、相互配套、功能互补、联系紧密,促进城(镇)区、加工园区、原料产区互动发展,吸引人口聚集和公共设施建设。重点支持新型农业经营主体发展加工流通和直供直销,建设原料基地和营销设施、休闲农业及电子商务公共服务设施、农产品及加工副产物综合利用设施。通过培育示范,探索路径、总结经验,不断提升产业融合发展总体水平,逐步形成产业链条完整、功能多样、业态丰富、利益联结紧密、产城融合更加协调的新格局。

## 4. 农产品加工业有关工程项目

### (1) 专用原料基地建设工程

组织实施专用原料基地建设工程,在确保谷物基本自给、口粮绝对安全的前提下,与市场需求相适应、与资源禀赋相匹配,为农产品加工业、休闲农

业和乡村旅游等产后环节提供优质农产品。重点开展专用品种、原料基地、农产品生产标准化等建设,工程内容主要有培育专用品种,发展原料基地和推进农产品标准化生产。

在培育专用品种和发展原料基地上,加强基础设施条件建设,开展农产品加工特性研究,推进良种重大科研联合攻关,培育和推广一批适应机械化生产、优质高产多抗广适、适合精深加工、休闲采摘的新品种。加大投入力度,整合建设资金,创新投融资方式,支持企业与农户多种形式合作,鼓励社会资本发展适合企业化经营的现代种养业,建设一批专用原料基地。

在推进农产品标准化生产方面,主要推进农业标准化示范区、园艺作物标准园、标准化规模养殖场(小区)、水产健康养殖示范县(场)建设,发展无公害农产品、绿色食品、有机农产品和农产品地理标志产品,加快健全从农田到餐桌的农产品质量和食品安全监管体系,实现农产品生产标准化、专业化、规模化,为农产品加工、流通提供质量安全的原料来源。

## (2) 农产品加工业转型升级工程

组织实施农产品加工业转型升级工程,促进农产品加工业与农村产业交叉融合发展。以转变发展方式、调整优化结构、提高质量效益为主线,推动规模扩张向质量提升、要素驱动向创新驱动、分散布局向集聚发展转变,更加注重发展质量和效益、供给侧结构性改革、促进绿色生产方式、消费方式、资源环境和集约发展,构建政策扶持、科技创新、人才支撑、公共服务、组织管理等体系,在初加工、精深加工技术集成、副产物综合利用、主食加工、质量品牌提升、加工园区建设等重点领域取得新突破新进展新成效。为了实现农产品加工业转型升级,主要有以下项目工程建设。

首先是农产品产地初加工设施建设。通过实施农产品产地初加工补助政策,引导各地在农产品优势产区,集中连片建设一批农产品产地初加工设施,促进当地农产品减损提质、农民就业增收、农产品市场稳定供应、农业产业链延伸和产业融合发展。力争到“十三五”末,进一步扩大补助资金规模和实施区域,新增果蔬贮藏能力800万吨、果蔬烘干能力260万吨,实现“减损增供、农民增收、农业增效、品质提升”的目标。

其次是主食加工业能力建设。以促进粮食等主要农产品的加工转化、

满足城乡居民食物消费升级的多样化需求为目标,加快发展主食加工业,鼓励发展农产品生产、保鲜及食品加工、直销配送或餐饮服务一体化经营,在农产品产地和大中城市郊区培育主食加工产业集群,建设一批技术水平高、带动力强的主食加工示范企业和主食加工产业集聚区,实现相关产业融合发展。力争通过5年努力,在大中城市郊区,发展1000个为城乡居民生活配套的中央厨房;在县级区域,发展2000个为县域居民生活配套的传统面米等谷物类主食加工生产线;在优势农产品产地,发展300个预制菜肴加工项目。

第三是质量品牌提升。实施农产品加工业质量品牌提升行动。大力提升标准化生产能力,制定和完善相关标准,引导企业严格执行强制性标准,积极采用先进标准,推行标准化生产。大力提升全程化质量控制能力,鼓励企业开展先进的质量管理、食品安全控制体系认证,逐步建立全员、全过程、全方位的质量管理制度,实现全程质量管理和控制。大力提升技术装备创新能力,加强企业原始创新和引进吸收再创新。大力提升品牌培育创建能力,加快培育一批能够展示“中国制造”和“中国服务”优质形象的品牌。

第四是农产品加工技术集成基地建设。面向农产品主产区农产品加工转化和县域发展农产品精深加工,以解决粮油、果蔬茶、畜产品和水产品等农产品加工产后损失严重、综合利用率低、水耗能耗高、自动化程度低、风味与营养成份损失严重等技术难题为重点,有效整合全国农产品加工科技资源,依托国家农产品加工技术研发体系及具有较强研究基础的科研机构,通过中央投资为主的方式建设农产品加工技术集成基地,开展共性关键技术工程化研究和核心装备创制,孵化形成一批“集成度高、系统化强、能应用、可复制”的农产品加工成套技术装备,提升农产品加工集成创新与熟化应用的科研能力,满足农产品加工企业共性关键技术需求。到2020年,力争建成40个农产品加工技术集成基地。

第五是农产品加工综合利用试点示范。以农产品及加工副产物综合利用试点县、试点园区、试点企业为重点,以财政贴息和税收减免为杠杆,撬动金融资本和社会资本投入,引导和促进副产物的产地资源化利用。着力开展秸秆、粮油薯、果蔬、畜禽、水产品加工副产物的循环利用、全值利用和梯次利用,集成、示范和推广一批综合利用成熟技术设备,通过工程、设备和工艺的组装物化,对秸秆微生物腐化有机肥及过腹还田、稻壳米糠、等外果及皮渣、畜禽骨血、水产品皮骨内脏等进行综合利用试点推广,完善产品标

准、方法标准、管理标准及相关技术操作规程等。

## 二、农村地区加工产业的市场现状

中国农产品加工业的发展条件日益成熟,规模水平不断提高。2015年全国规模以上农产品加工企业7.8万家,完成主营业务收入近20万亿元,“十二五”年均增长超过10%,农产品加工业与农业总产值比由1.7:1提高到约2.2:1,农产品加工转化率达到65%。创新步伐加快,初步构建起国家农产品加工技术研发体系框架,突破了一批共性关键技术,示范推广了一批成熟适用技术。产业加速集聚,初步形成了东北地区和长江流域水稻加工、黄淮海地区优质专用小麦加工、东北地区玉米和大豆加工、长江流域优质油菜籽加工、中原地区牛羊肉加工、西北和环渤海地区苹果加工、沿海和长江流域水产品加工等产业聚集区。带动能力增强,建设了一大批标准化、专业化、规模化的原料基地,辐射带动1亿多农户。

### (一) 农产品加工业的发展势头

1.农产品加工业年主营收入。从统计数据看,“十二五”期间农产品加工业依然保持较快的发展势头。2010年规模以上农产品加工业企业完成主营业务收入10.59万亿元,同比增长了25.3%;2011年完成主营业务收入13.05万亿元,同比增长23.2%;2012年完成主营业务收入15.17万亿元,同比增长16.2%;2013年完成主营业务收入17.21万亿元,同比增长13.4%;2014年实现主营业务收入18.48万亿元,同比增长8.2%。2014年已提前完成“十二五”规划18万亿产值的目标任务。“十二五”期间,农产品加工业年均增长速度达到了13%,比“十二五”规划目标高出2个百分点。采用趋势外推与指数平滑等时间预测方法,估计“十三五”期间农产品加工业主营业务收入年均增长速度有望保持在8%左右(见表2)。

2.主要农产品加工转化率。根据《农产品加工业十一五规划》和《农产品加工业十二五规划》,2010年我国主要农产品加工转化率(初加工以上)达到60%。其中粮食加工转化率达到75%,水果超过15%,蔬菜达到5%,

肉类达到15%,水产品超过35%;主要农产品深加工比例(二次以上加工的产品占其产量的比例)达到40%以上。预计到2015年,我国主要农产品加工率达到65%以上,其中粮食达到80%,水果超过20%,蔬菜达到10%,肉类达到20%,水产品超过40%;主要农产品精深加工比例达到45%以上。据此估算到2020年,我国主要农产品加工率有望达到70%以上,其中粮食达到85%,水果超过30%,蔬菜达到20%,肉类达到30%,水产品超过45%;主要农产品精深加工比例有望达到50%以上。

3.农业与农产品加工业产值比。2010年,农产品加工业产值与农业产值之比为1.7:1,2011年这一比率上升为1.78:1,2012年为1.88:1,2013年进一步上升为1.97:1。预计2015年,农产品加工业产值与农业产值之比为有可能达到2.2:1。如果“十三五”期间,农产品加工业主营业务收入保持8%左右的年均增长速度,农业总产值保持5%左右的年均增长速度,那么到“十三五”末,农产品加工业产值与农业产值之比为有可能达到2.5:1,年均增长0.06左右。

4.农业产业化经营组织带动农户数。根据《全国农业和农村经济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2010年全国共拥有农民专业合作社数37.9万家,实有入社农户2900万户;拥有各类农业产业化经营组织25万个,“十一五”期间年均增长13%,带动农户数1.07亿户,“十一五”期间年均增长4.23%。预计到“十二五”末,农业产业化经营组织带动农户数有望达到1.3亿户,“十二五”期间年均增长3.97%。据此估算到2020年,农业产业化经营组织带动农户数可能达到1.4亿户。

表2 农产品加工业发展情况及“十三五”指标值预测

指标	2010	2015E	2020E	“十三五”年均增长
农产品加工业年主营收入(万亿)	10.59	19.96	29.33	8%
主要农产品加工转化率(%)	65	70	75	[5]
其中:粮食	75	80	85	[5]
水果	15	20	25	[5]
蔬菜	5	10	15	[5]
肉类	15	20	25	[5]
水产品	35	40	45	[5]
农业与农产品加工业产值比	1.7:1	2.2:1	2.5:1	0.06
农业产业化经营组织带动农户数(亿户)	1.07	1.3	1.4	2%

## （二）中国消费者对农水产加工食品的消费嗜好

随着经济社会的持续快速发展,随着新型工业化、信息化特别是新型城镇化的推进,城乡居民的生活方式和消费结构正在发生新的重大阶段性变化:对农产品加工品的消费需求快速扩张,占农产品消费的比重不断提高;对食品及农产品质量安全和品牌农产品消费的重视程度明显提高,农产品消费需求迅速分化,市场细分、市场分层对农业发展的影响不断深化;农产品消费日益呈现功能化、多样化、便捷化和安全化的趋势,个性化、体验化、高端化日益成为农产品消费需求增长的重点;小众化或特色化的土特产品消费日益受到中高收入消费者的青睐。

农产品消费需求的变化给中国食品加工业的发展带来新机遇的同时,也带来了更严峻的挑战,特别是中国的食品安全问题,一直是困扰中国农产品加工业发展的一大障碍。近年来,中国国内的瘦肉精、毒生姜、三聚氰胺事件等一系列农产品安全事件的接连发生,严重挫伤了消费者的信心,安全农产品逐渐成为消费者的主导需求。食品的认证标识越来越成为区分优质与劣质产品的重要信号,为消费者提供安全可靠的食品安全保证。经过十多年的发展,中国食品质量安全认证已经呈现出以产品认证为主、体系认证为辅的格局。在产品认证方面,主要开展了无公害农产品认证、绿色食品认证和有机产品认证等;在体系认证方面,主要开展了HACCP(危害分析与关键控制点)认证、GAPS良好农业规范)认证、ISO22000(食品质量安全管理)认证等。随着中国城乡居民生活水平的不断提高,消费者对农水产加工制品的消费逐渐从量的满足向质的需求而转变。消费者对农水加工食品的质量安全关注程度越来越高,食品的原产地、品牌化和认证体系逐渐成为消费者较为关注的因素。

根据中国国内学者的消费者调查发现,中国城市消费水平总体上高于农村消费水平,城市消费者对农产品质量要求高于农村消费者。但由于目前中国消费者的整体收入水平还不高,人们用于高档农产品消费支出的增加能力十分有限,大多数消费者在购买食品(或农产品)时仍然以价廉作为优先选择的标准(闰文杰等,2007),而安全农产品相对于常规农产品来说,具有较高的生产成本,必然导致安全农产品价格相对于常规产品来说偏高。以有机农产品为例,其价格一般比同类常规农产品的价格高2-6倍(康明丽等,2003),因此,在价差较大的情况下,消费者对安全农产品难以接受,甚至将安全农产品归为

奢侈品(罗少郁,2007)。也有一些研究结果显示,随着消费者对食品安全担心程度的增加,他们对无公害、绿色和有机农产品的支付意愿也在提高(谢敏,2007;戴迎春等,2006;王志刚等,2007)。

在中国现有的研究文献中,有关消费者对国外农水产加工品的消费偏好的研究存在不足,但根据现有的信息来看,中国消费者对进口农水产加工食品的认可程度普遍高于中国国内加工食品,特别是近年来受韩剧的影响,年轻消费者对韩国食品的关注度越来越高,特别是韩剧中涉及到的食品成为年轻消费群体的热爱,香蕉咖啡就是一个典型的例子。随着市场的不断开放和中韩FTA的影响,相信韩国农水产加工食品能够发挥技术水平和安全性优势,进一步吸引广大中国消费者的选择。

### 三、农村地区加工产业发展的成功案例及因素

农村一二三产业融合背景下,对农产品加工业的要求更高,第一产业的个体不再孤军奋战,自我组建新的经济合作组织,而是在农产品加工企业的带动下,进行有组织、有针对性、规模化、集中化的专业生产,这成为未来的趋势,并作为第二产业、第三产业的后盾发挥更大的作用。三个产业间联动效应加强,共享市场信息,战略上相互扶持,空间上通过规模化的农民组织的农业合作组织实现对接,创新“农产品加工龙头企业+合作社+农户”等多种经济组织形态,逐步打破传统农业“小生产、大市场”的矛盾症结。据调查显示,产业融合越完善的地方,农业经济组织的创新越积极,农业产业链越科学,产业链的延伸也就越多样化,在一二三产业融合中的枢纽地位越明显,下面以几个现实中的组织创新模式作为例证。

#### (一) 农村地区农产品加工业发展的成功案例

##### 案例一:生产部门延伸模式——山东寿光蔬菜产业链

寿光市位于山东半岛中部,是中国“蔬菜之乡”,近年来大力推行蔬菜产业化,抓生产的标准化、产品国际化,对蔬菜生产进行全程质量控制,创出

了“企业连基地、基地带农户”的产加销一条龙模式。寿光市的蔬菜产业链形成和拓展路径是在丰富的自然资源基础上形成的,蔬菜种植产业集群是产业链的核心,它的存在衍生出了下游产业,吸引了上游产业。在蔬菜种植产业集群的带动下,下游的蔬菜加工、配送、销售业和上游的生产资料产业以及农业高端研发不断产生和发展,上游产业如农药、化肥、农膜、种子、种苗、钢筋等生产资料产业陆续入驻并最终形成完整的蔬菜产业链。

山东寿光蔬菜产业链条是典型的生产部门延伸模式,该模式适用于农业自然资源丰富的地区,在农业种植或养殖基地和农户共同组成的产业集群基础上向第二、三产业延伸。

### 案例二:加工部门推进模式——辽宁辉山农产品加工产业链

辽宁辉山农业科技园区坚持以科技为先导,以项目为中心,不断创新体制机制,探索出“农产品加工带动型工业反哺农业”新模式。辉山农业科技园区的农业产业链是一种通过引进农产品加工企业,着力发展特色鲜明的主导产业,通过相关农业高端研发壮大农产品加工产业集群的模式。为保证初级农产品质量和供应的永续性,农产品加工龙头企业与生产初级农产品的产业协会签订协议,形成“公司+产业协会+基地+农户”的组织形式。

辽宁辉山农业科技园区根据自身农业产业化经营格局,初步构建了农产品加工产业链。各类农产品加工企业的聚集,使得辉山农业科技园区成为循环产业链关键一环,企业间协同联动效应加强,联结了上游的生产组织和下游的各类加工企业。例如,中粮集团的入驻,既联结了上游的粮食生产基地,又与食品加工等下游企业保持了联动,最终形成了以中粮为核心的全产业链,即从原料生产到农产品深加工,最后到餐桌的全生命周期循环产业链。

### 案例三:食品加工业对价值增值的带动与再分配——以内蒙古塞宝燕麦食品公司为例

塞宝燕麦食品有限公司是内蒙古塞宝集团旗下最大的子公司,位于呼和浩特市金川开发区塞宝工业园。公司拥有最先进的加工设备,拥有燕麦片、燕麦米、速食杂粮面条、莜面粉加工四条自动化生产线,燕麦片日生产能力

50吨,燕麦米日生产能力40吨,在全国50多个大中城市都设有代理商。公司具有自主进出口经营权,产品远销韩国、日本、美国、南非等国家。经过多年的发展,2006年该公司被评为“呼和浩特市农业产业化龙头企业”,2011年被评为“内蒙古农业产业化龙头企业”。

塞宝公司充分利用当地的燕麦资源优势,积极投入燕麦种植基地的建设,从产品源头保证优良品质,掌握着市场的主动权。公司燕麦产品所用原料主要来自于租用20年土地建设的有机燕麦种植基地,分布于武川、和林、凉城县等地。基地独特的无污染生态环境,造就了燕麦原料的优良品质。2010年,公司在武川县上秃亥乡建立了有机燕麦种植基地,与20多家合作社建立了合作关系。公司通过合同确定种植标准,建立种植户档案,对基地农户实行统一供种、统一技术指导、统一农资供应、统一收购结算,严格实行轮作制度,使农民的种植规范化、标准化,保证了燕麦质量的稳定性和优质性。每年收获的燕麦全部由塞宝公司收购,既保障了合格的原料供应,也带动了农户的增收。据统计,2011年,内蒙古武川县燕麦产区农民种植的燕麦单产为1387.5千克/公顷,价格1.3元/斤,亩产值240.5元,多数使用的是自留种。相比而言,塞宝公司的有机燕麦种植基地选用优良的燕麦品种“燕科1号”、“坝菽1号”,亩产达到2250千克/公顷,公司按1.8元/斤的价格收购,亩产值为540元。使基地农户的亩产值增加了300元左右,户均收入增收3282元,辐射带动农户1000户左右。这样既提高了农民的种植积极性,又使农产品的增值部分也留在了农村,增值利益得到重新分配,公司和农户实现了共享。

随着公司规模扩大,为保证公司的原料供应,公司加大了基地的建设力度,探索多种种植模式,计划采取“企业+协会+农户”的产业经营模式,建设3万公顷的燕麦种植基地,使更多的农民直接受益。此外,公司经常邀请内蒙古农牧业科学院、内蒙古农业大学的燕麦科研人员为合作农户进行燕麦种植技术的培训,提高了合作农户的种植积极性,为特色农业的集约化种植和对当地的就业起到了示范作用。

#### 案例四:龙头企业带动模式—青岛东生集团股份有限公司

##### 1、产业带动,打造花生优势产业格局

东生集团的花生加工史可以追溯到1985年,组建之初加工量不足1万吨,

经过十余年的滚动发展,公司花生加工量已达到10万吨,并带动起莱西市大大小小的花生加工企业400多家,莱西市花生产业从基地种植、收购、工厂深加工、出口、花生副产品加工以及运输、包装、机械生产等各个环节社会自然分工达到非常细的程度,生产加工流程从小型工厂粗加工、中型工厂的精加工到大型工厂的深加工形成一个完整的产业链,花生产业链链条布局精细,市场条件下的社会分工明细,具有产业化生产特有的成本优势,形成区域化花生产业优势格局,成为全国花生加工最为集中的地区。

## 2、建设标准化基地,带动农户增收致富

加入WTO后,为冲破花生出口的贸易壁垒限制,东生集团坚持从原料抓起,从2001年开始先后与2万农户签订了生产购销合同,建设了6万亩优质出口花生品种基地,通过推行标准化生产,大大提高了花生原料品质。2008年度公司将生产基地扩大到8万亩,其中3万亩于通过了国家无公害产品认证、A级绿色食品认证,1200亩基地通过国家有机食品认证,并且承担了“山东省出口农产品绿卡行动计划”中出口欧盟花生示范基地的建设及出口欧盟花生良好农业操作规范的制定。目前,公司基地已达10万亩,签约农户12000余户。

在推进生产标准化过程中,公司定期聘请农业部门专家对农户进行田间地头式的培训,包括从选种、种植、日常管理、储藏等全过程的培训,灌输质量至上的理念,提高其种植水平、管理水平及科学意识。通过在基地推行标准化管理,从选种到种植到收获,包括平时施肥、用药等日常管理都做到有记录可查,有数据可依,可大大提高花生品质,逐步引导农户走科学种植的路子。

## 3、自主创新,提高产品科技含量

创新,是企业发展的不竭动力。在做好标准化生产的同时,公司根据市场需要的变化,不断推进生产技术进步和研发创新,大力发展花生精深加工业务,先后引进了包括花生酱、果仁烤熟制品、脱衣制成品等多个系列产品的生产技术及设备,极大地提高了企业的生产效率及研发能力。2003年,公司组建研发中心,2006年,公司研发中心被认定为“青岛市企业技术中心”,2007年,被国家农业部等认定为“国家农产品加工技术研发花生专业分中心”,公司每年研发投入都在300万元以上。由公司研发中心自主研发的“低温制取

低过氧化值花生脱衣制品生产技术”经国内外专家鉴定,技术先进性达到国际先进水平、国内一流水平,该技术被列入“国家星火科技计划”、“全国科技富民强县行动计划”,该技术能从生产环节中极大的降低黄曲霉毒素产生的几率,同时,保持了花生所富含的天然蛋白的活性及花生所固有的香味和口感,可以有效突破花生出口中的技术壁垒,完全突破向欧盟等地区长途海上运输的“瓶颈”,成功实现花生低温脱衣制品在国内的大规模生产,大大提高产品附加值。

#### 4、全面细化管理体系,打造知名花生品牌

品牌,是创造财富的巨大动力,动力之源来自于活力,活力之源来自于质量。公司以全面质量管理为总抓手,建立以HACCP、ISO9001为核心的质量管理和质量保证体系,逐级进行分解、细化,坚持从每一个员工、每一道工序、每一批产品做起,严把产品质量关,以健全的“溯源管理体系”为追溯保障,提高企业的管理水平及产品品质控制能力,为打造企业品牌提供强有力的质量保障。公司主导品牌“TOPSEN”“汇生园”分别被认定为山东著名商标、山东名牌、山东省重点培育的出口名牌,“汇生园”商标正在申请中国驰名商标。

## (二) 农产品加工企业的成功因素分析

通过以上农产品加工企业的成功案例可以看出,各类农产品加工企业通过创新发展理念、统筹要素配置、延伸产业链条、完善利益机制、发展新型业态、拓展多种功能,打破农产品生产、加工、销售相互割裂的状态,形成各环节融会贯通、各主体和谐共生的良好产业生态。以产业化经营组织为引领,以利益联结机制为纽带,通过产业联动、要素聚集、技术渗透、体制创新,促进农业产前、产中和产后以及休闲服务各环节的有机结合,迎合了当前中国农业转型升级的发展需求,也是中国农业企业的未来发展新趋势。从整体来看,中国农产品加工企业的成功,需要具备以下几点不可缺少的因素。

### 1. 发挥龙头企业的主导作用

农业龙头企业具有开拓市场、引导消费、带动生产、增加附加值的综

合功能,适应和引领新常态。通过与生产基地和农户的有机联合,创新龙头企业与农户之间的合作经营模式,建立完善的利益联结机制,以利益平衡驱动合作农户合理分享产业化经营成果,以农业科技创新促进原料生产基地升级改造,实现原料生产的集约化、规模化和标准化,降低加工食品的生产成本,提高产品的品质竞争力,确保产品的市场占有率,从而推动农产区农产品加工工业的健康发展。

作为相互独立的经济主体,公司与农户之间最主要和最普遍的联结方式是合同(契约)。“龙头”企业与生产基地、村或农户签定产销合同,规定签约双方的责权利:企业对基地和农户具有明确的扶持政策,提供全过程服务,设立产品最低保护价并保证优先收购;农户按合同规定定时定量向企业交售优质产品,由“龙头”企业加工,出售制成品。这种龙头企业主导方式下的农业产业链能够实现市场价格机制和非市场的组织机制相结合,利益分配比较灵活,组织成本低;有利于通过工商业的“龙头”公司向农业引入资金和现代技术要素。在产业发展不稳定、市场风险较高的阶段,龙头企业主导型发展模式具有较大的适应性。

## 2. 扩大生产规模,强化行业联系,形成规模经济优势

农产品加工企业通过和养殖基地和家庭农场或合作社等农畜产品生产主体建立合作,获得稳定的原料供应基地和商品来源,实现区域化生产,引进先进技术,扩大规模,取得内部规模经济;通过产业链之间的功能联系(行业联系)形成经营主体外部的规模经营,产生外部规模经济。行业联系是指同行企业间的物质与信息的交换与流通,同种产业或一组密切相关的产业集聚在一起,既能够缩减产供销的时空距离,降低运输成本,减少能耗和物流时间,节约物力、财力,同时也有利于各种生产要素的集中使用,有利于生产协作和专业化,从而形成外部规模经济优势。

## 3. 从全产业链的视角来谋划企业发展

从全产业链的视角来谋划企业发展,积极向前后延伸,通过与上下游的主体建立紧密的联结关系,来打通产业链各环节。与此同时,从各个环节挖掘

新的增值空间,将价值提升的理念渗透到企业生产经营的全过程,实现价值链的提升。既要延伸产业链长度,提高农产品精深加工比例,实现价值增值;又要拓展产业链宽度,增加综合利用程度,使各产业环节和产业功能得以补充;更要增加产业链厚度,壮大农业产业规模,通过拓展农业功能增加经营收益。不仅如此,在利益分配上,让农民拥有获得感,切实享受到了更多的增值收益,形成了互利共赢的紧密型利益联结关系,让农民分享到了价值链增值的收益。在产业链建设的同时,紧跟科技新前沿,瞄准消费新趋势,将“互联网+”、“生态+”等现代新理念引入生产经营活动,创新生产方式、经营方式和资源利用方式,将农业的边界扩展到更广的范围,实现了生产、生活和生态共赢。

2013年开始国家统计局停止公布了工业总产值指标,一般以主营业务收入来表征行业总体规模,2013年数据是根据农产品主营业务收入与工业总产值比例经过换算得出,这一比例一般保持在98%左右。

## 利用农村资源,激活地区观光

농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사례 및 시장 동향

金书秦(农业部农村经济研究中心)

진 슈친(중국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 利用农村资源,激活地区观光

金书秦

农业部农村经济研究中心

## 1. 中国观光农业发展概况

观光农业是以农业和农村为载体,集生产、游憩、体验、教育、保健、经济、文化和环保等为一体的新型现代多功能产业。它的属性是农业旅游与农业观光,是乡村旅游的一种重要类型,它将农业观光、农事体验、生态休闲、自然景观、农耕文化等有机结合起来,既满足了城市居民崇尚自然、回归自然、享受自然的需要,又促进了乡村旅游业的崛起。改革开放以来,随着经济社会快速发展,人民生活水平提高,人们不断追求生活品位和质量,越来越多的城市居民向往乡村风景美丽、空气清新、人与自然和谐相处的状态,到农村大自然去观光、休闲、度假的愿望强烈,为中国观光农业迅速发展迎来了新的契机。

中国的观光农业最早始于20世纪70年代的台湾。当时,台湾农业为了解决农业萎缩、农产品过剩、外国产品向台倾销等一系列问题,出现了通过开放农园供游客品尝和购买农产品的观光园。1990年和1994年又分别制定了“发展休闲观光农业计划”和“发展都市农业”的先驱计划,从技术、补助、辅导、宣传等各方面大力扶持休闲观光农业,至20世纪90年代来已取得了举世瞩目的成就,观光农业的发展居世界领先地位。

相对于台湾,中国内地的观光农业起步较晚,中国的休闲观光农业是在市场需求促动下,在农业发展急需调整产业结构、寻找新的经济增长点的情况下应运而生的,虽然起步较晚,但发展十分迅速。20世纪80年代后期,改革开放较早的深圳首先开办了荔枝节,主要目的是为了招商引资,随后开办了采摘园,取得了较好的效益。一些大都市如北京、上海、广州、深圳、武汉、珠海和南京等地相继效仿建立各具特色的观光农业园,如北京朝来农艺园和

上海孙桥现代农业科技观光园等。进入20世纪90年代,随着中国经济和旅游产业的飞速发展,中国内地的观光农业进入了一个高速发展的阶段。1998年国家旅游局以“华夏城乡游”作为主题旅游年,使“吃农家饭、住农家屋、做农家活、看农家景”成了农村一景。

经过30多年的发展,中国大都市区观光农业园现在已进入快速发展阶段。截止到2010年,北京已有观光农业园1303个,目前全国各种类型农业园区就有3000多个,全国农家乐已超150万家,规模以上休闲农业园区超过1.8万家,全国年接待人数已达4—5亿人次。全国休闲农业与乡村旅游年营业收入已超过1200亿元以上,带动1500万农民受益。各种类型的农业园区遍布全国31个省市,这些农业园由于所处的地域不同,区域环境、经济条件、民俗习惯等方面有很大差异,因此其发展模式、内容、形式都呈现出多元化、多类型的趋势。在北京、上海、江苏和广东等地的一些大城市的近郊,还出现了引进国际先进现代农业设施的农业观光园,展示电脑自动控制温度、湿度、施肥、无土栽培和新特农产品种,成了农业科普旅游基地。如上海旅游新区的孙桥现代农业园区、北京的锦绣大地农业观光园、苏州的大地园、无锡的大浮观光农业园和珠海农业科技基地。中国目前已分别启动国家生态旅游示范区、旅游扶贫开发区、国家旅游度假区建设工程,形成了三区联动、滚动发展的旅游产品新格局。

中国大陆观光农业开发模式多种多样,主要有“农家乐”模式、现代观光农业连片开发模式、农民市民合作模式、带动产业模式、融合新农村建设模式等。国内开发模式多以农民或者企业自发经营为主,政府少量扶持为辅,农民自发分散经营,注重的是以生产适合当地特色的产品为载体,并围绕载体的生产经营提供与之配套的食、游、乐等系列服务。近年来中国休闲观光活动的需求旺盛,休闲观光内容不断丰富,经营模式不断得到创新,休闲观光农业的发展态势看好。发展特点主要表现为:一是因自然资源、人文资源、农业资源和经济状况而异,各地休闲观光农业发展类型与模式表现为多样性;二是依托农业产业发展休闲观光农业,设施栽培、生态养殖、立体种养、有机农业等现代农业模式与旅游观光功能相结合,现代农业设施通过功能拓展,从原来单一的生产性功能,拓展到示范推广、教育培训、休闲观光等多功能,使农业生产、居民生活与生态环境得到了有机的结合。

## 2. 中国农村观光产业市场动向

虽然中国现有的休闲经济和休闲相关产业相比国外起步较晚,但潜力巨大,在东部沿海地区已经发展颇具规模。在经济发展和人民生活水平提高的刺激下,中国正逐渐迈向休闲时代,而度假旅游、尤其是乡村旅游、城郊游、自驾游等方式成为城市居民普遍欢迎的一种旅游模式。在北京,上海,广州等地的城郊,兴建了大量的农业生态园,而大部分观光农业生态园都因其特色型项目,条件优越,人们不仅可以观光游览,又可以劳作度假,加之农业活动与民俗民风相辅,中国正走上一条中国特色的观光型农业道路。

### 2.1 农村观光产业的发展趋势

#### 2.1.1 发展阶段

从20世纪80年代中期到现在,观光农业在中国已有近30年的发展历程,从最初的农民自发开放自家果园开展观光、采摘活动,到如今种类繁多的各类农业观光园、科技示范园、农业博览园等,中国的乡村旅游经历了初创期、发展期、扩张期和升级期四个时期。目前,应充分认识休闲农业乡村旅游在带动农民就业增收和产业脱贫、推动农业供给侧结构性改革、促进农村一二三产业融合发展、带动农民创业创新的重大作用,推进农业与旅游、教育、文化、健康养老等产业深度融合,组织实施休闲农业和乡村旅游提升工程,让更多的农民参与进来,从中受益。

##### (1) 初创期/自发期(1980年代中后期——1994年)

农家乐兴起。1986年,成都“徐家大院”的诞生标志着“农家乐”旅游模式拉开了乡村旅游的序幕。1989年4月,“中国农民旅游协会”正是更名为“中国乡村旅游协会”;1994年,“1+2”休假制度颁布并实施。

### (2) 全面发展期 (1995—2001年)

乡村假日经济。1995年5月1日起实行双休日,1999年又将春节、“五一”、“十一”调整为7天长假。2000年,国务院46号文明确了“黄金周”的概念。1995年“中国民俗风情游”旅游主题与“中国:56个民族的家”宣传口号带游客深入少数民族风情区;1998年,国家旅游局以“华夏城乡游”为年主题,使得“吃农家饭、住农家屋、做农家活、看农家景”成为一种理念深入人心。

### (3) 纵深扩张期 (2002—2006年)

2002年,我国颁布了《全国工农业旅游示范点检查标准(试行)》标志着我国乡村旅游开始走向规范化、高质化。2002年观光农业项目已累计达到2246项,全年接待3618.1万人次,观光农业总收入22.75亿元。2004年胡锦涛总书记视察上海时指出:“要发展农业旅游、生态旅游,促进农民增收”。

2005年国家开始实行土地承包经营权流转和发展适度规模经营,2006年我国健全了土地承包经营权流转机制。

2005年国务院副总理吴仪同志在全国旅游工作会议上指出:“旅游业发展要有新思路,要把旅游业与解决三农问题结合起来,积极开发农村旅游资源,大力发展农业旅游”。

2006年,党中央关于建设社会主义新农村战略构想的提出及其所蕴含的对农村产业发展、经济繁荣的期望,更是为观光农业这一特色农村产业的发展提供了良好的历史契机。国家旅游局发布了《关于促进农村旅游发展的指导意见》,提出乡村旅游是“以工促农,以城带乡”的重要途径。明确提出“中国乡村旅游年”,将乡村旅游的角色提到了更突出的位置,“新农村、新旅游、新体验、新时尚”全面推动乡村旅游提升发展。

### (4) 提升转型与可持续发展期 (2007年至今)

2007年国家规范土地承包经营权流转,2008年健全承包经营权流转市场。克服了乡村旅游发展受土地制度制约。2007年“中国和谐城乡游”和“魅力乡村、活力城市、和谐中国”的提出带动了农村风貌大变样。2007年,国家旅游局和农业部联合发布了《关于大力推进全国乡村旅游发展的通知》推动乡村旅游发展。2008年,三次长假调整为“两长五短”模式及带薪

休假制度法制化。2008年,《中共中央关于推进农村改革发展若干重大问题的决定》使乡村旅游的经营模式更加科学化、合理化和多样化。2009年,《关于加快发展旅游业的意见》提出乡村旅游富民工程。

2015年中央1号文件《关于加大改革创新力度加快农业现代化建设的若干意见》提出了推进乡村生态休闲、旅游观光的建设和发展要求,以激活农村要素资源,增加农民财产性收入。具体要求包括推进农村第一、二、三产业融合发展;立足资源优势,以市场需求为导向,积极发展农业多种功能,挖掘乡村生态休闲、旅游观光、文化教育价值;扶持建设一批具有历史、地域、民族特色的特色景观旅游村镇,打造形式多样、特色鲜明的乡村旅游休闲产品。

农业部副部长陈晓华在2016年召开的全国休闲农业和乡村旅游经验交流会上指出,“十二五”全国休闲农业和乡村旅游发展态势良好,新主体多元涌现、新机制不断探索、新功能更加拓展、新类型多式多样,整个产业呈现“发展加快、布局优化、质量提升、领域拓展”的发展特点,成为经济社会发展的新业态、新亮点。“十三五”时期休闲农业和乡村旅游发展要以促进农民就业增收、满足居民休闲消费需求、建设美丽乡村为目标,加快产业提档升级,努力把休闲农业和乡村旅游打造成农民就业增收新的增长极。

### 2.1.2 消费档次

从消费档次看,中国目前的农业观光产品消费以中低档次消费为主。随着观光农业旅游项目不断广大,与其他类型的旅游项目比较,以农村现有的农业生产资源和农村乡土文化、农耕文化和民俗文化资源等为依托的观光农业旅游具有相对成本低、投资较少、经营灵活的特点,从所提供的旅游产品来看,价位则以中低档次为主,从消费的层次来看,也以中低档次的消费居多。“农家乐”观光农园一般费用都比较便宜,周末两日游的费用一般为100元左右,其中包括往返车票,住宿费及其他费用,这是大多数游客都可以负担的费用。参加观光农业旅游的国内游客,绝大多数是为调剂家庭的假日生活。普遍为近地旅游,出游的时间也都比较短,一般是一至两天,消费档次较低。从项目开发建设水平来看,缺少对农业旅游的总体规划,农业旅游项目重复建设、功能雷同,依然存在着重设施建设轻环境营造的现象。因此,中国的农业旅游发展尚没有达到完全成熟的阶段。

### 2.1.3 数据统计

截至2008年,据不完全统计,中国共有各种类型农业园区近3000个,遍布全国31个省市,基本上形成了覆盖全国、但又相对集中的地域分布格局。东中部地区观光农业分布密集,而西部地区相对稀疏。观光农业项目多分布在东部经济发达省区和东、中部大城市郊区,与中国的城市群发育相吻合,全国范围内形成了环渤海、长三角、珠三角、成渝地区等几个观光农业分布密集区域,而西部及中部省份的一些特色农业地区和特色民俗文化地区的观光农业尚未得到充分发展。以359处农业旅游示范点为例,从东、中、西三大区域来看,东部地区有195个,占54.32%;中部地区68个,占18.94%;西部地区96个,占26.74%。就省、市、区分布来看,分布数量最多的依次是沿海的山东省55个,占15.32%,江苏省43个,占11.98%,辽宁34个,占9.47%;其次是贵州省18个,安徽、四川各17个,河北15个,浙江、广东14个,山西13个,河南12个,广西11个,内蒙古、新疆各10个,其余均在10个以下。

表1 中国观光农业园分布统计

划分类型	分布区域	个数	所占百分比
按地区分布	东部	195	54.32%
	中部	68	18.94%
	西部	96	26.74%
按省、市、区分布	山东省	55	15.32%
	江苏省	43	11.98%
	辽宁省	34	9.47%
	贵州省	18	5.01%
	安徽省	17	4.74%
	四川省	17	4.74%
	河北省	15	4.18%
	浙江省	14	3.9%
	广东省	14	3.9%
	山西省	13	3.62%
	河南省	12	3.34%
	广西省	11	3.06%
	内蒙	10	2.79%
	新疆	10	2.79%
	其余	10个以下	2.79%以下

(数据来源:河北理工大学,张文)

2009年,全国以观光农业为主的农业生态园已超过130万家,年收入超过806.7亿元,成为农村地区重要的二三产业。2010年休闲观光农业总产值251430万元,农业总产值为154.2亿元,农林牧渔服务业总产值5.9亿元,休闲农业总产值占农业产值的16.3%。2011年,全国农家乐已超150万家,规模以上休闲农业园区超过2万家,年接待游客人数超过6亿人次,营业收入超过1500亿元,带动1500万农民受益。截至2012年底,全国有9万个村开展休闲农业与乡村旅游活动,休闲农业与乡村旅游经营单位达180万家,其中农家乐超过150万家,规模以上园区超过3.3万家,年接待游客接近8亿人次,年营业收入超过2400亿元,从业人员超过2800万,占农村劳动力的6.9%。2013年,全国农家乐数量已超过150万家,休闲农业聚集村超过9万个,年接待游客9亿多人次,营业收入2700多亿元。截至2014年底,全国农家乐超过150万家,年接待游客近10亿人次,年营业收入超过3000亿元。2015年全国休闲农业和乡村旅游接待游客超过22亿人次,营业收入超过4400亿元,从业人员790万人,其中农民从业人员630万人,带动550万户农民受益。“十二五”时期游客接待数和营业收入年均增速均超10%。

表2 2008-2012年休闲农业与乡村旅游市场规模变化

指标	2009年	2010年	2011年	2012年	2013年	2014年	2015年
接待人数(亿人次)	3.4	4	6	8	9	10	22
营业收入(亿元)	806.7	>1200	>1500	>2400	2700	3000	4400
农家乐(万家)	135	150	>150	>150	>150	>150	>150

(数据来源:人民网、新华网及其他网站整理)

图1 2009-2015年间全国休闲农业和乡村旅游接待人数

(数据来源:人民网、新华网及其他网站整理)

图2 2009-2015年间全国休闲农业经营收入

(数据来源:人民网、新华网及其他网站整理)



图1 2009-2015年间全国休闲农业和乡村旅游接待人数  
(数据来源：人民网、新华网及其他网站整理)



图2 2009-2015年间全国休闲农业经营收入  
(数据来源：人民网、新华网及其他网站整理)

#### 2.1.4 市场动向

休闲农业是现代农业的新型产业形态、现代旅游的新型消费业态,为农林牧渔等多领域带来了新的增长点。2001年,国家旅游局把推进农业旅游发展工作列为当年旅游工作要点,制定了《农业旅游发展指导规范》,并于2001年底公布了首批农业旅游示范点候选名单,进一步推动了观光农业在全国范围的发展。2004年,为了推动全国观光农业的发展,国家旅游局对全国农业旅游示范点进行了评选,选出203个农业旅游示范点,2005年,又进行了第二

次评选,选出农业旅游示范点156处。目前总共评选出农业旅游示范点359处,遍布全国31个省市,在农、林、牧、副、渔各业中树立起了发展观光农业旅游的样板。标志着中国观光农业进入科学化、规范化发展的新阶段。2010年全国为加快休闲农业和乡村旅游发展,推进农业功能拓展、农村经济结构调整、社会主义新农村建设和促进农民就业增收,农业部、国家旅游局决定开展全国休闲农业与乡村旅游示范县和全国休闲农业示范点创建活动。

“十三五”时期,随着城乡居民生活水平的提高、闲暇时间的增多和消费需求的升级,休闲农业仍有旺盛的需求,仍将处于黄金发展期。随着中国工业化、城镇化的深入推进,中国城市人口数占全国总人口的比重已从2000年的36.2%增长到2009年的46.6%,2015年中国的城镇化率达到56.1%。目前中国人均国内生产总值已超4000美元,居民可支配收入不断增加,城乡居民休闲消费支付能力明显增强,将促进中国进入国民休闲消费大众化发展阶段。大量长期生存在快节奏、高压以及高污染环境和高楼大厦、水泥森林中的居民,衍生出了一种对自然和乡村生活的向往,渴望到生态自然、乡村田园、返璞归真的乡村进行观光、休闲、度假。悠久的农耕文明,浓郁的乡村文化,多彩的民俗风情,是市民心目中的“市外桃源”。休闲农业与乡村旅游在需求的拉动下,呈现快速发展的态势。全国70%的旅游资源集中在乡村,再加上近年来国家大规模投入农村基础设施建设,农村的水、电、路、通讯基础条件明显改善,这都为休闲农业发展提供了良好的条件。

在这一轮的农业供给侧结构性改革中,发展休闲农业是一个重要的切入点。如果把休闲农业作为农业供给侧结构性改革选项的一个重要考虑,可以从以下三个角度来判断全社会特别是城镇居民对农业的休闲功能的需求是不是在上升。其一是城镇居民对休闲产品的购买力。现阶段来看,城镇居民对旅游特别是休闲观光的需求是在明显上升。其二是购买意愿。城镇居民对良好空气、青山绿水的向往和渴望在明显增加。生态产品的稀缺性和相对价值已经上升到了一定水平,城镇居民愿意为生态产品、生态优良地区的农产品付出更高的价格,这是个普遍的现实。其三是购买力的实现条件。具备了有购买力和购买意愿,那么,随着交通和网络的发展,把这样一种购买意愿变为现实的条件也在逐步成熟。此外,从土地、资金、人才和农村的基础设施这四个角度把休闲农业作为农业供给侧结构性改革的重要选项,为休闲农业注入新动能。

中国社科院奥情实验室发布2016年《中国乡村旅游发展指数报告》,从乡村旅游发展成熟度上看,浙江排名第一,陕西省排名第二。2016年是中国乡村旅游发展的非常具有里程碑意义的一年,中国乡村旅游从过去的小旅游、中旅游进入到了大旅游时代,乡村旅游人次达13.6亿,平均全国每人一次,是增长最快的领域;乡村旅游不再是“农村旅游”和“农业旅游”而是成为与城市相对应的一个空间概念,逐渐形成一个新的大产业,包括乡村旅游观光、乡村休闲度假等,有望发展成为万亿级企业;乡村旅游正在成为新的生活方式。

## 2.2 农村观光产业的主要模式

中国农业资源丰富多样、农业生产历史悠久、民俗文化沉积深厚,在此基础上, 观光农业发展类型多样,目前开发有农业观光园、主题农园、农业科技示范园、生态农业度假村、民俗文化园等多种形式,其大多与当地的农业资源、乡村环境紧密结合形成各自特点。

表3 中国观光农业发展类型

名称	主要特点	典型案例
农业观光园	观光旅游与农业结合在一起,包括观光农业、特色菜园、花圃和森林公园等,以农业种植为基础,同时让游客享受田园乐趣	无锡太湖花卉园
主题农业园	按照主题公园的经营思路,把农业生产场所、农产品消费场所和休闲旅游场所结合到一起,提供给游客观赏田园风光、参与生产活动、品尝和购买绿色食品,休憩娱乐等功能,达到体验农业的目标。	青岛崂山茶苑生态园
农业科技示范园	以农业、科技和旅游的紧密结合为特征,发展集科研、生产、商贸、教育、旅游与一体的农业园区,达到教育、观光的功能	寿光蔬菜高科技示范园
生态农业度假村	依托自然优美的乡村风景、环保生态的绿色空间建成的综合性休息农业园,游客不仅可以观光、采摘、体验农业,了解农民生活,享受乡土乐趣,还可以住宿、度假	北京蟹岛绿色生态度假村、烟台蓬莱兴瑞庄园
民俗文化博览园	以农耕文化、民族文化和民俗文化为依托,开发农耕展示、民间给予、时令民俗、节庆活动等	潍坊杨家埠民间艺术大观园

以全国359处农业旅游示范点为例,其主题涉及到农业观光、品尝采摘、生态科技、民俗文化、休闲度假等多种类型,按表现内容归类,农业观光体验类项目最多,占31.20%;其次分别为农业科技类、农业生态类、古镇新村、自然生态、休闲度假村(山庄)、民俗文化、农家乐(图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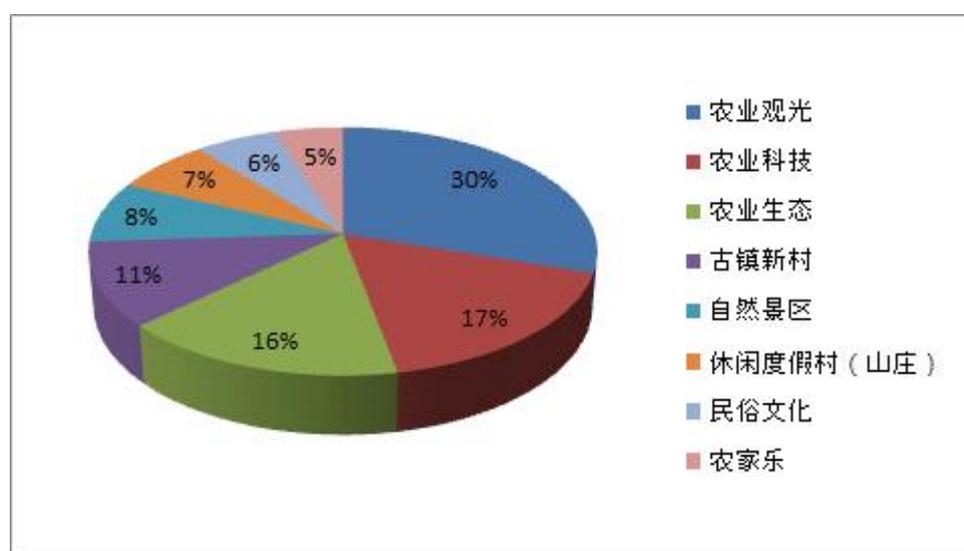


图3 全国农业旅游示范点结构示意图 (数据来源:中国科学院,孙艺惠)

表4 观光农业开发的地域模式

模式	区位及目标市场	特点	管理形式	典型案例
依托自然型	距离大中城市20公里以外,但交通便利;以多个大众城市为目标市场	农业基础好,地貌类型齐全;以独立的自然景观单元为依托;范围广阔,6公里左右	基本保留原有的农村各级组织,分散管理,接近农村自然	江西井冈山观光农业区,湖北随州农业观光区
依托城市型	距大中城市10公里内,以一个城市为目标市场	借助一定农业基础;主要通过人工构造农业景观,以某一大城市为主要目标市场;范围小,2公里内	独立封闭的行政组织,集中管理,更接近农主题公园	苏州未来大世界,珠江现代农业公园

## 2.3 典型区域观光农业发展情况

2015年国家旅游局公布了北京市大兴区等68个县(市、区)为全国休闲农业与乡村旅游示范县,北京市中农春雨休闲农场等153个点为全国休闲农业与乡村旅游示范点。本部分主要以国内休闲农业比较发达的北京、陕西等省份为主要案例进行介绍。

### 2.3.1 北京休闲农业

北京市共包含16个区县,由于各区县资源禀赋和区位条件的不同,各区县在发展农业优势产业的选择也有区别。北京市农委和北京市旅游局分别制定了《北京市郊区民俗旅游接待户评定标准》、《北京市观光农业园示范评定标准》、出台了《北京市郊区民俗旅游村接待户评定暂行办法》等相关文件。2005年制定了《北京市郊区民俗旅游发展规划(2005-2010)》。

2006年北京市委市政府提出了《关于区县功能定位及评价指标的指导意见》,把当时的18个区县分成首都功能核心区、城市功能拓展区、城市发展新区和生态涵养发展区四个功能区。各区域均发展休闲观光农业,但又由于各个区域的区位条件、自然禀赋等条件的不同,在发展休闲观光农业时的侧重点和观光园数量也不相同。其中平谷的观光园数量最多有234家,丰台最少仅有10家。

表6 北京城郊观光农艺项目一览表

区域	县区	项目数量	主要项目
第一圈层 (近郊区)	朝阳	8	朝来农艺园、将台农村经济综合开发区等
	海淀	12	樱桃采摘园、稻香湖工业、凤凰岭景区等
	丰台	2	青龙湖郊野工业、花乡花卉观花等
	石景山	1	麻峪柳林庄园
	通州	5	中以高科技示范农场、徐辛庄周末农人果园等

区域	县区	项目数量	主要项目
第二圈层 (中郊区)	大兴	12	中国瓜乡旅游观光示范区、北京绿色田野种养观光农场,留民营生态村等
	顺义	8	沿河甜瓜观光采摘活动,京东潮白河郊野公园
	昌平	10	小汤山少儿农庄、中日友好观光果园、白羊沟自然风景区等
	门头沟	7	灵山森林公园、川底下村等
	房山	11	上方山森林公园、碧溪垂钓园等
第三圈层 (远郊区)	平谷	3	大华山桃花节、飞龙谷金秋果品采摘、松林山庄托
	怀柔	17	范各庄乡间情趣园、虹鳟鱼垂钓场托
	密云	17	云蒙山自然风景区、遥桥民俗村、智慧谷等
	延庆	6	康西草原、刘浩营民俗村、野鸭湖等

数据来源：北京观光农业发展研究

北京的休闲观光农业经过近些年的发展,截至2011年北京市共有农业观光园1300个,生产高峰期从业人员46038人,年接待人次18429456人,经营总收入217151.8万元,其中采摘收入51092.3万元,占观光休闲农业总收入的23.53% (表4-2) 观光园园均收入和游客人均消费分别增长22.3%和17.5%。民俗游的农户数总共为13907户,其中经营农户8396户,期末从业人员18232人,年接待人次16688923人,总收入86822.2万元,其中住宿收入为16948.5万元,占民俗旅游总收入的19.52%。民俗旅游接待户户均收入和游客人均消费分别增长12.3%和10%。休闲观光农业与乡村旅游已成为郊区农民,特别是山区农业就业增收的重要渠道。

2012年10月,北京市获得2012年“中国特色休闲城市—文化休闲之都”的称号。2016年国家统计局发布的数据表明,前三季度全市民俗游实现收入11亿元,同比增长12.8%;观光园实现收入19.7亿元,同比增长6.1%。农业会展及农事节庆活动共接待415.6万人次,实现收入2.2亿元。

表5 北京市2005-2011年农业观光园、民俗旅游情况

项目	2005年	2006年	2007年	2008年	2009年	2010年	2011年
农业观光园							
农业观光园个数 (个)	1021	1230	1302	1332	1294	1303	1300
生产高峰期从业人员 (人)	40729	52828	51392	49366	49504	42561	46038
接待人次 (万人次)	892.5	1210.6	1446.8	1498.2	1597.4	1774.9	1842.9
经营总收入 (亿元)	7.88	10.49	13.15	13.58	15.24	17.8	21.72
民俗旅游							
从事民俗旅游实际经营接待 (户)	7268	8726	10323	9151	8705	7979	8396
从事民俗旅游接待的人数 (人)	14070	18253	20750	19421	19790	16856	18232
民俗旅游接待人次 (万人次)	758.9	982.5	1167.6	1205.6	1393.1	1553.6	1668.9
民俗旅游总收入	3.14	3.65	4.96	5.29	6.09	7.35	8.68

注：民俗旅游接待户数为实际经营的户数。

(数据来源：北京市统计局,北京市统计年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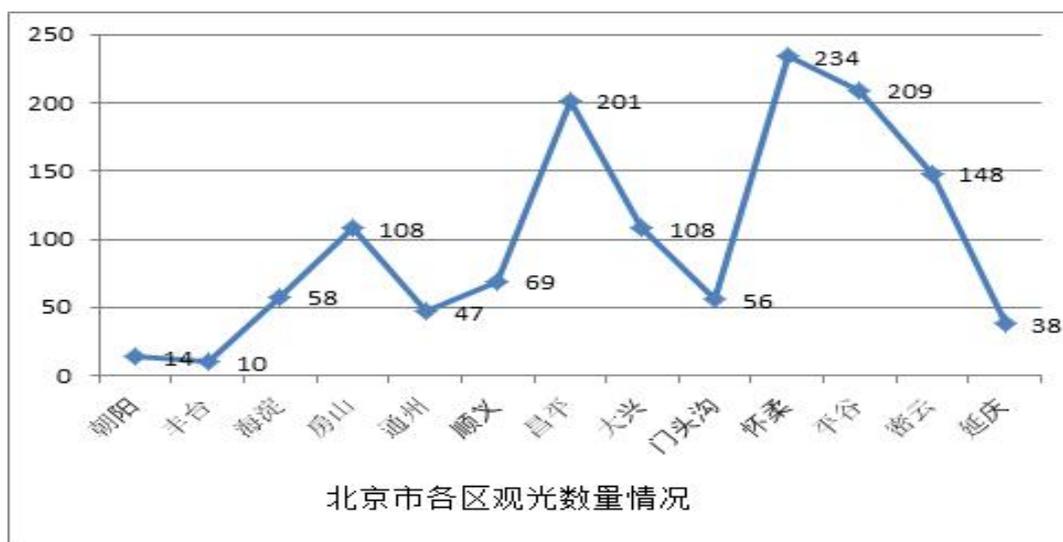


图4 北京市2011年各区观光数量情况

(数据来源：邱莉. 北京市休闲观光农业发展研究, 2012)

表7 北京市按照地域依托模式划分的观光农园分类

模式	区位及客源	特点	案例
依托城市型	1) 距大中城30km以内; 2) 主要客源为某一大中城市市民,兼顾外地商务会议客源	1) 依托经济发达的某一大中城市,具有地理位置优势、技术优势和市场优势; 2) 具有巨大的示范先导作用,受政府大力扶持; 3) 主要通过人工构造农业进骨干,园区内建设用地所占比例较高; 4) 园区内规模较小,大部分规模小于66.7hm <sup>2</sup>	蟹岛绿色生态度假村位于北京市朝阳区,距离中心城区约10公里,总面积2.0km <sup>2</sup> ,生态农业观光区1.8km <sup>2</sup> 。
依托景区型	1) 距大中城市30km以外,距大景区10km范围内,交通便利; 2) 与景区共享客源	1) 依托某一知名景区,利用景区自然环境和市场知名度; 2) 主要类型为农家乐、民俗村、采摘园;	北京房山区十渡民俗风情苑位于北京西南部,距离市区70余公里,位于十渡国家地质公园景区内,与野三坡景区距离30km,附近有东湖港、西湖港、孤山寨、太平猴山等景点。
依托传统民俗型	1) 距大中城市30-100km,交通便利; 2) 客源为某一大中尘世市民	1) 依托区域传统民俗,利用游客对区域传统民俗的向往; 2) 主要类型为农家乐、民俗村; 3) 园区内建设用地比例较高;	怀柔长哨营满足文化新村项栅子村拥有360多年的满族文化底蕴,可以欣赏满族风情表演,感受特色建筑,品尝特色火锅宴和小吃。
依托区域特产型	1) 距大中城市30km以外的传统农区,交通便利; 2) 客源为传统农业区附近较大区域范围的居民	1) 传统农业区有悠久的种植历史,农业基础较好; 2) 主要类型采摘园; 3) 园区内规模较大,大部分规模大于66.7hm <sup>2</sup> ;	北京密云区不老屯镇黄土坎鸭梨观光采摘园,距离北京市区近100km,黄土坎鸭梨开始栽种于明代,具有600多年历史,清代乾隆皇帝钦定“梨中之王”而选为贡品。

(注:分类源于中国科学院杜姗姗,数据来源于北京市观光休闲农业协会,2009年前3批北京市观光农业示范园复核自查资料和第4批北京市观光农业示范园申报资料汇编。)

北京市观光农业整体发展趋势较好,观光农业园、民俗旅游业迅速发展,总收入和接待人次实现双增,进一步向生产、生活和生态多功能转变,将农业与住宿、餐饮、垂钓等多行业融合。2012年,北京市农业观光园和民俗旅游收入分别为26.9亿元和9.1亿元,比上年增长23.8%和4.3%,其中观光园采摘收入达8亿元,增长56.7%;观光园和民俗旅游接待人次分别为1939.9和1695.8万人次。

表8 全国休闲农业与乡村旅游示范县和全国休闲农业示范点

年份	2012年		2011年	2010年
示范县	全国	32个	30个	41个
	北京市	密云县	——	怀柔县
示范点 (每年 100个)	朝阳区蟹岛绿色生态农庄		北京金福艺农番茄联合国	北京张裕爱斐堡国际酒庄
	房山区霞云岭乡四马台村		延庆县柳沟村	北京交道富恒休闲农庄
	怀柔区杨宋鹿世界主题公园		北京鹅和鸭农庄	北京华坤庄园
			密云县蔡家洼休闲农业聚集区	北京御林汤泉庄园

### 2.3.2 上海休闲农业

2009年全年,上海市共接待国内游客12360.74万人次,国内旅游收入1913.8亿元人民币。截至2009年底,上海已建成各类农业旅游景110个,其中年接待规模在万人以上的有70余个,年涉农旅游总人数1000万人次,直接带动各类涉农总收入15亿元,解决地区农民就业3万人。上海目前已形成一定规模的休闲农业旅游点大致分布在宝山、嘉定、青浦、奉贤、松江、金山、浦东及崇明。各个休闲农业场所正向综合性、多样化发展。

表9 上海农业旅游资源分布

休闲农业类型	景点名称	景点内容与特色	分布
农家乐	前卫村	农家菜、农家床、农家活、滩涂芦苇	崇明
	瀛东村	农家菜、农家床、农家活、渔港、滩涂	崇明
	绿华村	斗蟋蟀等	崇明
	南江村	河蟹养殖	崇明
	马陆镇	采摘、品尝葡萄、葡萄研究所、葡萄酒厂	嘉定

	徐行镇	鸵鸟、孔雀、锦鸡等特种养殖场	嘉定
	安亭镇	千年古银杏、百亩银杏园	嘉定
	中洪村	作画、修画、裱花的民间艺人	金山
	姚家村	红蟠桃	金山
	松江番茄农庄	田园风光、农家体验、农家菜、农家活	松江
度假村	上海森林度假村	野趣、田园风光、吃、住、旅游	青浦
	东平森林公园	林木观赏、游乐、林区休闲、度假	崇明
	上海青青旅游世界	奇特书目、游乐、餐饮、度假	松江
	上海滨海森林公园	滩涂、人造林、休闲、度假、康乐	南汇
观光农业	孙桥现代农业园区	现代农业、花市、宠物市场、购物、科普	浦东
	中荷玫瑰园	赏花、购花、科普	南汇
	滨海桃园	万亩桃林、赏花、品桃、游玩	南汇
	桃园民俗文化村	田园风光、桃园文化、民俗民风	南汇
	上海康南园艺场	园艺	南汇
	新桥花卉苗木中心	中外花卉观赏、休闲、购花	松江
	交大农科花卉园	花卉观赏、购花、科普	松江
	世外桃源	田园风光、桃园、野趣、滑草、休闲、购物	奉贤

### 2.3.3 陕西乡村旅游

陕西省休闲农业主要有休闲乡村、休闲农庄和休闲农园3种业态。其中,休闲乡村是依托农村美丽田园建设,以提供农家饭、自产农产品、农家庭院生活体验等服务为主,如平利县龙头村、柞水县东干沟村等。休闲农庄突出度假、游乐功能,如三原县金源山庄、神木县陕北民俗文化大观园等。休闲农园以农业产业和科技示范为主,兼具农业生产体验、农业科普教育等功能,如西安曲江农业博览园、西安沣东农博园等。

按依托资源要素划分,主要有品牌产业依托型、民俗文化依托型、旅游景点依托型、城市区位依托型和山水生态依托型5种类型。其中,品牌产业依托型是依托特色优势主导产业拓展农业多功能性,延伸产业链条,如依托柑橘产业的城固县刘家营村等。民俗文化依托型是传承展示农耕文明和民俗文化,达到三产融通发展,如以关中民俗文化、传统小吃为特色的礼泉县袁家村。旅游景点依托型是依托风景名胜资源聚集人气,如依托传统古镇的宁强县青木川村等。城市区位依托型特征是交通出行便捷,地缘优势突出,如秦岭脚下紧邻环山旅游公路的长安区上王村等。山水生态依托型主要是通过良好

的山水风光和自然生态条件吸引游客,如长安区的祥峪沟村等。陕西省休闲农家经营户年均收入基本在5 万元以上,从业人员年均收入1.2 万元以上,关中个别农户年经营收入达上百万元。西安秦岭北麓等休闲农业聚集区经营收入已占到当地农业总产值的30% 以上。此外,休闲农业带动餐饮、加工、交通、商贸等相关行业就业明显,如礼泉县袁家村直接带动了周边10 多个村600 多名妇女就业,农民年工资收入1 200 万元以上。

“十二五”以来,陕西乡村旅游以示范县建设、文化旅游名镇建设、旅游村镇建设、乡村旅游景区建设和乡村旅游扶贫为抓手,通过政策扶持、项目支撑、标准建设、品牌打造、示范创建、提升服务等举措,积极保护乡村生态环境、彰显乡村文化内涵、丰富乡村旅游业态,取得了又快又好的发展。2010年—2015年,全省共接待乡村旅游人数47166.5万人,年均增长30.3%,收入500.8亿元,年均增长30.8%。2014 年陕西省休闲农业接待游客5800万人次,经营收入达50 多亿元,直接从业人员31 万人,其中农民从业人员28 万人。

截至2015年陕西省发展休闲农园363个,休闲农庄346个,休闲农家专业村270个,休闲农家经营户1.3 万多户;创建全国休闲农业与乡村旅游示范县5个、示范点15个,中国最美休闲乡村6个,中国重要农业文化遗产1处,中国美丽田园11 处,全国五星级休闲农庄4个、四星级休闲农庄2个。

2015年,陕西省乡村旅游共接待1.4亿人次,旅游总收入158.9亿元,同比分别增长23.5%和25.7%。成功创建17个省级旅游示范县,6个国家级休闲农业和乡村旅游示范县、20个示范点,31个文化旅游名镇,79个省级旅游特色名镇,120个乡村旅游示范村,8个4A级乡村旅游景区,14个3A级乡村旅游景区,袁家村、马嵬驿被国家旅游局评为全国乡村旅游创客示范基地。乡村旅游接待人数已经超过了全省总接待人数的三分之一,乡村旅游在调结构、促就业、惠民生、减贫困中的积极作用不断凸显,袁家村、马嵬驿、沙沙河、青木川、蓝田汤峪、留坝、商洛美丽乡村、大荔等乡村旅游发展典型正在引领陕西乡村旅游特色化、可持续发展。

### 2.3.4 江西休闲乡村建设

2016年年初习近平总书记视察江西,提出了“让农村成为安居乐业的美丽家园”的战略目标。江西省坚持绿色发展的理念,把建设中国美丽休闲乡村列入了全省城乡一体化发展总体规划,把休闲农业作为现代农业强省建设的重要抓手,设立专项资金,精心打造了一批休闲农业示范园区和美丽乡村。目前,江西省有休闲农业企业3820家、农家乐19300家,今年前三季度共接待游客2370万人次,综合收入123亿元,为现代农业发展注入了新活力。

(一) 生态优势。绿色生态是江西最大的优势、最大的品牌。2014年,江西成为全国首批全境列入生态文明先行示范区建设的省份之一。为充分发挥这一优势,江西省始终坚持生态文明发展理念,守护江西天蓝、水碧、山青、地绿的生态资源,突出做好保护和治理工作,打造中国美丽休闲乡村。一是护好大环境。大力推行清洁生产、健康养殖、立体种养等模式,着力解决好农业面源污染问题,夯实美丽乡村根基。目前,全省测土配方施肥面积6800万亩,农药减量技术推广应用面积7500万亩次,创建标准化示范场544家,减少不合理化肥投入(折纯)9.7万吨,年减少粪污排放量2000多万吨。二是解决老问题。大力开展农村生活垃圾治理工作,着力解决好农村生活污水排放、垃圾分类处理等老难题。如九江市双桥村,投资100多万元,建立分散式农村生活污水处理站,投资20多万元建设垃圾分类示范点,有效解决了农村垃圾和污水处理问题。三是美化小村落。依托乡村现有生态环境,着力加强基础设施建设,美化乡村环境。如吉安市蜀口村,2006年以来,陆续投资近1000万元实施美丽乡村建设,20个自然村全部进行了美丽乡村整治工作,硬化环村公路38公里,安装环岛路灯14公里,修筑鹅卵石休闲路2千米,改造公厕10余处。乡村美起来了,村民保护环境的观念日益浓烈。

(二) 资源优势。江西省许多村落历史悠久、人文荟萃,在长期的历史发展中形成了璀璨多元的地方文化特色。为此,我省因地制宜,充分挖掘地域文化特色,拓展农业功能,增强农产品竞争力,带动新农村产业的优化升级和转型发展,使得农味更浓、乡味更香、农民更富。如吉安市泰和县马市镇蜀口村是我省典型的庐陵传统民居文化村,茶业生产历史悠久,清朝列为贡茶。“壮大茶产业,发展生态游,建美丽新村”是蜀口村探索出的一条发展新思路。通过改善茶叶生产、加工和产品包装工艺,吸引游客前来观光和采摘,茶

叶产值翻了几番,带动全村茶农创收,2015年农民人均纯收入比上年增加2837元,增长了32%。围绕乡村特色产业发展,江西省还提出了“打造全国绿色食品产业基地”的目标任务,进一步增强农产品市场竞争力,促进农业增效、农民增收。目前全省认证“三品一标”总数3234个,连续多年稳定在全国前十位;创建3个国家农产品质量安全县和5个省级绿色有机示范县,今年被农业部列为全国绿色有机农产品示范基地试点省。

(三) 民风优势。江西是革命老区,民风淳朴、热情好客是江西农民的本色。江西省以美丽休闲乡村品牌建设为抓手,带动区域品牌建设,促进企业品牌的培育,打造美丽休闲乡村公共品牌。目前,这些美丽休闲乡村已经在全国、全省闻名遐迩,成为我省休闲农业靓丽名片。如武宁县罗坪镇长水村、九江共青城市甘露镇双桥村等美丽休闲乡村先后被评为“全国生态文化村”、“国家级生态村”、“全国绿色小康示范村”、“全国生态示范村”和“江西省文明村镇”、“江西省十大和谐村庄”、“江西省休闲农业示范点”等,得到了各级领导和社会各界的广泛认可。国家和各部委许多高层领导多次亲临乡村调研指导,外省党政代表团以及国际友人代表团先后来到这些村庄参观游览。截至目前,全省共创建全国休闲农业与乡村旅游示范县10个、五星级休闲农业企业18个、中国重要农业文化遗产2个、全球重要农业文化遗产1个、中国美丽休闲乡村13个、全国十佳休闲农庄4个,并打造了一大批省级休闲农业示范点。

## 2.4 观光农业典型案例

观光农业一般以优美的自然条件、良好的农户体验等资源吸引游客,游客到这些观光园或者可以享受到自然风光、或者可以了解传统民俗文化以及体验农业生活,因此,本部分主要选取国内比较有名的乡村旅游景点或观光农业园区,尤其是选取全国休闲农业与乡村旅游示范点为典型案例,以反映观光农业吸引游客的资源方式以及农户参与观光农业的具体方式。

### 2.4.1. 北京市蟹岛绿色生态度假村(自然条件和农事体验)

北京市蟹岛绿色生态度假村位于北京市朝阳区东北方向,占地面积3000

多亩,交通便利、设施完备、经营项目齐全,2000年6月被北京市评为现代农业示范园区;2000年9月被国家环保总局、中国环境科学学会正式定为北京绿色生态园基地;2003年8月,获OFDC(国家环境保护总局有机食品发展中心)有机食品认证;2004年4月顺利通过了国家旅游局的评估考核,成为全国首批/农业旅游示范点。

### (1) 资源类型及管理模式

度假村采用“前店后园”式管理机制,达到“以园养店,以店促园”目的。“前店”指旅游度假区,占总面积的10%,用于游人的休闲度假。旅游度假区有各类餐饮、住宿、健身和娱乐设施,还为游人提供民俗表演和许多参与性旅游项目。“后园”指有机食品种植养殖基地,占总面积的90%,在进行农业生产的同时,可为游人提供参观、采摘、自捡生态蛋等实践活动,使游人接触农业,既有利于身体健康又提高环保意识,度假村自产的农产品及时供应旅游度假区餐厅和各种娱乐场所,突出产品绿色、安全、无污染的特点,保证食物的新鲜,吸引游客前来休闲度假。另一方面,旅游度假区利用发展可持续农业形成的乡土风格,发展观光旅游吸引了大批游客,为种植养殖基地的农产品销售拓展了市场,提高了农业的附加值。同时,度假村饭店部分所产生的生产垃圾,经相应处理后为农业生产提供有机肥料生产资料,这样就达到了“以园养店,以店促园”的目的。“前店后园”式经营模式的确立,将旅游业、农业相结合,为农业开辟一条高效化的途径,给旅游业找到了一条内涵外延的渠道,摆脱了单一生产效益所带来的“广种薄收”局面,形成“农游合一”的综合效益。

①农业种植养殖区,占地2500亩,又分为种植生产区、种植观光区、养殖生产区、养殖观光区四部分。种植生产区育有水稻、小麦、玉米、高粱、豆类等60余种农作物;种植观光区建有100余栋蔬菜温室,生产大众菜及名优特菜共80余种;养殖生产区,饲养猪牛羊、马驴骡、鸡鸭鹅等十余种家畜家禽及鱼蟹等十余种水产品,使度假饭店所需的肉、禽、蛋、奶实现了自给自足;养殖观光区设有生态蛋采集场、野生动物救护站。

度假村通过每年举办“农业生态一日游”活动,使游人在农业技师的讲解和指导下,学习农业知识、农业技术并进行实际耕种,并通过农作物采收、

植生态林、捡生态蛋、与动物亲和等实践活动,寓教于乐,使游人融入到大自然的怀抱中,在实践中提高环保意识。

②可再生能源利用区。由两口2400米深的温泉井、日处理能力达450立方的沼气池和日处理能力2000吨的污水处理厂构成了园区内生态良性循环的核心“可再生能源利用区”。它又分为地热应用区、污水处理区、太阳能采集区和沼气生产区。“可再生能源”的利用在园区内已发挥了杠杆作用。以沼气供能、温泉热能、污水处理为轴心的“生物制造”和“生物分解”构成了园区内的物质循环和水系循环系统,因此,园区内无污水、无烟尘、无生活垃圾、无农药残留、无化肥,基本实现零排放。通过开展沼气知识讲解、资源循环和生物链结构的现场参观等活动,作为展示和推广蟹岛理念、推动科普和环保教育的重要窗口

③湖滨生态展示区。由蓄水库、水塘等人工水系构成。通过在水面繁养浮萍、芦苇等浮游植物,在水下养殖鱼、蟹,在堤岸周围植树种草,形成杨柳低拂、芦苇摇曳、鸭鹅凫水、轻舟荡漾的优美景观。

④环保产业园区。此园区作为蟹岛环保生态园区的重要部分,是生态系统与环保产业进行结合的平台基地。主要具有环保生态展示、环保科普教育、环保生态技术推广、环保生态产品交易场所等功能。

⑤休闲度假区,占地200亩,为旅游者提供餐饮、住宿、会议、康乐等休闲方式和场所。

## (2) 农民参与方式

蟹岛绿色生态度假村整个园区分为种植园区、养殖园区、科技园区和旅游度假园区等类型,利用园区良好的自然条件,可以为游客提供农事体验、观光采摘等多种休闲方式。蟹岛绿色生态度假村采用自主经营、自负盈亏的企业经营方式,度假村土地是经营者租用金盏乡长店村村民土地,按照有关研究人员的调查,经营者每年向农户支付租金,蟹岛每年还拿出一定数额的资金鼓励当地农民以土地入股,并安排农民在度假村就业,促进了当地农户的就业,在蟹岛度假村670多人从业人员中,本地居民约为200多人,占到员工总数的30%,解决了当地农户的就业问题。

## 2.4.2 潍坊杨家埠民间艺术大观园（民俗文化）

### （1）游客享受的内容

杨家埠民间艺术大观园总占地面积160000平方米,职工120人。2007年接待游客50多万人次,2008年上半年接待游客已达到30万人次。杨家埠2002年被山东省政府命名为“山东省历史文化名村”;2004年被省政府授予“服务业先进单位”;2005年被省旅游行业授予“山东省旅游休闲场所十佳品牌”;2006年被评为“全国农业旅游示范点”和“56个最具民族特色的风景区”;2007年通过国家AAAA级旅游景区的评审;这里的年画、风筝被国家列入首批非物质文化遗产。

杨家埠民间艺术大观园是杨家埠旅游开发区景点的核心部位,园内以年画、风筝为主导,民风民俗为主题,设有风筝博物馆、绘制馆、十八女子作坊、年画博物馆、年画作坊、民俗馆、文物馆、百年婚证展、老粗布作坊、农具展、红色收藏展、书画院、嫦娥奔月台、古店铺一条街、三星湖、度朔山以及杨家埠明清时期古村落、古槐等数十个景点和展厅。让游客在体验风筝扎制、年画印刷等乐趣,同时也可以领略到几百年前杨家埠人的生活方式,体味杨家埠人古老的民俗、民间风情。

随着与国际文化交流的日趋频繁和景区管理水平的提升,杨家埠民间艺术大观园以其独特的民风民情、浓郁的乡土气息,吸引了马来西亚、日本、韩国、新加坡、香港、台湾等数十个国家和地区的游客来此观光旅游。游客们在园内一起参与踩高跷、抬花轿、扭秧歌、放鞭炮等活动,对杨家埠的风筝、年画和当地民俗产生了浓厚的兴趣,并给与高度评价。世界教科文组织来此参观后批示:“不远的将来,杨家埠将成为山东乃至全中国的民俗旅游中心”。

### （2）农户参与方式

20世纪八九十年代经济相对落后、市场发育不很完善,又受资金投入的影响,在省级主管部门的指导与支持下,以“民俗家庭”为主体开展走访式的民俗旅游,采用的经营管理模式是“旅游个体农户”模式。当时建构的大观园的前身实质是“主题旅馆”。中外游客们走进居家与作坊一体的“民俗家庭”,现场观摩、参与、体验堪称“东方经典艺术”的年画印制过程,

与民间工艺大师面对面交流。这种相对独立的乡村旅游模式,将当地的土地和其他生产资料集中起来,可以大大增加产出,促使土地升值,吸纳了附近大量闲散劳动力,使庄园主和农民共享利益。随着经济效益的凸显,“旅游个体户”以点带面,村民们还自发地开设了 20 多家乡村旅店,于是杨家埠村采用了更有辐射效应的“农户+农户”模式。这些旅店也都是融作坊、居家、接待于一体的民俗“主题旅馆”。这种模式通常投入较少,接待量有限,但乡村文化保留最真实,游客花费不多,能体验最原生态的本地习俗和文化。但受管理水平和资金投入制肘,这种模式对旅游经济的带动效应较差,难以开成规模化发展。

进入 90 年代后期,杨家埠民俗旅游进入自主经营的市场化阶段,因利益的驱动,村里办起了以集体经济为主体的“民俗大观园”,此时园区管理模式是弱化的“公司+农户”,实质上是“村委(村委带头的村办企业)+农户”模式。把民俗博物馆、木版年画作坊、风筝扎制作坊和风筝放飞场等集中到一个封闭管理的、收取门票的园区内,游客买票进入“大观园”后可以集中观赏民俗演示,不再需要走街串巷去拜访民间作坊和民间艺人。该模式下,充分利用农户闲置的资产、富余的劳动力、丰富的农事活动。在九十年代中后期,园区经营管理模式开始采用“公司+农户”模式。公司一般不与农户直接合作,而是通过当地村委会组织农户参与乡村旅游,村委会成立专门的协调办负责选拔农户、安排接待、定期检查、处理事故等;农户则主要负责维修自家民居,按规定接待、导游服务、打扫环境卫生等。但专业的服务培训及相关规则的制定,则由旅游公司来组织,以规范农户的行为,保证接待服务水平。

为充分发挥旅游产业链中各环节的优势,通过合理分享利益,避免过度商业化,保护本土文化,目前采用的管理模式是政府+公司+农户+社区+旅游协会”模式,即把公司+农户”模式与“政府+公司+旅游协会+旅行社”模式糅合在一起。、在乡村旅游开发中,由政府组织全盘把握,县、乡各级政府和旅游主管部门按市场需求和全县旅游总体规划,确定开发地点、内容和时间,发动当地村民动手实施开发,开发过程中政府和旅游部门进行必要的指导和引导。公司和协会分工协作,兼顾社区保护、农民广泛参与。农民旅游协会负责组织村民参与地方戏的表演、导游、工艺品的制作、提供住宿餐饮等,并负责维护修缮各自的传统民居,协调公司与农民的利益;旅行社负责开拓市

场,组织客源。这一管理模式为杨家埠旅游可持续发展奠定基础。

### 2.4.3 北京交道富恒农业观光园(农事体验、观光采摘)

道富恒农业观光园,成立于2006年3月,占地面积80公顷,是以农业资源为基础旨在打造北京西南地区一个标准化农业生态公园,以发展有机农业为起点,生产新、奇、特、优的农业产品。观光园依靠高科技农业,以农业资源为基础,建设节能、循环、高校的都市型生态农业,园内种植无公害有机水果,园区内有机水果采摘园占地面积近40公顷,其品种有樱桃、大杏、李子、西梅、桃、苹果、梨、枣、核桃、葡萄等水果。建筑以现代连栋温室为外观造型,内部划分为多个功能区,发展有机农业,并配有专职解说员及服务人员,园区解决了周边农民就业600多人。

#### (1) 资源类型

农业观光园主营项目有观光采摘、田园风格住宿及餐饮、生态垂钓渔场、原生态民风体验及表演、商务会议与展览展示、休闲度假与乡村娱乐、有机蔬菜及水果种植、绿色养殖、高新农业技术开发推广、购物及服务设施、物流批发等。

园区冬季采摘区占地44.7公顷,拥有327栋日光温室大棚,种植有新品种草莓、特种蔬菜、各种野菜、优质菌类等高新品种,确保游客一年四季都能采摘及品尝到优质的有机水果及蔬菜,并能满足市场供应。娱乐区有多功能游泳馆、ktv客房、老电影回放、篝火晚会、民俗表演及摔跤表演等。设置游客参与项目,如:乒乓球、羽毛球比赛和拔河比赛。另外,设有宠物观赏区,宠物观赏狗、(臧熬、牧羊犬、小布丁、高加索、松狮等)羊、鸡、鸭、鹅等供游客观赏。园内打造占地面积5.3公顷的大型垂钓园,满足游客需求。设有果树及蔬菜认领区,认领品种有李子树、樱桃树、西梅树、苹果树、梨树、杏树、枣树、核桃树、柿子树、山楂树等。建有市民农园,城市居民只要支付一点土地使用费,便可租到一定面积的土地。承租园地后,市民主要依靠自己进行生产活动,如刨土、施肥、购苗选种、种菜(树)、浇水等。此外,园区有不同田园风格的休闲小木屋,500多个停车位,12个饮水处及洗手区和20座公厕,并新修道路10.48公里、采摘支路17公里,道路两侧配有太阳能路

灯及中英文标牌和导游图。

## (2) 农户参与方式

北京富恒生态农业观光园作为当地的龙头企业,建立了北京窦店富恒农产品专业合作社,以引导当地农民自愿加入合作社,种植有机蔬菜瓜果大棚,以供北京富恒生态农业观光园的游客采摘及成品销售,这种形式是对农村合作组织这样新型企业模式的有力尝试。是自2007年7月1日《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正式颁布以来,全国农民专业合作社工商注册的第一家专业合作组织。

观光园区的组织结构采用“企业+农村专业合作组织”的模式,北京富恒生态农业观光园利用自身资源,与农村专业合作组织——北京窦店富恒农产品专业合作社签订统购统销采摘合同,统一使用“富恒”注册商品,形成“公司+商标+农户”的新的产业化经营模式,提高了农民进入市场的组织化程度,观光园区对合作组织中的农户实行统购统销,种植过程严格监控,从种子、肥料、水源等生产源头实行统一进货制度,到农产品成品的采摘和销售均按照公司制度管理,保证农产品质量,增加了农民收入。

### 2.4.4 平谷区大华山镇挂甲峪村(自然资源和民俗文化)

挂甲峪村,位于北京市平谷区大华山镇,距北京城区80公里。全村三面环山,面积5.5平方公里,以其生产绿色、有机果品和风光秀丽、优美,而成为京郊有名的水果之乡和旅游景地。

#### (1) 乡村旅游的内容

规划区位于北京市平谷区北部山区,归属大华山镇管辖,北临西峪水库;南距平谷城区20公里;东与四座楼长城、京东大溶洞和金海湖景区相连;西经大华山、官庄路口直通北京(东直门),主峰老官顶海拔623米,是平谷正北第一高峰。生产用地面积8000亩,开发1500亩梯田,栽种10万株桃树;已修水泥道路总长35km,遍布规划区;属暖温带半湿润季风性气候,常年气温平均在10至20摄氏度之间;全村146户,460人,分两处聚落在海拔180—250米沟谷之间。相传该村于明崇祯年间,因宋代名将杨延昭抗辽凯旋在此挂甲休

息,后人便取村名为挂甲峪。

规划区开发较早,旅游景点包括天河瀑布、乌龟山、六郎挂甲处、五环标志、凤凰树等。旅游接待设施基础设施较为完备,其中住宿设施(木屋、火炕)可提供床位200余个,餐饮设施(旋转餐厅、民俗大食堂)可提供餐位200余个,建有观景台、观景亭,设施完善,修建100多个小水池,小水窖,蓄水10万立方。村内现有天甲高压容器配件有限公司、天甲旅游开发有限公司、挂甲峪农林公司、北京梦圆山野群众体育运动国际交流活动中心有限公司等企业。

挂甲峪村充分利用水、电、路、通讯等基础设施,与遍地果园绿满山的自然生态条件相结合,建成了高标准观光采摘园1500亩和“五瀑十潭两湖”工程,达到农旅结合,果旅互促,农民致富,特别是新民居的建成,为农民实现三产奠定良好的基础,让农民当老板,户户搞旅游;并建成民俗大戏台、民俗大饭厅、旋转式大酒店、多功能体育广场和35栋生态小木屋。在这里,游客可以尽情享受山林的寂静,呼吸新鲜的空气,品尝农家饭菜,体验反璞归真的田园生活。

## (2) 农户参与方式

挂甲峪村将地和树全部收归集体管理,实行农村股份合作制改革,采用公司运营方式。实行农村股份制后,所有权和经营权相分离,挂甲峪村召开股东大会,选举产生董事会和监事会,董事会对股东大会负责,制定村内各项发展规划,聘请专门人才经营管理,完全实行企业化运作。监事会负责监督村集体企业的运营状况、财务状况与分配方案。挂甲峪村的发展决策都要通过董事会讨论,重大事项要经过股东大会决策,村民作为股东,人人都有知情权和话语权,避免了“一言堂”。

同时,村民股东持股并非一成不变,其构成具有鲜明的新农村特色,股份在按村民原有资产(户籍股、地股、树股)分配的基础上,以股代奖,以奖促新,鼓励村民在本村服务就业,具体股份的形式包括劳龄股、户籍股、地股、树股、计划生育股、精神文明股和特殊贡献股。所占比例大致为劳龄股70%,户籍股2%,地树股5%,计划生育股5%,精神文明股5%,特殊贡献股13%。

挂甲峪村把所有村民的资产集合起来交由村集体统一经营管理,成立了天甲旅游公司、天甲工业公司、天甲农林公司、天甲物业公司、天甲建筑公司5个股份公司,并安排村民就业,参与市场竞争,提高了抗风险能力,形成了

规模效益。农民的收入来源主要分4部分：分红、土地租金、工资、民俗接待收入。挂甲峪村集体资产由2001年的1000万元增长到2009年的1.8亿元。2009年,挂甲峪村人均纯收入仍高达22600元,远远高于全市11986元和全区10870元的平均水平。

#### 2.4.5 山西临邑县“红坛寺省级森林公园”（自然资源）

红坛寺森林公园位于鲁北平原,德州地区中部,临邑县林子镇境内,距县城9公里,西距德州市50公里,AA国家级旅游景区。是一处集观光、旅游、餐饮、娱乐、商贸、度假、农业开发为一体的综合性生态农业开发园,是在利用黄河古道湿地历经100年时间相继建成的综合性生态农业观光园。

园区占地面积24027亩,其中林地面积占15000亩。园区内力求充分开发挖掘现有自然景观资源,使人文景观与自然景观有机融合,充分体现碧水、空气、阳光、绿地的主题。整个园区和基地实行开放式管理,游人可以在园内自由观赏、游玩,成为春赏花、夏游园、秋食果、冬踏雪的情趣之地。公园充分利用自然资源,以科学规划建成了功能合理、环境优美、高科技、高效益的生态农业综合开发区,由旅游服务、愉湖游乐、红坛度假、苇海风情、林海揽翠、观光生态园六区组成。

公园内有著名的红坛寺址,也是明朝初期著名的战场遗址。公园主要分为6个景区:旅游服务区;愉湖游乐区;红坛度假区;林海揽翠区;观光生态园区。林地以刺槐为主,占80%,另外还有杨、柳、榆、桐、椿、桑、杜仲、芙蓉等树种。林内有30多种鸟类气息繁衍。地表植被丰富,野花草达70多个品种。林区西部还有历史古迹“凤落堰”。

### 2.5 农村观光的国外游客情况

2008年至2014年,外国人入境旅游年均增长1.21%,达到了2636万人次。目前外国人入境市场保持高位运行和小幅增长。当前,国家正在实施的“一带一路”战略,将为开拓外国人入境旅游市场创造新的平台、新的条件、新的渠道、新的机遇。“一带一路”横贯亚欧非三个大陆,涉及约65个国家,44亿人口,区域经济总量21万亿美元,旅游总量占全球的70%。

2015年中国旅游业统计公报数据显示,入境旅游人数1.34亿人次,2015年1—12月入境外国游客观光休闲824.88万人,实现国际旅游收入1136.5亿美元,分别比上年增长4.1%和7.8%;入境过夜游客人数5688.6万人次,比上年同期增长2.3%。

### 3. 最新动向和政策支持

#### 3.1 政策动向

《中共中央国务院关于加大统筹城乡发展力度进一步夯实农业农村发展基础的若干意见》(中发[2010]1 号)就“努力促进农民创业就业”明确提出:“积极发展休闲农业、乡村旅游、森林旅游和农村服务业,拓展非农就业空间。”2010年,农业部制定《休闲农业发展“十二五”规划》。

2015年底,第一产业就业人数21919万,占比为28.3%;增加值60863亿元,占比为9%。“农业劳动生产率低导致农产品成本高、农民收入低。应该进一步降低比重,但是中国经济发展面临新常态,农民转移就业难度在明显增加。同时,中国农业劳动力转移还面临城乡二元体制、农村集体所有制的影 响。这种情况下,要增加农民劳动力的收入,关键是要提高农业劳动力。发展休闲农业,促进农村三次产业融合,就是增加农业劳动力的必由之路。也是释放后发展地区比较优势的必由之路。在注重农业产品功能的时代,民族地区、边远地区和贫困地区是处在比较劣势的状态。产品成本高、规模小,而且离市区比较远,国家大宗产品的主要政策也重点投向东部地区和粮食主产区。那么,发展休闲农业为主的新产业,以三次产业融合为主的新业态,有可能为重新塑造农业的区域格局带来契机。

##### (1) 《关于积极开发农业多种功能,大力促进休闲农业发展的通知》

2015年农业部会同国家发展改革委、国土资源部、住房城乡建设部等11个部门,联合印发《关于积极开发农业多种功能 大力促进休闲农业发展的通知》明确,国家将在用地、财税、金融、公共服务等方面对休闲农业予以政策支持。

在用地政策方面,《通知》提出,在实行最严格的耕地保护制度的前提下,对农民就业增收带动作用大、发展前景好的休闲农业项目用地,政府要积极予以支持。特别是要支持农民利用闲置宅基地整理结余的建设用地发展“农家乐”,政府要加快制定乡村居民利用自有住宅或者其他条件依法从事旅游经营的管理办法。

在财税支持方面,《通知》要求,要将中央有关乡村建设资金适当向休闲农业集聚区倾斜。鼓励各地加大对休闲农业创业发展和基础设施建设的支持力度。落实税收优惠政策,从事休闲农业的经营主体符合税收优惠条件的,可享受有关税收优惠。

在融资渠道方面,《通知》明确,鼓励担保机构加大对休闲农业的服务力度,搭建银企对接平台,帮助经营主体解决融资难题。银行要加大对休闲农业的信贷支持。探索休闲农业多元化投融资机制,鼓励符合条件的休闲农业企业上市。

在公共服务方面,《通知》强调,要增强线上线下营销能力,加快构建网络营销、网络预订和网上支付等公共服务平台,全面提升行业的信息化水平。强化行业运行监测分析,构建完善的休闲农业监测统计制度。支持建设休闲农业聚集区域的公共交通体系。

## **(2) 2016年《政府工作报告》**

2016年的《政府工作报告》中强调,当前中国发展正处于这样一个关键时期,必须培育壮大新动能,加快发展新经济;要推动新技术、新产业、新业态加快成长,以体制机制创新促进分享经济发展。2016年中央1号文件提出,大力推进农村奔小康,必须充分发挥农村的独特优势,深度挖掘农业的多种功能,培育壮大农村新产业、新业态。“十三五”规划纲要提出,拓展农业多种功能,推进农业与旅游休闲、教育文化、健康养生等深度融合,发展观光农业、体验农业、创业农业等新业态。

## **(3) 《全国农业现代化规划(2016—2020年)》**

《全国农业现代化规划(2016—2020年)》,也再一次对拓展农业的多种功能作出了部署。从补助、鼓励社会资本以市场化原则设立产业投资基金

等方式,对乡村旅游进行投资,对旅游建设提出了要求,发展休闲农业也是提高农业就业密度的必由之路。

#### **(4) 农业部《关于大力发展休闲农业的指导意见》**

2016年,农业部发布《关于大力发展休闲农业的指导意见》,要求贯彻党的十八大和十八届三中、四中、五中全会精神,牢固树立“创新、协调、绿色、开放、共享”的发展理念,紧紧围绕发展现代农业、增加农民收入、建设社会主义新农村三大任务,以促进农民就业增收、满足居民休闲消费需求、建设美丽宜居乡村为目标,以激发消费活力、促进产业升级、实施产业脱贫为着力点,坚持农耕文化为魂,美丽田园为韵,生态农业为基,传统村落为形,创新创造为径,加强统筹规划,强化规范管理,创新工作机制,优化发展政策,加大公共服务,整合项目资源,推进农业与旅游、教育、文化、健康养老等产业深度融合,大力提升休闲农业发展水平,着力将休闲农业产业培育成为繁荣农村、富裕农民的新兴支柱产业,为城乡居民提供望得见山、看得见水、记得住乡愁的高品质休闲旅游体验。

#### **(5) 关于支持旅游业发展用地政策的意见**

2016年,国土资源部、住房和城乡建设部、国家旅游局《关于支持旅游业发展用地政策的意见》中指出,积极保障旅游业发展用地供应,引导乡村旅游规范发展。在符合土地利用总体规划、县域乡村建设规划、乡和村庄规划、风景名胜区规划等相关规划的前提下,农村集体经济组织可以依法使用建设用地自办或以土地使用权入股、联营等方式与其他单位和个人共同举办住宿、餐饮、停车场等旅游接待服务企业。依据各省、自治区、直辖市制定的管理办法,城镇和乡村居民可以利用自有住宅或者其他条件依法从事旅游经营。农村集体经济组织以外的单位和个人,可依法通过承包经营流转的方式,使用农民集体所有的农用地、未利用地,从事与旅游相关的种植业、林业、畜牧业和渔业生产。支持通过开展城乡建设用地增减挂钩试点,优化农村建设用地布局,建设旅游设施。

### **(6) 国务院办公厅《关于进一步促进旅游投资和消费的若干意见》**

2015年,国务院办公厅发布《关于进一步促进旅游投资和消费的若干意见》,意见指出,要实施乡村旅游提升计划,开拓旅游消费空间。坚持乡村旅游个性化、特色化发展方向。立足当地资源特色和生态环境优势,突出乡村生活生产生态特点,深入挖掘乡村文化内涵,开发建设形式多样、特色鲜明、个性突出的乡村旅游产品,举办具有地方特色的节庆活动。注重保护民族村落、古村古镇,建设一批具有历史、地域、民族特点的特色景观旅游村镇,让游客看得见山水、记得住乡愁、留得住乡情。完善休闲农业和乡村旅游配套设施。重点加强休闲农业和乡村旅游特色村的道路、电力、饮水、厕所、停车场、垃圾污水处理设施、信息网络等基础设施和公共服务设施建设,加强相关旅游休闲配套设施建设。开展百万乡村旅游创客行动。通过加强政策引导和专业培训,三年内引导和支持百万名返乡农民工、大学毕业生、专业技术人员等通过开展乡村旅游实现自主创业。鼓励文化界、艺术界、科技界专业人员发挥专业优势和行业影响力,在有条件的乡村进行创作创业。到2017年,全国建设一批乡村旅游创客示范基地,形成一批高水准文化艺术旅游创业乡村。大力推进乡村旅游扶贫。加大对乡村旅游扶贫重点村的规划指导、专业培训、宣传推广力度,组织开展乡村旅游规划扶贫公益活动,对建档立卡贫困村实施整村扶持,2015年抓好560个建档立卡贫困村乡村旅游扶贫试点工作。到2020年,全国每年通过乡村旅游带动200万农村贫困人口脱贫致富;扶持6000个旅游扶贫重点村开展乡村旅游,实现每个重点村乡村旅游年经营收入达到100万元。

### **(7) 关于印发《推进农业电子商务发展行动计划》的通知**

2015年,农业部、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商务部关于印发《推进农业电子商务发展行动计划》的通知,要求积极培育农业电子商务市场主体,着力完善农业电子商务线上线下公共服务体系,大力疏通农业电子商务渠道,切实加大农业电子商务技术创新应用力度,加快完善农业电子商务政策体系。

## **3.2 扶持项目**

2015年农业部办公厅发布《进一步做好休闲农业与乡村旅游宣传推介

工作的通知》,旨在进一步做好休闲农业与乡村旅游宣传推介工作,推动实施休闲农业提升工程。通知提出工作目标,休闲农业与乡村旅游宣传推介工作将结合季节特点和工作重点,在重点节假日前,向社会推介一批休闲农业与乡村旅游精品景点和线路,为城乡居民提供看得见山、望得见水、记得住乡愁的好去处。依托电子商务网站、微信、报纸、杂志等平台,构建稳定的网络、报纸、杂志、广播宣传推介渠道,满足消费者在线购买、线下消费的需求,形成报纸有文章、网络有专题、广播有声音的格局,提升行业经济效益和社会效益,确保宣传效果最大化。通知提到,要充分发挥电子商务平台作用,为消费者提供实时预订、信息搜索等服务,为休闲农业与乡村旅游经营主体提供市场推广和内部管理提升服务,解决消费者寻找休闲场所的困境,弥补休闲农业与乡村旅游经营主体缺乏宣传平台、推广能力和客源的短板。要用好新兴媒体,加大网络宣传力度。充分利用微信、网络、手机客户端等新媒体平台,发挥其受众广、传播快、互动性强的特点,及时向社会发布举办的各类农事节庆、节会、博览会及创意大赛等休闲热点信息,提高传播力影响力和舆论引导能力,引导消费者健康消费。

### 3.2.1 农业部向社会推介国庆小长假休闲农业和乡村旅游精品景点和线路

为打造休闲农业新亮点、引领休闲消费新方式,培育农村经济发展新动能,2016年,根据季节特点和节假日时点分布,农业部围绕“春节到农家过大年”“早春到乡村去踏青”“初夏到农村品美食”三个主题,已向社会发布了休闲农业和乡村旅游精品景点1502个,精品线路528条,极大地满足了城镇居民的休闲消费需求,方便出行信息查询,目前已吸引2亿游客到乡村休闲消费。为方便城乡居民体验农耕乐趣、品味农业情调、享受田园生活、感知民俗风情,农业部在各地上报、省级遴选、专家审核的基础上,向社会推介一批以“仲秋到田间去采摘”为主题的休闲农业和乡村旅游精品景点线路,包括150个中国美丽休闲乡村、62个中国重要农业文化遗产、530个精品景点和240条精品线路,并通过网站、微信、报纸、杂志等广泛宣传推介,引导城乡居民根据需要进行选择,乐享吃、住、行、游、购、学、观、教、娱的高品质休闲体验。

推介的150个乡村是2016年新认定的中国美丽休闲乡村,包括特色民居

村、特色民俗村、现代新村、历史古村等。这些村天蓝、地绿、水净,农耕文化底蕴厚重,民俗文化多彩多样,传统民居特色明显,休闲服务设施健全,是城乡居民观光旅游、休闲度假、养生养老、回忆乡愁的好去处。

推介的62个中国重要农业文化遗产具有悠久的历史渊源,优质的农业产品,丰富的生物资源,独特的村落景观,淳朴的民俗风尚,是经济与生态价值高度统一的传统农业生产系统,在千岭万壑中鳞次栉比的梯田、烟波浩渺的古茶庄园、波光粼粼和谐共生的稻鱼系统、广袤无垠的草原游牧部落之中,孕育着自然美、生态美、人文美、和谐美。

### 3.2.2 京津冀共建休闲农业“廊道”

根据京津冀三地政府有关部门2016年11月3日在河北廊坊市签署的京津冀休闲农业协同发展框架协议,三地将在统筹规划休闲农业建设、统一京津冀休闲农业标准体系、共同打造休闲农业精品旅游线路、建立京津冀休闲农业公众服务平台,以及相关人才培养等方面展开合作。

根据协议,三地将统筹规划,通过合理布局、差异互补、突出特色,提升休闲农业整体水平,在经济、生态、共享等方面实现多赢;加强三地休闲农业企业(园区)、休闲农庄、农(渔)家乐等经营主体的建设、服务、管理标准衔接,规范竞争行为,营造公平环境;将京津冀三地农业和农村的特色资源、特色文化、特色品牌、特色活动等进行深度挖掘和合理开发,共同打造风格各异、主题突出的休闲农业精品游览线路,构建京津冀休闲农业“廊道”。

京津冀三地农业部门还将大力推进“互联网+休闲农业”,构建京津冀休闲农业信息平台,共同举办各类推介会、博览会、农事节庆活动、创意大赛等活动,打造京津冀休闲农业区域品牌。

### 3.2.3 大力扶持休闲农业互联网+

扶持研究推广“互联网+”典型模式。研究总结各地推进“互联网+”农产品加工业和休闲农业的好做法和好经验,示范推广一批“互联网+”农产品加工业和休闲农业好模式,鼓励和支持地方、行业组织、企业举办“互联网+”农产品加工业和休闲农业研讨会、论坛,研究“互联网+”农产品

加工业和休闲农业发展过程中遇到的困难和问题。

**(一) 积极培育农业电子商务市场主体。**围绕提升新型农业经营主体电子商务应用能力、支持农产品和农业生产资料网络营销、推进农业生产性服务线上交流与交易、壮大农业电子商务企业的发展目标,培育农业电子商务市场主体,推动形成各类市场主体竞相发展农业电子商务的新格局。

专项行动1——能力提升行动:积极参与国家电子商务专业技术人才知识更新工程,开展新型农业经营主体培训。充分利用新型职业农民教育、农村实用人才培养等项目,重点组织专业大户、家庭农场、农民合作社等新型农业经营主体和农业企业负责人,联合有关教育培训机构、电子商务企业,开展电子商务平台使用、农产品和农业生产资料网上经营策略和技巧培训,有计划培养一批有理论和实践能力的农业电子商务人才,切实提高新型农业经营主体电子商务应用能力。

专项行动2——平台对接行动:充分发挥农业、商务部门牵线搭桥的作用,积极组织、引导电商企业,加强农业电子商务业务建设。依托各类会展平台和论坛,组织专业大户、家庭农场、农民合作社等新型农业经营主体、农产品经销商、国有农场和农业企业等,开展形式多样的交流活动,对接各类涉农电子商务平台和电子商务信息公共服务平台,有效衔接供需信息,促进农产品和农业生产资料实现网上销售。

专项行动3——电商拓展行动:加强政策和信息引导,鼓励综合型电子商务企业拓展农业电子商务业务,扶持垂直型农业电子商务企业发展壮大,推动电子商务企业适当降低农业电子商务门槛,引导有条件的传统农产品流通企业和农业生产资料生产经销企业发展电子商务。

**(二) 着力完善农业电子商务线上线下公共服务体系。**探索农产品和农业生产资料线上与线下协同发展模式,完善农产品监测预警、质量标准和追溯体系,推动农业电子商务相关数据信息开放共享,实现农业全产业链数据互联互通,完善农业电子商务线上线下公共服务体系,为农业电子商务提供公共服务支撑。

专项行动4——网络集货行动:构建农产品网络集货平台,依托农产品

产地市场,完善电子商务平台集货对接功能,引导在集货过程中实现标准化、规模化,提高重复性购买产品的一致性。

专项行动5——产品推介行动:完善农产品展示推介平台,在继续做好农产品营销促销工作的同时,集中打造网上展示大厅,推动“名特优新”“三品一标”“一村一品”农产品上网营销,加强宣传推介,提高农产品网络销售的公信力、信誉度和美誉度。

专项行动6——信息共享行动:健全农产品市场信息监测预警体系,强化农产品产销动态监测统计,拓展信息获取渠道,加强农产品市场信息预警分析,及时全面准确发布农产品生产、消费、贸易、库存、成本收益、价格及未来趋势等市场信息,加大农产品质量安全信息发布公开力度,推动涉农数据信息开放共享。

专项行动7——质量监管行动:完善农产品质量标准和质量安全追溯体系,加快农产品质量、包装标准制修订进程,健全“名特优新”“三品一标”“一村一品”等电子商务基础数据库,健全国家农产品质量安全追溯管理信息系统,推进农药、兽药、肥料等农业投入品追溯系统建设,探索与涉农电子商务企业建立数据共享机制,实现质量可追溯、责任可追查。

专项行动8——运行保障行动:建立农业生产经营全产业链电子商务公共服务平台,在各行业各领域大力推进电子商务发展基础上,实现种植、畜牧、水产以及种子、化肥、农药、兽药、饲料、农机等电子商务信息共享和互联互通,为农业电子商务协同快速发展提供公共服务。健全诚信体系,整合银行、税务、工商、质检、商务等领域和电子商务相关主体的信用信息,推行信用档案制度,净化市场环境,提高农业电子商务信任度。

**(三) 大力疏通农业电子商务渠道。**加强与相关部门的沟通协调、形成合力,加快推动网络、物流、冷链、仓储等基础设施建设,鼓励相关经营主体开展技术、机制、模式创新,深入推进信息进村入户,开展电子商务进农村综合示范,为全面发展农业电子商务创造良好条件、提供经验。

专项行动9——渠道延伸行动:深入推进信息进村入户试点,加强部省12316三农综合信息服务体系建设,加快村级信息服务站建设,支持开展电子商务业务,为农民提供信息咨询、代卖代购等服务。加快完善农村物流体系

布局,实施快递“向西”“向下”工程,推动农村综合服务社、超市、邮政“三农”服务站、村邮站、快递网点等基层农村物流节点建设,鼓励物流快递企业向乡、村延伸业务。

专项行动10——市场转型行动:指导支持农产品电子商务企业有效衔接农产品品种、产量、产地、收获时期等生产者信息,促进农产品网络销售。鼓励产地和销地农产品批发市场开展信息技术、经营方式、服务模式等创新,充分发挥线上与线下相结合的优势,推动批发市场创新发展农产品电子商务。促进农产品批发市场流通基础设施、质量检测设备、产品流通渠道等应用于农产品电子商务。

专项行动11——模式创新行动:推动电子商务企业、国有农场、农民合作社与城市社区开展合作,共同设立农产品体验店、自提点和提货柜,试点“基地+城市社区”的鲜活农产品直配模式。推动销地批发市场发挥优势,支撑电子商务发展,探索满足城市日常消费的“批发市场+宅配”模式。鼓励种子、农药、化肥等农业生产资料企业,依托各地村级信息服务站探索“放心农资进农家”模式。配合相关部门支持电子商务企业建立海外营销渠道,创立自有品牌,推动跨境农业电子商务发展。

专项行动12——基础支撑行动:加快农村宽带基础设施建设,扩大第四代移动通信网络在农村的覆盖面。支持农业生产基地加强规模化、标准化、智能化和质量追溯能力建设。鼓励有条件的地方建设农业电子商务产业基地、物流园、创业园。支持电子商务市场主体在农村和城市建设仓储、冷链、分级包装、智能配货等设施设备,改善农业电子商务发展的基础条件。

**(四) 切实加大农业电子商务技术创新应用力度。**按照“需求牵引、重点跨越、支撑发展、引领未来”的原则,开展农业电子商务发展战略研究,突破核心关键技术,制定完善相关标准、法规,大力推广先进实用信息化技术在流通等领域的应用,全面提升农业电子商务技术创新应用能力。

专项行动13——技术创新行动:加强农业电子商务核心关键技术研发,着力在核心芯片、射频识别、智能终端、系统集成、网络与信息安全以及大数据处理、应用软件等共性和关键技术研发应用上取得突破,加大自主知识产权保护力度,加快建立以企业为主体、市场为导向、产学研用相结合的技

术创新体系。

专项行动14——示范推广行动：积极参与国家电子商务示范城市建设。继续开展两年一次的农业农村信息化示范基地申报认定工作,并向农业电子商务倾斜,引导各类新型农业经营主体入驻电商平台,树立农业电子商务企业典型。支持移动互联网、云计算、大数据、物联网等新一代信息技术在农业电子商务全链条中的示范应用。鼓励金融机构、非银行支付机构为农业电子商务企业、物流企业及相关用户提供安全、高效的支付服务,在农村地区推广网上支付、手机支付等支付方式。推进农产品批发市场电子商务技术应用,加快推进农产品电子结算、电子交易、电子拍卖、电子商务应用,提高流通效率和信息公开程度。

专项行动15——标准推进行动：鼓励支持电子商务企业制定适应电子商务的农产品产品质量、分等分级、产品包装、物流配送、业务规范等标准,鼓励支持快递企业制定适应农业电子商务产品寄递需求的定制化包装、专业化服务等标准。加快农产品、农业生产资料产品质量国家、行业标准和生产技术规程制修订进程,加快国家农业标准化示范县建设,引导各类电子商务主体共同建立农产品标准化生产示范基地。同时研究制定农业电子商务技术标准和业务规范。

专项行动16——政策研究行动：依托各有关直属单位,与有关科研和教学单位、企业合作开展发展战略研究,追踪热点问题,提出政策建议,编制农业电子商务发展年度报告。鼓励各级发展改革、农业、商务部门会同有关部门组织相关科研、教学单位和企业联合开展农业电子商务重大问题研究,为规划制定和政策措施出台提供决策参考。加快建立以企业为主体、市场为导向、产学研用相结合的技术创新体系,推动农业电子商务相关技术中心、工程中心、重点实验室建设。

专项行动17——智库应用行动：在每年中国电子商务创新发展峰会和农业信息化高峰论坛期间组织举办农业电子商务分论坛,支持地方、行业组织、企业举办论坛、研讨会,总结交流各地推进农业电子商务发展的好做法、好经验、好模式,研究农业电子商务发展过程中遇到的困难和问题,引导农业电子商务快速健康发展。

(五) 加快完善农业电子商务政策体系。按照“政府引导,市场主体”的原则,强化顶层设计和政策创设,配合有关部门优化农业电子商务相关审批事项和流程,推动落实支持农业电子商务发展扶持政策,充分发挥市场在资源配置中的决定性作用,为农业电子商务发展提供良好政策环境。

专项行动18——政策支撑行动:联合相关部门,大力加强农业电子商务政策创新,推动出台并落实支持农业电子商务发展的用地、用水、用电、用网等政策,建立健全适应电子商务发展的多元化、多渠道投融资机制。配合相关部门全面清理农业电子商务领域现有前置审批事项,无法律法规依据的一律取消,严禁违法设定行政许可、增加行政许可条件和程序。

专项行动19——硬件支撑行动:针对农产品流通的特殊性,积极争取各级政府对田头集货、产地预冷、冷藏保鲜、分级包装、冷链物流、运输车辆、集散仓储、城市配送设施等方面建设给予扶持,按照相关规定,对符合条件的纳入农机购置补贴、农产品产地初加工补助项目等支持范围。鼓励保险公司开展鲜活农产品配送质量保险试点。

专项行动20——运营支撑行动:积极推动成立农业电子商务标准化技术专业委员会、协会。组织相关科研和教学单位、企业开展农业电子商务核心和关键技术研发。经认定为高新技术企业的农业电子商务企业依法享受相关优惠政策。推进信息进村入户,积极争取农村信息服务站建设、信息员培训,以及政府购买公益服务支持。鼓励新型农业经营主体应用电子商务平台开展农产品上线营销、市场推广,指导新型职业农民、大学生村官、返乡农民工、农村经纪人、农村信息员等依托电子商务创业。

## 4. 观光农业发展存在的问题及进一步思考

### 4.1 存在的问题

由于中国的休闲观光农业起步较晚,目前还存在以下不足,有待今后加强、完善和提高:一是缺乏科学规划。现有的休闲观光农业基本上处于乡村和工商业主自发状态,风格雷同,缺少各自的独特创意。二是品位档次不高。经营规模偏小,项目内容单调,赋予特色的为数不多,影响了经济效益的

提高。三是管理服务不够规范。管理人员绝大多数是原来的生产、加工、营销的人员,服务人员基本上向社会招收,缺乏管理经验,整体素质较低。四是政策扶持力度不大,要素瓶颈制约影响了休闲观光农业的发展。

#### 4.1.1 缺少整体规划和科学认证,模式单一

目前,大多数地方市级及区县级都没有制定观光农业的总体规划,也没有明确的管理机构和管理办法,观光农业的发展基本上还是以乡村和企业自主开发为主,布局不尽合理。虽然有些地区的建设、农林、水利和旅游部门都制定了一些相应的标准来评定景区景点的等级,实施着各自相应的管理办法,但这样又往往形成了多头管理,几个部门都各自做规划,缺乏宏观控制和指导,加上投资者自身缺乏发展规划能力,导致投资决策的明显随意性和开发的盲目性。

中国观光农园的数量很大但规模都比较小,根据国外的经验,农业观光区在半径为29.5 km 区域才可以发挥最大的经济效益,而中国的大多数农业观光区的半径都低于这个数字。观光农业的开发必须依赖于区域自然景观和农业资源,应该具有鲜明的地域特色和文化特色。很多投资者缺乏制定周密的发展规划和市场调研,设置旅游景点往往不相协调,多数重复、雷同,缺乏特色。森林公园、观光果园的建设类型重复多,而且旅游活动内容也仅限于观光、采摘水果等活动内容。

#### 4.1.2 旅游设施落后,管理不规范

观光农业景点大都位于经济水平相对较低的郊区或农村,娱乐设施简单以及娱乐、购物、餐饮等旅游设施配套不足,活动单调,游而不乐。景区基础设施在数量和档次上都满足不了游客食、住、行、游、购、娱等多方面的需要。接待设施中最为突出的问题是卫生状况,观光旅游地往往由于卫生条件不能满足旅游者的要求,而留不住旅游者,严重影响了旅游者在此地的逗留时间。可进入性差则是另一个突出的问题,很多地区,尤其是贫困山区,虽有优质的资源条件,但旅游者进不来,交通条件十分困难,从而严重制约了当地旅游活动的开展。

当前的观光农业由于总体规模较小,没有形成独立的完整的产业体系,因此管理相当不规范。经营者乐意在主体建筑上花钱,而不愿在治理、美化环境方面下功夫;乐意在量上投入,而不愿意在经营特色、服务质量上花钱。主张少投入,多产出;采购质劣价低的菜品欺骗顾客,甚至克扣斤两;目光短浅的井底意识还表现在不愿走出本地去做比较,学习别人的先进管理经验的要求不强烈;单兵独战的多,团结协作、致力于树立景区形象的意识不强。

#### 4.1.3 季节性强,服务水平相对较低

目前,中国大部分地区的观光农业主要处于观光阶段,而农业景观、农产品都具有很强的季节性,这样造成了淡旺季节严重失衡,往往是旺季车水马龙,淡季门庭冷落,造成了资源的浪费。另外,由于气温和气候的缘故,春季和秋季是观光农园的黄金旺季,一般情况下每天可以接待几千人,但是,夏季和冬季的情况就不是很好,有的时候甚至只及旺季的1/3。

#### 4.1.4 缺乏政府有关部门的正确引导

观光农业在中国可以说是一个新兴产业,对于这一产业,目前还没有专门的政策体系和扶持手段。正是如此,许多地方并不是发展真正意义上的观光农业,而是靠门票却不是靠农产品和旅游服务实现效益。观光农业大多依附于具有公共物品属性的自然资源基础上而发展的,它的非排他性和非竞争性决定了某些人在不付费的情况下可以获得消费而不会影响其他人消费。在此情况下,极易产生“搭便车”行为,导致“公地悲剧”发生。随着中国城镇化进程的加快,农村土地不断受到圈占和拆迁流失,农田自然风光不断遭受吞噬和破坏,使观光农业所依托的农业自然资源和文化逐步丧失。《2014年国家统计摘要》显示,随着中国城市化建设速度的加快,过去15年中国共消失近90万个自然村,平均每天消失近百个村庄。中国农村拥有悠久的历史,是历史文化遗产的重要载体,正不经意地遭受城镇化建设的肆意破坏,这不仅仅是农村自然风貌和文化遗址的失去,更为重要的是乡村美丽风景和文化魅力的消失。

## 4.2 进一步思考

### 4.2.1 因地制宜，科学规划

发展休闲观光农业要从长计议、系统筹划,科学制定发展规划。由于各地环境不同,地理因素差异,产业特色有别。因此,在编制规划时,要按照“因地制宜、突出特色、合理布局、和谐发展”和“合理开发、永续利用、保护耕地”的要求,注重区域定位、功能定位、形态定位,避免雷同、重复建设,克服盲目追求高档,贪大求洋,甚至“毁农造景”的现象。做到有序发展、相对集中、规模开发。休闲观光农业规划要与土地利用总体规划、农业发展规划、城市旅游规划、新农村建设规划相互衔接,确保规划的整体性、前瞻性和延续性。充分利用田园景观、村居民舍、乡土风情、农耕民族文化等资源,将农业生产、生活、生态协调融合,使特色农业得到展示,旅游项目得到发挥,环境保护得到加强,实现人与自然的和谐发展。

### 4.2.2 注重特色，农旅结合

发展休闲观光农业必须要坚持以农业为基础,农民为主体,农村为特色,把农业产业发展、增加农民收入放在首位。项目建设要突出农味,吃农家饭、住农家屋,干农家活、享农家乐,拓展设施栽培、生态养殖、立体种养、种养加一体化等高效生态农业模式的功能,达到游客求变、求异、求新、求特、求美的消费心理。休闲观光农业既是“三农”的延伸,又是旅游业空间的拓展。在强调以农为本的同时,也要重视兴旅,灵活运用“农中有旅,以旅强农、农旅结合,强农兴旅”,突出休闲性,增强参与性,体现娱乐性,满足不同消费人群,使游客真实体验到地道的农家之乐。浙江温岭市气候宜人、交通便捷、旅游资源丰富、产业优势突出,其利用自身优势不断拓展农业多种功能推动了休闲观光农业大力发展。

### 4.2.3 加强管理，规范发展

发展休闲观光农业,服务是核心,安全是保证,因此必须规范内部管理,提高服务质量,确保游客身体健康、生命安全。要制订行业管理标准和服务

管理办法,做到有标可查、有章可循,构建完善的质量安全管理体系。结合农村劳动素质培训,对从业人员加强农艺知识、菜肴烹饪、食品卫生、安全生产、诚信意识、森林防火等方面的培训,提高其综合素质和服务水准。积极培育和组建休闲观光农业的行业协会、专业合作社等中介服务组织,增强行业自我服务、自我管理、自我约束、自我发展。业务主管部门要经常性地开展检查、指导,实行有效的监督管理,及时化解风险,帮助解决困难,真正打造一批特色突出、经营规范、服务周到、安全卫生,深受游客欢迎的休闲观光农业项目。

#### 4.2.4 优化环境, 联动协作

休闲观光农业是时代发展和社会进步的产物,也是一项系统性极强的工程,需要各级各部门的协调配合、联动协作。财政部门要安排专项资金,列入年度预算,重点扶持特色明显、运行规范、前景广阔的休闲观光农业项目,同时要鼓励引导工商资本、民营资本和外来资本投资开发,建立起“政府扶持、业主为主、社会参与”的投入机制。金融部门要优化信贷结构,把休闲观光农业建设纳入支农重点,适当放宽担保抵押条件,简化审批手续,并给予贷款利率和时间上的优惠。农业部门积极创新土地流转机制,按照“自愿、依法、有偿”的原则,采取转让、出租、互换、入股等形式,推进土地规模经营。国土部门要鼓励开发废弃园地、林地、荒山等,盘活存量土地,对休闲观光农业管理配套设施用地实行用地倾斜,其他有关部门都要按照各自的职能,为休闲观光农业发展保驾护航。

#### 4.2.5 加强领导, 强化宣传

发展休闲观光农业是落实科学发展观,走创业创新之路的有效举措,是发展现代农业,建设社会主义新农村的客观要求,也是促进农业增效、农民增收、农村发展的有效途径。各级各部门一定要统一思想,形成共识,创新思路,精心组织,狠抓落实,进一步加强对休闲观光农业的领导。同时,要加大宣传力度,扩大影响,提高知名度。通过各种新闻媒体,及时报道先进典型,发挥舆论导向作用,营造休闲观光农业发展氛围。通过举办或参与各种节

庆、节会等活动,搭建平台、设立窗口,展示休闲观光农业风采,扩大市场占有率。通过项目策划包装,打造精品亮点,实施品牌战略,推进休闲观光农业有序、快速、持续、健康发展。

#### 4.2.6 观光农业要走可持续发展之路

观光农业的基础是农业内部功能的良性循环和生态的合理性。因此,观光农业的发展要切实保证旅游与生态农业的协调。观光农业的“农业”内涵,应定位于旅游与生态农业相协调所体现的地域特点,即地域生态农业特色和地域农业文化特色。因而对植根于符合自然生态的生态农业和传统农村民俗文化必须加以保护并得到充分体现,开发时应选择生态效益型道路。

(1) 必须立足现有基础进行开发,严格控制滥用耕地。(2) 必须因地制宜,突出个性和特色。(3) 避免对环境和景观的破坏,如在旅游景点内设立不当的建筑等。(4) 控制“农业观光园”周边的工业以及城市化等对景点的不利影响。(5) 适当控制进入农业观光园的人数,以保护园内的生态环境质量。只有符合可持续发展战略,才可能体现出观光农业自然、传统、休闲、绿色的特点,获得农业、旅游、教育、生态、综合“五效益”,达到发展观光农业的目的。